

清溪幽香

晦堂 卞龍圭

春崗 卞鍾憲 三代漢詩選

愚井 卞 濬

李弘湜 譯註 / 鄭珉 監修

清溪幽香

晦堂 卞龍圭

春崗 卞鍾憲 三代漢詩選

愚井 卞 濬

李弘湜 譯註 / 鄭珉 監修

보고사



5481345

發刊辭

백두대간이 聞慶 땅으로 내딛다가 문득 솟구쳐 오른 조령산과 회양산, 그리고 문경의 진산인 주흘산에서 발원한 물줄기들이 모여 潁江을 이루면서 낙동강의 본류를 향해 남으로 흘러내리다가 평안한 들을 만나 강폭이 넓어지고 흐름이 한가해지는 곳, 문경시 산양면. 이곳이 詩人들의 고향이고 이 책에 실린 詩들의 무대입니다.

草溪 卞氏 16대손인 諱 李欽 府君께서 15세기 말 이곳 潁江가 盤岩 위에 至樂軒, 曠遠臺, 澄波樓를 건립하고 入鄉祖가 되신 이후 500년이 흐른 뒤, 그 25代孫 晦堂 卞龍圭, 26代孫 春崗 卞鍾憲, 27代孫 愚井 卞濬 세분의 父祖께서 산양 땅에 世居하시면서 詩를 지으셨습니다. 어쩌면 그분들께서는 스스로 詩人이라는 생각도, 시를 짓는다는 인식도 없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남긴 것이 詩文으로 남게 되었고, 이제 그 글들 중의 일부를 4대째인 제가 이렇게 책으로 엮어 내게 되었습니다.

글 하는 집안의 長孫으로 태어나 詩를 짓지 못한다는 것, 그 사실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어쩌면 詩의 代가 끊어지게 되자 적어도 후손에게 이어줄 고리라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책을 내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後孫된 道理로서 말한다면 이렇게 책을 내드리는 것보다는 마땅히 저 역시 代를 이어 詩를 지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이 책을 낸 것은 奉祖, 孝悌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함만이 아니라, 제가 시를 짓지 못하니 저로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父祖께 바치는 것이면서도 아울러 後代에게 내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책을 내면서는 많은 걱정과 죄스러운 마음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영인본으로 발간해 두기는 하였습니다만, 그 많은 시를 포함한 저작물들 중의 일부만을 이렇게 번역본으로 낸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번역하고 감수해 주신 분들께는 참으로 감사드리지만 한편으로는 詩人들의 詩와 그 속에 담겨진 뜻과 가르침이 제대로 옮겨졌는지에 대한 두려움도 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책을 기획 출판하는 과정에서 여러 後孫들의 뜻을 고루 받들지 못한 것도 송구스럽습니다.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손을 모으고 가장 감사드려야 할 분은 이 책에 실린 詩들을 지어주신 父祖님들입니다. 이제 나 이 제법 들어 세삼 느끼게 되었습니다만, 저희 後孫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서 또한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해 주신 것, 그리고 이렇게 翻譯書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참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책의 翻譯과 監修를 맡아 주신 한양대학교 국문학과와 정민 교수님과 이용식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께 이 일을 해 주심사 한 것은 어찌면

저의 욕심이었습니다만, 흔쾌히 감당하여 주신 것이 정말 고맙습니다. 題字를 써 주신 진영근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이 책의 出版을 맡아서 만족스럽게 마무리 해 주신 도서출판 보고사의 김홍국 사장님과 이정민 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 책 출판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하면서 걱정과 조언,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제 평생의 스승, 박노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삼가 이 책을 올립니다.

2011. 6. 20.

용인시 원삼면 晴園齋에서

卞東杰 拜

序 文

이 책은 회당(晦堂) 변용규(卞龍圭, 1878-1951) 선생과 춘강(春崗) 변종헌(卞鍾憲, 1902-1948) 선생, 그리고 우정(愚井) 변준(卞濬, 1926-현재) 선생 삼대의 시집이다. 조선 성종 때 변문(卞門)이 문경(聞慶) 산양(山陽) 땅에 자리 잡은 이래로 어언 5백 년, 그 유향(遺響)과 여서(餘緒)가 이제껏 오롯하여 그 분육(芬郁)을 세상에 끼치니, 참으로 귀하고 자랑스런 일이다.

양대(兩代)에 걸친 시집이야 더러 본 적이 있으되, 3대의 시작(詩作)을 한 자리에 모아 책으로 간행한 성사(盛事)는 앞은 물론 이후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이로써 산천의 빼어난 정기와 가문의 혁혁한 유서(遺緒)가 각별함을 세삼 깊이 새기게 된다.

혹자는 한시의 명맥이 이미 끊어졌다고 하고, 한시 창작을 호고벽(好古癖)을 놓지 못한 골동 취미로 여기는 경향마저 없지 아니하다. 이제 이 시집을 보니 하나하나의 작품 속에 한 집안의 흘러내려온 내력뿐 아니라, 그 시대가 비치고 그 사람이 어리며, 가고 없는 이의 정서가 메아리쳐서, 그것이 죽은 양식이 아니요, 맥맥히 살아 있는 눈앞의 역사인 줄을 알겠다.

책에 실은 작품은 세 분이 남긴 수백 수 한시 가운데서 정금미옥(精金美玉)만을 추린 것이다. 문집에 실리고도 이 책에서 빠진 작품에 대해서는 유주지탄(遺珠之歎)을 어이 금하겠는가? 회당, 춘강 양대의 시집은 제자인 이홍식 군이 번역을 맡았고, 글쓴이의 감수를 거쳐 이번엔 문세(問世)케 되었다. 우정 공의 시집은 시인 자신이 8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손수 번역하는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로써 3대의 문향(文香)이 나란히 세상에 퍼지게 되니, 좁게는 변문의 더없는 경사요, 문경 사림(士林)의 영예며, 사문(斯文)의 여맥(餘脈)이 아직 건재한 증표로 보아 다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바이다.

책의 간행은 우정 공의 영운(令胤) 되시는 변동걸(卞東杰)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의 간성(懇誠)과 진지(眞摯)에 힘입었다. 그 과정을 함께 하면서 한 집안의 가풍(家風)과 법도를 지켜보는 기쁨이 컸다. 혹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나 잘못이 없지 않을 것이다. 감수자의 허물로 여겨 해량(海諒)해 주시기를 청한다.

사람은 가도 글은 남는다. 이제 이 책이 한자를 모르는 세대에게도 널리 읽혀, 한 집안의 아름다운 가학(家學)의 증언이 되고, 박속(薄俗)을 돌아보는 계기로 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아! 아름답다.

2011년 6월 20일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 정민은 감수자로서 외람됨을 무릅쓰고
삼가 쓴다.

凡 例

1. 草溪 卞氏의 貫鄉을 草溪와 더불어 淸溪로 쓰는 예도 있고 著者인 春崗 先生께서 淸溪世稿를 간행한 바도 있어서 이 책의 題號를 淸溪幽香이라 하였습니다.
2. 이 책의 제1권에는 晦堂 卞龍圭 선생의 한시 141首를, 제2권에는 春崗 卞鍾憲 선생의 한시 162首를, 제3권에는 愚井 卞濬 선생의 한시 216首를 수록하였습니다.
3. 晦堂 卞龍圭 先生, 春崗 卞鍾憲 先生, 愚井 卞濬 先生 略歷은 각 권 첫머리에 소개하였습니다.
4. 제1권과 제2권의 번역은 李弘湜 先生이 담당하였고, 제3권은 저자인 愚井 先生이 직접 번역하였습니다.
5. 제1권과 제2권의 註釋은 주로 李弘湜 先生이 붙였고, 그 중 일부와 제3권의 註釋은 愚井 先生의 子인 卞東杰이 담당하였습니다.

監修 — 鄭珉 教授

翻譯 — 李弘湜 教授・卞濬 先生

註釋 — 李弘湜 教授・卞東杰 先生

題字 — 陳永根 先生

目次

發刊辭 / 5

序文 / 9

凡例 / 11

第一卷 居閒偶吟

001	濂溪太極圖 엄계의 태극도	39
002	東軒偶吟 동헌에서 우연히 짓다	39
003	冬至吟 동짓날에 읊조리다	40
004	雨後登山 비온 뒤에 산에 오르다	40
005	東軒對月 동헌에서 달을 마주하다	40
006	豐基鳳獻金丈孟度氏來枉 留宿數日 作詩以寄 풍기의 봉헌 김맹도 어른이 내왕하여 며칠을 머물고는 시를 지어 보내왔다	41
007	漢江 한강	42
008	睡起東軒 동헌에서 잠을 깨다	42
009	閒居見鳥偶吟 한가롭게 지내다가 새를 보고 우연히 읊조리다	42
010	居閒偶吟 한가롭게 지내다가 우연히 읊조리다	43
011	山中偶書 산 속에서 우연히 쓰다	43
012	登杜武有感 두무에 올라 느낌이 있어서	44
013	霽後遠望 비건 뒤에 멀리 보며	44

014	有懷 생각이 나서	45
015	登鳳樓山 봉서산에 오르다	45
016	余以微恙服藥 留寧靜庵 내가 몸이 아파 약을 먹으며 영정암에 머물렀다	46
017	登庵後峯 암자 뒤 봉우리에 오르다	46
018	曉起 새벽에 일어나서	47
019	折路傍花 길 가의 꽃을 꺾다	47
020	卽事 즉흥으로	48
021	又 또 짓다	48
022	二月晦日雨雪 이월 그믐에 눈이 내리다	49
023	山居偶吟 산에 살다 우연히 읊조리다	49
024	窓竹 창밖 대나무	50
025	閒居遣懷 한가롭게 지내면서 회포를 달래다	51
026	次寒食韻 한식 시에 차운하다	51
027	與草溪宗人德初景賢 到栢谷先齋 共吟 초계 사는 집안 사람 덕초와 정현과 함께 백곡의 선재에 가서 함께 짓다	52
028	過弄清臺 농청대를 지나며	53
029	山行 산행	54
030	道南講會韻 도남서원 강회	54
031	與草溪宗人 又吟于栢谷先齋 초계 종인과 함께 또 백곡의 선재에서 읊다	55
032	曉鷄 새벽 닭	56
033	吟碁 바둑을 노래하다	57
034	丁巳春 與李元人會于龍溪塾 連日相歡 走筆成韻 정사년 봄에 이원과 함께 용계서숙에 입회하여 연일 서로 기뻐하며 붓을 달려 시를 지었다	58

035	遣懷 회포를 달래다	60
036	霽後卽事 비 갠 뒤에 짓다	61
037	乙卯秋七月 龍溪松竹兩接會于潁江 을묘년 가을 7월 영강에서 용계와 송죽 두 시사(詩社)가 회동하다	62
038	戚叔高澗松丈彥經臨枉溪齋 共宿 척숙인 간송 고언경 어른이 계재에 오셔서 함께 묵었다	62
039	陪澗松戚叔 往余敬夫松亭 간송 척숙을 모시고 여경부의 송정에 가다	63
040	梅 매화	64
041	居家偶吟 六言 집에 있다 우연히 읊조리다 육언	64
042	代松菊嘲梅蘭 소나무와 국화를 대신하여 매화와 난초를 비웃다	65
043	秋柳 가을 버들	66
044	秋日 與權丈石汀 高丈秋堂 高戚叔澗松丈 族人西溪 共賦 가을 날 권석정 어른, 고추당 어른, 척숙 고간송 어른, 족인 서계와 함께 시를 짓다	67
045	壬申十一月十五日 親忌定齋日也 哀感不已 吟一絶 임신년 11월 15일은 아버님 기일이다. 슬픈 감정이 그치지 않아 절구 한 수를 읊었다	68
046	偶吟 우연히 읊조리다	69
047	李兄澗翠訪余于先齋 이간취 형이 선재로 나를 방문하였다	69
048	歸家卽事 乙丑四月二十日 집에 돌아와서 즉흥으로 을축년 4월 20일	70
049	曉起 새벽에 일어나서	71
050	溪行 계곡을 걷다	71
051	山行 산행	72
052	大風 큰 바람	73

053	李澗翠兄適至 余方觀退溪集詩卷 이간취 형이 마침 왔을 때 나는 퇴계 이황의 시집을 보고 있었다	73
054	散步歸飲 산보하다 돌아와 술을 마시다	74
055	栢谷八景 백곡 팔경	75
056	田家老翁 시골집 늙은이	78
057	穎隈小會 癸酉三月三日 영수(穎水) 물굽이에서의 작은 모임 계유년 3월 3일	78
058	戊辰七月既望 金海庵來臨龍溪書塾 與諸益共話 무진년 7월 16일에 김해암이 용계서숙에 왔기에 여러 벗과 함께 이야기하였다	79
059	比安族人弘默顯純彰燮來訪 共話 비안(比安) 사는 집안 사람 변홍묵, 변현순, 변창섭이 찾아와서 함께 이야기하였다	80
060	又 다시 짓다	81
061	再翌日 與比安諸益 更會于龍溪書塾 다음날 비안의 여러 벗들과 함께 용계서숙에서 다시 모이다	81
062	穎上春會 영수 가의 봄 모임	82
063	丁丑二月二十二日 與蔡省菴兄 共入漢陽石塔公園 정축년 2월 22일 채성암 형과 함께 한양의 석탑공원에 갔다	83
064	三月九日上終南山 3월 9일 종남산에 오르다	83
065	獎忠壇 장충단	84
066	與舍弟行平壤 아우와 함께 평양에 가다	85
067	練光亭 연광정	85
068	入關王廟 관왕묘에 들어가다	86
069	清流亭 청류정	87
070	乙密垓 을밀대	87
071	牡丹峯 모란봉	88
072	浮碧樓 부벽루	89

073	永明寺 영명사	89
074	箕子陵 기자릉	90
075	與平壤諸人 同泛大同江 평양의 여러 사람과 함께 대동강에서 배를 타다	91
076	三光亭 삼광정	92
077	埕上望見飛行機 대 위에서 비행기를 바라보다	93
078	四月初七日 移于梨花町 4월 7일 이화정으로 옮기다	94
079	立春日 海庵來訪 回文 입춘에 해암이 방문하다. 회문시	95
080	送金東石入國師峯 국사봉으로 들어가는 김동석을 보내며	96
081	秋日卽事 가을날 즉석에서	97
082	白石亭 백석정	98
083	遣懷 회포를 풀다	98
084	寒食日 訪盤谷海庵 한식일에 반곡의 해암을 방문하다	100
085	穎北社會 영수 북쪽에서의 시사 모임	101
086	盤谷書堂 逢諸彦 반곡서당에서 여러 분과 만나다	101
087	晚秋 高澗松高秋堂南醉山三丈來枉書塾 共吟 늦가을에 고간송, 고추당, 남취산 등 세 어른이 서숙을 방문했기에 함께 읊다	102
088	秋灯獨坐 가을 등불 앞에 홀로 앉아	104
089	育英齋 與蘭社諸益 共話 옥영재에서 난사의 여러 벗들과 함께 이야기하다	105
090	高聽山申小汀金海庵諸兄 同到龍溪 고청산, 신소정, 김해암 등 여러 형들이 용계에 함께 이르렀다	106
091	又會于申小汀先齋 신소정의 선재에서 또 모이다	107
092	書懷 감회를 적다	107
093	送阿季平壤 평양으로 가는 막내를 전송하며	108
094	四月初八日 與從弟仁圭族侄鍾文 入北兩寺 사월초파일 종제 인규와	

죽질 종문과 함께 북양사에 가다	109
095 入大乘 대승사에 들다	110
096 江村 강촌	110
097 寓成 객사에서 짓다	111
098 暮春 與蘭社諸益 共吟先亭 늦봄에 난사의 여러 벗들과 선정에서 함께 읊다	112
099 至樂軒重修韻 지락헌 중수운	112
100 至樂軒重修韻 其二 지락헌 중수운 두 번째 수	113
101 挽南醉山丈有海 취산 남유해 어른 만시	114
102 挽金枉史丈 甲戌 김왕사 어른 만시 갑술년	116
103 戊寅閏七月十五日 共話于月峯亭 무인년 윤7월 15일 월봉정에서 함께 이야기하다	117
104 奉和七愚亭韻 乙丑 칠우정 시를 받들어 화운하다 을축년	118
105 江上 偶逢申小汀 강가에서 우연히 신소정을 만나다	120
106 庭前索枸 以兩莖枝作交繩樣 故謂之索枸 뜰 앞의 삭구. 두 줄기 가지가 새끼 끈 모양 같아 삭구라고 했다	121
107 蓮漣老柳 연당의 늙은 버들	121
108 庭桐 뜰의 오동나무	122
109 庭槐 뜰의 해나무	122
110 失題(1) 실제(1)	123
111 失題(2) 실제(2)	124
112 失題(3) 실제(3)	125
113 失題(4) 실제(4)	126
114 失題(5) 실제(5)	127
115 失題(6) 실제(6)	127

116	失題(7) 실제(7)	128
117	與李碧巢南醉山 共賦 이벽소, 남취산과 함께 짓다	129
118	餞春 봄을 보내다	129
119	草堂春話 초당에서의 봄 대화	130
120	猫 고양이	131
121	白髮 백발	132
122	又 또 짓다	132
123	怪石 괴석	133
124	和從弟愚溪生朝 중제 우계의 생일에 창화하다	134
125	次道南壇所改築韻 丙戌 도남단소 개축 시에 차운하다. 병술년	135
126	贈李家源 이가원에게 주다	136
127	秋崗豐山人也. 名祉燮, 號秋崗 추강은 풍산 사람으로 이름이 지섭 (祉燮), 호는 추강(秋崗)이다	137
128	輓金鶴田 丙戌 김학전 만시 병술년	139
129	敬次孔聖學知還齋原韻 공성학의 지환재 원문에 삼가 차운하다	140
130	遣懷 회포를 풀다	141
131	蘭杜晚春 난사의 늦봄	142
132	辛巳暮春 入周公洞 신사년 늦봄에 주공동에 들어가다	143
133	次景棣亭韻 경체정 시에 차운하다	144

第二卷 中夜秋思

134	金山寺 금산사	151
-----	---------------	-----

135	金山歸路 금산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151
136	壺岩 병바위[호암]	152
137	東雲庵 동운암	153
138	兜鑾天內院宮 도솔천 내원궁	153
139	霽月亭 제월정	154
140	儒達山上 望木浦市內 유달산 위에서 목포 시내를 바라보다	155
141	觀南海 남해를 보다	156
142	漢城有感 한성유감	156
143	博物館 박물관	157
144	獎忠壇公園 장충단공원	158
145	漢江鐵橋 한강철교	158
146	三月晦日, 與權錦南潘商隱柳栽佑禹昌夏, 會天淵亭 삼월 그믐에 권금남, 반상은, 유재우, 우창하와 함께 천연정에서 모이다	159
147	育英齋 與申晦汀亨湜吟 육영재에서 회정 신행식과 함께 읊조리다	159
148	夜坐蓮塘 밤에 연당에 앉아서	160
149	錦浦雪月堂 금포 설월당	161
150	煙竹 담뱃대	162
151	爐 화로	163
152	七月既望日, 申尙均兄來訪, 盛說長老芝蘭稷詩會, 而要余同行 7월 16일 신상균 형님이 방문하여 장로의 지란계 시회에 대해 잔뜩 말하고는 나에게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164
153	病後登山 병을 앓은 뒤에 산에 오르다	165
154	庚午除夕 경오년 설달그믐 밤에	165
155	三月廿三日 高敞族孫榮祖與金永杓來訪 連吟 3월 23일 고창의 족손 변영조가 김영표와 함께 찾아왔기에 연이어 읊조리다	166
156	雨中遣憫 빗속에 번민을 풀다	170

157	中夜秋思 한 밤의 가을 생각	171
158	次內舅主澗翠李寅教氏晬宴韻 외숙 간취 이연교 씨의 수연시에 차운하다	172
159	辛未除夕 신미년 제야에	173
160	壬申元朝 임신년 새해 아침	174
161	爲李晚松丈麟熙氏所挽 共賦 만송 이인희 어른이 붙들므로 함께 시를 짓다	175
162	自白松歸路 백송에서 돌아오던 길에	176
163	四月初九日 入金龍寺 留咏 時有病煎藥 4월 9일 김룡사에 들어가 머물며 시를 지었다. 때 마침 병이 있어 약을 달였다	176
164	萬歲樓 만세루	178
165	晚坐 저물녘에 앉아서	178
166	述懷 술회	179
167	斜陽步紅霞門口拈二絕 해질녘 홍하문 어귀를 산보하며 절구 두 수를 짓다	180
168	夜聞戴勝 밤에 빠꾸기 소리를 듣다	180
169	庭行 뜰에서 걷다	181
170	夜坐 밤에 앉아서	183
171	自家入紅霞門口得自娛 兼有所傷 故中聯及之 집을 떠나 홍하문에 들어가 혼자 즐겼다. 아울러 상심한 바가 있어서 중련에서 이를 말했다	184
172	慰遣 마음을 달래어 풀다	184
173	曉起 새벽에 일어나	185
174	六月四日省家 禮安李丈雲浦宰鎬氏枉訪育英齋 終夜共賦 6월 4일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안 이씨 운포 이재호 씨가 육영재를 방문하여 밤새 함께 시를 지었다	185

175	紅霞門入呼 홍하문으로 들어가며 짓다	188
176	有懷 題萬歲樓壁上 감회가 있어 만세루 벽 위에 적다	188
177	睡起 새벽에 일어나	189
178	自適 자적	190
179	山行 산행	191
180	聘翁之沒已八年矣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 지 이미 8년이 되었다	191
181	重陽日午雨 중양절에 잠깐 비가 내렸다	193
182	秋日郊行 가을날 교외로 가다	194
183	壬申除夕 임신년 제야에	194
184	癸酉元朝 계유년 설날 아침	195
185	正月八日 與南雪堂朝翊氏 夜賦 정월 8일 설당 남조의 씨와 함께 밤에 짓다	196
186	觀權屏谷古今歷代沿革圖 권병곡의 〈고금역대연혁도〉를 보다	197
187	與高嶺雲丈安春洲權杏帷 龍州萬波樓 率會 고영운 어른과 안춘주, 권행유와 함께 용주 만파루에서 모임을 가지다	197
188	願年豐 押豊 풍년을 기원하여 풍자 운을 쓰다	199
189	杜武花樹齋 有人來訪 두무의 화수재로 어떤 사람이 방문하여	199
190	天淵亭既望日 천연정에서 16일에	201
191	思孝齋 偶得 사효재에서 우연히 짓다	201
192	穎江春遊 [同]安春洲權桐雲申藥山 영강에서 안춘주, 권동운, 신약산과 함께 봄놀이를 하다	202
193	上仙岩 상선암	202
194	中仙岩 중선암	203
195	下仙岩 하선암	204
196	渡萬壑江 만학강을 건너며	204

197	石門 석문	205
198	隱舟岩 은주암	206
199	義林池 의림지	206
200	花樹齋 曾王考墓宮 而王考所構成也 화수재는 증왕고의 묘궁이니 왕고께서 엮어 완성한 것이다	207
201	次淸心臺韻 청심대 시에 차운하다	208
202	次弄淸圯重建韻 농청대 중건 시에 차운하다	208
203	戲題示黃上人水月 재미로 지어서 황수월 스님에게 보여주다	209
204	水月答 수월이 답하다	210
205	辛酉春 陪愚溪從叔 讀長安寺 신유년 봄에 우계 종숙을 모시고 장안사에서 독서하다	210
206	壬戌春 陪愚溪從叔 讀柏谷思孝齋 임술년 봄에 우계 종숙을 배종하고 백곡의 사효재에서 독서하다	211
207	思孝齋九景 사효재의 아홉 경치	212
208	庚炎日 與諸益溜淸于雲菴寺 삼복더위에 여러 벗들과 함께 운암사에서 탁청하다	215
209	石佛 석불	216
210	讀閨筆菴 윤필암에서 독서하다	217
211	王臺 왕대	217
212	留大成菴 대성암에 머무르다	218
213	四佛岩 사불암	218
214	老丈擊鼓岩 노장격고암	219
215	幽懷 깊은 소회	219
216	妙寂菴 묘적암	220
217	訪大乘寺 대승사를 방문하여	220
218	自憫 스스로 변민하다	221

219	練光亭 연광정	222
220	清流亭 청류정	222
221	最勝台 최승대	223
222	浮碧樓 부벽루	224
223	得月樓 득월루	224
224	永明寺 영명사	225
225	箕子陵 기자릉	225
226	清流壁 청류벽	226
227	瑞氣山 祥光山 서기산 상광산	227
228	綾羅島 능라도	227
229	綾羅島貯水池 능라도 저수지	228
230	飛行機場 비행장	228
231	麒麟窟 기린굴	229
232	轉錦門 금문에서	229
233	玄武門 현무문	229
234	七星門 칠성문	230
235	平壤城 평양성	230
236	大同門 대동문	231
237	義妓花月廟 의기 화월의 사당	231
238	普通門 보통문	232
239	大同橋 대동교	232
240	鳳凰樓 봉황루	232
241	松京 개성	233
242	善竹橋 선죽교	234
243	謁圃隱鄭先生廟 포은 정 선생의 사당을 참배하다	235

244	杜門洞 두문동	235
245	南石澗章穆學山章憲一齋章燮三兄料外連訪 남석간, 목학산, 헌일제, 섭삼형이 뜻밖에도 연이어 방문하였다	236
246	翌日與三兄 午憩于至樂軒 다음날 세 형과 함께 지락헌에서 낮에 쉬었다	236
247	先祖至樂軒重建韻 선조의 지락헌 중건시	237
248	玉櫟洞 옥양동	239
249	華陽洞 화양동	240
250	煥章寺 환장사	240
251	次巖棲齋韻 암서재 시에 차운하다	241
252	彩雲庵 채운암	242
253	仙遊洞九曲 선유동 구곡	242
254	鳳巖寺 봉암사	246
255	白雲臺 백운대	247
256	傳燈寺 次牧隱先生板上韻 전등사에서 현판에 새겨진 묵은 선생의 시에 차운하다	247
257	九月二十六日 大人晬辰也 歸鄉設酌 鄉隣咸集 9월 26일은 대인의 생신이라 고향으로 돌아가 술자리를 베풀니 고향의 이웃들이 모두 모였다	248
258	宿慶州邑 경주읍에 묵으며	249
259	月城懷古 월성에서 옛날을 그리며	249
260	佛國寺 불국사	250
261	石窟庵 석굴암	251
262	客館除夜 객관에서 제야에	251
263	晉州邑 진주읍	252
264	甌石樓 옥석루	253

265	海雲垓 해운대	253
266	己卯十二月十九日 生慈降辰 志禧 기묘년 12월 19일 생자(生慈)의 생신 에 기쁨을 적다	254
267	生庭大人降日 생부의 생신에	255
268	癸未二月 孔春圃丈知還齋 계미년 2월 공춘포 어른신의 지환재에서	255
269	謹次知還齋韻 삼가 지환재의 시에 차운하다	256
270	邀金鶴田丈沈玉蘇丈衡鎮李小剛令, 遊漢江 김학전 어른과 옥소 심형 진 어른, 이소강령을 청해 한강을 유람하다	257
271	與小剛令赴廣壯津雅會 金鶴田丈趙石庵丈炳烈鄭松汀伯僑源李又 齋丈丙默成茗軒丈樂淳李愚軒種起氏在座 소강령과 함께 광나루 아회 에 가다. 김학전, 석암 조병열, 송정백 정교원, 우재 이병목, 명헌 성락순, 우현 이종기 씨 등이 참석했다	257
272	小剛令書樓 陪晚松查丈兼歡 李霞汀兄炳根在座 소강령의 서루에서 만송 사장 어른을 모시니 하정 이병근 형이 함께 자리에 있었다	258
273	謹奉次宋恭山丈浚弼遠谷精舍韻 삼가 공산 송준필 어른신의 원곡정사 시에 차운하다	259

第三卷 愚井落穗

제1편 淸遊

274	鳥嶺有感 조령유감	265
275	至樂軒 지락헌	265

276	交龜亭復元 교귀정복원	266
277	聞喜慶瑞 문희경서	267
278	慶泉湖 경천호	268
279	烏山淸遊 금오산을 둘러보다	268
280	追慕吉治隱先生 추모길야은선생	269
281	訪玉山書院 방옥산서원	270
282	登冠岳 등관악	271
283	丹陽 단양	271
284	醉香亭 취향정	272
285	登快哉亭 등쾌재정	272
286	訪貞陵 방정릉	273
287	雪嶽山 설악산	274
288	智異山 지리산	274
289	德津湖醉香亭 덕진호 취향정	275
290	三光寺 삼광사	275
291	臨津紀行 임진기행	276
292	義林池 의림지	277
293	淸巖亭 청암정	278
294	雲崗李康年先生追慕 운강 이강년 선생 추모	278
295	花溪亭落成韻 화계정낙성운	279
296	松廣寺 송광사	280
297	海雲臺 해운대	280
298	南道紀行 남도기행	281
299	烏山淸遊 오산청유	282
300	逍遙山秋懷 소요산 가을	282

301	鳳笙亭雅會 봉생정아회	283
302	浦項雅會 포항아회	283
303	至樂軒雅會 지락헌아회	284
304	暮春雅會 모춘아회	285
305	詠風雅會 영풍아회	285
306	五老雅會 오로아회	286
307	春日雅會 춘일아회	287
308	淸風雅會 청풍아회	288
309	農園幽居 신원유거	288
310	贈李友眞石 증이우진석	289
311	謝贈方圓書刻 사증방원서각	289
312	挽李友昌燮 만이우창섭	290
313	老心 늙음	291
314	寒蟬秋望 가을 매미	291

제2편 慕

315	嗚呼終天葬 오호종천장	293
316	看花 꽃을 보며	293
317	蘭(1) 난(1)	294
318	慕(1) 그리움(1)	294
319	生日有懷 생일유회	295
320	蘭香 난향	295
321	慕(2) 그리움(2)	296
322	待 기다림	296

323	佳城(1) 무덤(1)	296
324	慕(3) 그리움(3)	297
325	佳城(2) 무덤(2)	297
326	佳城(3) 무덤(3)	297
327	蘭(2) 난(2)	298
328	佳城(4) 무덤(4)	298
329	戀慕(1) 연모(1)	299
330	戀慕(2) 연모(2)	299
331	慕(4) 그리움(4)	300
332	慕(5) 그리움(5)	300
333	慕(6) 그리움(6)	301

제3편 春夏秋冬

334	春來 봄이 왔네	302
335	早春(1) 이른 봄(1)	302
336	早春(2) 이른 봄(2)	303
337	早春(3) 이른 봄(3)	303
338	早春(4) 이른 봄(4)	304
339	早春(5) 이른 봄(5)	304
340	春雪 춘설	305
341	春庭 춘정	305
342	春梅 봄 매화	306
343	悅梅 매화는 즐거워	307
344	春耕 봄갈이	307

345	春情 춘정	307
346	春景 춘경	308
347	春雨 봄비	308
348	春心 춘심	308
349	春風 봄바람	309
350	春興(1) 춘흥(1)	309
351	春興(2) 춘흥(2)	310
352	和春 화창한 봄	310
353	愁雨 시름겨운 비	311
354	春日閒居 한가한 봄날	311
355	晚春郊行 늦봄 나들이	312
356	春江 봄 강	312
357	楊柳淸江 버들 늘어진 맑은 강	313
358	送殘春 봄을 보내며	314
359	淸明 청명	314
360	五月禮讚 오월에찬	315
361	新綠(1) 신록(1)	315
362	新綠(2) 신록(2)	316
363	吟萬化方暢 만화방창	316
364	新綠閑居 새봄에 한가하여	317
365	伏熱 복더위	317
366	庚炎 삼복더위	318
367	避暑 피서	319
368	盛夏卽事 성하즉사	319
369	天中佳節 단오	320

370	海 바다	320
371	黎明 새벽	321
372	旅窓 여창	321
373	新涼 신량	322
374	新涼入郊 신량입교	322
375	清涼 청량	323
376	秋聲(1) 추성(1)	324
377	秋聲(2) 추성(2)	324
378	秋聲(3) 추성(3)	325
379	潁江秋色 영강의 가을빛	325
380	聞喜秋景(1) 문경의 가을경치(1)	326
381	聞喜秋景(2) 문경의 가을경치(2)	326
382	石村湖 석촌호	327
383	秋月(1) 가을 달(1)	327
384	秋月(2) 가을 달(2)	328
385	秋月(3) 가을 달(3)	329
386	洛江秋色(1) 낙강추색(1)	329
387	洛江秋色(2) 낙강추색(2)	330
388	賞菊 국화를 보면서	330
389	霜菊(1) 서리 맞은 국화(1)	331
390	霜菊(2) 서리 맞은 국화(2)	332
391	霜葉踏徑 서리 맞은 단풍 밟으며	332
392	秋夜 가을밤	333
393	秋夜偶吟 추야우음	333
394	秋月情懷 가을달 바라보며	334

395	中秋有感 한가위	334
396	豐登 풍년들어	335
397	頌丹楓 단풍을 기리며	335
398	落葉(1) 낙엽(1)	336
399	落葉(2) 낙엽(2)	336
400	車窓 차창	337
401	寒梅(1) 한매(1)	337
402	寒梅(2) 한매(2)	338
403	寒梅(3) 한매(3)	338
404	臘雪(1) 납설(1)	339
405	臘雪(2) 납설(2)	339
406	雪景(1) 설경(1)	340
407	雪景(2) 설경(2)	341
408	雪中偶吟 설중우음	341
409	冬至有感(1) 동지유감(1)	342
410	冬至有感(2) 동지유감(2)	342
411	冬至有感(3) 동지유감(3)	343
412	大寒(1) 대한(1)	344
413	大寒(2) 대한(2)	344
414	無題(1) 무제(1)	345

제4편 述懷

415	何爲病苦 이 병을 어이하나	346
416	老衰 노쇠	346
417	老矣 늙었네	347

418	凡夫與愚夫	범부와 우부	347
419	思君禮佛	사군예불	347
420	虛妄	허망	348
421	病狀	병상	348
422	拔齒有感	발치유감	349
423	老心	늡음	349
424	野叟	늡은이	350
425	愚井殘影	나의 그림자	350
426	愚井幽居	우정유거	351
427	老愈襟帶清	늡을수록 옷은 맑아야	351
428	世路無常九九八八	세로무상구구팔팔	352
429	詠懷	수심	352
430	泥醉	술에 몹시 취함	353
431	迷夢	허황한 꿈	353
432	車中偶吟	차중우음	354
433	孤(1)	외로워(1)	355
434	孤(2)	외로워(2)	355
435	自憫(1)	가엾어라(1)	355
436	自憫(2)	가엾어라(2)	356
437	自遣(1)	스스로 마음 달랠(1)	356
438	自遣(2)	스스로 마음 달랠(2)	357
439	世事有感	세상살이 걱정	357
440	四君子	사군자	358
441	世途	세상 길	358
442	虛想	헛된 생각	359

443	沛然下雨 갑작스런 소낙비	359
444	人生似幻城 인생살이 허깨비 같아	360
445	天災 천재	360
446	死也生兮 죽음과 삶	361
447	虛堂 빈집	361
448	詩心 시심	362
449	靜夜思 고요한 밤에	362
450	顧影 지나온 길 돌아보니	363
451	閒居 한거	364
452	無題(2) 무제(2)	364
453	無題(3) 무제(3)	365
454	無題(4) 무제(4)	366
455	無題(5) 무제(5)	366
456	迎新千年 영신천년	366
457	臘雪年豐兆(1) 납설년풍조(1)	367
458	臘雪年豐兆(2) 납설년풍조(2)	368
459	送舊迎新(1) 송구영신(1)	368
460	乙酉新禧 2005년 새해	369
461	送舊迎新(2) 송구영신(2)	369
462	至日卽事 동짓날	370
463	臘日 한해를 보내며	371
464	除夜 설달 그믐날	371
465	臘月卽事 설달 그믐	372
466	歲暮有感(1) 세모유감(1)	372
467	歲暮有感(2) 세모유감(2)	373

468	歲暮有感(3) 세모유감(3)	373
469	歲暮有感(4) 세모유감(4)	374
470	歲暮有感(5) 세모유감(5)	375
471	歲暮有感(6) 세모유감(6)	375
472	涉世多岐路(1) 세상살이 갈림길(1)	376
473	涉世多岐路(2) 세상살이 갈림길(2)	376
474	涉世多岐路(3) 세상살이 갈림길(3)	377
475	涉世多岐路(4) 세상살이 갈림길(4)	377
476	追懷端陽佳節 추회단양가절	378
477	與長孫峻變 장손 준섭에서	379
478	勸諸兒 권제아	379
479	古稀 고희	380
480	爲民善政 위민선정	381
481	明洞街 명동거리	382
482	憶舍弟 동생 그리며	382
483	省墓 성묘	382
484	砂漠 사막	383
485	夜暗 어두운 밤	383
486	嘆時局 시국을 한탄하며	384
487	儒道進興 유도진흥	384
488	思家鄉 고향 생각	385
489	傳統文化 전통문화	385

第一卷 晦堂 卞龍圭 先生 漢詩選

居閑偶吟

卞龍圭 1878-1951

號 晦堂 字 聖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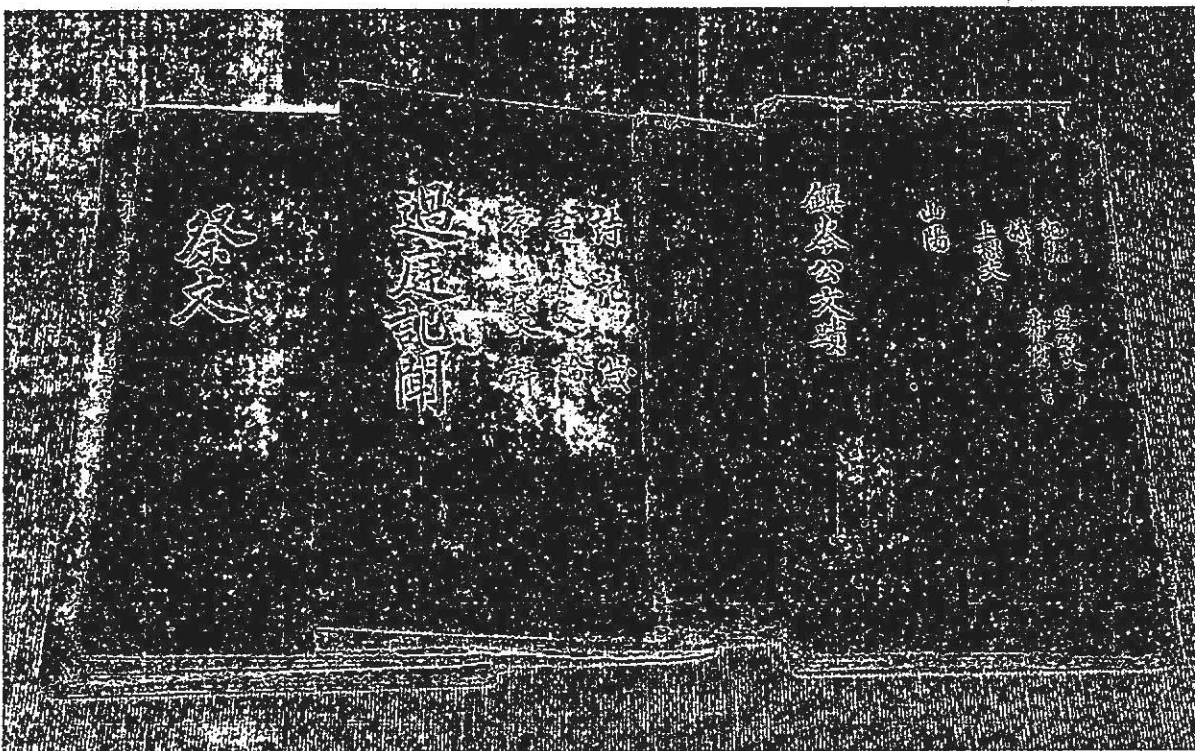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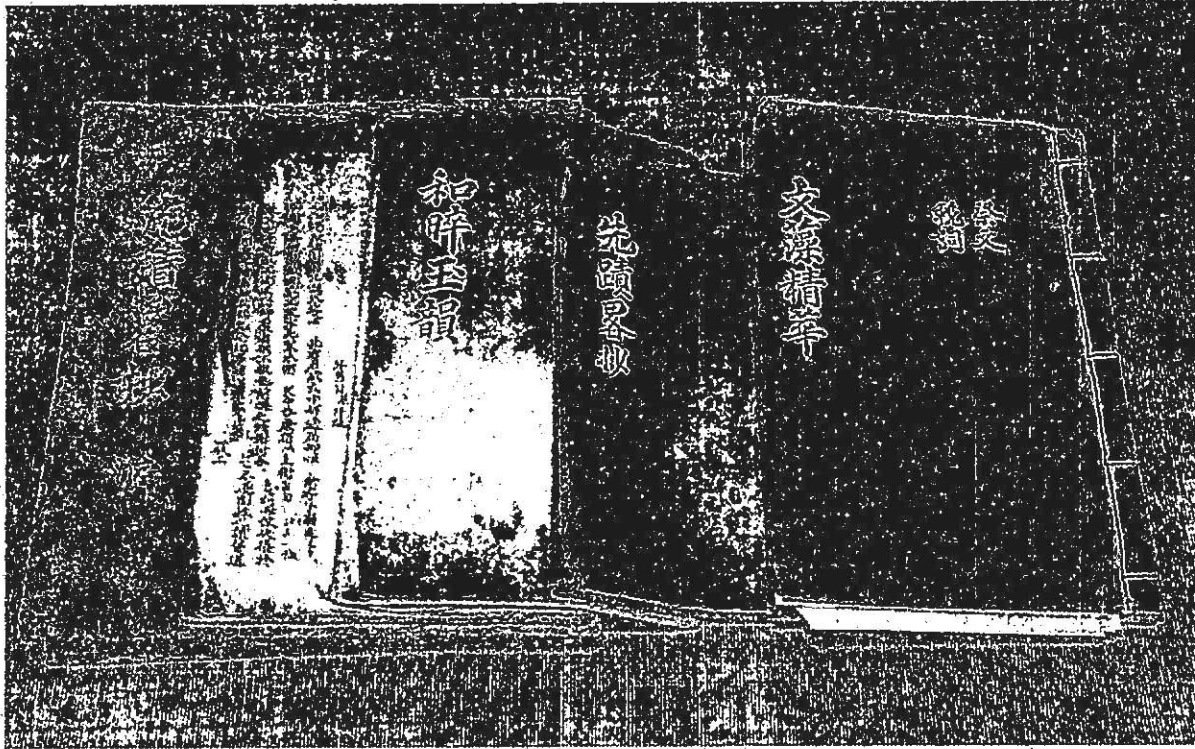
聞慶市 山陽面 辰井里 118

著書：韻詩 368首, 晦堂自銘, 鎮岑公文蹟,

文藻精華, 先蹟畧抄, 和晬玉韻, 過庭記聞 등



晦堂先生影幀



晦堂先生著書

001 濂溪太極圖¹⁾ 염계의 태극도

余居間玩此圖 漸覺其意之無窮 故敢題一絕云爾 내가 한가로이 자내며 이 그림을 완상하다가, 점차 그 뜻이 무궁함을 깨달아 감히 절구 한 수를 지었다

一圖深意果何歟 태극도의 깊은 뜻은 과연 그 무엇일까
冲漠無朕是太虛 막연하여 징조 없음 이것이 태허일세.²⁾
道理頭腦都在此 핵심 되는 이치는 다만 여기 달렸으니
淵源百世統緒餘 연원은 백세토록 통서(統緒)가 넉넉하리.³⁾

- 1) 염계는 周敦頤이며, 태극도는 無極과 太極, 음양과 오행의 원리를 밝힌 것이다.
2) 원문의 충막무朕(冲漠無朕)은 정자(程子)가 태극(太極)을 풀이하면서 한 말이다.
정자는 태극을 풀이하여 “충막하여 징조가 없으니 만상은 삼연하게 갖추어졌다.”[冲漠無朕 萬象森然已具]고 하였다. 『정자유서(程子遺書)』에 보인다.
3) 실마리를 풀고 나니 여윌롭네.

002 東軒偶吟 동헌에서 우연히 짓다

東軒漸入夏陰槐 동헌에 여름 들어 해나무에 그늘지니
四月微涼吹爽襟 사월의 서늘함이 흉금에 불어온다.
無人獨坐閒消遣 사람 없이 홀로 앉아 울적한 마음 풀고
時有鳴禽喜我心 때마침 새가 울어 내 마음 기쁘도다.

40 清溪幽香

003 冬至吟 동짓날에 읊조리다

晚窓魂夢忽驚春 저문 창 꿈길 속에 홀연 봄에 놀라니
野鳥啼園意自新 동산에서 우는 들새 뜻이 절로 새롭구나.
線陽用事除陰沴 한 가닥 양기 작용하여 음려(陰沴)¹⁾를 제거하니
獨坐深關敬養眞 홀로 앉아 깊이 닫고 삼가 천진 기르네.

1) 음려 : 음양의 기운이 조화를 잃고 음기가 치성하여 천지에 일어나는 재해를 가리킨다. 재앙.

004 雨後登山 비온 뒤에 산에 오르다

閒筇幽屐向蒼崗 지팡이 나막신에 푸른 산을 오르니
霽後疎松倒夕陽 비霽 뒤 성긴 솔이 석양에 기울었네.
山風震動摩頂巔 산 바람 진동하여 산정 헛살 쓰다듬고
時向蒼雲遠岫藏 때때로 먼 산 감춘 푸른 구름 향하누나.

005 東軒對月 동헌에서 달을 마주하다

洞天澄霽列星宿 동천이 맑게 개어 못별들 반짝일 제

起坐東軒對月色 동헌에 일어 앉아 달빛을 마주한다.
溪邊綠柳凝烟滅 냇가의 푸른 버들 안개 엉겨 가려지고
庭下老槐疎影寂 뜰 아래 왜나무는 그림자만 고요하다.

- 006 豐基鳳獻金丈孟度氏來枉 留宿數日 作詩以寄
而身適不健 未卽應和 其後又以書求和 故謹奉
和二絕 풍기의 봉헌 김맹도 어른이 내왕하여 며칠을 머물고는 시를 지
어 보내왔다. 몸이 마침 건강하지 못해 곧장 화답하지 못했다. 그 뒤에 또
편지로 화답을 구하기에 삼가 절구 두 편을 받들어 화답하다

斂跡投閒世味清 자취 감취 한가하니 세상맛이 해맑고
鳳領雲月最分明 봉령의 구름 달은 참으로 뚜렷하네.
奉札難忘珍重意 편지 받고 진중한 뜻 차마 잊기 어려워
開唔滿幅撥塵情 입 열어 종이 가득 티끌 정을 쫓는다.

愚庸難得陪優遊 못난 이 몸 모시고서 노니기도 어려워
每擬龍潭一故樓 용담의 옛 누각을 잊을 수가 없다네.
有誰護潑坎中水 어느 누가 구덩이 물 샘솟게 도와주어
滾滾無間放海流 넘실넘실 쉬 없이 바다로 흘러볼까.

42 清溪幽香

007 漢江 한강

今朝來泊漢江船	오늘 아침 한강 와서 물가에 배를 대니
浩闊波光碧似天	특 트인 물결 빛이 하늘인 양 푸르구나.
渡頭瞻仰終南賀	나루에서 올려보매 남산이 하례하고
萬丈崖色翠依然	만 길의 산 빛은 의연히도 푸르도다.

008 睡起東軒 동헌에서 잠을 깨다

睡起東軒開爽襟	옷자락 풀어 헤쳐 동헌에서 자다 깨니
庭邊綠樹午清陰	뜨락 옆 푸른 나무 낮 그늘이 맑구나.
牧童驅牛歸窓下	목동이 소를 몰고 창 아래로 돌아오며
告我西疇麥有年	서쪽 밭의 보리가 풍년이라 말을 하네.

009 閒居見鳥偶吟 한가롭게 지내다가 새를 보고 우연히 읊조리다

一鳥高枝一鳥林	한 마리는 높은 가지 한 마리는 숲 속에
坐看枝鳥弄嘲林	가지 위 새 숲 속 새를 희롱함 앉아 본다.
忽有西風勁鷗過	갑자기 서풍에 굳센 매가 지나가자
還笑枝鳥反歸林	가지 위 새 숲으로 되돌아감 비웃노라.

010 居閒偶吟 한가롭게 지내다가 우연히 읊조리다¹⁾

迢超塵世久藏身 인간세상 저편 멀리 오래 몸을 감추니
 世久藏身獨養眞 세상 오래 몸 감추고 홀로 참됨 기르네.
 獨養眞心如水月 홀로 진심 길러서 물에 비친 달 같은데
 心如水月迢超塵 물에 비친 달 같은 맘 티끌 세상 뛰어넘네.

- 1) 이 시는 다른 시와 다르게 잡체시 중 첩자시(疊字詩)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첫 구절의 마지막 세 글자가 다음 구절의 첫 세 구절이 되는 재미있는 시다.

011 山中偶書 산 속에서 우연히 쓰다

碧山深處一茅廬 푸른 산 깊은 곳에 떠집이 한 채 있어
 將使閒人可讀書 한가로운 사람이 책 읽기에 마침 맞다.
 世客不來啼鳥樂 세상 손님 오지 않아 우는 새는 즐겁고
 隔障眞區興有餘 진경이 둘러막아 흥이 절로 남아 있네.

44 淸溪幽香

012 登杜武有感 두무에 올라 느낌이 있어서

杜武吾家先壙也 累代先塋皆在山內 族人淸來氏多年禁養 丙申春始搆茅屋
一間而居焉 自後松楸鬱密 茲山改觀 其有功於吾先塋亦不少矣 居然之頃
淸來氏已下世至今已十有九禩 其間人事之存沒悲歡 尤不可言 而今使他人
又居焉 噫 攬今追昔 不勝慨嘆 故以一絕感云 두무는 우리 집안의 선산으로
누대의 선영이 모두 산 안에 있다. 죽인 청래 씨가 여러 해 동안 지키고 보살피다
병신년 봄에 비로소 떠집 한 칸을 엮어 기거하였다. 그 후로 소나무와 가래나무
가 울창하고 뽕뽕해져 산의 경관이 바뀌었다. 우리 선영에 보탬이 된 점이 또한
적지 않았다. 근래에 청래 씨 이하 세대로 지금까지 이미 19번의 제사가 있었다.
그 사이 인사의 존몰과 비환은 더욱더 말할 수가 없고, 지금은 다른 사람으로 하
여금 또 살게 하였다. 아! 오늘을 통해서 과거를 추억하면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절구 한 수로 느낌을 말한다.

萬事蒼涼歲月移 세월이 흘러감에 온갖 일이 쓸쓸하여
登高悵悵夕歸遲 높이 올라 슬퍼하다 저녁 늦게 돌아오네.
幽人已去巖花落 유인(幽人)은 떠나가고 바위 꽃 떨어지니
春往春來不盡時 봄이 가고 봄이 오는 때가 없으리.

013 霽後遠望 비 갠 뒤에 멀리 보며

衆力喧爭拓堡堤 여럿이 떠들썩 보와 제방 넓히는데
階間行見住靑藜 청려장을 짚고 서서 섬돌 사이 가서 보네.
萬人心皆豐年願 모든 사람 마음은 풍년 들기 소원이라

麥氣霖晴野色低 보리 기운 장마 개어 들빛이 나직하다.

014 有懷 생각이 나서

獨臥山房細想起 산방에 홀로 누워 잔 생각을 일으키니
思來歷歷悟前非 생각이 또렷하여 지난 잘못 깨닫누나.
從今莫計難成事 이루기 어려운 일 이제부터 계획 말고
徒使心愁百片圍 마음 근심 백 조각을 에워싸게 하리라.

015 登鳳棲山 봉서산에 오르다

病屐闌珊趁趨行 병든 몸이 어렵사리 뒤따라 올라보니
一峯高插翠崢嶸 한 봉우리 높이 솟아 아마득히 푸르구나.
鳳兮何去桐今老 봉황은 어디 가고 오동 이제 늙어가니
時送山禽但午鳴 한 낮에 우지지는 산새 떼만 날아가네.

46 清溪幽香

016 余以微恙服藥 留寧靜庵 내가 몸이 아파 약을 먹으며 영정
암에 머물렀다

巖間細路連	바위 사이 가는 길 이어져 있어
訪庵別有天	암자를 방문하니 별천지일세.
掩戶閒世界	문 닫으니 세계는 한가로운데
開窓蕩雲煙	창 열자 구름 안개 자욱하구나.

石立千年佛	우뚝 선 바위는 천년 부처요
碁對半日仙	바둑판은 반나절 신선 마주해.
我能何所取	내 능히 무엇을 취해야 할까
養靈住此邊	이 곁에서 영기(靈氣) 길러 머무리라.

017 登庵後峯 암자 뒤 봉우리에 오르다

綠野新春色	초록 들은 봄빛이 다 새로운데
長江乍霽天	긴 강에 잠깐 하늘 개었네.
高峯雲外迥	높은 피 구름 밖에 아마득하고
一庵巖下懸	암자 하나 바위 아래 매달려 있네.

歷歷深巷柳	깊은 골목 버들은 또렷도 한데
依依廣墅烟	넓은 교외 안개가 깔려 있구나.
偶來成獨趣	우연히 와 홀로 취미 이루었으니
莫遣俗人傳	속인에겐 전하여 알게 말지라.

018 曉起 새벽에 일어나서

平朝起坐一窓開	새벽에 일어나 창 하나 활짝 여니
畫裡風光入眼來	그림 속 풍광이 눈으로 들어온다.
依依小聚煙生屋	저 멀리 작은 마을 지붕에선 연기 일고
漠漠晴江鷺下隈	아득히 개인 강에 해오라기 내려앉네.

019 折路傍花 길 가의 꽃을 꺾다

春心爲折路傍花	봄 마음에 길가에 핀 꽃을 꺾으니
憐汝經人幾許多	가련타 얼마나 많은 사람 거쳤더냐.
若使爾身根遠壑	먼 골짜기에 네 몸을 뿌리 내리게 했더라면
天真自落杜鵑歌	두견새 노래 속에 천진하게 절로 지리.

48 清溪幽香

020 卽事 즉흥으로

僻地山家僅膝容	궁벽한 산속 집은 무릎 겨우 용납하고
空庭蕭散住閒筇	빈 뜰락 호젓하여 지팡이 멈춰 선다.
峯靑水白奇如畫	푸른 뫼와 흰 물이 그림인 양 기이하여
分付吾人較淡濃	날더러 농담(濃淡)을 전주라 분부하네.

021 又 또 짓다

霧捲春城積雨晴	안개 걷힌 봄 성에 장맛비가 개이자
薄雲殘照遠岑輕	얇은 구름 남은 해에 먼 산이 가볍구나.
小園鳴鳥催花氣	작은 동산 우는 새는 꽃기운을 재촉하고
夕浦寒鷗立水聲	저녁 포구 찬 갈매기 물소리 속에 섰네.
社友時從山外至	떼마침 산 밖에서 사우(社友)가 찾아오니
胸衿日自卷中明	홍금이 날마다 시권(詩卷) 속에 밝아지네.
奈何願結林間屋	어이 해 숲 속의 집 엮기를 원하는가
世與相忘夢一生	세상과 서로 잊어 일생토록 꿈만 꾸리.

022 二月晦日雨雪 이월 그믐에 눈이 내리다

春天二月雪飛飛	이월의 봄 하늘에 눈발이 흩날리니
巷氣峭寒透薄衣	골목 기운 몹시 차서 얇은 옷을 파고든다.
波激溪脣噴玉屑	시냇가 물결 급해 옥가루를 뿜어내고
花生巖隙穿陽暉	바위틈에 꽃은 퍼서 햇살을 뚫었구나.
入山煎藥身還健	산에 들어 약 달여서 몸이 건강 되찾으니
對卷點心計不非	시권(詩卷) 보며 마음 짝임 그 계획 그르잖네.
盡日林間留住久	하루 종일 숲 속에서 오래도록 머무노니
隔崗孤客未能歸	산 저편 외론 객이 돌아가지 못한다네.

023 山居偶吟 산에 살다 우연히 읊조리다

螺伏孤庵枕澗流	소라 같은 외론 암자 시냇물을 베고 있고
雲窓高闢膽生秋	구름 창 높이 열려 간담이 서늘하다.
紅花笑折呼新酒	붉은 꽃 웃고 꺾어 새 술을 불러오고
短軸裁成寫積愁	두루마리 만들어서 쌓인 시름 그려낸다.
怪石嶮嵯山露骨	기암괴석 삐죽삐죽 산은 뼈를 드러내고
大郊開闊地窮頭	넓은 교외 활작 열려 땅은 머리 다하였네.
我欲此間留住久	나는야 이곳에서 오래도록 머물고저

50 清溪幽香

林禽圃鹿共盟儔 숲 속 새와 들판 사슴 짝할 것을 맹세하네.

024 窓竹 창밖 대나무

破俗初心竹植庭 속세 끊고 초심으로 뜰에 대를 심었더니
當年氣餒未曾青 그 해엔 기운 줄어 푸르지가 않았었네.
固德能存松栢志 굳은 덕은 송백(松栢)의 뜻 능히 보존하였고
貞操肯學菊梅馨 곧은 절개 매국(梅菊) 향기 기꺼이 배웠다네.
簞谷可慚燒晚食 당곡(簞筯谷)¹⁾에선 저녁밥에 불 땀이 부끄럽고
北都堪愛報朝寧 북도(北都)에선 너무 아껴 아침 문안 올렸다네.²⁾
坐對日生幽適趣 해 뜨는 걸 앉아 보니 좋은 흥취 그윽하고
時時題罷露珠零 때때로 시 지으면 이슬방울 떨어진다.

- 1) 당곡 : 운당곡(簞筯谷)으로, 운당이라는 마디가 긴 왕대가 많이 나는 골짜기다. 소식이 문등과 창화한 시 「화문여가양천원지삼십수(和文與可洋川園池三十首)」 중에 「운당곡(簞筯谷)」이란 시가 있어 운당곡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한천현의 긴 대나무 쭉대처럼 지천이니, 자귀 도끼 죽순을 어찌 그냥 버려둘쏜가. 청빈하면서 식물을 탐하는 태수는, 위천의 천 무의 대 가슴속에 가득하리.”[漢川脩竹賤如蓬, 斤斧何曾赦籜龍. 料得清貧飽太守, 渭川千畝在胸中] 또한 「문여가화운당곡언죽기(文與可畫簞筯谷偃竹記)」에서는 운당을 묘사하여 “이 대는 길이가 몇 자밖에 안 되지만 만 장의 기세를 지니고 있다.”고 읊었다.
- 2) 북도에선~ 올렸다네 : 중국 당나라의 단성식(段成式)이 지은 책 『유양잡조(酉陽雜俎)』에 “북도에는 오직 동자사(童子寺)에만 대나무 한 과(窠)가 있어서 길이

第一卷 居閒偶吟 51

가 겨우 두어 자쯤 되는데, 그 절에서 매일 대나무 평안을 올렸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 이를 죽보(竹報)라 한다.

025 閒居遣懷 한가롭게 지내면서 회포를 달래다

十載荊關斷俗緣	십 년 동안 사립 달고 속세 인연 끊었는데
今吾何事百懷纏	지금 나는 무슨 일로 온갖 근심 얹혀 있다.
行藏自是應關數	나고 들은 저절로 운수에 달렸거니
憂樂由來一任天	근심 기쁨 이제껏 하늘에 맡겨두네.
郭外桑田閒日月	성곽 밖 뽕밭에는 해와 달이 한가롭고
琴中山水娛風煙	거문고 속 산수에서 바람 안개 즐긴다네.
傍人莫謂全聲世	세상 사람 귀먹었다 옆 사람은 말을 마소
寫對殘篇獨喟然	잔편(殘篇) ¹⁾ 베껴 마주하고 홀로 한숨 짓노라.

1) 홀어지고 남은 책.

026 次寒食韻 한식 시에 차운하다

契誼愈歡老益新	수계 ¹⁾ 우의(友誼) 더 즐거워 늙어 더욱 새로운데
年年雅會每於春	해마다 좋은 모임 매년 봄에 여는구나.

52 清溪幽香

江樽野酌灌情禮 강과 들서 술 따르며 정과 예를 나누니
博帶高冠任性眞 높은 관에 띠 두르고 본성에 내 맡기네.
紅花綠草明時節 붉은 꽃 푸른 풀에 시절이 환히 밝고
玉礫瓊沙好水津 옥 같은 자갈 모래 물가 나루 좋을시고.
蘭亭洛社那專美 난정²⁾과 낙사³⁾만 어찌 다만 좋으리오
俱是當今晉宋人 지금 세상 모두가 진송(晉宋) 적 사람인 걸.

-
- 1) 修禊. 삼짇날 물가에 모여 술 마시고 노는 일. 왕희지(王羲之)의 난정서도 이 수계(또는 修禊會)에서 지어진 것이다.
2) 난정(蘭亭) : 난정회(蘭亭會)로 진(晉) 나라 왕희지가 영화(永和) 9년 3월 3일에 회계산의 난정에서 사안(謝安)을 비롯한 당시의 명사 41인과 모여 친목을 다진 모임이다.
3) 낙사(洛社) : 낙양기영회(洛陽耆英會)로 송나라 문언박(文彦博)이 사마광(司馬光), 부필(富弼) 등 13인과 함께 백거이의 구로회를 모방하여 만든 모임이다. 『송사(宋史)』, 『문언박전(文彦博傳)』에 보인다.

027 與草溪宗人德初景賢 到栢谷先齋 共吟 초계 시는
집안 사람 덕초와 경현과 함께 백곡의 선재¹⁾에 가서 함께 짓다

萬山深處一茅廬 만산의 깊은 곳에 단출한 띠집 하나
花樹團欒興有餘 꽃 나무 단란하여 흥이 질로 남음 있네.
塵緣隔世幽如剎 세상 인연 끊어내어 그윽하기 절과 같고

第一卷 居閒偶吟 53

野菜登槃味勝魚 소반에 오른 야채 생선보다 맛이 달다.
園松繞屋禽聲樂 동산 솔이 집을 둘러 새 소리도 즐겁고
溪霧當軒客夢虛 계곡 안개 처마 닿아 나그네 꿈 텅 비었네.
千里難忘珍重誼 천리서도 진중한 맘 잊기가 어려우니
相依百代肯相疎 백 대를 의지하여 어찌 서로 소원하리.

1) 문경시 호계면 주삼리 백곡마을에 있는 초계 변씨 재학공파 문경문중의 제실인 思孝齋를 말한다.

028 過弄清臺 농청대¹⁾를 지나며

弄清江上弄清臺 농청강 가에 있는 농청대를 들르니
但恨吾生晚到來 다만 내 생 늦게 왔음 그것이 유감일세.
千古淵源波入洛 천고의 연원은 낙수²⁾에 물결 들고
百年塵跡石應苔 백년의 세속 자취 바위 위의 이끼일세.
山似玉叢峭削立 산은 흡사 옥 무더기 높게 깎아 세운 듯
水如鏡面汪洋開 거울 표면 같은 물은 드넓게 열렸네.
岸草汀蘭依舊綠 언덕 풀 물가 난초 예전처럼 푸르러
斜陽停棹暫徘徊 석양에 노 멈추고 잠시 배회하노라.

1) 농청대 : 문경이 자랑하는 석문구곡 중 제1곡으로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

54 清溪幽香

1679 ~1760)이 머물던 곳이다. 권상일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 자는 태중(台仲), 호는 청대(淸臺)다. 동부승지, 형조참의 등을 역임했다. 학문은 이황을 좇았으며, 이황이 수정하기 전의 사칠설(四七說)을 조술하였다.

2) 낙수 : 여기서는 영남의 젓줄 낙동강을 가리킨다.

029 山行 산행

緩踏林徑石路危	느릿느릿 걷는 숲속 바위 길은 위태롭고
嶒松谷瀑畫如奇	산의 솔과 계곡 폭포 그림처럼 기이하다.
巖塔苔蒼千古色	바위 탑의 푸른 이끼 천고의 빛깔이요
山家烟凝百年期	산속 집에 안개 엉겨 백년을 기약하네.
的歷明花非世態	선명하게 밝은 꽃은 세속 자태 아니요
別般啼鳥各天時	유난히 우는 새는 각각 천시 따름일세.
鴈落雲空秋興晚	기러기 앓고 구름 비어 가을 흥이 저무는데
瀕南歸客姑遲遲	빈강(瀕江) 남쪽 가는 객이 잠시 늦장 부리네.

030 道南講會韻 도남서원 강회

南洛淵源活水清	영남 낙수 연원이라 활수(活水)가 맑으니
我東明哲鍾英生	우리나라 명철들의 꽃다움이 살아 있네.

八賢衣鉢傳授地 팔현(八賢)¹⁾의 의발이 전수되어 온 땅이라
 一代菁莪仰彌情 일대(一代)의 청아(菁莪)²⁾는 우렐수록 정답네.
 千古溪山依舊碧 천고의 산과 계곡 예전처럼 푸르고
 滿堂風月煥新明 집 가득 바람과 달 새롭게 환하구나.
 敢語藏修諸長德 여러 어른 덕성을 간수했다 말을 하니
 規循白鹿教將行 백록 강규(講規)³⁾ 따르면 가르침이 행해지리.

- 1) 여덟 현자 :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서원에 제향된 정몽주, 김굉필, 정여창, 이언적, 이황, 노수신, 류성룡, 정경세, 이준 등 여덟 사람을 말한다.
 2) 청아 : 『시경』 소아(小雅)의 편명으로 인재를 기르는 것에 대해 읊은 시이다.
 3) 백록 강규 : 백록은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가리킨다. 이 서원은 송나라 4대 서원의 하나로, 강서성(江西省) 성자현(星子縣)에 있다. 1179년 주자가 남강군(南康軍) 태수(太守)로 부임하여 예전의 학관을 증수하고, 직접 강학을 하던 곳이다. 이때 주자는 오륜(五倫)·오교(五教)·수신(修身)·처사(處事)·접물(接物)에 대한 요령을 동규(洞規)로 정해놓았는데, 백록의 강규는 이를 말한다.

031 與草溪宗人 又吟于栢谷先齋 초계 종인과 함께 또 백곡의 선재에서 읊다

疊疊巒巒勝畫圖 첩첩이 쌓인 산이 그림보다 아름다워
 隨君朝日向西隅 그대 따라 아침 해에 서쪽 언덕 향하였지.
 松風吹面塵愁灑 솔바람 얼굴 스쳐 티끌 근심 씻어주고

56 清溪幽香

石澗侵襟夏暑無	바위 시내 옷깃 스며 여름 더위 자취 없네.
流賞明花懽把軸	환한 꽃 감상하며 시축 잡음 기뻐하고
頽茵綠草醉傾壺	푸른 풀을 깔고 앉아 잔 기울여 취하누나.
斜日到山雲影薄	기운 해 산 이르러 구름 그림자 얇어지고
深樹黃鸝也自呼	깊은 나무 피꼬리는 제 이름을 부르누나.

032 曉鷄 새벽 닭

鷄之五德稟受全	수탉은 오덕(五德)을 온전히 받았으니 ¹⁾
繡羽錦冠體塊然	고운 깃과 비단 벼슬 몸체는 꼳꼳하다.
祝家養育應無數	축계옹(祝鷄翁)이 기른 것 응당 무수하였겠고 ²⁾
朱氏化爲已有年	주씨(朱氏)가 변화한 것 이미 오래되었다네. ³⁾
逖是聞鳴推枕覺	멀리서도 울음 듣고 베개 밀쳐 일어나고
適能伐賊繫繩連	능히 도둑 공격하니 노끈 묶어 잇는구나.
憐渠微物天時價	어여쁘다 저 미물 천시(天時)를 잘 알아서
夜夜山窓奏耳邊	밤마다 산창의 귓전에서 우는구나.

1) 수탉은 ~ 받았으니 : 머리의 벼슬은 문(文)을, 발에 생긴 머느리발톱은 무(武)를, 적을 만나 용감히 싸우는 것은 용(勇)을, 먹을 것이 있을 때 서로 부르는 것은 인(仁)을, 새벽마다 우는 것은 신(信)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 오덕이라 하였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 보인다.

- 2) 축계옹~무수하였겠고 : 축계옹(祝鷄翁)은 낙양(洛陽) 사람으로 시향의 북산(北山) 아래 살면서 100여 년 동안 닭을 길렀는데, 닭마다 이름을 붙여 이름을 부르면 그 닭이 왔다고 한다. 『열선전(列仙傳)』, 「축계옹(祝鷄翁)」에 보인다.
- 3) 주 씨가~되었다네 : 『풍속통(風俗通)』에 “사람들이 닭을 부를 때 주주(朱朱)라고 하는 것은 ‘옛날 주공(朱公)’이란 사람이 변하여 닭이 되었다’는 속설에 따른 것”이란 기록이 전한다.

033 吟碁 바둑을 노래하다

碁奕雖稱小數然 바둑 비록 자잘한 기예라 일컬지만
宣尼嗟發已乎賢 공자께서 탄식하며 바둑 둠이 낫다 했지.¹⁾
鍾山道訣豈相較 종산의 도결(道訣)과 어찌 서로 비교하며?²⁾
白鶴枚楸我更憐 백학관의 바둑판³⁾을 내 더욱 아낀다네.
王甫隨緣徒適性 왕보⁴⁾는 인연 얻고 품성에도 맞았으니
孝誠時習取遮眠 효성하며 때로 익혀 잠 쫓는 데 사용했지.
後人若使行詭術 뒷사람이 만약 속임수를 쓸까 하여
班固肯編奕旨篇 반고는 즐겨하며 「혁지」편을 엮었다네.⁵⁾

1) 공자께서~했지 : 『논어』 「양화(陽貨)」에 나오는 공자의 말을 차용한 것이다. 여기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루 종일 배불리 먹고 아무 마음도 쓰지 않고 지내기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바둑이나 장기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라도 하는 것이 그나마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다. [飽食終日, 無所用心, 難矣哉. 不有博奕者乎. 爲之猶賢乎已.]”라고 한 데에서 나온 말이다.

2) 종산의~비교하며 : 종산은 곤륜산(崑崙山)의 별칭이다. 신선 서왕모(西王母)가

58 淸溪幽香

산다고 하여 신선 세계의 대명사로도 쓰인다. 도결은 도가(道家)의 비결(秘訣), 즉 단약을 복용함으로써 신선이 되어 장생불사한다는 등의 설을 가리킨다. 따라서 본문은 바둑을 단순히 신선놀음으로만 볼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 3) 백학관의 바둑판 : 소동파와 관련된 고사에서 따온 말이다. 일찍이 소동파가 여산의 백학관(白鶴觀)에서 노닐었는데, 관 안의 사람들이 모든 잠든 즈음에 고송(古松)과 시내 사이에서 바둑 두는 소리가 들려 왔다. 소동파는 기쁜 생각이 들어 이때부터 바둑을 배우려 하였으나 끝내 배우지 못하였다. 반면에 그의 아들과(過)는 바둑을 잘 두어 담이(僂耳) 태수 장중(張中)이 날마다 와서 과와 바둑을 두었다. 옆에 앉아 하루 종일 구경하던 소동파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오로봉 앞에 있는 백학관의 유지에는, 노송 그늘 뜰을 덮고 해와 바람 맑다네. 나는 때로 혼자 놀며 선비 하나 못 만났는데, 누구와 바둑 두는지 문 밖에는 신이 두 절레. 사람 소리 들리지 않고 알 놓는 소리 들리는데, 바둑판에 마주앉은 이 맛을 누가 알랴. 낚시 바늘 없으니 고기에 뜻 있으랴, 아들은 도 가까이 위 손가락 펴 두드리네. 이기면 기쁘지만 저도 역시 기쁘니, 넉넉하고 한가하여 다시 무얼 바라리오.”[五老峯前白鶴遺址，長松蔭庭風日清美。我時獨遊不逢一士，誰與棋者戶外屨二。不聞人聲時聞落子，紋枰坐對誰究此味。空鉤意釣豈在魴鯉，小兒近道剝啄信指。勝固欣然敗亦可喜，優哉游哉聊復爾耳]

- 4) 왕보 : 관우의 부하 장수.

- 5) 반고는~엮었다네 : 한나라 반고의 지었다는 「혁지(奕旨)」란 글이 『예문유취(藝文類聚)』, 『어람(御覽)』, 『고문원(古文苑)』 등에 실려 있는데, 반고가 이 글을 지은 목적은 바둑의 묘수를 가르치는 데 있지 않고 도를 가르치는 데 있었음을 밝힌 것이다.

034 丁巳春 與李元入會于龍溪塾 連日相歡 走筆

成韻 정사년 봄에 이원과 함께 용계서숙에 입회하여 연일 서로 기뻐하며 붓을 달려 시를 지었다

春愁世慮合長歌 봄 근심과 세상 염려 긴 노래와 합쳐지고

草綠南坡細雨過 풀 푸른 남쪽 언덕 보슬비가 지나간다.
遠樹蒼茫孤鳥沒 먼 데 나무 아득한데 외론 새 잠겨 있고
窮山寥廓落花多 궁한 산 툇 트여서 지는 꽃이 많구나.
君吾歲去鬢飜雪 자네와 나 세월 흘러 살쩍은 희어지고
今古評來海逝波 고금을 평하노니 바다엔 물결 일듯.
但願江湖隨日日 바라는 건 날마다 강호에서 붙쫓는 것
同盟淸分竟如何 맑은 분수 함께하니 마침내 어떠한가.

靄天和氣暖如蒸 구름 하늘 화기(和氣)가 찌는 듯 따듯한데
何事新愁倍襞層 무삼 일 새 근심에 주름이 배가 되나.
半畝方塘春水活 반 무의 연못에 봄 물이 활기 차니
一犁恩霈麥郊登 밭 갈기 좋은 비에 보리밭은 익어간다.
身與世疎家尙客 세상과 몸이 소원하여 집이 되레 객지 같고
心隨境淨俗還僧 경계 따라 마음 맑아 세속 외려 승려일세.
自恨樗材爲棄物 쓸모없는 재주로 기물(棄物)됨을 한하면서
卅秋蓬下臥無能 서른 해를 쭉대 아래 무능하게 누었나니.

杜宇啼殘野草肥 두견이 울음 쇠잔하니 들풀은 살져 있고
襄陽孤客未能歸 양양 땅 외론 길손 돌아가지 못했구나.
人逢知己琴生韻 사람이 지기 만나 거문고에 운치 일고
里慣淳風夜闌扉 마을 풍속 순박하여 밤에 사립 열어둔다.

60 清溪幽香

澗響添愁鳴泔泔	계곡 소리 시름 더해 팔팔팔 울어대고
庭花經雨笑微微	마당 꽃은 비를 맞아 살포시 미소 짓네.
春來每恨多樽債	봄이 오면 언제나 술빚 많음 한하노니
感憶巴翁醉典衣	파옹(巴翁)이 옷 저당 잡혀 취하던 일 생각하네.

035 遣懷 회포를 달래다

東風習習柳絲絲	봄바람 건뚝 불어 버들 실 하늘대고
麥雨今朝歲不飢	오늘 아침 맥우(麥雨) 오니 올해 굶지 않겠네.
夢裏江湖懷苑老	꿈속에도 강호에서 원노(苑老)를 그리면서
琴中山水憶鍾期	거문고 속 산수에서 종자기를 생각하네. ¹⁾
數間冷淡溪頭屋	몇 칸의 시원한 시내 머리 집에서
一部呻吟病枕詩	한 부의 병중 시를 끄끙대며 읊조린다.
事業何求耕讀外	밭갈이와 독서 외에 무슨 사업 구할거나
從知清分莫斯宜	맑은 분수 마땅함을 이로써 알았다네.

感子山扉剝啄聲	산중 사립 두드리는 그대 소리 느껴운데
園林篩日倒窓明	동산 숲 햇빛 걸러 되레 창이 환하구나.
庭梅欲動樽香熟	뜰의 매화 피려하고 술동이엔 향기 익어
澗柳初醒鳥語清	시내 버들 갓 술 깨니 새 소리가 맑구나.

第一卷 居閒偶吟 61

歲去還慙群悔積 세월 가니 도리어 후회 많음 부끄럽고
春來難抑衆懷生 봄이 오니 온갖 회포 물리치기 어려워라.
嵇琴阮哭君休道 혜강 거문고 완적 통곡²⁾ 그대는 말을 마오
缺界猖狂揔不平 험한 세상 미친 노래 모두 다 불평일세.

- 1) 거문고 속~생각하네 : 거문고 속 산수는 백아가 연주하고 종자기가 들었다는 거문고의 곡조인 고산유수곡(高山流水曲)으로, 종자기만이 백아의 거문고 속 산수를 알았기 때문에 종자기를 떠올린 것이다.
- 2) 혜금완곡 : 진(晉)나라 때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인 혜강은 거문고를 타고 시 읊기를 즐겼는데, 그가 창제한 거문고가 바로 혜금이다. 삼국 시대 위(魏)나라의 명사인 완적은 혼자 수레를 몰고 돌아다니며 즐기기를 좋아했는데, 길이 끊어진 곳을 만나면 문득 통곡하며 돌아오곤 했다는 고사가 있다. 『삼국지(三國志)』 「왕찬전(王粲傳)」에 나온다.

036 霽後卽事 비겐 뒤에 짓다

高齋疎冷可幽棲 높은 집 선선하여 숨어 살기 좋은데
一雨前霄綠漲溪 간밤에 내린 비에 푸른 시내 물 불었네.
曉霧留簷牕暗暗 새벽 안개 처마 남아 창문이 어둑하고
頑雲向浦樹低低 짙은 구름 포구 향해 나무가 나직하다.
鳩愁霽意歸園喚 비둘기는 비 잦 싫어 울면서 돌아가고
鳥妬春情送澗啼 새는 춘정 질투하여 우짖으며 떠나가네.
眞樂箇中何所有 이 중에 참된 낙은 어느 곳에 있을까

62 清溪幽香

瓦樽沈醉夢魂迷 사발 술에 듬뿍 취해 꿈속 뉘만 어지럽다.

037 乙卯秋七月 龍溪松竹兩接會于潁江 을묘년 가을 7월
영강에서 용계와 송죽 두 시사(詩社)가 회동하다

三三兩兩向沙場 들 셋씩 짝을 지어 백사장 향해 가니
寥廓平郊白日長 고요한 교외에선 백일이 길고 길다.
浦上村家依樹迢 포구 옆 시골집은 나무 기대 아득하고
座中詩句使人香 좌중의 시구에 사람들은 향기롭네.
秋江砧動響千谷 가을 강 다듬이 소리 일천 계곡 울리고
夕帆鷗回青數崗 갈매기 나는 저녁 돛에 몇몇 산이 푸르구나.
勝會偶成今既望 오늘 이 16일에 좋은 모임 이뤄지니
寧辭此地亂盃觴 어지러이 오가는 술잔 어이 사양하리오.

038 戚叔高澗松丈彥經臨枉溪齋 共宿 척숙인 간송 고언경
어른이 계재에 오셔서 함께 묵었다

一袖飄飄錦上風 한 소매 나부끼니 비단 위로 바람 일고
溪齋涔寂對床同 냇가 집서 적막하게 침상을 함께 했지.

第一卷 居閒偶吟 63

鬢髮緣何隨歲白	살쩍 터럭 어이하여 세월 따라 희어지나
盃樽到處盡顏紅	술잔 술통 이룬 곳에 얼굴 온통 붉어졌네.
養靈襟在烟霞界	마음을 기르는 일 연하 경계 달려 있고
得活計來捆織中	먹고 사는 계획 얻음 베 짜는 중에 있네.
從知自古邱園士	예로부터 구원(邱園)에 숨어 사는 선비가
何必深關世不通	굳이 문을 닫아걸고 세상과 끊음 알겠구나.

039 陪澗松戚叔 往余敬夫松亭 간송 척숙을 모시고 여경부의
송정에 가다

塢竹園松也自青	언덕 대와 동산 술은 저절로 푸르나니
世人皆醉子能醒	세상 모두 취했어도 그대 능히 깨었다네.
葱籠樹木繁藏屋	무성한 수목들은 어지럽게 집 감추고
窈窕溪山匝如屏	그윽한 산과 계곡 병풍처럼 둘러 있다.
潭月前霄同賞宿	못의 달과 앞 하늘을 함께 보고 잠을 자며
亭雲此日復吟停	정자 구름 오늘에 시 읊으며 머문다네.
悲歡聚散那堪說	슬픔 기쁨 모이고 흠어짐 어찌 차마 말하리
更恨吾生逝水汀	이 내 인생 물처럼 흘러감이 안타깝다.

64 清溪幽香

040 梅 매화

尤物元多早又遲	좋은 물건 원래 너무 이르거나 더딘 법
冬香春馥各時時	겨울 향기 봄 내음이 제 각각 때에 맞네.
天姿暗與冰霜較	천품은 은연중에 얼음 서리 견주고
韻格清同玉雪期	운격은 맑기가 옥설과 한가지라.
范老高櫺平品備	범중엄 ¹⁾ 의 집에서는 품평이 갖추졌고
晞顏芳譜嘆尙奇	희안 『군방보(群芳譜)』 ²⁾ 엔 기이함을 찬탄했지.
從知馨德眞難友	알겠구나 향기로운 덕 벗 삼기가 어려워서
今古騷人幾有詩	고금의 시인들이 거의 시를 지었음을.

1) 범중엄 : 중국 북송 때의 정치가이자 문화가.

2) 군방보 : 중국 명나라 때 王象普가 편찬한 책이름. 원래 이름은 如堂群芳譜로서 갖가지 곡물, 화훼 등의 종류, 재배법, 효능 등을 설명해 놓았다.

041 居家偶吟 六言 집에 있다 우연히 읊조리다 육언

養靜節食是藥	고요함과 음식 절제 이것이 보약이요
腴仁味義當肉	인과 의를 살찌움이 고기에 해당하네.
希天浩浩蕩蕩	하늘처럼 호호하고 탕탕하기 희망하고
仰泰巖巖矗矗	태산처럼 높다랗고 무성하길 바라노라.

第一卷 居間偶吟 65

菜糲不換膏粱	나물과 현미밥을 고량진미 안 바꾸고
富貴視若雲烟	부귀를 바라보기 구름 안개 같이 하리.
省察整我門庭	성찰하여 내 집 뜰 가지런히 정돈하고
存養沃我丹田	존양하여 내 단전 비옥케 하리로다.

滿壁圖書得眞	벽 가득한 도서로 진리를 얻으니
數間茅屋易安	몇 칸의 띠 집도 편안하기 짝이 없다.
千尺松栴作圃	천 척의 솔과 녹나무는 원포 ¹⁾ 를 이루었고
一曲溪山抱欄	한 굽이 시내 산은 난간을 안았구나.

1) 園圃 : 과수나 채소 따위를 심는 뒤란이나 뜰.

042 代松菊嘲梅蘭 소나무와 국화를 대신하여 매화와 난초를 비웃다

問梅蘭	매화와 난초에게 묻노라.
爾特其芳爾特香	너는 특히 꽃답고 너는 향기로워도
梅縱善姿經夏謝	매화의 고운 자태 여름 가면 이울고
蘭雖稱馥待秋黃	난초 비록 향기 나도 가을엔 시드누나.
勸爾莫道傳花譜	화보(花譜)에 전한다고 말하지 마시게나
隨處誇華詎久長	곳마다 뽐내어도 얼마나 장구하리.

66 清溪幽香

松菊答	소나무와 국화가 대답하다.
儂不以芳儂不香	나는 꽃답지도 않고 향기롭지도 않지만
黃花翠葉凌千雪	노란 꽃 푸른 잎은 천 길 눈을 깔보고
赤甲蒼髯穿百霜	붉은 갑주 푸른 수염 백 길 서리 꼬떡없네.
嗟我見知陶後鮮	“도연명 이후에 드물다” ¹⁾ 는 그 말 내가 아노니
誰傳花譜較短長	어느 누가 화보 전해 장단을 비교할까.

- 1) 도연명 이후에 드물다 : 송나라의 유학자 주돈이(周敦頤)가 그의 대표 문학 작품인 「애련설(愛蓮說)」에서 한 말이다. 「애련설」에 “국화를 사랑함은 도연명 이후 거의 듣지 못했다. 연꽃을 사랑함이 나와 같은 자는 누구인가? 모란을 사랑함은 웅당 많으리라”[菊之愛, 陶後鮮有聞. 蓮之愛, 同予者何人. 牡丹之愛, 宜乎衆矣]는 말이 보인다.

043 秋柳 가을 버들

凜凜霜威一夜生	싸늘한 서리 기운 하루 밤에 생겨나니
憐渠殘質病秋聲	가련타 시든 줄기 가을 소리 앓는구나.
近江先帶憔悴色	강 근처 먼저 앞서 초췌한 빛 띠었으니
送客偏含悽悵情	객 보내고 슬픈 정을 머금은 까닭일세.
瘦葉嶙嶙疎影漏	여윈 잎 들쭉날쭉 성근 그림자 새어들고
萎枝屈曲冷烟晴	시든 가지 구불구불 찬 안개가 개이누나.

黃鶯何去螢花亂 피꼬리는 어디 가고 반디불만 어지럽나
謾把詩章弔渭城 펜스레 시문 지어 위성¹⁾ 버들 조문하네.

- 1) 위성 : 위성은 주로 당나라 왕유(王維)의 「송원이사안서(送元二使安西)」란 시에 보이는 이별의 공간으로 많이들 인식되나, 여기서는 가을 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산 정약용의 「답이판서시수(答李判書時秀)」란 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정(檉)이라는 버드나무는 일명 수사류(垂絲柳)라고도 하고 일명 서하류(西河柳)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능수류(菱殊柳)라고도 하며 위성류(渭城柳)라고도 합니다.” 본문의 위성은 이 위성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044 秋日 與權丈石汀 高丈秋堂 高戚叔澗松丈 族人西溪 共賦
가을 날 권석정 어른, 고추당 어른, 척숙 고간송 어른,
족인 서계와 함께 시를 짓다

小軒爲闢屋之東 사는 집 동쪽에 작은 집을 열었는데
耿耿孤燈夜半空 빛나는 외로운 등불 한밤중에 쓸쓸하다.
野外穠禾黃已熟 들 밖의 벼 이삭은 누렇게 익었고
座邊鬢髮白相同 좌중의 살쩍 터럭 모두가 새하얗네.
西城風雨狂潮裡 서쪽 성은 비바람 쳐 미친 조수 속에 있고
此地峨洋妙曲中 이곳엔 아양(峨洋)의 묘한 곡조¹⁾ 속에 있네.
詩可入眞方到骨 시문이 진경 들어 뼈까지 사무치니

爲山九仞庶成功 아홉 길의 산 만들기 성공하기 바라노라.²⁾

-
- 1) 아양의 묘한 곡조 : 아양곡으로 고산유수곡이라고 한다. 백아가 종자기를 위해 연주했던 거문고 곡이다. 마음에 통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시를 짓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 2) 아홉 길의~바라노라 : 『서경』 「여오(旅獒)」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서 차용하였다. “밤낮으로 혹여라도 근면하지 못한 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작은 행동이라도 신중히 하지 않으면 끝내는 큰 덕에 누를 끼치니, 아홉 길의 산을 만들 적에 한 삼태기의 흙이 부족하여 그 공이 허물어지는 것과 같다.”[夙夜, 罔或不勤. 不矜細行, 終累大德, 爲山九仞, 功虧一簣]

045 壬申十一月十五日 親忌定齊日也 哀感不已 吟
一絶 임신년 11월 15일은 아버님 기일이다. 슬픈 감정이 그치지 않아
절구 한 수를 읊었다

甲子終天痛	갑자년에 천붕지통(天崩之痛) ¹⁾ 마치었는데
居然歲九秋	어느 새 아홉 해가 흘러갔구나.
年年今日淚	해마다 오늘은 눈물 흘리니
一一罪窮流	방울방울 죄를 다해 흘리는 걸세.

1) 임금이나 아버지의 상사(喪事)를 당한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046 偶吟 우연히 읊조리다

半生何所成	반생에 이룬 바가 무엇이더뇨
追悔暮年萌	후회의 맘 노년에야 싹터 나누나.
壯志元來病	장한 뜻 원래부터 병이 들었고
狂潮舉世鳴	미친 조수 온 세상에 울어대었지.
竹邊風自吟	대숲 곁에 바람은 저 혼자 읊고
月下雪重明	달 아래 눈빛은 더욱 밝구나.
斗屋餘黃卷	작은 집에 책들이 남아 있어서
聊忘老去情	애오라지 늙어가는 정을 잊노라.

047 李兄潤翠訪余于先齋 이간취 형이 선재로 나를 방문하였다

相分密邇又相從	친분도 가깝지만 또한 서로 종유하여
若佩芝蘭入室醞	지초 난초 차고서 방에 든 듯 향기 짙다. ¹⁾
無奈年光如水逝	물처럼 흘러가는 세월을 어찌 못해
翻驚鬢髮已衰容	터럭 살쩍 센 모습에 화들짝 놀라누나.
閒中佳趣園清竹	동산의 맑은 대는 한가함 속 좋은 정취요
物外貞操澗翠松	시내의 푸른 솔은 물외의 정조로다.
此日送兄南浦夕	이날 저녁 남포로 형을 전송하면서

70 清溪幽香

重重贈約在頻逢 거듭하여 자주 만날 약속을 남긴다네.

- 1) 지초 난초~ 향기 짙다 : 『공자가어(孔子家語)』에 보이는 다음 구절에서 따왔다.
“선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마치 지초와 난초의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 오래되면 그 향기는 못 맡더라도 바로 동화된다.”[與善人居, 如入芝蘭之室, 久而不聞其香, 卽與之化矣]

048 歸家卽事 乙丑四月二十日 집에 돌아와서 즉흥으로 읊축년
4월 20일

醉裏斜陽感慨多	석양 속에 취하노니 감개가 무량한데
江南春盡杜鵑歌	두견새 노래 속에 강남에 봄 다했네.
頭生白髮緣憂世	머리에 난 백발은 세상 근심 때문이나
面熟青山喜近家	친숙한 푸른 산이 집 가까워 기쁘도다.
風拍程塵輕掃旣	바람 불어 길의 먼지 가볍게 쓸려가고
雨甘隴麥茁長俄	비가 내려 언덕 보리 싹이 부쩍 자랐네.
歸來滿說齋居樂	재거(齋居)의 즐거움을 돌아와 말하노니
物外烟霞可詠哦	물외의 안개 노을 읊조릴 만하구나.

049 曉起 새벽에 일어나서

曉起山窓下	새벽녘에 일어나 산창 아래서
閒聽群動聲	못 동물의 소리를 한가히 듣네.
東陌黃鸝囀	동쪽 길엔 피꼬리 지저귀어대고
南郊布穀鳴	남쪽 교외 뻬곡새 울음 우누나.
風定溪流穩	바람 잦자 계곡 물 평온도 하고
雲開戶牖明	구름 개어 들창이 환히 밝구나.
莫道林深淺	숲의 깊고 얇음은 말하지 말게
太陽至公平	태양은 지극히도 공평하다네.

050 溪行 계곡을 걷다

暖風斜日一筇輕	저물 녀 따순 바람 지팡이 가벼운데
倦步行行溯澗清	게으른 걸음 옮겨 맑은 시내 올라간다.
白鷺爾從何處入	백로 너는 어디 메서 이곳까지 들어와
磯頭向我欲寒盟	낙시터서 날 향해 허튼 맹세 ¹⁾ 하려는고.

1) 허튼 맹세 : 원문은 한맹(寒盟). 춘추시대 노나라 애공(哀公)이 오나라와 회동하였는데, 오나라에서 전에 했던 맹약을 다시 굳건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애공은 자공(子貢)을 시켜 말하였다. “맹약은 신의를 단단하게 하는 것이다. 그

72 清溪幽香

러므로 마음으로 지킬 것을 정하고, 옥과 폐백으로써 상대국을 받들며, 말로 약속을 맺고, 신에게 밝히어 그 약속 지키기를 맹세하는 것이다. 일단 맹약을 맺으면 그것을 고칠 수는 없다. 또 고쳐 맹약할 것 같으면 날마다 맹약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그 쪽에서 전의 맹약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하나, 전에 맺은 맹약을 다시 굳힐 수가 있다면 그 맹약을 식게[寒]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였다. 이후로 맹약을 파기하거나 잊는 것을 ‘한맹(寒盟)’이라 일컫게 되었다. 『춘추좌전』에 보인다.

051 山行 산행

朝來折屐向山行 아침 밝아 기쁘게¹⁾ 산길로 향해 가니
巖路逶迤步不輕 바윗길 구불구불 발걸음 가볍잖네.
鳳舞千年應有瑞 봉황 천 년 춤을 추니 서기 응당 서리었고
獅蹲百可傳名世 사자 백 년 응크려서 이름 세상 전해졌네.

山有舞鳳與獅峯 산에 무봉산과 사봉이 있다

柳濃煙幕鶯歌滑 짙은 안개 버들 속에 피꼬리는 노래하고
松老雲巢鶴夢清 늙은 솔의 높은 등지 학의 꿈²⁾이 맑으리.
收拾芳菲歸臥晚 산나물을 캐어들고 늦게 와서 누우니
帽峯斜日下西楹 모자봉 지는 해가 서쪽 기둥에 내리누나.

1) 기쁘게 : 원문은 절곡(折屐). 중국 진나라 재상이었던 사안(謝安)이 그의 조카인 현(玄)을 보내어 진병(秦兵)을 막게 했는데, 현이 과연 8천 명의 군사로 진나라 백만 대군을 쳐부수었다. 장계가 도착했을 때 사안은 바둑을 두고 있었다. 손님

第一卷 居閒偶吟 73

이 소식을 묻자 사안은 기뻐하는 기색을 내보이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도적을 이미 쳐부수었군.” 그리고는 바둑을 계속 두었다. 그런데 손님을 보내고 문안으로 들어오다가 나막신(屐)이 문턱에 걸려 부러지는(折) 줄도 몰랐으니, 매우 기뻐하기 때문이었다. 이후 절극은 매우 기뻐함을 일컫게 되었다.

- 2) 학의 꿈 : 원문은 학몽(鶴夢). 범속함을 초탈하여 멀리 떠나가는 것을 말한다. 당나라 사공도(司空圖)의 「여이생론시서(與李生論詩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땅은 청량하여 학의 꿈 맑고, 숲은 고요하여 스님 모습 엄숙하네.”(地涼清鶴夢, 林靜肅僧儀)

052 大風 큰 바람

萬壑松風動碧波 골짜기 가득 솔바람에 푸른 물결 일어나니
頑雲引雨陣如過 짙은 구름 비를 끌어 군진(軍陣)이 지나는 듯.
暗知世界皆聲利 세상 온통 명예 이익 다투는 줄 짐짓 아니
慾海風潮較量多 욕해(慾海)의 바람 물결 누가 센가 견주는 듯.

053 李潤翠兄適至 余方觀退溪集詩卷 次芝山蝸舍韻 留別一夕

이간취 형이 마침 왔을 때 나는 퇴계 이황의 시집을 보고 있었다. 「지산와사」¹⁾시에 차운하여 하룻밤을 묵고 작별하다

開襟相對碧窓傍 푸른 창 옆에서 흥금 열어 마주하니
爲吐塵情藏肚滿 배속 가득 티끌 정을 토해내기 위해서라.

74 清溪幽香

屋近山眉依樹穩	산자락에 가까운 집 나무 기대 평온하니
軒當泉眼使人涼	집이 샘물 곁에 있어 시원하게 해주네.
盃邊剩得乾坤大	술잔 옆에서 거대한 천지를 만끽하고
卷裏全忘歲月長	책 속에서 유장한 세월을 다 잊누나.
物外烟霞從此領	물외의 안개 노을 이로조차 거두니
箇中清趣有誰量	개중에 맑은 정취 누 있어 헤아리랴.

- 1) 「지산와사」: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외집(外集) 권1에 실려 있으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高齋瀟灑碧山傍, 祇有圖書萬軸藏. 東澗遶門西澗合, 南山接翠北山長. 白雲夜宿留簷濕, 淸月時來滿室涼. 莫道山居無一事, 平生志願更難量. / 卜築芝山斷麓傍, 形如蝸角祇身藏. 北臨墟落心非適, 南挹烟霞趣自長. 但得朝昏宜遠近, 那因向背辨炎涼. 已成看月看山計, 此外何須更較量.”

054 散步歸飲 산보하다 돌아와 술을 마시다

十載猖狂等夢場	십 년 세월 정신없어 한 바탕 꿈이러니
出門無語對斜陽	문을 나서 말없이 석양을 마주하네.
空林鳥返千峰暮	빈 숲으로 새는 가고 천 뒤편에 날 저물어
晚浦鷗回一水長	저문 포구 갈매기 와 강줄기가 길구나.
宅近青山甘冷落	집이 청산 가까워 냉락함 달다마다
頭生白髮飽炎涼	머리에 백발 돌아 염량세태 질렀다네.
浩歌唱罷呼罇急	호탕하게 노래하다 급히 술을 청하여

攪碎窮愁醉倒觴 궁한 시름 깨부수고 잔 기울여 취하노라.

055 栢谷八景 백곡¹⁾ 팔경

鳳山春花 봉산의 봄 꽃

鳳岫春深滿發花 봉산에 봄은 깊어 꽃이 가득 피었는데
東風日暖影交斜 봄바람에 날 따스해 그림자 빗기었네.
化翁識得天幾動 천기의 움직임을 조화옹이 잘 알아서
色色裁成錦繡加 빛갈 빛갈 마르 재어 비단 수를 더했구나.

永澄高松 영등의 키 큰 소나무

風露多年浥養中 바람 이슬 여러 해를 적시어 길러내니
蒼髯老大巷之東 골목 동편 푸른 수염²⁾ 늙고도 우뚝하다.
時時漲起寒濤急 때때로 찬 물결을 다급하게 일으켜서
攪罷山窓午枕聲 산창의 낮 단잠을 흔들어 깨우누나.

陽田古竹 양전의 오래된 대나무

勁烈飄蕭帶線陽 굳건하고 소쇄하여 한 줄기 빛 띠었어도
風霜鏖戰未能長 바람서리 도전받아 자라지를 못하였네.
憐渠不變千秋節 아름답다 천추에 변하지 않은 절개여

76 清溪幽香

雖處群芳特出常 못 꽃 사이 처해도 특별히 빼어나네.

獅峰歸雲 사자봉으로 돌아가는 구름

聳立獅峯出白雲 흰 구름 벗어나 우뚝 솟은 사자봉
濛濛靄靄隔牕嚙 아마득히 자욱하게 창 너머로 석양지네.
何來一陣須臾捲 한 무리 어디서 와 잠깐 만에 걷히었나
面面層巒色色分 층층 뒤편면마다 색색으로 나뉘누나.

月方樵歌 월방산의 나무꾼 노래

特峯高插勢難摩 봉우리 높이 박혀 접근하기 어려운데
採笛樵琴處處多 나무꾼의 노랫소리 곳곳에서 들리누나.
缺界昇平爲汝問 험한 세상의 태평성대 그대에게 묻노니
康衢煙月更如何 강구연월 태평세월 다시금 어떠한가.

帽峰落照 모자봉의 낙조

峯如帽樣勢能環 봉우리 모자 닮아 두를 만한 형센지라
接翠交襟兩巷間 두 골목 사이에서 푸름 접해 맘 나누네.
可愛殘暉添活繪 어여빠라 남은 햇살 산 그림을 보태주니
齊王何事泣牛山 제나라 왕 무슨 일로 우산에서 울었던가.³⁾

寒泉 찬샘

石隙濺濺冽且清 바위틈에 솟는 물은 차고도 맑아서
令人歎可滌塵情 사람이 마신다면 티끌 마음 씻게 하리.
愧吾點檢無餘得 스스로를 점검하매 남음 없음 부끄럽다
看取鑑空徹底明 허공 비취 철저하게 밝혀서 취해 보리.

小瀑 작은 폭포

石齒嶮巖小瀑懸 들쭉날쭉 돌 벼랑에 작은 폭포 걸렸는데
轟雷作雪幾多年 우레 같은 소리로 눈 뿌린 지 몇 해던가.
磯頭久坐凌炎熱 물가에 오래 앉아 더위를 깔보나니
肯教銀河落九天 은하수가 구천에서 떨어졌다 할 만하다.

- 1) 문경시 산북면에 있는 운달산 줄기가 길게 뻗어 산북, 호계, 산양면의 경계에 솟은 산이 월방산이며, 그 산의 한 골짜기 이름이 백곡이다. 초계 변씨의 묘역과 재실(思孝齋)이 있다. 아들인 춘강선생도 같은 경치를 두고 이 시에 맞추어 사효재 구경을 지은 것이 흥미롭다(215면 참조).
- 2) 푸른 수염 : 원문은 창염(蒼髯). 소나무의 다른 이름으로, 소나무를 창염수(蒼髯叟)라고도 한다. 푸른 솔잎을 수염에 비긴 것이다.
- 3) 제나라 왕 ~ 울었던가 : 우산은 제나라의 교외에 있던 유명한 산이다. 춘추 시대 제나라의 경공(景公)이 이 산에 올라 노닐다가, 북쪽으로 제나라 성을 굽어보고는 이름다운 제나라를 두고 죽어야 함을 탄식한 고사가 전한다. 『안지춘추(晏子春秋)』 등에 보인다.

056 田家老翁 시골집 늙은이

犢犢單衫曉關扉 잠방이 홀적삼에 새벽에 사립 여니
 郊天雲捲曙星稀 구름 걷힌 교외 하늘 새벽 별이 드물구나.
 岩間種秫能徵稅 바위 사이 차조 심어 세금을 충당하고
 宅畔栽桑不患衣 집 곁에 뽕을 길러 옷 걱정이 없다네.
 縱老尙餘耕耨力 늙어감에 여유 있어 농사일에 힘을 쏟고
 不飢寧以菜蔬肥 주리잖아 편안히 푸성귀로 살찌누나.
 斯翁可謂康衢裏 이 늙은이 태평세월 산다고 말을 하니
 堪賀年年擊壤歌 해마다 격양가¹⁾로 하례를 할만하다.

1) 격양가 : 중국의 요(堯) 임금의 천하를 다스린 지 50년 만에 민심을 살펴보고
 미복으로 큰 거리에 나가 보았더니 한 노인이 배불리 먹고 흙덩이를 치며 이렇
 게 노래했다고 한다. “헤 뜨면 일하고 헤지면 쉬고요, 농사지어 밥 먹고 우물
 파서 물마시니, 임금이 나에게 베푼 은덕 무엇이뇨” 태평시대를 잘 형용한 노래
 로 바로 격양가이다.

057 潁隈小會 癸酉三月三日 영수(潁水)¹⁾ 물굽이에서의 작은 모
 임 계유년(1933년) 3월 3일

或向空汀或上埕 빈 물가를 향하거나 대 위에 올라서니
 清流任放舊風迴 맑은 물 흘러가고 옛 풍취 돌아오네.

第一卷 居閒偶吟 79

怒濤激石魚罹箔 성난 물결 바위 치니 그물로 고기 잡아
 狂飈餞花客倒盃 거센 바람 꽃 전별에 객은 술잔 기울인다.
 潁北雪殘鴻已斷 잔설 남은 영수 북쪽 기러기는 끊기었고
 江南草綠鵲重來 강남의 초록빛에 제비 다시 오노매라.
 紅塵紫陌非吾意 세속의 도회지는 내 뜻이 아닐러니
 款乃聲中笑語開 어기영차²⁾ 소리 속에 웃음꽃이 피었구나.

1) 영수 : 문경에서 남쪽으로 60리쯤에 쌍룡(雙龍)이란 언덕이 있는데, 그 북쪽에 화산(華山)이 있고 그 동쪽에 영수(潁水)가 흐른다. 이 지역은 그 경치가 빼어나
 예로부터 많은 선유들이 이곳을 유람하였다.

2) 어기영차 : 원문의 '款乃'는 음이 오에(禰)로 노 젓는 소리를 음차한 것이니,
 뱃노래를 말한다.

058 戊辰七月旣望 金海庵來臨龍溪書塾 與諸益共
 話 무진년(1928년) 7월 16일에 김해암이 용계서숙에 왔기에 여러 벗과 함께
 이야기하였다

喜把情裾强挽留 옷자락을 즐겨 잡고 애써 만류하고서
 幽軒相對月生樓 그윽한 집 마주하니 누각에 달이 든다.
 一罇酒到隨人酌 한 동이 술이 와서 사람마다 따르노니
 萬事心違付壑舟 온갖 일 어긋나서 골짜기 배¹⁾에 부치리라.

80 清溪幽香

夜寂庭梧收露氣 밤 고요해 뜰 오동은 이슬 기운 머금었고
山空園蟋動秋愁 산 비어 귀뚜라미 가을 시름 우는구나.
慙慙誦罷蘇仙賦 은근히 소동파의 적벽부를 외워 봐도
何似當年赤壁遊 당시의 적벽 노닐과 비슷이나 하겠는가.

1) 골짜기 배 : 원문은 학주(壑舟). 골짜기에 숨겨놓은 배로 『장자(莊子)』 「대종사(大宗師)」에서 끌어왔다. “무릇 골짜기에 배를 숨기고 산을 못 속에 숨겨 두면 안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밤중에 힘센 자가 등에 지고 달아나도 어리석은 사람은 알아채지를 못한다.”[夫藏舟於壑, 藏山於澤, 謂之固矣. 然而夜半, 有力者, 負之而走, 昧者不知也]

059 比安族人弘默顯純彰變來訪 共話 時會思孝齋

비안(比安) 사는 집안 사람 변홍묵, 변현순, 변창섭이 찾아와서 함께 이야기 하였다. 사효재(思孝齋)에서 모였다

夜色相分一點燈 한 점의 등잔불에 밤빛 서로 나누고
涼床促膝坐層層 찬 침상에 무릎 대고 겹겹이 앉았구나.
潁邊泉石名今古 영수 가 산수 경치 고금에 이름나서
座上衣冠半俗僧 자리에 앉은 사람 승속(僧俗)이 반반일세.
往憫思來惟酒可 지난 날 생각날 땐 다만 술이 좋거니와
窮愁練熟尙詩能 궁한 시름 누이기는 시가 외려 좋다네.
斯軒便是芝蘭室 이 집은 다름 아닌 지란실¹⁾이 되었으니

爲採芳菲滿軸登 좋은 채소 캐어다가 수레 가득 싣누나.

1) 지란실 : 선한 벗과 함께 있는 공간을 비유적으로 일컬은 말로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용례가 보인다.

060 又 다시 짓다

細路崎嶇轉峽山	샛길이 험준하게 산을 끼고 돌아드니
講林評石步間關	숲과 바위 평하느라 걸음이 힘겹구나.
烟霧澹蕩重重護	담박하니 짙은 안개 겹겹이 싸여 있고
溪澗潺湲曲曲環	흐르는 계곡물은 굽이굽이 돌아가네.
暗想斯軒營建蹟	이 재실 세운 자취 조용히 생각자니
不堪哀淚亂橫顏	서글픈 눈물이 뺨을 흘러내리누나.
百年花樹團樂地	백 년을 꽃과 나무 단란하던 이곳에
巷外居然落日還	골목 너머 어느새 지는 해 돌아왔네.

061 再翌日 與比安諸益 更會于龍溪書熟 다음날 비안
의 여러 벗들과 함께 용계서숙에서 다시 모이다

河傾斗轉燭深深 기운 은하(銀河) 북두 돌아 등촉만 깊었는데

82 清溪幽香

重對斯筵共討心	이 자리 다시 모여 함께 마음 토로하네.
夜色催深當戶月	사립에 달빛 들어 밤빛은 더욱 깊고
秋懷倍切隔隣砧	이웃의 다듬이 소리 가을 심회 배나 질다.
半生身勢書中老	반평생 신세는 책 속에서 늙었나니
一線鬢霜鏡裏侵	한 줄기 흰 살쩍이 거울 속을 침노한다.
缺界團欒非易事	험한 세상 단란함은 쉬운 일이 아니거니
莫嫌虫語振殘林	벌레 소리 남은 숲서 시끄럽다 싫어 마소.

062 穎上春會 영수 가의 봄 모임

詩社佳緣復穎頭	시사의 좋은 인연 영수 가서 다시 여니
南州吾儕亦清流	남쪽 고을 나의 벗들 모두가 청류일세.
浦邊盤石圓如榻	포구 옆의 반석은 탁자처럼 동그랗고
雲外虹橋亘似樓	구름 밖의 홍교는 누각마냥 걸치었다.
宇宙有誰扶綱紀	우주에 누가 있어 기강을 떠받칠까
男兒無地讀春秋	남아는 어디서고 『춘추』를 읽어야지.
白鷗爾亦江湖客	흰 갈매기 너도 또한 강호의 객이러니
爲我何妨狎近遊	가까이 노니는 것 내게 무슨 방해 되리.

063 丁丑二月二十二日 與蔡省菴兄 共入漢陽石塔
公園 정축년(1937년) 2월 22일 채성암 형과 함께 한양의 석탑공원에 갔다

雕琢神功絕妙良	신공으로 조탁하여 절묘하게 훌륭하니
化身元自出西方	화신(化身)이 처음에는 서방에서 나왔다지.
能撐地軸衝霄際	능히 지축 지탱하고 하늘을 꿰뚫으며
又被天恩對殿房	천은을 또 입어서 전방(殿房)을 마주했네.
欄內禪皆千歲佛	난간 안의 선(禪)들은 모두가 천세불
石中爾亦一金剛	바위 안의 그 또한 하나의 금강이라.
爲珍非特公園裏	진귀함이 특별히 공원뿐만 아니니
知是高名振海洋	높은 이름 해양에 떨칠 것을 알겠노라.

064 三月九日上終南山 3월 9일 종남산¹⁾에 오르다

輕衫短策帶斜暉	가벼운 옷 짧은 지팡이 빗긴 해를 들렀고
石逕逶迤躡翠微	구불구불 돌길엔 푸른 기운 서리었네.
萬丈層巒從北護	만 길의 층층 뒀는 북을 좇아 호위하고
一江流水抱南歸	한 줄기 흐르는 강 남쪽 끼고 돌아간다.
幽香入袖櫻花暖	그윽한 향 소매 들어 벚꽃이 따스하고
淺綠侵茵草色肥	얕은 초록 자리 들어 풀빛이 이들하다.

84 清溪幽香

北望紫雲何處是 자색 구름 어데 있나 북쪽을 바라보니
數聲差笛淚雙揮 몇 가락 피리 소리 두 줄기 눈물 진다.

1) 남산의 옛 이름이다.

065 獎忠壇 장충단

壇以忠名出義眞 장충(獎忠)으로 단을 지어 의리 참됨 드러내니
斯區惟有帝京塵 이곳에만 오로지 제경(帝京)의 흔적 있네.
桃紅柳綠鶯初囀 도화 붉고 버들 푸르러 찢꼬리 처음 울고
松老雲深鶴亦馴 노송엔 구름 깊고 학 또한 순하도다.
萬戶笙歌山影外 만가의 생황 노래 산 그림자 밖에 있고
今朝鼓角潤聲濱 본조의 고각 소리 시내 소리 저편에.
愁看落照低徊處 배회하던 곳에서 근심스레 낙조 보니
只道循環世與均 도(道)는 다만 순환하여 세상과 한가질세.

066 與舍弟行平壤 아우와 함께 평양에 가다

弟兄同是六旬人 형과 아우 둘이 모두 예순의 늙은인데
共伴車床袂接隣 침대칸에 나란히 붙어서 가는구나.
元來嗜欲殊甘苦 원래부터 기욕¹⁾은 달고 썸이 다르거니
我酒君柑老眷新 나는 술 아우는 꿀, 늙어 새것 돌아보네.

1)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기는 일, 또는 그러한 마음.

067 練光亭 연광정

時方重修 故但望見也 마침 중수 중이라 다만 멀리서 바라보았다

大同江上練光亭 대동강 가에는 연광정이 있는데
亭是重修尚未成 정자 중수 미처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風雨頻繁皆病檻 비바람이 빈번하여 모든 난간 병들었고
烟霞喫盡但餘型 안개 노을 모두 마셔 다만 꼴만 남았다네.
臨汀補築依城郭 물가 임해 성곽 끼고 보충하여 쌓으니
凌漢層梯摘斗星 하늘 솟은 층층 계단 북두성을 따올 듯해.
最恨塵筇來不趁 속인 와서 가보지 못함이 큰 한인데
空楹遙望眼空青 빈 기둥을 멀리 보니 눈만 괜히 반갑구나.

068 入關王廟 관왕묘에 들어가다¹⁾

天地間英雄氣	천지 사이 영웅과 호걸의 기개는
閱千秋尙凜然	천 년이 지나도 오히려 늠름하다.
裂土如陳分肉	진평이 고기를 나누듯 ²⁾ 땅 찢어지니
三足鼎五銖錢	천하를 삼분하고 한 왕업 ³⁾ 을 회복했네.
莫奈勢死後已	형세가 다한 뒤에 그뿐임을 어이 못해
殯涕立武侯前	제갈 무후 앞에서 울면서 서 있었지.

1) 관왕묘에 들어가다 : 이 시는 중국 중당 때의 시인인 유우석(劉禹錫)의 「촉선주묘(蜀先主廟)」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유우석의 시는 이렇다. “천하의 영웅과 호걸의 기개는, 천 년이 지나도 오히려 늠름하네. 형세는 천하를 삼분하여 나뉘고, 사업은 한나라의 왕업을 회복했지. 승상의 능력 얻어 나라를 열었으나, 이들이 아비 어짐 본받지 못하였네. 처량하다 지난 과거 촉나라의 기생이, 위나라 궁에 와서 춤을 추었네.”[天地英雄氣，千秋尚凜然。勢分三足鼎，業復五銖錢。得相能開國，生兒不象賢。淒涼蜀故妓，來舞魏宮前]

2) 진평이 고기를 나누 듯 : 중국 한나라의 진평(陳平)이 마을 제사를 끝내고 고기를 균등하게 나누어 주자[分肉食甚均] 마을의 부로들이 칭찬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진평이 “내가 천하의 제상이 되면 지금 고기를 나누어 준 것처럼 공평한 정치를 할 것이다.”[使平得宰天下，亦如是肉矣]라고 대답했다는 고사가 있다. 『사기(史記)』 「진승상세가(陳丞相世家)」에 보인다.

3) 한 왕업 : 원문은 오수전(五銖錢). 오수전은 삼수전을 대체하여 한나라 무제 때 주조한 화폐의 이름이다. 여기서는 한나라 왕업을 대표하는 업적으로 이해했는데, 유우석의 시에 근거를 두었다.

069 清流亭 청류정

清流江上清流亭	청류강 가에 청류정이 서있는데
竹一杖兮酒一瓶	대지팡이 달랑 짚고 술 한 병을 들었네.
野闊峰巒歡拱揖	들이 트여 산봉우리 기쁘게 맞이하고
山深花卉動芬馨	산 깊어 화훼는 향기를 펼쳐온다.
局形宜可稱天府	형국 의당 천부(天府) ¹⁾ 라 일컬을 만하니
人傑元來自地靈	인걸은 본디부터 지령(地靈)에서 나오는 법.
最是斜陽奇絕處	석양이 아름답긴 이곳이 으뜸인데
綾羅島柳絮零星	능라도의 버들개진 아직은 성글구나.

1) 천부 : 천부지토(天府之上)의 준말로 비옥하고 물산이 많은 좋은 땅을 일컫는다.

070 乙密垞 을밀대

乙密仙翁去不來	을밀 선옹 가고 아직 돌아오지 않으니
千秋今日但空垞	천추의 오늘에 누대 다만 비었구나.
舊楣凡跡經桑海	예전 문미 ¹⁾ 모든 자취 상전벽해 되었고
殘堞春痕積薜苔	성가퀴 ²⁾ 의 봄 자취가 이끼에만 앉았구나.
未壯觀人能壯觀	보잘 것 없는 나도 능히 장관 구경하니

88 清溪幽香

不傾盃者可傾盃 술 못 하는 사람도 능히 술잔 기울인다.
 牡丹一朵原相對 모란봉 한 떨기와 원래 서로 마주하니
 難弟難兄是謂哉 난형난제 이를 두고 다만 이른 것일세.

1) 문 위에 가로 댄 나무.

2) 몸을 숨겨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성 위에 덧쌓은 낮은 담. 성첩(城堞).

071 牡丹峯 모란봉

第一峰頭第一台 제일의 봉우리에 으뜸가는 누대 있어
 柳京第一此中開 유경(流京)의 으뜸 물색 이곳에서 펼쳐졌네.
 山光水色無今古 산 빛과 물색은 고금에 없던 바라
 墨客騷人幾往來 시인과 묵객이 얼마나 왕래했나.
 宇宙回瞻空自嘯 우주를 돌아보며 공연히 홀로 읊고
 興亡歷數又停盃 흥망을 두루 헤며 다시 술잔 멈춘다네.
 曠懷欲訪麻姑跡 회포 열고 마고¹⁾ 자취 찾으려 해보아도
 岐路奔羊安在哉 갈림길서 달아난 양²⁾ 어디에 있단 말인가.

1) 마고 할미.

2) 갈림길서 달아난 양 : 『열자(列子)』, 『설부(說符)』에 나오는, 도망간 양을 쫓아가다가 갈림길이 많은 데를 만나서 마침내 양을 잃어버리고 탄식했다는 고사에서 따왔다.

072 浮碧樓 부벽루

繞院層層碧泚城	담을 둘러 층층이 패성 ¹⁾ 이 푸르는데
泚城之下此樓成	패성의 아래에 부벽루가 서 있다네.
化機引來流水力	조화 기미 끌어와 흐르는 물 힘이 있고
殘波灑出細沙精	남은 물결 걸러 내어 가는 모래 정밀하다.
靑山影裏菱歌亂	푸른 산의 그늘 속엔 채룽가 ²⁾ 가 어지럽고
黃鳥聲中柳絮晴	피꼬리 노래 속에 버들개지 개이누나.
回頭暗默停筇立	고개 돌려 말없이 지팡이 짚고 서니
格外尤奇落照明	특별히 더 기이하고 석양이 환하구나.

1) 패성 : 평양의 젓줄인 대동강의 다른 이름이 패강이라, 평양을 예로부터 패성이
라고도 불렀다.

2) 채룽가 : 원문은 능가(菱歌). 채룽가(采菱歌), 즉 연밥을 따는 노래로 악부체의
일종이다.

073 永明寺 영명사

永明一寺着城根	영명사 절 하나가 성 자락에 붙었는데
左右蒼巒勢欲奔	좌우로 푸른 산이 기세 좋게 뻗었구나.
綾島舫人蹲可拾	능라도의 뱃사람들 웅크리면 잡을 듯이

90 清溪幽香

大同江氣坐能吞 대동강의 강 기운을 앉아서도 삼킬 듯해.
磬鳴僧汲岩泉返 경쇠 울자 스님네는 돌샘 길어 돌아오고
鍾落鵬驚栢杪飜 종소리에 수리 놀라 잣나무 끝 번드친다.
白馬泥牛何處去 백마와 진흙 소¹⁾는 어디로 가버렸나
空心金佛坐消魂 무심한 금부처만 앉아 녀을 사르누나.

1) 불가(佛家)에서 인간의 본래 면목(眞面目)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용어. 한말의 대선사인 경허(鏡虛) 스님의 글에 “물 위의 진흙소가 달빛을 밟 같고, 구름 속의 나무 말이 바람 타고 달리네”라는 구절이 보인다.

074 箕子陵 기자릉

陵閣嚴嚴澀浪壟 능각은 엄숙하고 담장은 물결¹⁾지니
蕉蒿悽愴草茸茸 훈훈하고 처창한데²⁾ 잡풀만 무성하다
千秋儀範雙翁仲 천추에 의범 갖춰 두 옹중(翁仲)³⁾ 서 있으니
半島江山一附庸 반도의 강산은 하나의 부庸⁴⁾일세.
仁化遺風尙怱怱 인의 교화 남은 유평 오히려 가득차서
王家崇典幾重重 왕가의 높은 전례 얼마나 중했던가.
悲歌麥秀無人和 맥수⁵⁾의 슬픈 노래 화답할 사람 없어
獨向斜陽住短筇 나 홀로 석양 향해 지팡이 짚고 섰네.

- 1) 물결 : 원문은 삼랑(澗浪). 삼랑은 고대에 돌을 엇지게 놓아 물결무늬처럼 쌓은 담을 일컫는다.
- 2) 훈호하고 처창한데 : 원문은 훈호처창(薰蒿悽愴)으로 『예기』 「제의(祭義)」에 보인다. 여기서 훈(薰)은 향기고, 호(蒿)는 기운이 증출(蒸出)하는 모양이며, 처창은 사람으로 하여금 숙연하게 함을 이른다. 제를 올릴 때 신에 감응하여 자연스레 공경하게 됨을 일컫는다.
- 3) 웅중 : 진나라 완옹중(阮翁仲)은 진시황 때 임조를 지켜 용맹으로 이름이 났는데, 그가 죽자 그의 상을 동으로 만들어 함양의 궁문 앞에 세우게 됐다. 이후 이것이 유래가 되어 묘 앞에 세우는 석상을 웅중이라 칭한다.
- 4) 부용 : 작은 나라가 독립하지 못하고 큰 나라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5) 고대 중국 商나라의 紂王이 失政을 하여 周의 武王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뒷날 箕子가 商의 옛 도성을 지나다가 麥秀지시(麥秀之詩)를 지어 그 사실을 슬퍼하였다. 이를 麥秀之嘆이라고도 한다(궁궐터에 보리만 무성하다는 뜻이다).

075 與平壤諸人 同泛大同江 평양의 여러 사람과 함께 대동강에서 배를 타다

天空野瀾水無涯	하늘 비고 들이 넓어 강물이 끝없는데
款乃聲聲落日斜	배노래 가락 속에 석양이 비끼었네.
萬疊青山檣外畫	만 겹의 푸른 산은 돛대 너머 그림이요
兩三紅妓舟中花	두서넛 젊은 기생 배안의 꽃이로다.
觥籌交錯來明月	평주가 뒤섞이고 밝은 달 떠오를 제
絲管纔收又短笛	관현악 겨우 몇자 피리 소리 이어진다.
放纜暮歸綾島下	돛줄 놓고 저물녘에 능라도로 돌아드니

眠鷗夢破入蒼葭 갈매기 꿈을 깨에 갈대숲²⁾에 들어가네.

-
- 1) 평주 : 누가 많이 마시나 내기를 하기 위하여 마신 술잔의 수를 세는 댓가지를 말한다.
- 2) 갈대숲 : 원문은 창가(蒼葭). 『시경』 「점가(蒹葭)」장에 나오는 “푸른 갈대 흰 이슬”[蒼葭白露]이란 구절에서 따왔다. 이에 본문에서는 점가(蒹葭)와 동일하게 해석하였음을 밝힌다.

076 三光亭 삼광정

孤舟晚泊老岩根	해 질 무렵 외론 배를 바위 아래 정박하고
躡向層梯柳一門	층계(層梯) 밟아 오르니 버들이 한 문일세.
萬里波心寒射夜	만 리의 물결 속에 차갑게 밤 지새고
數聲差笛暗消魂	몇 마디 젓대 소리 말없이 냇이 녹네.
龍跳虎走三光字	삼광이란 글자가 활달하고 굳센데
乙曲丁回百尺軒	백 척의 높은 현은 구불구불 굽이치네.
有妓何來迎客款	어디선가 기생 나와 정성스레 객 맞더니
雙雙間座故傾樽	쌍쌍이 사이 앉아 술동이를 기울인다.

077 埜上望見飛行機 대 위에서 비행기를 바라보다

沙平野濶杳茫茫 모래가 평평하고 들이 트여 아득한 곳
爲設飛船演劇場 비선(飛船)의 연극장을 설치하여 두었구나.
馳陸翻疑良駟走 땅 위를 번드칠 뎌 사마(駟馬)¹⁾가 내달는 듯
起時完似大鵬翔 솟구치니 완전히 큰 봉새가 나는 듯해.
伴雲僅可辭塵世 구름 짝해 티끌세상 멀리 떠날만하니
衝漢必能陪玉皇 하늘 솟아 반드시 옥황상제 따르리라.
流馬木牛何足道 유마와 목우²⁾를 어찌 족히 말하랴
從知化學最西洋 과학은 서양이 최고임을 알겠네.

1) 네 필의 말이 끌도록 된 마차. 또는 그 네 필의 말.

2) 유마와 목우 : 건흥 12년(234) 봄에 제갈량이 대군을 이끌고 사곡(斜谷)을 나가 위수(渭水) 남쪽 오장원(五丈原)에 진을 치고 전투를 시도했다. 사마의(司馬懿)가 장기전으로 대응하자 제갈량이 목우(木牛)와 유마(流馬)를 만들어 군량을 운반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8만 명의 군사를 위빈(渭濱)에 거주하는 민간에 투입하여 둔전을 실시하도록 하고 나머지 2만 명을 돌아가면서 요충지에다 배치하여 수비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전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한 바 있다. 『삼국지』에 보인다.

078 四月初七日 移于梨花町 4월 7일 이화정으로 옮기다

數朔僑居萍愁深 몇 달의 타관살이 부평 시름 깊더니만
今朝翁伴擇枝禽 오늘 아침 늙은 부부 둥지 옮긴 새로구나.¹⁾
城邊春晚梨花洞 성 옆의 이화등엔 봄기운이 늦어서
簾外涼生駱岵陰 주렴 밖 서늘하고 낙산엔 그늘 졌네.
四五房櫳容膝足 네댓 자 방이래야 무릎 겨우 넣겠고
兩三間架卷書任 두세 칸 시렁에는 책만 달랑 놓였구나.
從今幸卜并州地 이제부터 다행히 병주 땅에 살게 되니²⁾
笑喚荊妻更慰心 웃으며 아내³⁾ 불러 다시 마음 위로하네.

- 1) 둥지 옮긴 새 : '장자. 「소요유」에 “초료는 깊은 숲 속에 둥지를 틀어도 필요한 것은 가지 하나에 불과하다”[鸛鵲巢於深林, 不過一枝]라는 말이 보이는데, 본문은 여기에서 따온 것이다. 여기서의 분수에 맞게 자족하는 삶을 형용한 것이다.
- 2) 병주 땅에 살게 되니 : 병주고향(并州故鄉)이란 말에서 따온 말이다. 병주 고향은 오래 살아서 정든 타향을 고향에 비겨 말한 것이다. 당나라 시인 가도(賈島)의 「도상건(渡桑乾)」에 “병주의 타향살이 십 년이 지나도록, 빙뚱으로 고향 함양 돌아가고 싶었다네. 무단히도 다시금 상건수를 건너보니, 도리어 병주가 고향처럼 느껴진다네.”(客舍并州已十霜, 歸心日夜憶咸陽. 無端更渡桑乾水, 却望并州是故鄉)라고 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 3) 아내 : 원문은 형처(荊妻). 중국 후한 때의 사람인 맹광(孟光)은 양홍(梁鴻)의 아내인데, 늘 가시나무 비녀를 꽂고 무명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다녔다. 형처는 여기에서 비롯되었는데, 자신의 아내를 낮추어 말할 때 주로 쓴다.

079 立春日 海庵來訪 回文 입춘에 해암이 방문하다. 회문시¹⁾

順讀 순독

前春立禊社蘭名	지난봄에 계(禊)를 세워 난사(蘭社)라 이름하니
滿室香筵款吐情	집 가득 좋은 자리 정성스레 정 토했지.
烟漾翠簾殘日夕	안개 이는 푸른 주렴 저녁해는 지려 하고
雪侵寒逕斷人行	찬 길에 눈이 내려 인적마저 끊기었다.
全心一敬持身潔	온 맘으로 공경하여 몸가짐이 깨끗하고
整慮群書對燭明	단정한 많은 글이 등불 앞에 환하구나.
連曉曙生懷想暗	새벽 이어 아침 오니 품은 생각 아득하고
年衰我髮白銀成	늙은 나이 내 머리엔 흰 은이 소복하다.

倒讀 도독

成銀白髮我衰年	은빛 이룬 백발이라 내 나이 쇠했는데
暗想懷生曙曉連	지난 생각 떠올리다 새벽까지 이었구나.
明燭對書群慮整	밝은 등불 책을 보며 갖은 염려 정돈하고
潔身持敬一心全	깨끗한 몸 공경 지녀 한 마음이 온전하다.
行人斷逕寒侵雪	행인 끊긴 길에는 추위에 눈 내리고
夕日殘簾翠漾烟	저녁해 남은 발엔 푸르른 안개일세.
情吐款筵香室滿	정 토하며 자리 하니 방에 가득 향기나니
名蘭社禊立春前	입춘을 바로 앞둔 난사(蘭社)의 수계(修禊)라네.

- 1) 회문시 : 잡체시 중 하나로 내리읽거나 치워어도 별도의 시가 되는 시체를 말한다. 순독(順讀)과 도독(倒讀)의 두 가지를 다 보인다.

080 送金東石入國師峯 국사봉으로 들어가는 김동석을 보내며

送人南浦倚於堂 남포에서 작별하고 집안에 기댔자니
白首心懷轉渺茫 흰 머리의 심회가 도리어 아득하다.
萬里雲晴鵬舉翼 만 리에 구름 개어 봉새는 날개 들고
一天霜落鴈隨陽 하늘 가득 서리 내려 기러기 별을 좇네.
山深叢桂應生馥 산 깊어 계수나무¹⁾ 응당 향기 품어내고
歲暮靈芝採不妨 세모라 영지버섯 캐어도 무방하리.
塵外玄都今再到 티끌 너머 현도관(玄都觀)²⁾에 이제 다시 이르니
仙僊疑在國師峯 신선 벗들 국사봉에 아마도 있으리다.

1) 산 깊어 계수나무 : 『초사』 「초은사(招隱士)」에 “계수나무 숲 우거져 산이 그윽하니, 구불구불 뺨은 즐기, 가지 서로 얹히었네”[桂樹叢生兮山之幽, 偃蹇連蜷兮枝相繚]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본문은 여기에서 따온 것으로, 자신이 사는 공간을 은자가 사는 산중 풍경에 빗대어 묘사한 것이다.

2) 현도 : 현도는 중국 당나라 때 장안에 있던 관의 이름이다. 시인 유우석(劉禹錫)이 낭주사마(朗州司馬)로 좌천되었다가 10년 만에 장안에 돌아와 보니, 현도관에 전에 없던 복숭아나무를 한 도사가 새로 많이 심어 놓았다. 그리하여 유우석은 그 복숭아나무를 당시의 권신(權臣)들에 비유하여 풍자하는 뜻으로 시를 지었는데 이렇다. “서울 거리 뿌연 먼지 얼굴을 스치는데, 사람 모두 꽃구경 갔다

온다 말을 하네. 현도관 안에 있는 천 그루 복숭아는, 모두가 이 유랑이 떠난
뒤에 심은 거라오.”(紫陌紅塵拂面來, 無人不道看花回. 玄都觀麥桃千樹, 盡是劉
郎去後栽.)

081 秋日卽事 가을날 즉석에서

一蟬啼惹七秋涼 매미 하나 계속 울어 칠월 가을 서늘한데
老感呻吟倚枕長 늙은 감회 신음소리 베개 기대 길어진다.
此際窮家憂桂玉 이러한 때 가난한 집 계옥(桂玉)¹⁾을 근심하나
丈夫危世戒岩牆 장부는 험한 세상 높은 담장 경계하네.²⁾
桐陰減翠翻驚節 오동 그늘 푸름 줄어 계절 변화 놀라는데
杞實微紅細引香 구기자 설핏 붉어 열은 향기 끼쳐온다.
幸有親朋蘇起我 행여나 친한 벗이 나를 찾아 준다면
沽罇深慰病情忘 술 사서 위로하고 병든 마음 잊을 텐데.

1) 계옥 : ‘떨나무와 쌀’을 고쳐 부른 말이다.

과거 중국 전국 시대 소진(蘇秦)이 초(楚)나라를 떠나면서 “식량은 옥보다 귀하
고, 떨감은 계수나무보다 귀하다.”(食貴于玉, 薪貴于桂)라고 말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것이다.

2) 높은 담장 경계하네 : 『맹자』 「진심상(盡心上)」에 보이는 다음 구절에서 뜻을
취한 것이다. “정명(正命)을 아는 사람은 무너질 듯한 높은 담장 밑에 서지 않는
다.”(知命者, 不立乎巖牆之下)

082 白石亭 백석정

東風三月晚節到 동풍 부는 삼월에 날 늦은 산보 이르니
螺伏幽亭碧山傍 푸른 산 옆자리에 그윽한 정자 옆드렸네.
白石稱名應有以 백석이라 이름한 건 응당 이유 있나니
紅塵斂跡可潛光 티끌세상 자취 거둬 빛 감출 수 있어서라.

沙明水綠鷗盟潔 모래 밝고 물 푸르니 구맹(鷗盟)¹⁾이 깨끗하고
松老雲深鶴夢長 노송에는 구름 깊어 학의 꿈이 길구나.
此地逍遙漁釣樂 이곳에서 소요하며 낚시하는 즐거움을
先生點得任清狂 선생²⁾께서 차지하여 청광(淸狂)³⁾을 자임했네.

1) 구맹 : 갈매기와 의 맹세로 은거하여 자연을 즐기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말한다.

2) 선생 : 백석정은 문경시 영순면 이목리에 있는 정자로 조선중기의 문신인 강제(姜轍, 1526~1582)가 은거하여 학문을 연구하던 곳이다. 선생은 강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광 : 방일하여 얽매임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083 遣懷 회포를 풀다

我求仁宅是安居 나는 인택¹⁾ 구하여 편안히 지내면서
賓主相和禮敬餘 주인과 손 화답하며 예(禮)와 경(敬)이 넘쳐나다.

刻鵠杜良豈效鰲 고니를 새기면서 두랑 어이 본받으리²⁾
 取熊鄒聖捨其魚 곱을 취한 추성은 그 고기를 버렸다네.³⁾
 程明隨柳尋花際 정명도는 버들 따라 꽃 사이서 찾았었고⁴⁾
 曾點浴沂捨瑟初 증점은 욱기(浴沂) 하려 슬을 처음 버렸다네.⁵⁾
 訪友何人題鳳去 찾아온 벗 그 누가 봉 자 쓰고 돌아갔나⁶⁾
 來宵松月夜窓虛 내일 밤 소나무 달 한밤 창에 텅 비리라.

- 1) 인택 : 인(仁)을 비유한 말로 『맹자』 「공손추상(公孫丑上)」에 “인은 사람의 편안 한 집이다”(仁者人之安宅)라고 한 데서 따왔다.
- 2) 고니~본받으리 : 『후한서』 「마원전(馬援傳)」에 보이는 구절, 즉 각곡유목(刻鵠類鰲)에 취하여 표현하였다. 후한의 마원이 자식을 경계하면서 용백고(龍伯高)를 본받고 두계량(杜季良)을 본받지 말라고 했다. 용백고를 본받을 경우 실패해도 얻는 것이 있지만, 두계량을 본받을 경우 실패하면 얻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자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각곡유목(刻鵠類鰲)이고 후자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화호유구(畫虎類狗)이다. 본문의 두랑은 두계량을 가리킨다.
- 3) 곱을 취한~버렸다네 : 『맹자』 「고자상(告子上)」에 보이는 다음 구절에서 따왔다. “고기도 먹고 싶고 곱 발바닥도 먹고 싶지만 모두 먹을 수 없다면 고기를 버리고 곱 발바닥을 취할 것이며, 생명도 보전하고 싶고 의리도 취하고 싶지만 두 가지를 겸할 수 없을 경우 생명을 버리고 의리를 취하겠다.”(魚我所欲也, 熊掌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魚而取熊掌者也.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본문 속 추성은 추에서 태어난 성인, 즉 맹자를 가리킨다.
- 4) 정명도~찾았었고 : 송나라 때의 유자인 정명도(程明道)가 호현(鄆縣)의 주부로 있을 때 지은 시인 「춘일우성(春日偶成)」에 보이는 다음 구절에서 따왔다. “엷은 구름 가벼운 바람 정오가 가까운데, 꽃길 따라 버들 따라 앞 시내를 건너가네.”(雲淡風輕近午天, 傍花隨柳過前川)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에 보인다.
- 5) 증점은~버렸다네 : 공자가 제자들에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하고 묻자 증점이 타던 비파를 내려놓고는[舍瑟] 이렇게 대답하였

다. “기수에서 목욕하고[浴乎沂], 무우(舞雩)에서 바람 쐬 다음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은 『논어』에 보이는 본 고사에서 따왔다.

- 6) 봉 자 쓰고 돌아갔다 : 진(晉) 나라 때 여안(呂安)이 친구 해강(嵇康)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해강은 없고 형인 혜희(嵇喜)가 나와서 맞이하였다. 여안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서 문 위에다 봉(鳳) 자를 써놓고 갔다. 혜희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뻐했는데, 봉자를 파자하면 즉, 범조(凡鳥)이다. 실은 혜희가 평범한 새에 불과하여 만나지 않고 간다고 우롱한 것이었다. 『세설신어(世說新語)』에 보인다.

084 寒食日 訪盤谷海庵 한식일에 반곡의 해암을 방문하다

寒食東風雪滿天	한식날 동풍 불어 하늘 가득 눈발 일고
一村依約亂山邊	어지러운 산 옆에는 마을 하나 단출하다.
主因清趣裁詩軸	맑은 운치 주인장은 시축을 마련해도
隣忌名辰斷午烟	좋은 절기 이웃 꺼려 정오에도 연기 없네. ¹⁾
江近灘聲侵戶冷	강 가까워 여울 소리 찬 기운 집 스미고
峯高樵笛憂雲懸	산 높아 초적(樵笛) 소리 구름 속에 걸리누나.
傍人莫我儔閒謂	한가로이 지낸다고 옆 사람들 말들 마소
老朽全無送窮年	다 늙어 빈털터리 궁한 해만 보내느니.

1) 정오에도 연기 없네 : 한식(寒食), 말 그대로 데우지 않은 찬 음식을 먹는 풍속이 남아 있어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않아 연기가 나지 않은 것이다.

085 潁北社會 영수 북쪽에서의 시사 모임

社中聲聞動聆瞻	사중(社中)의 명성이 눈과 귀를 놀래키니
戰藝詩鋒百鍊尖	문예 겨뤘 시의 예봉 뽀족하게 단련했네.
柳色連堤生短笛	제방 이은 버들 빛에 젖대소리 들려오고
峯陰近午倒踈簾	산그늘은 낮이 되자 성근 주렴 가리누나.
採芝靈園君將健	영원에서 지초 캐어 그대 장차 건강하리
沽酒隣家價亦廉	이웃집서 술 사오니 술값도 저렴하다.
此會休言眞樂味	이 모임의 단란한 맛 말하지를 말게나
二難四美摠能兼	이난사미 ¹⁾ 모두를 아울러 겸했다네.

1) 이난사미 : 이난은 모임에서 갖추기 어려운 것으로 어진 주인인 현주(賢主)와 아름다운 손님인 가빈(嘉賓)을 가리킨다. 사미는 모임을 좋게 만드는 네 가지 조건으로 좋은 때인 양신(良辰), 고운 경치인 미경(美景), 기리는 마음인 상심(賞心), 즐거운 일인 낙사(樂事)이다.

086 盤谷書堂 逢諸彦 반곡서당에서 여러 분과 만나다

一座清流物外遊	한 자리의 청류들이 물외에서 노니니
傷時感世本非求	시대 상심 세상 감회 본디 구함 아닐세.
罇醪浪藉紅生頰	술잔이 낭자하여 뺨에는 홍조 띠고
歲月蹉跎白滿頭	세월과 어긋나서 머리 온통 하얗다.

102 清溪幽香

晚圃春心喧衆鳥 저문 발엔 춘심 젖어 온갖 새들 시끄럽고
夕江晴意返雙鷗 저녁 강 맑음히 개자 한 쌍 갈매기 돌아오네.
斯筵誰唱峨洋曲 이 자리에서 어느 누가 아양곡¹⁾을 부를거나
潁水箕山是別區 기산과 영수²⁾는 특별한 곳일래라.

1) 아양곡 : 우도(友道)의 전형으로 잘 알려진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에 나오는 거문고 곡으로 고산유수곡(高山流水曲)이라고도 한다.

2) 기산과 영수 : 기산은 요 임금 때의 은사(隱士)인 소부(巢父)가 은거했던 산이고, 영수는 요 임금 때의 은사인 허유(許由)가 은거했던 곳이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요 임금으로부터 천하를 양여(讓與)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귀를 더럽혔다 하여 영수에 귀를 씻고 끝까지 은거했다고 한다.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기산과 영수는 문경에 있는 실제의 산과 물을 말하기도 한다. 기산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에 있는 실제 산이고, 영수는 쌍룡이란 언덕을 끼고 도는 실제 물이기도 하다.

087 晚秋 高澗松 高秋堂南醉山三丈來枉書塾 共吟

늦가을에 고간송, 고추당, 남취산 등 세 어른이 서숙을 방문했기에 함께 읊다

一燭孤窓徹夜明 외론 창에 촛불 하나 밤새도록 환하더니
兩三華髮枕縱橫 두세 사람 센 머리가 여기저기 누웠구나.
庭蕉可愛新顏色 뜰의 파초 새 잎 돋아 사랑할 만하고
籬菊尙存舊日情 울의 국화 여태도 옛정을 간직했네.
王粲來臨邛屣倒 왕찬이 찾아오자 채옹(蔡邕) 신발 거꾸로요!¹⁾

靑蓮歸去杜踵生 이백²⁾이 돌아가자 두보 이어 나왔었네.
蕭蕭斗屋眞緣重 쓸쓸한 작은 집서 참된 인연 중시하여
多少清談玉屑輕 다소의 맑은 얘기 옥설처럼 가볍다네.

雙鶴翩翩白髮新 학 두 마리 훨훨 날아 백발이 새로운데
高標完是葛天民 높은 의표 완전히 갈천씨의 백성³⁾일세.
居今倜儻元無伴 지금의 높은 기개 원래부터 짝 없었고
從古文章出自貧 예부터 문장은 빈한에서 나왔다네.
梧葉裁霜方餞夏 오동잎 서리 맞아 여름을 전송하고
蕉花浥露更逢春 파초 꽃 이슬 젖어 다시 봄을 맞았네.
殘年勝會相分地 남은 생애 좋은 모임 서로의 분수이나
猶恐悲秋曠感人 슬픈 가을 사람을 허전케 함 걱정일세.

1) 왕찬이~거꾸로요 : 후한 말에 청년 왕찬(王粲)이 장안에 와서 채옹(蔡邕)을 방문하자, 채옹이 신발을 거꾸로 신고 문으로 나가 맞이해 들어왔다. 왕찬의 나이가 어린 데다 용모도 단소(短小)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인 빈객들이 모두 놀랐다는 고사가 전한다.

2) 이백 : 원문은 청련(靑蓮). 청련은 이백의 호이다.

3) 갈천씨의 백성 : 갈천씨는 전설상 상고시대의 제왕으로 이 당시에는 특히 풍속이 순박하여 백성들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다 한다.

088 秋灯獨坐 가을 등불 앞에 홀로 앉아

夜寂村深一燭紅 고요한 밤 깊은 마을 촛불 하나 붉으니
 悠悠世慮自腔中 아득한 세상 근심 마음속에 가득하다.
 才雖管葛今無奈 재주 비록 관갈¹⁾이나 지금 어찌 못하고
 智若孫吳不謂雄 지혜는 손오²⁾건만 영웅이라 하지 않네.
 渭老當殷藏瑞鳳 은나라 때 강태공은 봉황임을 감추었고³⁾
 皓翁避政舉冥鴻 호옹은 정치 피해 먼 기러기 들었다네.⁴⁾
 爾鳥爰止于誰屋 저 까마귀 여기에서 누구 집에 내릴런가⁵⁾
 白首悲淚痛北風 늙은이 슬픈 눈물 북풍을 아파하네.

-
- 1) 관갈 : 관중(管仲)과 제갈량(諸葛亮)을 말한다. 관중은 춘추 시대 제나라의 재상으로 환공(桓公)을 도와 폐업(霸業)을 이루었고, 제갈량은 삼국 시대 촉나라의 재상으로 유비를 도와 천하를 삼분(三分)하는 기업(基業)을 세웠다.
- 2) 손오 : 춘추 시대 제나라 사람이었던 손무(孫武)와 전국 시대 위나라 사람이었던 오기(吳起)를 병칭한 것이다. 이 둘은 대표적인 병법가(兵法家)로 일컬어진다.
- 3) 은나라 때 ~ 감추었고 : 강태공은 무왕(武王)을 도와 은나라 주왕(紂王)을 멸망시켜 천하를 평정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비록 상서로운 봉황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폭군 주왕이 다스리던 은나라 때에는 자신의 비범함을 감추었기에 이렇게 말했다.
- 4) 호옹은 ~ 들었다네 : 호옹은 중국 진시황 때 난리를 피하여 협서성(陝西省) 상산(商山)에 들어가 숨은 네 사람, 즉 동원공과 기리계, 하황공과 녹리 선생을 이른다. 이 네 사람을 통칭하여 상산사호라 한다. 이들이 은거했음을 기러기에 빗대어 표현했다.
- 5) 저 까마귀 ~ 내릴런가 : 『시경(詩經)』 소아(小雅) 정월(正月)에 “슬프다 우리 백성, 어디에서 먹고 사나. 저 까마귀 한번 보세. 누구 집에 내려앉나.”(哀我人斯,

于何從祿. 瞻鳥爰止. 于誰之屋)란 구절이 보인다.

089 育英齋 與蘭社諸益 共話 육영재에서 난사의 여러 벗들과
함께 이야기하다

齋址僅容半畝田	육영재 터 반무 밭만 간신히 용납하니
松陰榭影互相牽	솔 그늘과 떡갈나무 그림자 서로 끄네.
堪憐弘景終遺逸	가엾어라 홍경 ¹⁾ 은 마침내 유일(遺逸)되고
何事楊雄賦太玄	무슨 일로 양웅은 『태현경』 ²⁾ 을 지었던가.
白鶴前霄爲客報	간 밤에 흰 학은 손님 왔다 알려주고 ³⁾
涼蟬今日覺秋先	찬 매미는 오늘에 가을 먼저 일깨운다.
元來此會由眞樂	원래부터 이 시회는 언제나 단란해서
談屑霏妮近午天	한낮이 가깝도록 담소 ⁴⁾ 가 이어지네.

1) 홍경 : 남조(南朝) 제(齊) 나라의 은사인 도홍경(陶弘景)을 가리킨다. 그가 워낙 솔바람 소리를 좋아하여 정원에 모두 소나무를 심어 놓고는 마음의 위안으로 삼았는데, 그가 산수 사이를 홀로 거닐면 보는 이들이 모두 신선으로 여겼다는 기록이 있다. 『남사(南史)』 「도홍경열전(陶弘景列傳)」에 보인다.

2) 『태현경』: 중국 한(漢) 나라 때의 사상가인 양웅이 저술한 책이다. 『주역(周易)』에 비기어 우주만물의 근원을 논하고, 음양이원론(陰陽二元論) 대신 시(始)·중(中)·종(終)의 삼원(三元)으로써 설명하였으며, 여기에 역법(曆法)을 가미하였다고 한다.

3) 흰 학은~알려 주고 : 송나라 때의 은자 임포는 두 마리 학을 기르며 고산(孤山)

에 숨어 살았다. 늘 작은 배를 타고 서호에서 노닐었는데, 간혹 손님이 찾아오면
기르던 학이 손님이 온 것을 알려 주어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한다. 본문은 이
고사에서 따왔다. 『송사(宋史)』에 보인다.

- 4) 담소 : 원문은 담설(談屑).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도도하게 이어지는 것을 일컫
는 말이다.

090 高聽山申小汀金海庵諸兄 同到龍溪 고청산, 신소정,
김해암 등 여러 형들이 용계에 함께 이르렀다

鶯歌鶻曲日支離	피꼬리와 두견 노래 나날이 지리터니
兩兩鳩筇訪一時	쌍쌍의 지팡이 ¹⁾ 가 일시에 찾아왔네.
入室東風蘭有馥	방에 들면 봄바람에 난초 향기 그윽하고
來霄明月桂生枝	하늘엔 밝은 달빛 계수나무 가지 돋네.
春闌綠圃松花滿	봄 깊은 초록 밭엔 송화 가루 가득하고
歲旱南郊麥蕙遲	해 가물어 남쪽 교외 보리 이삭 더디 팬다.
天地如今塵雨裏	천지가 오늘처럼 진우(塵雨) 속에 있다 하면
伯牙其孰孰鍾期	백아는 누구이고 종자기는 누구인가.

1) 지팡이 : 원문은 구공(鳩筇). 구공은 손잡이에 비둘기를 조각한 지팡이로 과거
임금이 나이 많은 신하에게 비둘기처럼 소화를 잘 시키라는 의미에서 내려 주
었다. 구장(鳩杖)이라고도 한다. 『여씨춘추(呂氏春秋)』, 『중추기(仲秋記)』에 보
인다.

091 又會于申小汀先齋 신소정의 선재에서 또 모이다

有一齋兮萬樹深 선재를 빙 둘러 온갖 나무 무성한데
杏花纔發柳初陰 살구꽃 막 피고 버들 처음 그늘졌네.
群山拱揖歡迎客 못 산들 고개 숙여 즐겨 객을 맞이하고
流水當軒快洗心 흐르는 물 집에 임해 유쾌히 마음 씻네.
痛矣青邱何世界 아프구나 청구¹⁾는 어떠한 세계기에
於焉白髮老浮沈 어언간 백발 되어 늙어가며 부침하나.
感君追慕存誠地 감군하고 추모하며 존성하는 이곳에서
爲向樽前賀共吟 술동이 앞에 두고 함께 읊어 하례하네.

1) 청구 :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일컫던 말이면서 동시에 남해 속에 있다는, 신선이 살고 있다는 곳이다.

092 書懷 감회를 적다

望六年翁一小棲 육십 고개 늙은이가 작은 집에 사는데
居然鬢髮白齊齊 어느덧 터럭은 온통 희게 변했구나.
違時和氏空懷玉 화씨(和氏)는 때 못 만나 공연히 옥 품었고¹⁾
善御王良失勝蹄 말 잘 몰던 왕량²⁾은 준마를 잃었다네.
身坐雲烟恒聚散 연운 사이 지내면서 모였다간 흩어지니

世浮風浪任高低 풍랑 위에 세상 떠서 높고 낮음 내맡기리.
了無業上閒追逐 일 때문 한가함을 좇을 일이 아예 없어
時佩奚蕢向潁西 때때로 해낭³⁾ 차고 영수 서쪽 향하누나.

-
- 1) 때 못 만나~옥 품었고 : 화씨벽(和氏璧) 고사에서 따왔다. 화씨는 춘추 시대 초나라 사람인 변화(卞和)를 가리킨다. 그는 형산에서 커다란 박옥(璞玉)을 얻어 여왕(厲王)과 무왕(武王)에게 바쳤으나 옥을 감정하는 사람이 돌로 오인하여 두 발이 잘리고 말았다. 그 후 문왕(文王)이 즉위하자 화씨는 형산 아래서 박옥을 안고 사흘 밤낮을 울어 피눈물이 흘렀다. 문왕이 이 사실을 듣고 사람을 보내 물어보니, 화씨는 '보배로운 옥을 돌이라 하고 끝은 선비를 미치광이라 하기 때문에 우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에 왕이 옥공(玉工)을 시켜 박옥을 다듬게 하니, 직경이 한 자나 되고 티 한 점 없는 큰 옥이 나왔다 한다.
- 2) 왕량 : 춘추 시대 진(晉) 나라 사람으로 어마(御馬)의 명인으로 조간자(趙簡子) 밑에서 말을 몰았다.
- 3)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 詩草를 써 넣던 주머니.

093 送阿季平壤 평양으로 가는 막내를 전송하며

弟兄此日各分天 형제가 오늘 되어 각각 하늘 나뉘었으니
迢遞愁雲漲眼前 아득한 근심 구름 눈앞에 자욱하다.
萬里塞鴻君伴去 만 리의 기러기는 네 짝 되어 떠나갔고
中宵原鵲我無眠 한밤 두견이 소리에 나는 잠 못 이루겠네.
爲交友可青戎眼 벗으로는 왕융을 청안¹⁾으로 대함 같고²⁾
贈別詩何聳孟肩 증별시³⁾는 맹호연의 어깨 솟게 할만 했네.⁴⁾

一拜離筵湛樂祝 이별 자리 한번 절해 기쁘게 축원하니
百年無恙數承平 백년토록 무탈하고 늘상 평온하게나.

1) 靑眼, 반가운 마음으로 대하는 눈을 이르는 말.

2) 벗으로는~대함 같고 : 왕융(王戎)은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으로 왕혼(王渾)의 아들이다. 죽림칠현의 다른 한 사람인 완적(阮籍)이 동료인 왕혼의 집을 찾아 갈 때마다 “그대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음과 대화하는 것이 훨씬 낫다.”[共卿言 不如共阿戎談]라고 하고는, 해가 질 때까지 왕융과 허교(許交)하며 노닐다가 가곤 하였는데, 이때 왕혼은 나이 15세로 완적보다 20년 연하였다고 한다. 『진서(晉書)』 「왕융열전(王戎列傳)」에 보인다. 자신이 막내 아우를 왕융처럼 여겼다는 뜻으로 쓴 말임.

3) 贈別詩, 떠나는 사람에게 정표로 지어 주는 시.

4) 증별시~할만 했네 : 소동파의 「증사진하수재(贈寫眞何秀才)」시에 “또 보지 못했는가 눈 속에 나귀를 탄 맹호연이, 눈썹을 찌푸리고 시를 읊느라 쭈긋한 어깨가 산처럼 높네.”[又不見雪中騎驢孟浩然 皺眉吟詩肩聳山]라는 구절이 있다. 원문의 맹견(孟肩)은 이별시를 짓느라 한껏 올라간 작자 자신의 어깨를 뜻한다.

094 四月初八日 與從弟仁圭族侄鍾文 入北兩寺

사월초파일 종제 인규와 족질 종문과 함께 북양사에 가다

百歲孤僧坐念珠 백세의 외론 스님 염주 잡고 앉았다가
曉鐘初落殿門趨 새벽 종 처음 듣고 대웅전에 나아간다.
對禪靜寂如泥塑 선 마주해 고요함은 불상과 한가지요
修道虛無背夏虞 도를 닦아 허무함은 하우(夏虞)를 등진 듯해.

110 清溪幽香

塵襟拗覺三生夢	속된 마음 꺾고서 삼생(三生)의 꿈 깨닫고
雲物淸收一法衢	경물이 맑아서 일법(一法)의 길 거두었네.
怪底年來全化俗	괴이하다 근래에는 모두가 속인 되어
家家妻孥產營俱	집집마다 처자식과 산업을 갖추었네.

095 入大乘 대승사에 들다

綠樹深深路轉輻	푸른 나무 우거져 길은 더욱 가파른데
層層巖石護相扶	층층의 바위들이 서로 도와 기대었네.
空心對佛千秋見	마음 비워 부처 뵈니 천추 세월 보이고
向壁參禪白日愚	면벽하여 참선하니 백일(白日)이 어리석다.
殿上咆哮蹲虎豹	호표는 전각 위서 웅크린 채 포효하고
禪中和悅爾鵝鴈	참선 드니 오리 거위 화평하고 기뻐하네.
從知圓覺由玄妙	알겠구나 원각이 현묘에서 말미암음
在在奇庵別界隅	곳곳의 기이한 암자 별계의 모퉁일세.

096 江村 강촌

江北江南兩兩村	강의 북쪽 강의 남쪽 양편 모두 마을 있고
---------	-------------------------

村村籬落柳陰門	마을마다 울타리엔 버드나무 그늘졌네.
數聲款乃青山重	배노래 가락 속에 청산은 몇 겹이요
一島昇平白鷺喧	섬 가득 태평하여 백로가 우짖는다.
曉月寒洲魚罷夢	새벽달 찬 섬에선 물고기 꿈을 깨고
夕風掃檜水生痕	저녁 바람 집을 쓸며 물에 흔적 남겼네.
家家計活皆漁網	집집마다 모두가 고기 잡아 생계 잇고
培脊蠶桑教子孫	누에치기 돌보아 자손들을 가르친다.

097 寓成 객사에서 짓다

萋草微菲越兩旬	스무날을 넘겼어도 물쭉은 여린데
南風昨夜麥秋臻	간밤에 남풍 불어 맥추가 되었구나.
竿收江意橫簾冷	낙시 않는 낙싯대는 찬 처마에 빗기었고
蝶抱春情入圃頻	춘정 품은 나비는 남새밭 가로 든다.
志士恒從求困蹟	지사를 늘상 좇아 곤경을 구원하고
清操堪見耐窮貧	맑은 지조 돌아보며 빈궁을 참는다고.
有時讀破春秋部	틈나면 『춘추』를 처음부터 읽으니
宇宙空然寄此身	우주가 공연히 이 몸에 깃드누나.

- 098 暮春 與蘭社諸益 共吟先亭 늦봄에 난사의 여러 벗들과
선정에서 함께 읊다

江亭高出客臨初	높이 솟은 강 정자에 객이 처음 임하니
謂荊謂蘭濟濟如	형사(荊社)니 난사(蘭社)니 많이들 모였구나.
其奈違時餘短褐	때 어긋나 짧은 갈옷 남은들 어찌하리
堪憐無事老窮廬	일없이 궁한 집서 늙어 감만 애달프다.
沙晴鷺返江心午	개인 모래 나는 백로 강심은 한낮인데
岩古苔班篆面書	묵은 바위 편 이끼는 전자(篆字)의 글씨일세.
唸罷斜陽贈別地	시 다 짓고 저물녘에 작별하는 자리에서
於謠於哭我何居	노래할까 곡할까 내 알지 못하겠네.

- 099 至樂軒重修韻 지락현 중수운

從古斯區擅勝名	예로부터 이 구역은 명승으로 이름나서
曾吾先祖點粧成	일찍부터 나의 선조 살면서 단장했지.
那知當日琳宮刹	어찌 알랴 당시에 임금(琳宮) ¹⁾ 사찰 있었는지
痛入何年鼓角聲	어느 헨가 고각 소리 아픔이 깃들었네.
往恸岩深苔面老	지난 세월 바위 깊고 이끼 표면 쇠했는데
餘微月上夜欄明	남은 자취 달이 뜨자 밤 난간이 환하구나.

滿庭霜露午秋感 뜰 가득 서리 이슬 가을의 느낌 이니
多少兼伸悅話情 친척 간의 정리를 많이들 펼쳐 보세.

1) 임궁 : 불교의 사원을 높여서 한 말.

100 至樂軒重修韻 其二 지락헌 중수운 두 번째 수

兒郎偉唱揭軒名 아랑위(兒郎偉)¹⁾ 외치면서 헌의 간판 내다 거니
十世今朝告厥成 십 세의 오늘 아침 그 완성을 고하노라.
綿力縱難模舊制 힘을 다해 어려워도 옛 제도를 따르며
殘孫擬欲繼前聲 남은 자손 옛 명성을 이어가려 하였지.
河山載地恒流峙 땅 위의 강과 산은 늘 흐르며 솟아 있고
日月循天有晦明 하늘 좇는 해와 달은 어두웠다 밝아지네.
霜露年年多少感 해마다 서리 이슬 느낌이 많았는데
傳謀嗣葺庶伸情 거듭 중수 꾀하면서 정을 실컷 펼쳐보세.

1) 아랑위 : 젊은 사람을 뜻하는 아랑(兒郎)의 복수형으로 상량문 등에서 도목수가 장인들을 다 함께 부를 때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101 挽南醉山丈有海 취산 남유해 어른 만시

寬綽其儀穩雅姿 거동은 너그럽고 자태는 온아하며
一心遵守舊規遺 남은 옛 법규를 한 맘으로 지키셨네.
由來繼述蒼然色 유래를 계술하여 기색이 창연하니
堪賀爲公世有知 공을 위해 세상이 알아줌을 기뻐한다.

一生湛樂是壩簾 일생을 형제처럼¹⁾ 좋아하고 즐기어
化被家中共戴推 교화가 집안 미쳐 함께 이고 받들었지.
種學惟勤庭下教 배움에 근면하여 자식들 가르치고
史簾經箱長胤委 경사 담긴 상자를 장자에게 맡기셨네.

十世鄉隣結社同 십 대 걸쳐 이웃으로 함께 결사 맺으니
兩家心契照犀通 두 집안 심계(心契)로 환히 잘 통하였지.²⁾
共遵呂約相規戒 여씨 향약 함께 좇아 서로를 경계하고
各保青氈與冶弓 각자 청전³⁾ 보존하며 야궁(冶弓)⁴⁾을 함께했네.

惟公於我許相親 오직 공은 나에게 서로 친함 허락하여
小少深蒙警誨頻 어려서부터 일깨움을 깊이 자주 입었었네.
較齒縱云加十飯 나이야 열 살이나 더 많다고 한다 해도
恩情猶是兄弟均 은정은 오히려 형제와 같았다네.

落拓鞭吟賦汪洋 낙척해도 힘써 읊어 시문이 드넓은데
詞壇月露幾炎涼 사단(詞壇)의 달 이슬도 염량세태 가깝도다.
最憐何日江南社 언제던가 강남시사 모임 갖던 자리에서
醉倒詩魂尙不忘 취하고도 시혼(詩魂)만은 잊지 않음 잊지 못해.

祝醉山翁壽似山 취산옹께 산처럼 장수하라 축원터니
醉山翁去但青山 취산옹은 먼저 가고 다만 청산 남았구나.
山耶爾闕翁衣舄 산아 너는 옹의 옷과 신발을 감쳤으니¹⁾
從此翁名仰此山 이제부터 옹의 이름 이 산에서 우러르리.

禍不單行語不非 화불단행²⁾이란 그 말 틀린 말이 아니거니
公歸未幾季隨歸 공이 죽고 연이어 막내가 뒤 따랐네.
歸時此路同其路 돌아가는 이 길이 그 길과 한 가지라
冥府應當設幔幃 명부에선 당연히 휘장을 펼쳤으리.

1) 형제처럼 : 원문은 훈지(煇旼). 훈과 지 모두 악기로, 훈은 흙으로 지는 대나무로 만들었다. 『시경』 소아 하인사(何人斯)에서 “백씨는 훈을 불고 중씨는 지를 분다”[伯氏吹璠 仲氏吹箏]라고 한 말이 있어, 이후 우애하는 형제간에 대한 미칭으로 쓰이게 되었다.

2) 환히 잘 통하였지 : 원문은 조서통(照犀通). 과거에 온교(溫嶠)란 자가 우저가(牛渚磯)란 곳에 이르니 그 곳 물이 너무 깊어서 밑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물속에 괴물이 많다고 하므로 온교가 무소뿔을 태워서 비추자 그 괴물들이 환히 보였다고 한다. 본문은 이 고사에서 따왔으니, 서로 잘 통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진서(晉書)』 「온교전(溫嶠傳)」에 보인다.

- 3) 청전 : 청전구물(靑甌舊物)의 준말로, 으뜸가는 선조의 유물이라는 뜻이다. 진나라 때 왕현지의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다른 물건을 훔칠 때에는 모르는 체하고 누워 있다가 상위에 올라 청전에 손을 대려 하자 일어나 “그 청전은 우리 집안의 구물이니 그냥 놔둘 수 없겠는가”라고 말하여 도둑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것이다. 『진서(晉書)』에 보인다.
- 4) 야궁 : 세업을 계승한다는 말로 궁야라고도 한다. 『예기(禮記)』 「학기(學記)」에 보이는 다음 구절에서 따왔다. “좋은 대장장이의 아들은 반드시 갑옷 만드는 것을 배우게 되고, 활을 잘 만드는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키를 만드는 것을 배우게 된다.”[良冶之子 必學爲裘 良弓之子 必學爲箠]
- 5) 옷과 신발을 감췄으니 : 원문은 비옹의석(閼翁衣烏). 묘를 썼다는 뜻으로 의석지장(衣烏之藏)이라고도 한다.
- 6) 화불단행(禍不單行) : 화는 한 가지만 생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한나라 유향(劉向)이 했던 말이다. 복무쌍지(福無雙至), 즉 “복은 겹쳐서 오지 않는다”는 말과 짝을 이뤄 일컬어진다.

102 挽金枉史丈 甲戌 김왕사 어른 만시 갑술년(1934년)

衿期平坦性謙虛 금기(衿期)¹⁾는 평탄하고 성품은 겸허하며
 碩德如公學有餘 큰 덕은 공변²⁾되고 배움은 넉넉했네.
 晚覺詞華非我取 늦게 깨친 사화(詞華)³⁾는 내가 미칠 바 아니요
 敎人要在聖經書 가르침의 요체는 성인 경서에 있었네.

鰥生何事負心盟 추생⁴⁾은 무슨 일로 마음 맹약 저버렸나
 恨不當年陪講明 그 때에 모시고서 배우지 못함 한이라네.
 弊篋尙存遺尺翰 헤진 상자 아직 있어 편지가 남았는데

時時奉閱替伸情 때때로 읽어 보며 부질없이 정 펼치네.

- 1) 금기 : 심기(心期)와 같은 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기허(期許)하는 것을 가리킨다.
- 2) 공변 : 사사롭지 않고 정당하다,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다는 뜻.
- 3) 사화 : 문채(文采)나 언사(言詞)에 뛰어난 재주를 일컫는 말이다.
- 4) 추생 : 작고 못난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103 戊寅閏七月十五日 共話于月峯亭 무인년(1938년) 윤7월

15일 월봉정에서 함께 이야기하다

一聲蟬憂動秋風 맴맴 우는 매미 소리 가을바람 부는데
 白髮同盟又此中 백발의 동맹이 이 속에서 이뤄지네.
 竹谷千年藏瑞鳳 죽곡¹⁾에는 천년토록 서봉(瑞鳳)을 감추었고
 荊關今日舉暝鴻 사립에선 오늘에 명홍(暝鴻)²⁾이 솟는구나.
 江回洞口波心穩 마을 앞을 도는 강물 물결이 잔잔해도
 林護軒顏岳勢雄 추녀 앞을 가린 숲은 기세가 웅장하다.
 若使王維能復世 만약에 왕유³⁾더러 다시 나게 하더라도
 網川不必畫全工 망천 그림⁴⁾ 이보다 좋지는 않으리라.

山腰斷斷繞如城 산허리가 뚝 끊겨서 성처럼 둘러는데

有一亭兮峰月明 정자 하나 서 있고 봉우리엔 달이 밝다.
 露冷群蛩催織響 이슬 차니 귀뚜라미 찌르르륵 울어대고
 芦深閒鷺夢灘聲 갈대 깊어 해오라기 여울 소리 꿈꾼다.
 雙簫嫋嫋清愁慙 쌍 젓대 고운 소리 맑은 근심 일어나니
 短棹搖搖白水耕 짧은 노 흔들흔들 흰 물에 물결 이네.
 今夕蘇仙何處在 오늘 저녁 소동파는 어느 곳에 계시는가
 蜉蝣餘恨我浮生 하루살이 남은 한은 부평 같은 내 인생.

-
- 1) 죽곡 : 월봉정이 위치한 곳이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인데, 김용리의 다른 명칭이 죽곡이다. 마을 지형이 대나무처럼 생겼을 뿐 아니라 대나무가 무성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2) 명홍 : 원문은 명홍(暝鴻)이나 명홍(冥鴻)을 가리킨다. 명홍(冥鴻)은 하늘 높이 나는 기러기로 큰 뜻을 품고 은거하는 선비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 3) 중국 당나라의 시인이자 화가. 자연을 소재로 한 서정시에 뛰어나 詩佛이라고도 불리며, 수묵산수화에도 뛰어나 남종문인화의 창시자라는 평을 듣는다.
 - 4) 망천도(網川圖). 왕유가 망천에 은거하면서 자신의 별장과 주변 경치를 그린 그림.

104 奉和七愚亭韻 乙丑 칠우정 시를 받들어 화운하다 을축년(1925년)

管領烟霞立此樓 연하(烟霞)¹⁾를 다스려 이 누각 세웠으니
 樓中七主摠名流 누 안의 일곱 주인²⁾ 모두가 명류라네.
 奇花異草眞仙界 기이한 꽃과 풀은 참 신선 경계인데

叢桂丹楓又晚秋 계수나무 단풍나무 또한 늦은 가을이라.
一友已來黃鶴去 한 벗은 먼저 왔다 황학 타고 떠나갔고³⁾
六朋應訪赤松遊 여섯 벗이 찾아와 적송자⁴⁾와 노닌다네.
靈區宛是塵腸浣 신령한 이곳에서 찌든 속을 씻어내니
老枊憑軒半日留 노구를 난간 기대 반나절을 머무르네.

洞口斯亭等小樓 골짜기 어귀 이 정자는 작은 누와 같은데
七愚管領好風流 칠우(七愚)가 관리하니 그 풍류 좋을시고.
園林巷栢長時夏 원림의 측백나무 언제나 여름이요
白石清川別樣秋 흰 바위 맑은 시내 특별한 가을일세.
逖跡鳳歸丹穴隱 자취 감춘 봉황 떠나 단혈에 숨어 있고
眞緣鶴返赤松遊 참 인연에 돌아온 학 적송자와 노니누나.
岩前景仰銘銜字 바위 앞서 경앙하며 이름을 새겼으니
迥脫苔塵萬古留 이끼 티끌 벗어나 만고에 남으리라.

1) 한가로운 자연의 풍경, 또는 안개낀 부연 풍경.

2) 일곱 주인 : 칠우정은 문경 출신으로 우(愚) 자가 들어가는 호를 쓰는 일곱 사람이 세웠는데, 본문의 일곱 주인은 이들을 가리킨다. 문경시 가은읍 선유동계곡에 있는 정자이다.

3) 한 벗은 ~ 떠나갔고 : 당나라 최호(崔灝)의 「황학루(黃鶴樓)」시에 “옛사람이 이미 벌써 황학 타고 떠나버려, 이 땅에는 덩그러니 황학루만 남았구나.”[昔人已乘黃鶴去, 此地空餘黃鶴樓]라는 구절을 인용했다. 칠우정을 세운 일곱 명 중 한 사람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다.

- 4) 적송 : 적송은 신선 적송자를 말하는데, 한나라 장량(張良)이 인간의 일을 버리고 적송자를 좇아 놀고자 했던 일이 전한다. 『한서(漢書)』 「장량전(張良傳)」에 보인다.

105 江上 偶逢申小汀 강가에서 우연히 신소정을 만나다

白首巖陰負夕陽 흰 머리로 바위 그늘 석양을 등지니
一竿風定一江長 낚싯대에 바람 잦고 강줄기는 유장하다.
荊班芦岸申兄到 갈대 언덕 형초 자리¹⁾ 신 형이 찾아오니
麥飯葱湯午味香 보리밥에 파국이나 점심밥이 향기롭네.
携手緣崖臨絕壁 손을 잡고 벼랑 따라 절벽에 임하여서
提壺逐水做流觴 술병 차고 물을 따라 유상곡수²⁾ 흥내 낸다.
鳶飛魚躍君知否 연비어약 그 경계를 그대는 아시는가
雲捲天空自有光 구름 걷힌 빈 하늘이 절로 빛이 나누나.

1) 형초 자리 : 원문은 형반(荊班). 춘추 시대 초나라 오거(伍舉)와 체나라 성자(聲子)와의 사귀에서 따온 말이다. 오래도록 우정을 나누던 오거와 성자가 우연히 정나라 교외에서 만나, 형초(荊草)를 자리에 깔고 앉아[班荊] 이야기를 주고받은 고사가 『춘추좌전(春秋左傳)』에 보인다. 벗 사이의 우연한 만남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다.

2) 삼월 삼짇날, 굽이도는 물에 잔을 띄워 그 잔이 자기 앞에 오기 전에 시를 짓던 놀이.

106 庭前索枸 以兩莖枝作交繩樣 故謂之索枸 뜰 앞
의 삭구. 두 줄기 가지가 세끼 낀 모양 같아 삭구라고 했다

交作繩身歲已深	새끼처럼 몸을 꼬아 세월 이미 오래되니
柔根蔓葉巧庭臨	연한 뿌리 덩굴 잎이 뜰에 임해 공교롭다.
品資清閑恒有馥	자질은 청한하여 언제나 향기 나고
天真寂寞本無音	천진은 적막하여 본디부터 소리 없다.
紅雖箇小終能實	붉은 꽃 작아도 마침내 열매 맺고
翠似叢生不是林	덤불인 양 푸르지만 수풀은 아니라네.
飲來靈液人增壽	영액을 마신 뒤로 사람 수명 더해지니
惟喜忘年與共尋	기쁘게 나이 잊고 더불어 함께 찾네.

107 蓮塘老柳 연당의 늙은 버들

難招繁密已先天	촘촘하기 어려움은 타고난 천성인데
老角蕭蕭冷夢懸	연밥 ¹⁾ 은 쓸쓸하여 찬 꿈만 걸렸구나.
黃鳥啼歸何陌上	피꼬리는 지저귀며 언덕 위로 돌아가고
故人傷別古城邊	고인은 옛 성 곁에서 이별을 상심하네.
枝猶水性浮生葉	가지엔 수성(水性) 남아 생잎이 떠오르고
體是霜緣臥記年	몸통은 서리 맞아 누워 나이 기억한다.

122 清溪幽香

一樹春秋添貴格 한 나무 봄가을로 귀한 품격 보태저도
門前依舊助風烟 문 앞은 변함없이 바람 안개 감도네.

1) 연밥 : 원문은 노각(老角). 원뿔 모양의 식물 열매를 각이라 한다. 연밥이 원뿔 모양으로 생겼기에 붙은 말.

108 庭桐 뜰의 오동나무

桐於衆木品無齊 나무 중에 오동만큼 좋은 나무 없나니
艷翠方長屋畔西 집 경계 서편에서 곱고도 푸르구나.
種未十年根亦細 심은 지 십 년 못 돼 뿌리도 가는데다
高纔三丈影猶低 높이 겨우 세 길이라 그림자도 낮다네.
期藏清韻疎留月 맑은 운치 간직하여 성글게 달 머물고
愁待靈鳳誤聽鷄 봉황을 기다리다 닭 울음만 잘못 듣네.
裁得新材彈罷日 새 재목을 잘라내어 거문고를 연주하면
伯牙何愧碧山栖 푸른 산에 사는 삶 백아 어찌 부러우랴.

109 庭槐 뜰의 해나무

殼敗身空冷欲波 헤진 껍질 몸은 비어 썰렁함 물결 같아

第一卷 居間偶吟 123

傳言三百有年過 전하는 말 따르면, 삼백 년이 넘었다지.
南柯郡裏緣應重 남가군 안에서의 인연 응당 무겁겠고¹⁾
王氏家中慶亦多 왕 씨의 집 가운데 경사 또한 많았어라.²⁾
春晚繁陰華蓋倒 봄 늦어 성한 그늘 화개³⁾가 넘어진 듯
秋深鳴寶玉聲磨 가을 깊어 우는 열매 옥 소리가 갈리는 양.
殷勤遙待前人望 은근히 앞 사람의 소망을 기대하니
頻事栽功唱一歌 심는 공 자주 하며 한 노래를 부르리라.

- 1) 남가군~무겁겠고 : 중국 당나라의 순우분(淳于棼)이 어느 날槐나무 아래서 잠을 자다가, 괴안국(槐安國)에 가서 공주를 아내로 맞고 남가군(南柯郡)의 태수가 되어 부귀를 누리는 꿈을 꾸었다(南柯一夢). 이후 꿈에서 깨고 보니 그槐나무 아래에는 큰 개미구멍만이 있었다고 한다. 본문 내용은 이 고사에서 따왔다.
- 2) 왕 씨의~많았어라 : 중국 송나라의 왕우(王祐)가 자신의 뜰 안에 세 그루의槐나무를 심고, 자손 중에 삼공(三公)의 지위에 오르는 사람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다. 이후에 과연 아들 단(旦)이 재상이 되었으므로 그 자손이 삼괴당(三槐堂)을 지었다. 본문의 내용은 이 고사에서 따왔다.
- 3) 화개 : 그림과 수를 놓아 꾸민 큰 일산을 말한다.

110 失題(1) 실제¹⁾(1)

細雨兼和小雪飛 보슬비에 더하여 진눈개비 훑날리니
洞坊泥滑見人稀 골짜 동네 진창 되어 사람 보기 드물다.
小園春信禽先報 작은 동산 봄소식은 새가 먼저 알려주고

124 清溪幽香

故國秋懷鴈未歸 고국의 가을 생각 기러기는 안 갔다네.
客喜便宜分二座 손님 기뻐 편의대로 두 자리로 나눠 앉고
主爲迎送開雙扉 주인은 맞고 보내느라 두 문짝을 열었구나.
勸君莫負雉壇訣 그대여 치단(雉壇)²⁾ 결의 저버리지 말게나
笑喚隣醪更把衣 웃고 이웃 술 달래서 다시 옷깃 잡는다.

1) 이하 7수의 실제(失題) 시는 동석(東石), 해암(海岩), 우계(愚溪), 오은(梧隱), 계은(溪隱) 등 시회의 벗들과 함께 보운(步韻) 하여 지은 시 중 회당공(晦堂公)의 시 일부를 추려 뽑은 것이다. 시에 제목은 따로 적혀 있지 않다.

2) 치단 : 사귀를 맹세할 때 쓰는 제단(祭壇)으로 꿩으로 맹세하여 충신의 의리를 취하였다.

111 失題(2) 실제(2)

東風習習雨絲絲 동풍은 건 듯 불고 봄비는 사각사각
此地剛腸老別離 이 땅의 굳센 마음 다 늙어 작별하네.
江上數峰青有意 강가의 몇 봉우리 푸른 뜻 남아 있고
鏡中雙鬢白生悲 거울 속 양 살쩍은 희어서 슬픔 인다.
蘭雖深谷藏幽趣 난은 비록 골 깊어도 그윽한 운치 품고
梅亦前霄放艷姿 매화 또한 간밤에 고운 자태 피웠구나.
日後枕頭雲樹夢 뒷날에 베갯머리 구름 나무 꿈꾸리니¹⁾

吳州千里月明時 오주 땅 천리 밖에 달 밝을 그 때일세.²⁾

- 1) 구름 나무 꿈꾸리니 : 벗과 헤어진 뒤에 그리워하는 마음을 말한다. 두보(杜甫)의 「춘일회이백(春日懷李白)」이란 시에 “위수의 북쪽에는 봄 하늘 나무요, 장강의 동쪽에는 저물녘 구름이네”[渭北春天樹, 江東日暮雲]라는 표현이 있었던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 2) 오주땅~그때일세 : 멀리 있는 벗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백(李白)의 「송장사인 지강동(送張舍人之江東)」에서 강동으로 가는 벗에게 “오주에서 달을 보거든 천리 밖에서 나를 생각해 주오.”[吳州如見月, 千里幸相思] 라고 한 데서 따왔다.

112 失題(3) 실제(3)

決決溪流入錦洲	꺅꺅꺅 시내 흘러 금주로 들어가고
晴窓人臥雨中愁	갠 창에 사람 누워 빗속에 근심일세.
世情何日非層浪	세상 정리 언제인들 층층 물결 아니리오
頭髮今吾已半秋	이제 내 머리털은 반 너머 세엿다네.
岸柳烟沈禽語滑	안개 잠긴 언덕 버들 새 울음 매끄럽고
園松雲濕鶴眠幽	구름 젖은 동산 솔엔 학이 깊이 잠들었네.
近來詩事還煩劇	근래에 시 짓는 일 도리어 번거로워
與子頻頻向酒樓	그대 함께 번번이 술집을 향하였지.

113 失題(4) 실제(4)

錦江之北潁江東 금강의 북쪽이요 영강의 동쪽이라
 鷗鷺寒盟十載同 백구와의 찬 맹세 십년간 한결 같네.
 弘景白雲多嶺上 도홍경의 흰 구름¹⁾이 고개 위에 답쌓였고
 志和青簑泛湖中 장지화의 푸른 대²⁾는 호수 속에 떠 있구나.
 群鷄或有稱祥鳳 못 닭을 상봉(祥鳳)이라 부르기도 한다지만
 黃鵠何能語壤虫 고니가 어찌 능히 땅속 벌레 말하겠나.³⁾
 尺地殷勤多少話 좁은 곳서 은근히 이런저런 얘기하다
 溪齋前夜一燈紅 계재(溪齋)에서 간밤에 밤새 등불 밝혔다오.

- 1) 도홍경의 흰 구름 : 중국 남조시대 제나라의 은사였던 도홍경(陶弘景)이 「조문 산중하소유부시이답(詔問山中何所有賦詩以答)」이라는 시를 지어 “산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개 위에 흰 구름 많이 떠 있죠 다만 나 혼자만이 즐거워 할 뿐, 그대에게 보여주진 못하겠네요”[山中何所有, 嶺上多白雲, 只可自怡悅, 不堪持寄君]라고 표현했는데, 본문은 여기에서 따왔다.
- 2) 장지화의 푸른 대 : 당나라 때의 장지화(張志和)는 연파조도(煙波釣徒)로 자처하며 은일하며 산 사람이다. 그가 지은 「어부사(漁父詞)」에 “푸른 대삿갓 쓰고, 푸른 도롱이 입었거니, 비긴 바람 가랑비에 돌아갈 필요 없네”[青簑笠 綠蓑衣 斜風細雨不須歸]라고 한 구절이 있는데, 본문은 여기에서 따왔다.
- 3) 고니가~ 말하겠나 : 고니와 벌레는 현격한 차이가 남을 드러낼 때 주로 쓰는 메타포로 『회남자(淮南子)』, 『도응(道應)』에서 끌어왔다. 노오(盧遨)가 북해에서 노닐다가 몽곡(蒙穀)의 들에 이르러 한 선비가 귀각(龜殼)을 거둬서 합리(蛤蜊)를 파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노오가 “선생께서는 나와 더불어 벗이 되어 주겠습니까?”라고 말하자, 선비가 한탄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방금 남으로 망랑(岡浪)의 들에 노닐고, 북으로 침묵의 고을에 쉬며, 서로 명명(冥冥)의 마을에

닿았고, 동으로 홍몽(鴻蒙)의 빛을 꿰뚫었다.” 그리고는 몸을 숙구쳐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노오가 이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선생께 비하면 땅속 벌레와 고니의 관계와 같습니다.”[吾比夫子, 猶黃鵠之與壤蟲] 본문은 이 노오의 말에서 따왔다.

114 失題(5) 실제(5)

短短疎籬白屋寒	짧고 성근 울타리에 흰 집이 차가운데
主人情誼喜無難	주인의 정의(情誼)는 무난함을 기뻐하네.
飯青野菜初當碗	밥은 야채 충분하여 그릇에 담았는데
膾細江魚忽上竿	낙싯대에 홀연 걸린 작은 고기 회를 친다.
此地鶯花三月晚	늦은 삼월 이곳에는 피꼬리와 꽃이 있고
一村鷄犬四隣安	한 마을의 닭과 개에 사방 이웃 평안하네.
醉筵樽例君何負	취한 자리 술잔 예를 그대 어찌 저버리랴
車笛將生落日殘	경적 소리 들리더니 석양빛이 쇠잔하다.

115 失題(6) 실제(6)

虛樓無語夜燃燈	빈 누각서 말없이 밤 등불 사르면서
欲挽離程故不興	이별 길을 말리려니 흥이 나지 않는구나.

世道倉皇昏似黍	세상 도리 창황하여 어둡기가 칠혹 같고
人情艱險薄於水	인정의 험난함은 살얼음을 밟는 듯.
隣鷄已唱酒何讓	이웃 닭이 울었어도 술을 어이 사양할까
山月將生詩未能	산에 달이 뜨려는데 시는 아직 미완일세.
渭北江東雲樹裡	위수 북쪽 장강 동쪽 ¹⁾ 구름 나무 속에서
迢迢懷想在心朋	아득히 품은 생각 마음속 벗이라네.

1) 위수 북쪽 장강 동쪽 : 벗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로 두보의 「춘일억이백(春日憶李白)」이란 시에 보인다. 앞선 각주 참조.

116 失題(7) 실제(7)

澹蕩東風日漸遲	담담한 봄바람에 날은 점점 더더지고
濃陰處處翠垂垂	짙은 그늘 곳곳에 비취빛 드리운다.
曉烟籬落粧身際	울타리의 새벽 안개 몸단장을 할 적에
夕雨江汀動色時	강 가 저녁비에 빛깔이 더할 때라.
白馬一鞭枝綻眼	흰 말 한번 채찍질에 가지엔 눈이 텃고
黃鸝百舌葉生眉	피꼬리 지저귀니 잎사귀엔 싹이 났다.
愁人莫近悠楊絮	수인(愁人)은 버들개지 가까이 하지 말게
半化浮萍引所思	반쯤 화한 부평초 ¹⁾ 가 그리운 맘 당긴다네.

- 1) 반쯤 화한 부평초 :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기후월령변증설(氣候月令辨證說)」에 “능수버들 꽃송[柳絮]과 갯버들 꽃[楊花]이 못물 속으로 날아 들어가서 화하여 부평이 된다.”[柳絮楊花, 飛入池水, 化爲浮萍]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117 與李碧巢南醉山 共賦 이벽소, 남취산과 함께 짓다

草樹同沈下夕陰	땅거미 아래로 풀과 나무 함께 드니
一村依約僻深深	어렴풋한 한 마을이 후미지고 깊숙하다.
秋霜拍鬢無仙術	가을 서리 살쩍 쳐도 신선술이 없으니
春酒當筵更少心	봄 술을 차려와도 자꾸만 소심해져.
門外青山流水古	문 밖의 푸른 산엔 흐르는 물 옛날이요
世間腥雨冷霜今	세간의 비린 비에 찬 서리 지금이라.
數曲峨洋東風裡	몇 곡조 아양곡이 동풍 속에 있나니
子是其琴我是音	그대는 금(琴)을 뜯고 나는 노래 부르리.

118 餞春 봄을 보내다

只隔韶光等夕陽	봄날 겨우 지났는데 석양과 한 가지라
東君爲餞促詩忙	동군(東君)을 전별하며 시를 바빠 재촉하네.

130 清溪幽香

眼中芳草皆新色	눈에 드는 방초는 모두가 새 빛이요
風外殘花已盡香	바람 밖의 남은 꽃은 이미 향기 다했다오.
此地窮愁無可敵	이곳의 궁한 근심 대적할 길이 없어
今宵歸轍孰能當	오늘 밤 가는 수레 누가 능히 당할 것인가.
鶯歌欲動鵑聲歇	피꼬리가 울려 하자 두견 소리 잦아들어
別路惘然強一觴	이별 길이 망연하여 굳이 한 잔 마시노라.

1) 동군 : 봄을 맡은 신의 이름이다. 동제(東帝) · 동황(東皇) · 청황(靑皇) · 청제(靑帝)라고도 한다.

119 草堂春話 초당에서의 봄 대화

晚關虛窓世味清	늦게서야 빈 창 여니 세상맛이 청량하고
隔簾松竹影交橫	주렴 너머 대와 솔은 그림자가 엇갈렸네.
詩書誤讀空千古	시서를 잘못 읽어 천고에 공허하고
事業無成老半生	사업에 성공 없이 반생이 늙어간다.
遠浦沙明鷗獨立	먼 데 포구 모래 맑아 갈매기 홀로 섰고
畫樑春暖鶯雙聲	채색 다리 봄 따스해 두 마리 제비 우네.
莫言此地煙霞少	이 땅에 연하 ¹⁾ 적다 말하지 마시게나
歷歷溪山攄有名	역력한 시내와 산 모두가 유명타네.

1) 煙霞, 한가로운 자연의 풍경.

120 猫 고양이

受人眷育與人居	사람의 돌봄 받아 사람 함께 살면서
職在捕鼯計不疎	쥐 잡는 일 도맡아 피함이 성글잖네.
遍體班毛微似豹	몸 가득한 얼룩 털은 은근히 표범 같고
獵蹄輕步可追車	사냥 발굽 날랜 걸음 수레도 쫓겠구나.
眼通屋漏幽昏裏	눈 밝아 어둠 속에 옥루 ¹⁾ 를 뚫어보고
聰破宵深潒寂初	귀 밝아 깊은 밤의 적막함을 깬다네.
化被豚魚爲汝擬	교화 입은 복어 ²⁾ 로 네가 의심 사지만
朝朝來襲主翁余	아침마다 주인에게 애교를 떠는구나.

1) 옥루 : 방의 서북쪽 구석으로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다. 『시경』 대아(大雅) 역(抑)에 “네가 군자 벗하는 것을 보니, 네 얼굴을 온화하게 가지고, 어찌 허물이 없겠는가 하고 자성하였네. 네 집에 있을 때를 보니, 옥루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네.”[視爾友君子 輯柔爾顏 不遐有意 相在爾室 尚不愧于屋漏]라고 보인다.

2) 교화 입은 복어 : 주역 「중부(中孚)」에 “신의가 돈어에까지 미친다”[信及豚魚]라고 했다. 생선을 사와 팔려두면 고양이가 물어가므로 한 말인 듯하다.

121 白髮 백발

閱盡炎涼身自孤 염량세태 두루 보아 몸은 절로 외로운데
窮愁如阮哭窮途 완적처럼 궁한 근심 막힌 길에 곡하누나.¹⁾
鬢毛介潔能模鶴 살쩍 털은 개결하여 능히 학을 본뵈고
年齒邵隆可杖都 연치가 성하여서 장도(杖都)²⁾할 수 있다네.
莫歎鏡裏飜霜雪 거울 속에 번드치는 눈서리를 탄식 말자
偕老人間貴婦夫 인간 세상 해로하는 부부 귀히 여기나니.
梳破斜陽翁髮斂 석양에 빗질 마쳐 늙은 터럭 거두고는
送兒南社買醪壺 남사(南社)로 아이 보내 탁주를 사온다네.

-
- 1) 완적처럼~곡하누나 : 진(晉)나라 때의 죽림칠현은 모두 방달하기로 유명하였다. 그중에서 완적은 수레를 타고 놀러 나갔다가 길이 막힌 곳에 이르러서는 매번 통곡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본문은 이 고사에서 따왔다.
- 2) 장도 : 『예기』 「왕제(王制)」에 보이는 “나이 오십이면 집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육십이면 마을에서 지팡이를 짚으며, 칠십이면 나라에서 지팡이를 짚고, 팔십이면 조정에서 지팡이를 짚는다.”(五十杖於家, 六十杖於鄉, 七十杖於國, 八十杖於朝)라는 구절에서 따왔다. 나이가 들어 이곳저곳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을 말한 것이다.

122 又 또 짓다

年去無端退自孤 세월 흘러 무단히 제 홀로 물러나서

有如行客向窮途 나그네 행색으로 궁한 길을 향하였지.
 身歸尊老人皆敬 그 몸은 늙은이라 남들 모두 공경하니
 帖降清班翁曰都 첩(帖)에 청반(淸班)¹⁾ 떨어져도 응은 좋다 말하네.
 孫挽霜鬚頻戲祖 손자 녀석 수염 당겨 할애비와 장난 치고
 妻妝雲鬢愧爲夫 쪽진 머리 만지던 처 지아비를 부끄럽다.
 仙風道骨能如許 신선 풍채 도인 골격 능히 어떠하던고
 不必長房願入壺 비장방이 호중(壺中)으로 들어갈 필요 없네.²⁾

1) 조선시대 지위는 낮으나 훗날 높은 관직에 등용될 수 있는 관직으로, 과거 출신자로 임용되었음. =淸官(文名과 淸望이 있는 청백리)

2) 비장방이~필요 없네 : 중국 후한의 비장방(費長房)이 여남시(汝南市)의 연리(橡吏)로 있었는데, 시의 한 노인이 호리병 하나를 매달아 놓고 약을 팔다가, 일을 마치고 나면 메양 병 속으로 들어갔다.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데, 비장방이 누각 위에서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찾아가 절하고 술과 안주를 대접하며, 같이 병 속에 들어가기를 간청하였다. 병 속에 들어가 보니 화려한 집과 좋은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다 한다. 본문은 이 고사에서 따왔다. 『후한서』에 보인다.

123 怪石 괴석

體能硬硬氣淒淒 몸체는 단단하고 기운은 쓸쓸한데
 耽癖由人善惑迷 탐벽은 사람 따라 미혹되기 쉽다네.
 爲獸身當龍虎豹 짐승으론 용과 범과 표범의 몸이 되고

134 清溪幽香

化禽形亦鳳鸞鷄 새로는 봉황 제비 닭의 형상 되었네.
華山叱石仙傳術 화산에서 돌 꾸짖음¹⁾ 신선 전한 방법이요
丘寺點頭佛自西 호구사에서 끄덕임은 서방서 온 부처일세.²⁾
陶醉李醒知也未 취한 도연명 술 깬 이태백 아는가 모르는가
關情取物不相齊 정 쏟음과 물건 취함 서로 같지 않다네.

1) 화산에서 돌 꾸짖음 : 양치기 황초평(黃初平)이 도사를 따라 산에 들어가서 신선이 되었는데, 40여 년 뒤에 형인 초기(初起)가 금화산(金華山)으로 찾아와서 양들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자, 초평이 흰 돌들을 향해 일어나라고 꾸짖자 그 돌들이 수만 마리의 양으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다. 『신선전(神仙傳)』 「황초평(黃初平)」에 보인다.

2) 호구사에서~부처일세 : 중국 양나라 때의 고승인 생공(生公)이 일찍이 호구사(虎丘寺)에서 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청중으로 삼아 불경을 강설할 적에 돌들이 모두 마치 그의 설법(說法)을 알아들은 것처럼 머리를 끄덕였다고 한다. 본문은 이 고사에서 따왔다.

124 和從弟愚溪生朝 종제 우계의 생일에 창화하다

蔥竹响馳自少時 어려서부터 풀피리에 죽마 타고 놀면서
一生心契許相知 일생을 마음 맺어 서로 지기 허락했지.
可論年齒寅而卯 나이를 논하자면 한 살 차이뿐이건만
如較才能早與遲 재능을 비교하면 늦고 이른 차이 있네.
南極前秋爲我宿 남극성은 지난 가을 나의 별이 되었고

北樽今日是君厄 북준¹⁾은 오늘 그대 술잔이 되었구려.
縱難逆觀誰先後 어느 누가 앞설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來齋守成最所奇 후예의 지켜 이룸 제일 기이하다네.

1) 북준 : 북해(北海) 공융(孔融)의 술잔을 가리킨다. 북해는 한나라 건안칠자(建安七子) 중 한 사람으로 성품이 너그럽고 거리낌이 없었으며, 선비들을 좋아하고 후생들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였다. 그리고 술을 굉장히 좋아하여 늘 이렇게 말하였다 한다. “좌중에는 손님이 늘 가득하고 술동이엔 술이 비지 않으니 나는 걱정할 게 없다.”(坐上客恒滿, 樽中酒不空, 吾無憂矣) 『후한서』 「공융열전(孔融列傳)」에 보인다.

125 次道南壇所改築韻 丙戌 도남단소¹⁾ 개축 시에 차운하다.

병술년(1946년)

千秋河漢更回渚 천추의 하한(河漢)이 다시 물가 돌아들어
改築靈壇不日成 영단의 개축이 잠깐 만에 완성됐네.
佳境仁山兼智水 좋은 경계 어진 산에 지혜론 물 아울렀고
遺芳玉振又金聲 좋은 향기 남겨 금성옥진(金聲玉振)²⁾ 이루었네.
八賢位板崇奉地 여덟 현자 위판(位板)을 숭봉하는 곳인지라
多士襟懷景仰情 많은 선비 마음으로 그 뜻을 경앙하리.
東魯吾邦稱有以 우리나라 동노(東魯)³⁾라고 일컬음 까닭 있네
將來絃誦又諸生 장래에 제생에게 현송⁴⁾을 펼치리라.

136 淸溪幽香

- 1) 경북 상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서원은 1606년 창건되었으나,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진 뒤 근래에 이르러 다시 복원되었다. 道南壇所는 서원철폐 후 성현을 모시기 위해 제단만 설치했을 때의 이름.
- 2) 금성옥진 : 『맹자』 「만장하(萬章下)」에 보이는 말이다. '금성(金聲)으로 시작하고 옥성(玉聲)으로 마친다'는 뜻으로 맹자가 집대성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여기서 시작의 조리를 뜻하는 금성은 지혜의 일이고, 마침의 조리를 뜻하는 옥성은 성인의 일이므로, 지덕의 조화로움을 뜻한다 하겠다.
- 3) 동노 :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동쪽의 노나라가 된다. 노나라는 공자가 태어난 곳이라 동노는 공자의 도가 펼쳐진 동쪽의 나라.
- 4) 현송 : 공자의 제자인 자유(子遊)가 무성(武城) 지방의 장관으로 나가서 음악[絃]과 교화[誦]를 베푼 것을 말한다.

126 贈李家源 이가원에게 주다

一日從孫享洙携一少年來見, 余問其姓名, 則曰李家源. 卽禮安人也. 此人之聰明睿知, 才藝博識, 與當世名士卞榮晚相敵, 而榮晚亦許之云云. 居無何, 告別而退, 享洙與客, 同至店村, 又與家兒鍾憲同留宿數日, 相贈詩而別焉. 其後十餘日, 余亦至店村, 偶得几案上遺草一紙, 則是家兒贈家源詩. 而家源詩未有見存, 心甚可歎. 故因步原韻而戲成之. 하루는 종손 형수가 한 소년을 데리고 와서 보이는데, 내가 그 성과 이름을 물어보니 이가원으로 예안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총명하고 예지가 있으며, 재예가 있고 박식하여 당세의 명사 변영만(卞榮晚)과 더불어 서로 대적이 되는데, 변영만 또한 이를 허여하였다 한다. 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작별하고 물러났다. 형수는 객과 함께 점촌에 머물렀고 집안 아이 종헌과 함께 유숙하였는데, 며칠 동안 서로 시를 주고받고 이별하였다. 그 후 10여 일이 지난 뒤에 나 또한 점촌에 이르렀다. 우연히 궤안 위에 있던 남은 초고 한 장을 얻어 보니, 이것은 집안 아이가 이가원에게 준 시였다. 이가원의 시가 남아 있지 않아 마음이 매우 안타까웠다. 그래서 원운에 따라 장난삼아 완성하였다.

潮南北各分歸 풍조 따라 남북으로 각각 나눠 돌아가니
 堪歎浮生前路微 뜬 인생의 앞길이 미약함을 탄식한다.
 歲暮丹丘靈鳳隱 세모에도 단구(丹丘)에 영봉(靈鳳)이 숨어 있어
 時違漸陸色鴻飛 때 늦게 하늘 위로 색 기러기 날아가네.¹⁾
 已求良玉何山嶽 어느 산에서든지 좋은 옥을 이미 구해
 今見還鄉又錦衣 이제 고향 돌아오니 비단 옷을 입었구나.
 景仰陶岑青未了 도산(陶山) 선생 경앙하여 푸르름 끝없으니
 降君精彩出群稀 출중한 그대 정채 무리 우뚝 드물도다.

1) 하늘 위로 색 기러기 날아가네 : 원문은 점륙색홍비(漸陸色鴻飛). 주역, 「점괘(漸卦)」 상구(上九)에서 “기러기가 공중에 날아감이니 그 깃을 의식에 쓸 만하다.”[鴻漸于陸, 其羽可用爲儀]라고 한 데서 따온 말로, 지위가 높고 재덕도 겸비하여 다른 이의 모범이 될 때 주로 쓰는 말이다.

- ¹²⁷ 秋崗豐山人也. 名祉燮, 號秋崗. 少有大志, 自庚戌國變之後, 有攬轡激清之志, 不顧家事, 出身京鄉, 廣交知己. 歲之戊辰冬, 渡扶桑, 入東京, 投爆于倭王, 誤中之. 其後事竟就捕, 節死于日本千葉縣獄中, 以灰返鄉. 權厝於醴泉郡虎鳴面廣石山. 歲之乙酉京鄉社會, 一心齊聲

創設葬儀，啓告于各道各邑，吾門亦遣人追悼.

추강은 풍산 사람으로 이름이 지섭(祉燮), 호는 추강(秋崗)이다.¹⁾ 젊어 큰 뜻을 품고 경술국치 이후 천하를 경영하려는 뜻을 가졌다.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경향에 몸을 맡겨 지기를 넓게 사귀었다. 무진년(1928) 겨울에 동해를 건너 동경에 들어가 왜왕에게 폭탄을 던졌으나 잘못 맞고 말았다. 그 일이 끝난 뒤에 체포되어 일본 천엽현 옥중에서 절사하였다. 제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예천군 호명면 광석산에 임시로 안장했다. 을유년(1945)에 경향 각지의 사회에서 한 마음 같은 소리로 장의(葬儀) 절차를 베풀어서 각도와 각읍에 고하므로, 우리 집안에서도 사람을 보내 추도하였다

嶠南淑氣一身收	영남의 맑은 기운 한 몸에 거두어서
玉雪襟懷和不流	옥설 같은 흉금으로 화이불류 ²⁾ 하였네.
文死獄中持宋義	문천상은 옥서 죽어 송의 의리 지키었고 ³⁾
張稚沙上報韓仇	박랑사의 장량 철퇴 한의 원수 갚음이라. ⁴⁾
循環有理豈沉塞	순환함에 이치 있어 가라앉아 막힐 것인가
鄉國同聲改窆幽	온 나라가 한 목소리 새로 장사 지낸다네.
廣石山頭寒夜月	광석산 앞머리에 차가운 밤 달이 뜨니
丹心化作照千秋	일편단심 화하여 천추에 빛남일세.

1) 추강은~추강이다 : 추강은 김지섭(金祉燮, 1885~1928)의 호다. 그는 경술국치를 계기로 독립운동에 투신한 뒤 의열단에 가입하는 등 상해와 북경 등지에서 활약했다. 1924년 일본제국의회에 참석하는 일본 요인들을 처단하고자 동경에 잠입했지만 의회가 휴회 중이라 계획을 변경하고 일본 궁성 니주바세(二重橋)에 폭탄 3개를 던졌다. 현장에서 붙잡혀 20년을 선고받고 이치가야(市谷) 형무소에서 복역 중 1928년 2월 20일에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 2) 화이불류(和而不流) : 『중용장구(中庸章句)』에 나오는 말로 분위기에 잘 어울리면서도 휩쓸려 빠지지 않는 군자상을 일컫는다.[君子 和而不流]
- 3) 문천상은~ 지키었고 : 문천상(文天祥, 1236~1282)은 13세기 중국 남송의 정치가이다. 남송이 원나라에 항복하자 저항하다 체포되었고, 쿠빌라이칸이 그의 재능을 아껴 몽고에 전향을 권유하였지만 거절하고 죽음을 택했다. 옥중에서 지은 「정기가(正氣歌)」는 절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노래로 인구에 회자되었다. 북경에 그의 사당이 있는데, 역대 조선의 연행사들은 언제나 이곳에 들러 그의 절의를 숭상하였다.
- 4) 박랑사의~ 갇음이라 : 한고조(漢高祖)의 승상 장량(張良)의 집안은 대대로 한나라의 대신(大臣)이었다. 진나라에 의해 한나라가 망하자, 그 원수를 갚기 위해 박랑사(博浪沙)에서 역사를 시켜 첩퇴로 진시황을 저격했으나 실패했다. 그 뒤에 한 고조를 도와 끝내 진 나라를 멸망시키고 한업(漢業)을 일으켰다. 본문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128 輓金鶴田 丙戌 김학전 만시 병술년(1946년)

唯公雅望擅南鄉	오직 공의 높은 명망 남쪽 고을 자자하니
璉璧其姿性桂薑	바탕은 옥과 같고 성품은 계강 같았네.
憂樂江湖宜進退	강호에서 떠돌 적엔 진퇴가 알맞았고
浮沈宦海慣炎涼	벼슬길서 부침할 땐 염량에 익숙했지.
文徵漢社盟爲主	글은 한사(漢社) 불러가서 맹주가 되었었고
詩蓄奚囊廣播香	시 주머니 가득 쌓여 향기 널리 퍼졌었네.
但恨冥鴻無舉色	기러기 기색 없음 다만 한이 되나니
飄然乘鶴臥東岡	표연히 학을 타고 동강에 누웠구려.

129 敬次孔聖學知還齋原韻 공성학¹⁾의 지환재 원문에 삼가 차
운하다

有鳥飛來喬木攀 어떤 새 날아 와 교목에 의지터니²⁾
 荊門幽邃幾年關 사립문 그윽하여 몇 해고 닫혔었지.
 春回曲阜深花樹 곡부에 봄이 오니 꽃과 나무 그윽하고
 名振開城仰斗山 개성에서 이름 떨쳐 태산북두 우러렀네.
 翁亦捲懷歸杜洞 웅은 또한 은퇴하여 두문동에 돌아가서
 夢曾受驗揭齋顏 꿈속에서 증험 받아 재실 편액 걸었다네.
 優遊管領烟霞裡 안개 노을 속에서 우유하며 지키시니
 將見熙皞太古還 희희호호³⁾ 태고로 돌아감을 장차 보리.

1) 공성학(孔聖學, 1879~1957) : 개성 출신 실업가로 본관은 곡부(曲阜)이다. 김택영(金澤榮)으로부터 한학을 배워 시문에 능통하였고 성균관부제학을 역임하였다. 기업의 성패보다는 민족자본에 의한 향토개발로 일본인들의 자본침략을 극력 반대한 지사형 민족기업가이다.

2) 어떤 새~의지터니 : 『시경, 소아(小雅) 벌목(伐木)』에 “깊은 골짜기서 나와서 높은 나무로 날아가네.”[出自幽谷, 遷于喬木]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본문은 여기에서 따왔다. 특히 교목은 몇 대에 걸쳐서 크게 자란 나무로, 누대에 걸쳐 경상을 배출한 명문가를 비유할 때에도 사용하는 말이다.

3) 희희호호 : 원문의 희호(熙皞)는 희희호호(熙熙皞皞)의 줄인 말로 모든 백성들이 화락하게 지내는 모습을 가리킨다. 『노자(老子)』에 “웃 사람들 희희하여, 마치 태평 받은 듯하고, 봄날 누대 오른 것 같네.”[衆人熙熙 如享太牢 如登春臺]라고 하였고, 『맹자(孟子)』 진심상(盡心上)에 “성왕의 백성은 호호한 듯하니라.”[王者之民 皞皞如也]라고 하였는데, 본문은 여기에서 따왔다.

130 遣懷 회포를 풀다

古人百世前	옛 사람은 백세 앞에
今我百世後	지금 나는 백세 뒤라.
我口所欲言	내 입으로 하고픈 말
古人已言口	옛사람이 먼저 했고,
我手所欲書	내 손으로 쓰려던 것
古人已書手	옛 사람이 이미 썼네.
抵此言與書	이 말과 글 앞에 두고
取捨欲何否	어이 취사할 것인가.
楊子太玄經	양웅의 태현경 ¹⁾ 을
後人嘲覆瓿	뒷사람들 장독 덮개라 비웃고,
逸少蘭亭帖	왕희지의 난정첩 ²⁾ 을
後人稱蝌蚪	후인들은 파두 ³⁾ 라 일컫는다네.
此皆能一藝	이것 모두 한 기예에 능한 것이니
小成儘可醜	작은 성취 모두가 추하다 하리.
百世上下間	백세 상하의 사이에서
顏曾我師友	안자 증자만이 내 사우라네.

1) 태현경(太玄經)은 중국 한나라의 양웅(揚雄)이 지은 易書로서 <주역>에 비겨 우주만물의 근원을 논한 책이다. 주역의 음양이론 대신에 始, 中, 終의 三元論으로써 설명하고 이것에 역법을 가미하였다. 한나라의 유희가 태현경을 두고

142 清溪幽香

“후세사람들이 장독뎡개로나 쓸 것”이라고 풍자하였다. 장독뎡개(覆甑)란 가치가 없는 저작물을 가리키며 주로 자신의 저작에 대한 겸양의 말로 쓰인다.

- 2) 중국 진(晉)나라의 문필가인 왕희지(王羲之)가 쓴 법첩(法帖). <난정집서(蘭亭集序)>를 짓고 누에고치로 만든 종이에 쥐의 수염으로 만든 붓으로 썼다. 行書를 배우는 본보기가 된다. 서기 353년 음력 3월 3일 왕희지는 文人들과 함께 절강성 소흥시 근처에 있는 蘭亭이란 곳에 가서 시를 지은 뒤 그 시들을 모아 문집을 만들고 스스로 서문(序文)을 쓴 것이 <난정집서>이다. 당태종이 이 난정첩을 좋아해서 죽을 때 부장을 하여 그 원본이 보존되지 않았다고 한다.
- 3) 울챙이. 붓이나 먹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나무 끝을 뾰족하게 깎아 옷을 찍어서 문자를 썼다. 이렇게 쓰면 기필에 둥근 덩어리가 생기고 선은 점차 가늘어져 마치 울챙이 모양의 형태가 된 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131 蘭杜晚春 난사의 늦봄

軒逼江干涼漸生	집이 강가 임해 있어 서늘함 생겨나니
暮年鬢髮座鮮明	노년의 센 터럭이 자리에 선명하다.
園花餘魄曾辭蝶	동산 꽃 남은 냇은 진작 나비 사양하고
牆柳垂條易聽鶯	담장 버들가지 들어 피꼬리 소리 들네.
倚坐孤巖千岫重	외론 바위 기대 앉아 천 산이 무거운데
行吟幽逕一筇輕	그윽한 길 가며 읊어 지팡이가 가벼웁다.
感君幸脫緇塵網	그대 요행 세상 그물 훌훌 털고 벗어나
爲餉丹砂斷世情	단사 ¹⁾ 먹어 세정(世情) 끊음 느낌이 이는구려.

時會員中 權斗淳 年過七十 却火生食 故云之 마침 회원 중에 권두순이 칠십 나이를 넘기고 화식을 물리치고 생식을 했던 까닭에 이렇게 말했다.

1) =주사. 새빨간 빛이 나는 광물. 수은과 황의 화합물로 정제하여 물감이나 한방 약으로 쓰인다.

132 辛巳暮春 入周公洞 신사년(1941년) 늦봄에 주공동에 들어가다

崎嶇山路問童樵	험준한 산길에서 초동에게 길을 물어
幸訪仙區破寂寥	요행히도仙境 들어 적요함을 깨뜨리네.
兩派分源今十世	두 집안 근원 나뉘어 이제껏 십 세인데
一犁甘雨又崇朝	단비에 쟁기 가니 또한 이른 아침일세.
家家籬畔踈踈竹	집집마다 울타리엔 대나무가 성글고
曲曲溪聲斷斷橋	굽이굽이 계곡 소리 다리가 드문드문.
感喜衷情爲我款	충정을 기뻐하며 내 정성을 다 해서
時時賒酒引愁消	때때로 술추렴해 근심 끌어 해소하네.

洞俗淳淳似太初	순박한 골짜기 풍속 태초와 비슷하여
四隣相接摠茅廬	사방 이웃 모든 초가 서로 함께 잇닿았네.
勤農饒圃年豐麥	기름진 밭 농사지어 해마다 보리 풍년
香菜盈盤餅勝魚	접시 가득 맛난 채소 고기보다 떡이 낫다.
族誼更生敦穆裏	화목한 가운데서 족의(族誼) 다시 살아나고
物情能慣險經餘	험한 길 남았지만 물정 능히 익숙하다.

144 清溪幽香

勸君莫墜箕裘業 그대에게 권하노니 선대 가업 실추 말게
世蔭綿綿報不虛 음덕은 이어져서 보답 없지 않다네.

133 次景棣亭韻 경체정¹⁾ 시에 차운하다

經紀多年肯構成 여러 해를 경영하여 기꺼이 엮어놓고
亶由賢裔久齋誠 어진 후예 말미암아 오랜 정성 이었구나.
遺岩尙對湛和樂 남은 바위 그대로 화락함을 즐기노니
景棣應存孝悌生 경체정 남아 있어 효제²⁾가 생겨나네.
楣翠護來千嶂色 푸른 문미 천 산 빛을 지키어 가져오고
軒涼剩乃一江聲 서늘한 추녀에는 강물소리 남아돈다.
從知繼述長如此 내 알았네 이처럼 오래도록 이어 쓰면
世世瓊咳載板橫 대대로 좋은 시구 현판 위에 실릴 것을.

1) 경북 봉화군 법전면에 있는 정자(문화재2008호). 조선조 문인인 강윤, 강완, 강한 3형제의 우의와 덕행을 기리기 위하여 그 증손자인 강태중이 철종9년에 건립하였다.

2) 어버이에 대한 효도와 동기에 대한 우애.

第二卷 春崗 卞鍾憲 先生 漢詩選

中夜秋思

卞鍾憲 1902-1948

號 春崗 字 佐卿

聞慶市 山陽面 辰井里 118

著書：韻詩513首，四禮撰集，提學公實記

清溪世稿，扶桑日記(日本漫遊記)，

師友昌酬錄，傍先實蹟，師友金玉 등

* 바탕글은 春崗 先生의 친필입니다.



春崗 先生 影幀



詩 浮碧樓(224면)의 現場



春崗 先生の 著書

134 金山寺 금산사¹⁾

一節稍後一節先	한 사람 뒤처지고 한 사람 앞서가니
古寺蕭條五百年	옛 절은 쓸쓸해라 5백 년이 되었다네.
二月金山來二客	2월에 금산사로 두 객이 찾아오니
三生蓮榻坐三仙	삼생의 연탁(蓮榻) 위에 세 신선이 앉았구나.
雲濃雜樹深啼鳥	구름 자욱한 잡목에는 깊숙이 새가 울고
花少層崖晚杜鵑	꽃 드문 층층 벼랑 두견화가 늦게 폼다.
爽氣沉沉何處在	맑은 기운 침침하니 어느 곳에 있는가
清風明月照心邊	맑은 바람 밝은 달빛 마음 가를 비추네.

1) 금산사 : 전북 김제의 모악산(母岳山)에 있는 대사찰이다. 모악산은 전북 김제시와 완주군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옛 이름이 금산이다. 이곳 금산사의 대적광전(大寂光殿)에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석가여래와 아미타불, 왼쪽에 비로사나불과 약사여래 등 5불이 모셔져 있다.

135 金山歸路 금산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彩霞祥霧影相從	노을 안개 고운 곳에 그림자로 따르니
詩末奇鋒不·容	시 끝의 기봉(奇鋒)은 하나도 용납 않네.
古濶長鳴彈裡瑟	옛 물가 연주하는 슬 소리 길게 울고
靑山更落響餘鍾	청산에 울리는 종소리는 다시 진다.

152 清溪幽香

幻佛爾是丈人石 장인석(丈人石) 너는 필시 부처님이 변한 게지
問師吾無童子松 스승 간 데 물으려도 동자송(童子松) 내겐 없네.
住杖徘徊還惜步 지팡이로 배회하니 걸음 되레 애석한데
祖宗母岳護重重 조종(祖宗) 되는 모악산이 겹겹이 둘렀구나.

136 壺岩 병바위[호암]¹⁾

岩面大書卞先生壺岩仁川杖屨之地十餘字 바위 면에 '변 선생 호암과 인천의 장구(杖屨)의 땅'²⁾이란 십여 글자를 크게 써놓았다

壺形倒插仰蒼空 거꾸로 박힌 병이 창공을 우러르니
驗見當時造化功 당시의 조화의 공 징험하여 보겠구나.
壁上先生杖屨字 벽 위에 써 놓은 '선생장구' 글자 두고
後人依舊誦高風 뒷사람 변함없이 높은 풍격 읊으리라.

1) 병바위[호암] : 전북 부안군의 10승지 중 하나로 호리병을 닮았다 하여 호암[병바위]이라 불린다.

2) 卞先生壺岩仁川杖屨之地 : 구문을 풀면 '호암 변 선생과 인천 변 선생이 다녀간 곳' 정도가 될 것인데, 호암은 변성온(卞成溫)의 호이고, 인천은 변성진(卞成振)의 호이다. 둘 모두 호남 유학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다.

137 東雲庵 동운암¹⁾

建已一千五百年云 세워진 지 이미 1500년이 되었다고 한다.

藤蘿深僻已斜陽	등나무 넝쿨 깊은 곳에 어느새 석양인데
蕭瑟東雲僅數堂	소슬한 동운암은 겨우 몇 채 집이로다.
五百里來花欲發	백 리 길 찾아오니 꽃은 피려 하는데
一千年去水空長	천 년이 지나도록 강물만 흘러간다.
依依烟火浮生夢	희미한 연기 속에 뜬 인생은 꿈결이요
寂寂蓮龕老佛香	적적한 연화 감실 늙은 부처 향기 나네.
微笑留僧因說法	미소 띤 스님이 설법을 베푸는데
存心清淨最神方	존심(存心)과 청정(淸淨)이 최고 신방(神方)이라 시네.

1) 동운암 : 고창 도솔산 선운사에 속한 암자이다.

138 兜率天內院宮 도솔천 내원궁

景甚爽朗 都無向他之意 然但前路太急 與族孫榮祖禹君昌夏 因約口號 경치가 가장 시원하고 밝아서 거의 다른 데로 향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갈 길이 아주 급하여 족손 변영조 우창하 군과 함께 시 짓기를 약속하였다.

154 清溪幽香

四圍山碧杳塵村	푸른 산에 에워싸여 티끌 세상 아득한데
遠上仙宮佛影尊	멀리 선궁 오르니 부처 그림자 높구나.
灼灼名花如越女	밝게 핀 좋은 꽃들 월나라 미녀 같고
依依芳草憶王孫	변함없는 방초는 왕손을 추억한다.
造化成形奇石立	조화옹이 형상 만든 기이한 바위 섰고
天真歸壑白雲昏	천진 깃든 계곡에는 흰 구름이 저무누나.
行歌數曲因忘苦	몇 곡조 노래하며 괴로움을 잊나니
何等醢鷄復一論	어이해야 해계(醢鷄) ¹⁾ 를 다시 한번 논해볼까.

1) 해계 : 술에서 생긴 벌레로 술독 안에서만 산다. 여기서는 술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139 霽月亭 제월정¹⁾

霽月徘徊聚一軒	달 구경 배회하다 제월정에 모였는데
軒頭津帆亂相喧	처마 머리 나루 돛배 어지럽고 시끄럽다.
三桑應在滄茫地	삼상(三桑) ²⁾ 은 마땅히 아득한 땅에 있어
四友同登狴濯門	네 벗이 나란히 공탁문(狴濯門)에 올랐네.
翔鳥高低沙岸白	나는 새 높고 낮고 모래 언덕 새하얀데
尾魚出沒浪花翻	고기 꼬리 출몰하며 물결 꽃이 번드친다.
船歌如自蓬萊遠	배노래는 봉래산 저 멀리서 들리는 듯

是日清風爽耳根 이 날에 맑은 바람 귀뿌리가 상쾌하다.

- 1) 제월정 :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 있는 정자로 병자호란 직후에 훈련도정을 지낸 이척이 경치 좋은 곳에 사우와 더불어 풍류를 즐기기 위하여 세운 것인데 당초의 당호는 영호정이었다. 후에 그의 아들 상원이 제월정이라 개명하였다.
- 2) 삼상 : 가지가 셋인 부상(扶桑)을 가리킨다. 부상은 과거의 신목(神木) 이름으로 그 아래에서 해가 솟는다고 한다.

140 儒達山上 望木浦市內 유달산 위에서 목포 시내를 바라보다

萬家鱗薄亂雲橫 많은 집들 비늘 같고 구름 가로 걸렸는데
落落森容迥裡明 낙락하게 옥은 모습 멀리서도 환하도다.
四面烟輪天日暗 사방에선 자동차 연기 하늘 해는 어둡고
一邊雷帆海潮生 한 편에선 뱃고동에 바다 조수 일어난다.
奔忙失路非人事 분망하여 길 잃음은 사람 일이 아닐러니
快活登山獨世情 쾌활하게 산 오르니 유독 세상 정일러라.
愼盡桑田成大陸 삼가 뽕밭 변하여서 큰 육지가 되었으니
精衛冤鳥恨應輕 원망 품은 정위조(精衛鳥)야 한이 응당 가벼
우리.

- 1) 정위 : 염제(炎帝)의 막내딸인 여와(女娃)가 동해에 빠져 죽은 뒤에 변한 새가 정위(精衛)다. 이 작은 새는 항상 서산(西山)의 나무와 돌을 물어다가 동해를 메우려고 하였다 한다. 임방(任昉)의 술이기(述異記)에 그 전설이 전한다.

141 觀南海 남해를 보다

東風人坐酒三盃 봄바람에 사람 앉아 석 잔 술 마시니
 爽氣蒼涼世念灰 맑은 기운 서늘하여 세상 근심 간 데 없다.
 巨浪邊橫雲遠合 큰 파도 사방 둘러 먼 구름과 하나 되고
 亂山中出海重開 어지런 산 가운데서 바다 거듭 열리누나.
 一天漠漠浮生杳 온 하늘 막막하고 뜬 인생 아득한데
 萬帆忽忽列國來 수많은 배 부산하게 열국(列國)에서 왔도다.
 欲問魯連何處在 노련¹⁾이 어디 있나 물으려 하였더니
 數聲只有鶴雙回 학 두 마리 몇 차례 울면서 돌아가네.

1) 노련 : 노중련(魯仲連)으로 전국 시대 제(齊) 나라 때의 고사(高士)이다. “진(秦) 나라가 만약 방자하게 황제를 칭한다면 동해에 빠져 죽겠다.”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사기』 「노중련열전(魯仲連列傳)」에 보인다.

142 漢城有感 한성유감

聖化蕭條碧海東 푸른 바다 동쪽에 성인 교화 쓸쓸하니
 半千年事水流空 반천 년 지난 일이 강물처럼 허망쿠나.
 荒城浩劫斜風笛 황량한 성 아득한 겁(劫)에 빗긴 바람 피리소리
 故國寒聲落日鍾 고국(故國)의 찬 소리는 지는 해의 종소리라.

雨欲滂霏烟樹暗	비가 쏟아지려는지 안개 나무 어둑하고
春非寂莫杏花紅	봄이 적막하지 않아 살구꽃이 붉게 폈네.
有誰更說當時感	그 누가 다시금 당시 감회 말을 할까
獨上南山第一峯	나 홀로 남산의 제일봉에 오르노라.

143 博物館 박물관

皇家車輿器物劔戟先賢畫墨. 陳列此館 황실의 수레와 기물, 칼과 창, 선현의 그림과 글씨가 여기에 진열되어 있다.

一淚橫生兩眼絲	눈물이 마구 흘러 두 눈에 실이 되니
尋眞無處正堪悲	진인(眞人) 찾을 곳이 없어 슬픔을 견디노라.
此地何人非故國	이 땅이 누구엔들 고국이 아닐러뇨
先賢遺墨宛當時	선현의 남은 글씨 완전한 그때일세.
香沉輦駕愁雲暗	향 배인 수레엔 근심 구름 어두운데
塵沒干戈白日遲	먼지 쌓인 창과 방패 밝은 해는 더디도다.
依依迷路西京上	아득히 한양에서 길 잃고 헤매면서
歌彼蒼天問有誰	저 하늘을 노래하며 뉘 있는가 묻노라.

144 獎忠壇公園 장충단공원

早晚芳華摠不齊	고운 꽃 늦고 빠름 저마다 각각이라
一園淸絕可堪題	온 공원 몹시 맑아 시 지을 만하도다.
紅如分点花心暝	화심(花心)이 따뜻하여 붉은 빛 점 찍은 양
翠欲生絲柳影低	버들 그림자 낮게 드리 푸른 실이 생겨날 듯.
二月離家三月暮	2월에 집을 나서 3월이 다 가는데
去年遊北此年西	지난해엔 북쪽 유람 올해는 서쪽 구경.
悠雲捲盡斜風靜	먼 구름 사라지고 빗긴 바람 고요한데
高坐奇岩細聽溪	기암에 높이 앉아 냇물 소리 가만 듣네.

145 漢江鐵橋 한강철교

漢水溶溶嚙柳條	한강 물 넘실넘실 버들가지 짓씹고
畫船無數亂歌謳	무수한 그림배엔 노래 소리 낭자하다.
憐君花酒青春子	불쌍타 꽃과 술의 그대들 청춘들아
三十年間忍踏橋	삼십 년간 차마 어이 다리를 밟을 손가.

146 三月晦日，與權錦南潘商隱柳栽佑禹昌夏，會天
淵亭 삼월 그믐에 권금남, 반상은, 유재우, 우창하와 함께 천연정¹⁾에서
모이다

歲歲傷春晦日今 해마다 상춘(傷春)했던 그믐날이 오늘이라
不能忘過不能吟 시 안 짓고 그저 잊어 지나갈 수가 없네.
無心三月歸何地 무심한 3월은 어디 메로 가는 게오
有意諸人坐此林 안타까운 몇 사람이 이 숲에 앉아본다.
雨裡紅嚙花自落 비속에 찹그리며 붉은 꽃은 절로 지고
風前青拱柳初深 바람 앞에 푸름 안아 버들 빗갈 깊어가네.
東君惜別因成病 동군(東君)²⁾과 석별하매 인하여 병 된대도
杏店那思誤典衣 주막에서 어이해 옷 잡힐 생각하리.

1) 서대문 밖에 있던 정자. 한국전쟁 때 파괴되었다.

2) 동군 : 봄의 신을 말한다.

147 育英齋 與申晦汀亨湜吟 육영재에서 회정 신행식과 함께 읊
조리다

十年今始晚顔生 십 년 만에 오늘 처음 늙은 얼굴 생기 도니

160 清溪幽香

一種塵緣兩共晴	일종의 티끌 인연 둘이 함께 개운하다.
古砌留香青草重	옛 섬돌엔 향기 남아 푸른 풀 우거졌고
虛樓暈彩淡雲輕	빈 누각엔 무늬 좋고 얇은 구름 가볍구나.
詩非三月花皆夢	시는 3월 아니어서 꽃은 모두 꿈일러니
酒到斜陽鳥自聲	석양까지 술 마시니 새는 홀로 노래한다.
來後相思無限意	온 뒤에도 그리움은 안타깝기 그지없고
長江依舊在西城	긴 강만 변함없이 서쪽 성에 흘러가네.

148 夜坐蓮塘 밤에 연못에 앉아서

獨步池塘上	연못가를 혼자서 거니노라니
清涼却似秋	청량함 도리어 가을 같구나.
蓮鳴知露滴	연잎이 울어서 이슬 짐 알고
水動驗魚遊	물 움직여 고기 노닐 징험하노라.
心誦濂溪說	마음으로 염계(濂溪)의 글 ¹⁾ 을 읊조리면서
身登太乙舟	몸은 태을주 ²⁾ 에 올라보노라.
世塵歸寂莫	세상 티끌 적막으로 돌아가거늘
何處白雲流	흰 구름은 어느 곳에 흘러가는가.

1) 염계의 글 : 원문은 염계설(濂溪說). 중국 송나라 때의 학자인 주돈이(周敦頤)가

지은 「애련설(愛蓮說)」을 가리킨다.

- 2) 태을주 : 태일연주(太一蓮舟)를 말한다. 천신인 태을신(太乙神)에게 제사지낼 때 사용하는 연꽃으로 만든 배이다. 송나라 한구(韓駒)의 「제태을진인연엽도(題太乙真人蓮葉圖)」시에 “태을신을 제사하는 연잎 배에, 두건 벗은 맨머리에 바람이 차네.”[太乙真人蓮葉舟, 脫巾露髮寒颼颼]라는 구절이 보인다.

149 錦浦雪月堂 금포 설월당

阻懷流見野禾胎 들판에 여문 벼를 회포 막혀 보노라니
錦浦幾時在念催 금포서의 몇 때가 생각을 재촉하네.
山斷蜂腰停峙列 잘록하게 잘린 산이 우뚝 솟아 벌여있고
水高鰲背汪洋回 자라 등의 높은 물은 바다로 돌아가네.
主人已点秦桃地 주인 이미 진나라 도화원¹⁾을 점하였고
客子難醒晉竹杯 손은 죽림 술잔²⁾에 술 깨기가 어렵구나.
講樹蒼蒼春慶裏 봄의 경사 속에서 강수(講樹)³⁾가 푸르는데
隱然風致是仙垓 은은한 풍치 있는 신선 누대 여기일세.

- 1) 진나라 도화원 :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무릉도원(武陵桃源)을 말한다. 무릉(武陵)의 어부가 복사꽃이 홀려 내려오는 물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갔다가 진(秦) 나라 때 난리를 피해 들어온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곳이 워낙 선경이라 바깥세상의 변천과 세월의 흐름도 잊고 살고 있었다 한다.
- 2) 죽림 술잔 : 죽림칠현으로 일컬어지는 완적(阮籍)과 그의 조카 완함(阮咸), 혜강(嵇康), 산도(山濤), 상수(向秀), 유량(劉伶), 왕웅(王戎) 등은 진나라 초기에 항상 죽림에서 거문고를 치고 술을 마시며 세상을 잊고 살았다. 진나라의 죽배는 그들처럼 주인과 함께 술을 마심을 말한 것이다.

162 清溪幽香

- 3) 강수 : 죽림칠현 중 한 사람인 혜강은 늘 큰 버드나무 아래서 단려하며 벗인 여안(呂安), 향수(向秀) 등과 청담을 나누었는데, 강수는 이때의 나무를 가리킨다. 『진서(晉書)』 「혜강전(嵇康傳)」에 보인다.

150 煙竹 담뱃대

銅頭雙戴竹身輕	구리 머리 양끝 이고 대 몸뚱이 가벼운데
捨輒深藏用輒行	안 쓸 땐 간직하고 쓸 때만 꺼내누나. ¹⁾
枕上騷人遊學海	베개 맡의 시인은 학해(學海)에서 노닐고
睡餘嫠婦破愁城	잠 깬 뒤에 과부는 시름을 깨뜨리지.
細焚靈草香生味	영초(靈草) ²⁾ 를 사르면 향기에 맛이 돌고
遲吸煙盃液有聲	담뱃대를 더디 빨면 진액에서 소리 난다.
岑寂來時堪勝友	고요함이 찾아올 제 훌륭한 벗이 되니
世間何物最多情	세간의 어떤 물건 이보다 다정할까.

1) 안 쓸 땐~꺼내누나 : 용행사장(用行舍藏)에서 따온 말로, 도를 펼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거취를 결정함을 이르는 말이다. 「논어」 「술이(述而)」편에 “씨주면 행하고 버리면 숨는다.[用之則行, 舍之則藏]”라는 말이 있다. 담뱃대의 쓰임을 이에 빗대 말했다.

2) 영초 : 남영초(南靈草), 즉 담배를 가리킨다.

151 爐 화로

一生司火拙煙虹 한 평생 불을 맡아¹⁾ 무지개 연기²⁾ 피우나니
儼色銅顏望便雄 기색 엄한 구리 얼굴 멀리 보면 영웅일세.
暖寒易地如奸女 추위 더위 쉬 바꾸니 간녀(奸女)와 한가지요
動靜須人是病翁 사람 따라 동정(動靜)하니 병 든 노인 진배없네.
似效天形圓發外 하늘 모양 본받아 둥근 발이 밖에 있고
能含坤德載由中 땅의 덕을 머금어 가운데에 담는구나.
誰家曾不投渠跡 일찍이 뉘 집애나 네 자취 깃들이니
遠在洋西近海東 멀게는 서양이요 가깝게는 해동일세.

1) 불을 맡아 : 원문은 사화(司火). 사화는 불 피우는 일을 맡은 관원으로 1년 중 사계절과 6월의 토왕일(土旺日)에 불을 취하는 나무를 바꾼다. 봄에는 느릅나무와 버드나무, 여름에는 대추나무와 살구나무, 늦여름에는 뽕나무와 산뽕나무, 가을에는 떡갈나무와 참나무, 겨울에는 느티나무와 박달나무에서 불을 취한다고 한다. 화로를 두고 하는 말이다.

2) 무지개 연기 : 연홍(煙虹)은 원래 하늘에 있는 오색 무지개를 말한다. 당나라 상건(常建)의 「호중만제(湖中晚霽)」란 시에 “무지개 거울 속에 떨어지고, 하늘가 수목이 자라누나.”[煙虹落鏡中, 樹木生天際]란 구절이 보인다. 화로에서 피어나는 연기를 두고 한 말이다.

152 七月旣望日, 申尙均兄來訪, 盛說長老芝蘭稷
詩會, 而要余同行. 故遂會于竹谷高氏月峰亭

7월 16일 신상균 형님이 방문하여 장로의 지란계 시회에 대해 잔뜩 말하고
는 나에게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침내 죽곡에 있는 고씨의 월봉정에
모였다

偶然隨客到仙鄉	우연히 객을 따라 선향(仙鄉)에 다다르니
是日年年意自長	해마다 이날은 뜻이 절로 유장하다.
蘇老已遊前旣望	소동파 이미 앞서 기망(旣望)에 노닐었고 ¹⁾
蘭亭應有後文章	난정에는 마땅히 뒷 문장이 있었으리. ²⁾
庭留鳳跡新桐碧	봉황 자취 남은 뜰엔 오동나무 푸르는데
園沒獐程古草香	노루 자취 없는 동산 옛 풀만 향기롭다.
百世淸風尋有處	백세청풍 맑은 자취 이곳에서 찾으니
高山流水露精光	높은 산 흐르는 물 정채(精彩)를 드러내네.

-
- 1) 소동파~노닐었고 : 소동파는 임술년 7월 기망(16일)에 손님들과 함께 적벽에
배를 띄웠는데, 춘강옹이 월봉정에 모인 날도 7월 기망이라 이렇게 표현했다.
「적벽부」 참조
- 2) 난정에는~있었으리 : 중국 동진의 서예가인 왕희지가 사안(謝安) 등 42인의 명
사와 함께 회계 산음의 난정에서 수계(修禊)하고 시를 지은 것을 두고 한 말이
다. 이후 왕희지는 <난정첩(蘭亭帖)>을 엮었다.

153 病後登山 병을 앓은 뒤에 산에 오르다

天高淸氣淡生波	하늘 높아 맑은 기운 담박하게 물결치고
數尺青筇強力過	몇 자 푸른 지팡이로 힘을 내어 지나누나.
已一句前病苦關	병고(病苦)에 걸린 것이 이미 열흘 전인데
自今月後秋風多	이 달 들고 나서부터 가을바람 부쩍 분다.
郊平黃稻光如貯	평교(平郊)엔 벼가 익어 마치 빛이 쌓인 듯
山蘊歸雲影欲磨	높은 산엔 구름 돌아 그림자를 갈려 하네.
物換時移都是夢	때와 사물 바뀌는 건 ¹⁾ 모두 다 꿈일러니
知心誰可和長歌	어느 누가 마음 알아 긴 노래에 화답할까.

1) 때와 사물 바뀌는 건 : 원문은 물환시이(物換時移), 사물이 바뀌고 때가 옮겨 갔다는 것으로 세월이 흘러감을 뜻하는 말이다. 왕발(王勃)의 「등왕각(滕王閣)」 시에 “한가한 구름과 못 그림자 날로 아득한데, 사물 바뀌고 별자리 옮겨 몇 해나 지났는고”[閑雲潭影日悠悠, 物換星移度幾秋]라는 구절이 보인다.

154 庚午除夕 경오년(1930년) 선달그믐 밤에

四隣深燭五更幽	사방 이웃 깊은 등불 오경이 깊었는데
寒色蒼蒼轉入樓	푸르른 찬 빛이 누각으로 돌아든다.
欲守窮年年且去	궁한 나이 지키려다 한 해가 다시 가고

166 清溪幽香

自求圓福福應留 홀로 원복(圓福) 구하노니 복이 응당 머무르리.
 星文慧慧天傾斗 별들은 반짝반짝 북두성 기울었고
 晦魄沉沉月隱鉤 그믐 달빛 흐릿흐릿 갈고리를 감추었다.
 雪裡香梅消息近 눈 속에 매화나무 꽃 소식이 가까우니
 春風明日又南州 봄바람이 내일 또 남녘에서 불겠네.

155 三月廿三日 高敞族孫榮祖與金永杓來訪 連吟

3월 23일 고창의 족손 변영조가 김영표와 함께 찾아왔기에 연이어 읊조리다

盤岩至樂軒 先祖亭樓址 반암의 지락헌, 선조의 정루 터
 藍水洋洋畫岵青 쪽빛 물 남실남실 그림 산은 푸르니
 至今爲說古先亭 이제껏 옛 선조의 정루(亭樓)를 말한다네.
 煙霞明景圓成局 안개 노을 밝은 경치 원성한 형국이요
 風雨餘痕綠滿庭 비바람에 남은 자취 뜰 가득 초록일세.
 零落子孫常有感 영락한 자손은 언제나 느낌 일어
 悲涼時事尙無醒 처량한 세상 일에 술이 깨지 않는구나.
 際當修復重新日 고쳐서 복원하여 중건하는 날을 당해
 與子書燈見渡螢 그대들과 서등(書燈) 아래 반딧불이 보리라.

繁巖萬歲堤 별암의 만세 제방

三人登望望瞳傾	세 사람이 올라 보니 눈길이 기우는데
上下蒼天一色明	위아래 푸른 하늘 한 빛으로 밝구나.
填役誰知今日鑿	메울 적엔 오늘에 파낼 줄을 알았으랴
漑功應備萬年耕	물대는 일 마땅히 만년 농사 준비일세.
淨如磨鏡塵無染	닦아 놓은 거울 같이 티끌 물듦 하나 없고
動欲驚風浪自鳴	폭풍처럼 내달아 물결 절로 우노매라.
貯得盈科爰決處	구덩이를 채운 뒤에 ¹⁾ 터진 곳 흘러나가
達于川谷是渠情	내와 골에 다다름이 바로 그의 뜻일러니.

大乘寺 四佛山 대승사 사불산

十年重宿佛山頭	사불산(四佛山) 마루에 십 년을 거듭 묵어
不貳門前五戒求	불이문(不貳門) ²⁾ 앞에서 오계 ³⁾ 를 구하였지.
風後松深泉自動	바람 분 뒤 깊은 솔숲 샘이 절로 솟아나고
鍾餘樓寂月初浮	종 울리자 누각 위로 달이 막 떠오르네.
虛無近道如何辯	허무(虛無)가 도(道) 가까움 어떻게 따져볼까
得失歸塵未必愁	득실은 티끌 되어 굳이 근심할 것 없네.
多少今宵清意味	오늘 밤 얼마간 해맑은 의미(意味)있어
世人宜說占仙區	세상사람 신선 땅을 차지했다 말을 하리.

閨筆庵 윤필암

水北孤庵客自東	물 북쪽 외론 암자 동쪽에서 객 이르니
梵文堆積見前功	범문(梵文)이 잔뜩 쌓여 앞선 공적 드러나네.
閒雲凝谷松陰白	한운(閒雲)이 골에 엉겨 솔 그늘은 하얗고
落照橫山石面紅	낙조가 산에 빗겨 바위 면이 붉도다.
境靜三千人事少	경계가 고요하여 세상 일이 하찮고
花深八百佛心空	온갖 꽃 만발하여 팔백 불심 텅 비었네.
西天幻夢誰能解	서역의 환몽(幻夢)을 어느 누가 해몽할까
魚鳥飛潛各不同	새는 날고 고기 잠겨 저마다 다르다네.

金龍寺 김룡사

此中有約又今年	이곳에 약속 두고 또 다시 올해 되니
慧日遲遲玉樹連	혜일(慧日)은 더디 가고 옥수(玉樹)는 이어졌네.
盡閣寒鍾雲盡後	그림 누각 찬 종소리 구름마저 스러진 뒤
晚山涼籟水流邊	저문 산 찬 소리에 물 흐르는 그 곁이라.
俗非紛世忙惟俗	속(俗)은 분세(紛世) 아닐진대 망(忙)이 오직 속 이니 ⁴⁾
仙豈高人淨是仙	선(仙)이 어찌 고인(高人)이라 정(淨)이라야 선이 라네. ⁵⁾
梵唄香殘僧欲定	범패 소리 남은 향에 스님은 입정(入定) 들고

數聲皋鶴自飄然 몇 소리 물가 학은 혼자 훨훨 날아간다.

養眞庵 양진암

萬壑層深爽欲秋 만 골짜기 깊고 깊어 상쾌함 가을 같고
綠陰垂地白雲流 녹음은 땅에 드리 흰 구름 흘러간다.
庭花不識青春暮 뜰의 꽃 어느새 청춘은 저물었고
谷鳥空吟古寺幽 골짜기 새 울음에 옛 절만 그윽하다.
永日袈衫僧獨坐 스님은 온종일 가사 입고 홀로 앉아
一筇山水客初投 지팡이 짚은 산수객(山水客) 처음으로 맞이하네.
煙霞寥寂無人掃 안개 노을 적막하여 쓸 사람이 없으니
自得天機散更收 천기(天氣) 자득(自得)하여 흩었다간 거두누나.

重庵 중암

塵屨遲遲伴日還 느릿느릿 티끌 밟아 해를 짝해 돌아오니
畫堂流彩動絲綸 화당(畫堂)엔 광채 흘러 사륜(絲綸)이 움직이네.
道家因果三生易 도가(道家)에선 인과(因果)로 삼생마저 바꾸지만
詩子敲推一字艱 시인의 퇴고는 한 글자가 어렵다네.
四月鶯深山寂寂 4월이라 피꼬리 울어 깊은 산은 고요하고
重玄門古水潺潺 해묵은 중현문(重玄門)엔 물만 졸졸 흐르누나.
守雌壺合清閑裡 청한함 가운데서 수자(守雌)로 단합하니

密織叢陰滿地環 온 땅 가득 촘촘히 나무 그늘 둘러 있네.

- 1) 구덩이를 채운 뒤에 : 원문은 영과(盈科). 『맹자』 「이루하(離婁下)」에 “근원이 좋은 물은 혼 혼히 흘러서 밤낮을 그치지 아니하여 구덩이를 가득 채운 뒤에 나아가 사해에 이른다.”[原泉混混, 不舍晝夜, 盈科而後進, 放乎四海]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본문은 여기에서 따왔다.
- 2) 불이문 : 대승사의 일주문으로 그 편액에 불이문(不貳門)이라 적혀 있다.
- 3) 오계 : 살생하지 않고[不殺生], 도둑질하지 않고[不偷盜], 샅된 음란을 하지 않고[不邪淫], 망녕된 말을 하지 않고[不妄語], 술 마시지 않는[不飲酒] 불가의 다섯 가지 계율을 말한다.
- 4) 속은~속이니 : 어지러운 세상 자체가 속이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원인, 즉 바쁘게 겨를 없이 움직이는 망이 속임을 말한 것이다.
- 5) 선이~선이라네 : 신선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데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 누구라도 자신을 맑고 깨끗하게 다스리면 신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음미할 만한 구절이다.
- 6) 수자 : 지웅수자(知雄守雌)의 준말이다. 도가에서 제창한 일종의 처세술로 자신의 자취를 감추는 것을 말한다. 『노자(老子)』에 보이는 “수컷의 강함을 알고서 암컷의 연약함을 지키면 천하 만물이 귀착하는 골짜기가 된다.”[知其雄, 守其雌, 爲天下谿]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156 雨中遣悶 빗속에 번민을 풀다

小樓人靜世情飢 작은 누각 인적 없어 세상 정에 주리다가
杵響東南驗日移 동남 편 다듬이 소리에 날 저문 줄을 아네.
雨跡遲鳴梧葉大 오동나무 큰 앞에 빗자국 더디 울고
秋容先淡柳條衰 버들가지 쇠락하여 가을 모습 먼저 엷다.

第二卷 中夜秋思 171

淸風無復時來閣 이따금 오는 누각 맑은 바람 다시 없고
浩劫常多運退碑 옮겨 물린 빗돌은 긴 세월에 늘 많다고.
硯墨頭邊書眼畔 머리 말의 벼루와 먹 서안(書眼)과 함께 하니
自然慣習奈吟詩 저절로 습관 되어 시 읊음을 어이 하리.

157 中夜秋思 한 밤의 가을 생각

疎燈如約月如情 성근 불빛 약속한 듯 달빛은 정스러워
人坐中宵草屋明 한밤중 앉았자니 초옥이 환하구나.
遠樹涼生風後力 먼데 나무 바람 불어 서늘함 생겨나고
歸鴻平斷聲餘聲 기러기는 비갠 뒤에 소리가 끊어지네.
歐題秋賦應由感 구양수¹⁾의 「추성부」는 느낌에 응한 게고
放讀兵書不在名 육방옹²⁾의 「야독병서」 명예 구함 아니라네.
忽有隣砧調復起 이웃의 다듬이 소리 홀연 다시 일어나니
一般寒思掛虛城 가득한 찬 시름이 빈 성에 걸렸구나.

1) 歐陽修, 송나라시대의 저명한 정치가이며 문학자. 「추성부」는 그의 대표작이다.

2) 陸放翁, 남송시대의 시인. 本名은 陸游. 「밤에 兵書를 읽으며」 등 많은 詩를 남겼다.

158 次內舅主澗翠李寅教氏醉宴韻 외숙 간취 이연교 씨의 수
연시에 차운하다

仁人必得德由天 어진 사람 반드시 하늘에서 덕 얻으니
九月黃花不偶然 9월의 국화꽃은 우연이 아니라네.
馬氏長衾同白髮 마씨(馬氏)의 긴 이불을 백발로 함께 하니
老萊班舞揔華筵 노래자의 색동춤¹⁾에 온통 좋은 자리일세.
過年六一平安甲 육십일 년 평안한 갑자를 보냈으니
來甲三千永遠年 다가올 삼천갑자 영원한 해 누리소서.
數曲芝歌從此發 몇 곡조 자지가(紫芝歌²⁾)가 이로조차 펼쳐지니
商山初見有眞仙 상산에서 참 신선을 처음으로 보았다네.

-
- 1) 노래자의 색동춤: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인 노래자(老萊子)는 부모의 장수를 기
뻐하며 부모가 자식의 늙어가는 것을 걱정하지 않게 해 드리기 위해, 자기 아버
지 회갑연에서 색동저고리를 입고 알록달록한 장난감을 가지고 부모 앞에서 춤
을 추어 가며 즐겁게 놀았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 2) 자지가 : 상산사호(商山四皓) 즉 동원공(東園公), 기리게(綺里季), 하황공(夏黃
公), 녹리선생(甬里先生)은 일찍이 진(秦)나라의 난리를 피해 상산(商山)에 들어
가 은거하면서 자지(=지치, 약용식물)를 캐서 그것으로 요기(療飢)를 하며 자지가
(紫芝歌)를 지어 노래했다고 한다.

159 辛未除夕 신미년(1931년) 제야에

未眉申頭兩接中	신미년과 임신년이 맞닿은 가운데서
送迎今夜一般同	오늘밤의 송구영신 모두들 한 가질세.
羲文河洛將分卦	희문 ¹⁾ 의 하도낙서(河圖洛書) 장차 패를 나누고
楚漢東西已割鴻	초와 한은 동서로 홍구(鴻溝) 경계 나뉘었다네. ²⁾
去是無形來有的	지난 것 형체 없고 올 것은 분명하니
求如有術願無窮	구함에 길 있는 듯 무궁함을 소원하네.
從前多少經綸算	이제껏 얼마간의 경륜을 헤아리니
細入寒燈耿耿紅	찬 등불 스며들어 환하게 붉구나.

年光悠忽志因循	세월은 쏜살 같아 인순(因循) ³⁾ 에 뜻 두고서
蜡酒無眠整角巾	납주 ⁴⁾ 마셔 잠 안 자고 각건을 바로 하네.
三百六旬將盡夜	삼백하고 육십일 장차 밤이 끝나가도
萬千餘事未能人	천만 가지 남은 일들 미처 능히 못했구나.
燈明廚暖深深屋	밝은 등불 따운 부엌 집은 깊이 들어앉아
斗轉星疎寂寂隣	북두 돌고 별 성글어 이웃이 적막하다.
冷雨腥風何日霽	찬 비와 비린 바람 언제나 개일런지
滿心期祝葛天民	갈천씨의 백성 ⁵⁾ 되기 마음 가득 기원하네.

年年三百六旬多	삼백하고 육십일 해마다 날 많아도
---------	--------------------

174 清溪幽香

推算今明輒自訛 오늘 내일 따져보니 문득 절로 잘못 됐네.
 際到窮年追莫及 그 사이 노년 되어 후회해도 소용없어
 悔吟詩句欲如何 뉘우치며 시 읊은들 장차 어찌 할거나.

-
- 1) 희문(羲文) : 팔괘를 그었다는 복희씨(伏羲氏)와 괘사(卦辭)를 지었다는 주문왕(周文王)의 병칭이다.
 - 2) 동서로~나뉘었다네 :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두고 쟁탈할 적에 홍구를 경계로 하여 동쪽은 초나라가 차지하고 서쪽은 한나라가 점유하기로 약속했던 고사가 있다. 『사기』 「항우본기(項羽本紀)」에 보인다.
 - 3) 내키지 않아서 머뭇거림.
 - 4) 납주 : 설에 마시기 위해 설달에 빗어 놓은 술을 말하는데, 납주(臘酒)라 쓴다.
 - 5) 갈천씨(葛天氏)의 백성 : 갈천씨는 중국 상고시대 전설상의 제왕으로 이때의 사람들은 매우 순박하였다 한다.

160 壬申元朝 임신년(1932년) 새해 아침

寒鷄清唱萬家晨 찬 닭이 맑게 울어 온 집에 새벽 오고
 玉宇蒼蒼不動塵 하늘¹⁾은 창창하여 티끌조차 일지 않네.
 山水三千餘里國 산과 물 삼천 여리 펼쳐진 이 나라에
 光陰卅一有年身 세월은 서른 하고 한 살 먹은 몸이로다.
 人間除夜誰非夢 인간 세상 제야에 누군들 꿈 아니 꿀까
 天下元朝我亦春 천하의 설날에 나 또한 봄이로고.
 笑道喧嘩髧髮慶 왁자지껄 웃으며 머리 경사²⁾ 말하고

開門先出競寅賓 문 열고 먼저 나와 공경하여 인사하네.

- 1) 하늘 : 원문은 옥우(玉宇), 선인(仙人)이 살고 있다는 달 속의 옥우경루(玉宇瓊樓)를 뜻하기도 하고, 하늘을 가리키기도 한다. 여기서는 하늘로 풀었다.
- 2) 머리 경사 : 원문은 담발경(撻髮慶), 설달그믐에 하는 세시 풍속으로 수세(守歲)라는 것이 있다. 설달그믐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하여 즐거운 놀이를 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밤을 새우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눈썹과 머리가 새지 않았음을 축하한다는 뜻이다.

161 爲李晚松丈麟熙氏所挽 共賦 만송 이인희 어른이 붙들므로 함께 시를 짓다

藜筇還住打松門	지팡이 짚고 와서 술문을 두드리니
山杏華明野柳昏	산 살구 꽃 환하고 들판 버들 어둡하다.
慧鳥天高飛盡力	지혜로운 새 하늘 높이 힘 다해 날아가고
老獺庭暝臥消魂	늙은 개 따뜻한 뜰에 정신 놓고 누워 자네.
客子江湖多勝地	강호에 객이 되면 좋은 곳 하 많아도
主人花樹獨深村	주인은 꽃과 풀로 깊은 마을 홀로 있네.
偶然清借殘春夢	우연히도 맑음 빌어 봄꿈이 남았으니
奉筇騷壇洗白樽	소단(騷壇)을 마치고 흰 술잔을 씻는다네.

1) 운치가 있고 雅淡한 문필가들의 모임을 일컫는 말.

162 自白松歸路 백송에서 돌아오던 길에

幾渡長江幾上垠	긴 강을 몇 번 건너 대에 몇 번 오르니
野田山巷錯鱗開	들밭과 산동네가 비늘처럼 열리었다.
霽天歸雨鴻同落	갠 하늘 가는 비는 기러기와 같이 지고
永日飛花鳥與來	진중일 나는 꽃은 새와 함께 오는구나.
十里支離詩一首	십리 길 지리하여 시 한 수를 지었고
殘春寥寂酒三盃	남은 봄이 적막하여 석 잔 술을 마시노라.
忽聞布穀聲偏感	빼꾸기 소리 문득 듣자 그 소리에 느낌 일어
遙想南風自此回	남풍은 이제부터 돌아올까 생각했네.

163 四月初九日 入金龍寺 留咏 時有病煎藥 4월 9일

김룡사에 들어가 머물며 시를 지었다. 때 마침 병이 있어 약을 달였다

步洞口紅霞門 一名一柱門 골짜기 입구 홍하문(일주문)에서 산보하며

百丈層陰深復寒	백 길의 층층 그늘 깊고도 차가운데
一區清澈劫灰殘	한 구역 해맑아서 겁화의 재 남아 있네.
蹲皆如虎登岩畏	웅크린 범 같은 바위 오르기가 겁이 나고
啼各殊禽聽樹難	저마다 우는 새들 소리 듣기 어렵구나.
暑氣不曾來水域	더위도 물가에는 일찍이 오질 않고

第二卷 中夜秋思 177

世情長是隔雲端 구름 저편 너머에는 세상 정이 길구나.
行人欲識青山景 길 가는 이 청산 풍경 알고자 하거든
看盡紅霞他勿看 붉은 노을 모두 보고 다른 것은 보지 마소.

洞門如畫路如弧 동문(洞門)은 그림 같고 활처럼 길은 휘어
步步縱橫學網蛛 이리 저리 걷다 보니 거미줄을 헤매는 듯.
萬木同深山載雨 많은 나무 모두 깊고 산은 비를 떠었는데
一溪橫瀉谷生珠 시냇물 쏟아져서 계곡에는 방울진다.
曩時風火同爲客 지난 번 풍화는 객과 함께 했었더니
此地煙霞獨有吾 이곳의 안개 노을 나 홀로 소유했네.
雖謂無言眞善見 참으로 말 없음이 선견(善見)이라 한다지만
自來詩習奈何乎 시 습관 절로 오니 이를 어찌 하겠소.

煙霞無恙古今年 안개 노을 예나 지금 변함없이 그대로라
奚啻名區直萬錢 좋은 경계 어이해 만전(萬錢) 값에 견주리오.
隱壑懸泉中作雨 숨은 계곡 걸린 폭포 가운데서 비 생기고
深山高樹上交天 깊은 산 높은 나무 하늘 위로 엇갈렸네.
如何自愛清涼也 맑고도 시원함을 절로 아낌 어떠한가
是故能忘寂寞焉 이 때문에 적막함도 잊을 수가 있다네.
咫尺眞緣應不遠 지척의 진인(眞人) 인연 응당 멀지 않으리니
誰知平地有神仙 평지에도 신선이 있는 줄 그 누가 알겠소.

164 萬歲樓 만세루

登臨不覺膽生秋	올라보니 나도 몰래 간담이 서늘하고
四面輕風吹碧眸	사방의 산들 바람 푸른 눈에 불어온다.
滿地濃陰烟欲沒	땅 가득 짙은 그늘 안개는 내려앉고
遍林涼籟雨難收	수풀 가득 맑은 소리 비 거두기 어렵네.
百千萬劫知何世	백천만겁 어떠한 때인 줄을 알겠거니
三十一年登此樓	서른하나 나이에 이 누각에 올랐다고.
忽有數聲鍾復落	홀연한 소리 있어 종소리 다시 지고
關關幽鳥日西流	깊은 데 새는 울고 해는 서편 지누나.

165 晚坐 저물녘에 앉아서

日午庭陰始闌闌	정오에야 뜰의 그늘 처음으로 개이니
天機流見任循環	천기가 넘쳐흘러 임의로 순환하네.
風雲烟霧同消息	바람 구름 이내 ¹⁾ 안개 소식을 함께하고
鶴鶴鳩鶯自去還	학과 황새 비둘기 피꼬리 절로 갔다 오는구나.
病後知方多藥草	병든 뒤에 처방 알아 약초가 많아지고
閑中無事有青山	한가하게 일이 없어 청산만이 앞에 있네.
道家花信經春發	도가(道家)의 꽃 소식이 봄 지나 피어나니

暗淡幽香倦上顏 여리고 짙은 향기 얼굴 위에 감돈다네.

1) 해질 무렵에 멀리 보이는 푸르스름하고 흐릿한 기운.

166 述懷 술회

無端放逸作詩奴 무단히 제멋대로 시의 종이 되었거니
到處浮沈等水鳧 곳곳마다 부침함이 물오리와 한가질세.
兩崖藤蘿泉出湧 양편 언덕 등 넝쿨에 샘은 팔팔 솟아나고
十尋風雨木長愚 잦은 비바람에 나무 우쭐 자라난다.
罐頭味熟三年艾 그릇에선 삼년 묵은 쑥¹⁾맛이 익어 가고
椀面香新九節蒲 접시에는 구절포²⁾의 향기가 새롭구나.
回首乾坤還一笑 건곤을 돌아보며 한바탕 웃노라니
王符無怪著潛夫 왕부가 『잠부론』³⁾ 지음 괴이할 것 없구나.

1) 삼 년 묵은 쑥 : 『맹자』 「이루」에 “지금 천하에 왕을 하려는 것은 마치 7년 된 병에 3년 묵은 쑥을 구하는 것과 같으니, 진실로 저축해 두지 않으면 종신토록 얻지 못할 것이다.”[今之欲王者，猶七年之病求三年之艾也，苟爲不畜，終身不得。]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는 약쑥의 뜻으로 쓴 듯.

2) 구절포 : 구절포(九節蒲)란 창포의 한 종류로 줄기의 마디가 촘촘하여 한 치마다 마디가 아홉 개나 된다고 한다. 단오에 역질(疫疾)을 물리치기 위해 창포즙을 넣고 빻은 술을 마시는 풍속이 있었다.

3) 『잠부론』 : 후한(後漢)의 왕부(王符)가 지은 책 이름이다. 왕부는 학문과 지조가

180 清溪幽香

있었으나 성품이 너무 곧아 승진하지 못하였다. 이에 은거하며 『잠부론』 30여 권을 지어 당대의 세태를 나무라고 폄하하였다. 『후한서』 「왕부열전(王符列傳)」에 보인다.

167 斜陽步紅霞門口拈二絕 해질녘 홍하문 어귀를 산보하며 절구 두 수를 짓다

人人皆說紅霞門	사람들 모두가 홍하문을 말하길래
及到紅霞獨有門	홍하문 와서 보니 덜렁 문만 있구나.
養得林間多少鳥	수풀 사이 저 많은 새들을 길러내니
聲聲粧飾紅霞門	소리마다 홍하문을 예쁘게 단장한다.

古木蒼蒼不見陽	고목이 울창하여 햇빛이 안 보여도
閒人無事踏斜陽	한인(閒人)이 일이 없어 석양을 밟는도다.
斜陽橫入枝頭散	석양이 가로 들어 가지 끝서 흩어지니
不識深山幾多陽	깊은 산에 햇빛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168 夜聞戴勝 밤에 뻐꾸기¹⁾ 소리를 듣다

虛樓靜夜一燈明 고요한 밤 빈 누각에 등불 하나 밝을 제

第二卷 中夜秋思 181

枕上遙聞戴勝鳴 베갯머리 저 멀리서 뻬꾸기 소리 들네.
不識深山僧獨在 깊은 산에 스님 홀로 사는 줄을 몰라서
數聲何事勸牛耕 잣은 소리 무삼 일로 밭 갈라 권하느뇨.²⁾

問渠何意峽中喚 묻노라 너는 어이 골짜기에서 울어내나
山外桑麻也自斜 산 밖의 상마(桑麻)³⁾ 소리 기울었기 때문일세.
此際農人應易倦 이러한 때 농부는 응당 쉬이 지치리니
明宵須訪睡深家 달 밝은 밤 모름지기 잠 깊은 집 찾아가네.

1) 뻬꾸기 : 원문은 대승(戴勝).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시경』 「조풍(曹風)」 시구장(鳴鳩章) 주에 ‘시구는 길국(桔鞠)이고 일명 대승(戴勝)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의 포곡(布穀)이다.’ 하였고, 『이아(爾雅)』에는 ‘갈국이라 하기도 하고 또한 확곡(稭穀)이라고도 한다.’ 하였으며, 육기는 ‘또 격곡(擊穀)이라 하기도 하고 상곡(桑穀)이라 하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견제(肩題)라고도 하며 제(齊)나라 사람들은 걱정(擊正)이라고도 한다.’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2) 밭 갈라 권하느뇨 : 뻬꾸기의 다른 이름은 포곡(布穀)인데, 뻬꾸기의 울음소리를 음차한 것이다. 그 뜻이 ‘씨를 뿌려라’인 만큼 밭갈이를 권면하는 새로 이해되기도 했다.

3) 桑麻蠶織(뽕으로 누에를 치고 삼으로 길쌈을 하는 일)을 줄인 말이다.

169 庭行 뜰에서 걷다

南風有力吹山檻 남풍이 힘 있게 산창에 불어오니

182 清溪幽香

彈著輕衫試一行 홀적삼 걸치고서 시험 삼아 걸어본다.
石溜潺潺當鼎冷 줄줄줄 들샘물이 솥 안에 시원하고
菜花寂寂上堦明 고요한 장다리꽃 섬돌 곁에 밝구나.
緣詩強酌如逢賊 도적을 만난 듯이 시 짓고 술 따르며
賴藥扶元似解兵 군에서 벗어난 듯 약 의지해 기운 찾네.
遊泳中間爰自得 그 가운데 노닐면서 이에 절로 자득하니
塵寰營汨是何榮 티끌세상 아등바등 이게 무슨 영화리오.

六塵無動坐虛明 육진¹⁾이 동요 없어 허명(虛明) 속에 앉았자니
此地居然若有盟 이땅이 어느새 맹세함이 있는 듯.
朝暮烟雲次第變 아침저녁 안개 구름 차례로 변화하고
松蘿山谷一齊平 솔과 등라²⁾ 산 계곡에 고르고 평평하다.
離家何日隨王粲 집 떠나 어느 날에 왕찬³⁾을 따라볼까
除病今年送馬卿 병 없애려 올해에는 마경⁴⁾을 전송하네.
時與屠尼因罷寂 때마침 스님들과 고요함을 깨뜨리니
墨池毫篆庶伸情 묵지(墨池)에서 붓을 잡고 뜻을 펴기 바라노라.

僧徒三四來 學習書 故及之 승도 서넛이 와서 글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1) 육진 : 불교 용어로 육경(六境)인 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觸), 법(法)에 대하여 인간이 갖는 여섯 가지 인식, 즉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의 작용을 말한다.

2) 등나무의 덩굴.

- 3) 왕찬 : 건안칠자(建安七子)의 대표 시인으로 유려하면서도 애수에 찬 시를 주로 남겼다.
- 4) 마경 : 사마상여(司馬相如)를 일컫는데, 장경(長卿)이 그의 자인 까닭에 사마장경이라고도 부른다.

170 夜坐 밤에 앉아서

獨夜松樓靜養眞	밤에 홀로 송루에서 고요히 양진(養眞)하니
微風高枕偃長身	미풍 불어 높은 베개 긴 몸을 누이었네.
早林虫語悲生楚	새벽 숲 벌레 소리 초(楚) 땅인 양 구슬프고
急雨溪聲虐折秦	소낙비에 냇물 소리 진(秦) 꺾을 듯 사나워라.
於舊於新彼此世	과거에도 지금에도 피차의 세상이요
非僧非俗中間人	승도 아닌 속도 아닌 중간의 인간이라.
萬忙曾不來心上	바쁜 일들 일찍이 마음 두지 않았나니
自反丁寧太昊民	정녕코 태호씨 ¹⁾ 의 백성으로 돌아가리.

1) 태호씨 : 중국 태고의 황제인 복희씨(伏羲氏)를 말한다.

171 自家入紅霞門口得自娛 兼有所傷 故中聯及之

집을 떠나 홍하문에 들어가 혼자 즐겼다. 아울러 상심한 바가 있어서 중련에서 이를 말했다

故愛濃陰入入遲	질은 그늘 사랑하여 느릿느릿 들어가니
家鄉何事笑吾痴	고향에선 무슨 일로 어리석다 날 비웃나.
微烟古寺鍾生際	안개 열은 옛 절에선 종소리가 울리고
落照深山樹沒時	깊은 산엔 햇빛 저서 나무들 잠졌구나.
道理交人人不服	도리로 사귀어도 사람은 승복 않고
實心追世世多欺	본마음으로 따라 봐도 세상 자꾸 속이누나.
清來意味留僧說	해맑은 이 의미가 스님 말씀에 남아 있어
到底欣欣自莫知	너무도 기쁜지라 홀로 알지 못하누나.

172 慰遣 마음을 달래어 풀다

洗脫塵鞅始整簪	세상 굴레 벗어나 처음 비녀 바로하고
片時爰得好叢林	짧은 시간 얻어서 수풀 좋이 여기노라.
水邊樓吐清涼氣	물가의 누각은 청량한 기운 토해내고
雲裡山藏寂寞心	구름에 덮인 산은 적막한 마음 감추네.
無愁乎天安病苦	하늘에 근심 없어 병고를 편히 여기고
既愚於世足書淫	세상일에 어리석어 책읽기만 족하다오.

仙凡如有相分路 신선과 범부의 길 서로 갈린 듯하니
風月人間不換金 달과 바람 즐기는 삶 돈으로도 못 산다오.

173 曉起 새벽에 일어나

枕頭睡罷惺然情 베개 머리 잠이 깨어 마음이 화평한데
草樹依稀鳥獸聲 초목은 으슴푸레 조수(鳥獸) 소리 들리누나.
高壑光明深壑露 높은 계곡 환하며 깊은 계곡 이슬 맺고
大鐘初落小鍾鳴 큰 종소리 낮아들자 작은 종이 우누나.
袈裟默念僧如化 가사 입고 묵념하니 스님이 된 듯하고
蓮燭幽香佛欲生 연촉(蓮燭)의 깊은 향에 부처 환생하려는 듯.
此際虛無難可辯 이러한 때 허무하여 분변하기 어려운데
幾人翻作夢魂驚 몇 사람 벌떡 일어나 꿈속 혼이 놀라네.

174 六月四日省家 禮安李丈雲浦宰鎬氏枉訪育英齋

終夜共賦 6월 4일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안 이씨 운포 이재호 씨가
육영재를 방문하여 밤새 함께 시를 지었다

宣谷青山仰際青 선곡¹⁾의 푸른 산이 우리르매 푸릇한데

騷仙重拜賀亭亭 소선(騷仙)이 거듭 절해 정정함을 하례하네.
風塵如此大韓國 풍진은 우리 땅에 마침내 이와 같고
詩禮惟存夫子庭 시례(詩禮)는 다만 오직 부자(夫子) 뜰에 남았
 구나.

穩樹沉烟還似睡 나무엔 안개 잠겨 도리어 잠지는 듯
頑雲含月欲無醒 짙은 구름 달빛 받아 술 안 깨려 하는 양.
幾乎宋德將隆盛 송나라 덕 거의 장차 융성해질 터이니
誰道微明數点螢 희미한 몇 점 반디 그 누가 말을 하나.

古洞深深碧岵低 깊고 깊은 옛 골에 푸른 산이 나직한데
小樓成樣斷茅齊 작은 누각 모양 갖춰 띠집과 나란하다.
星河有月明同出 은하수에 달이 있어 밝음 함께 내뿜고
草樹無風暑倍携 초목에 바람 없어 더위 갑절 끌어오네.
戀我炎涼兼味事 경솔한 난 염량 속서 사리에 어두운데
尊賓山水及幽栖 빈객은 산수 간의 깊은 곳에 거하누나.
隔年幸荷團圓席 한 해 지나 다행히도 단란한 자리 마련하여
筆舌今來洗硯臍 필설(筆舌)로 오늘에야 연제(벼루)를 씻는구나.

縈碧簾波漾燭飜 푸름 얹힌 주렴 물결 등불이 일렁이고
五更餘話對山樊 오경에도 대화 남아 산기슭을 마주했네.
露傾草色珠生砌 풀잎에는 맺힌 이슬 섬돌에는 구슬 생기며

第二卷 中夜秋思 187

風曳松聲雨入軒 바람에 솔 소리 처마에는 비가 드네.
酒斷親交違約重 술 끊어지자 친한 벗 중한 약속 어기었고
詩成罪囚解刑煩 시 짓자 죄수는 형벌에서 풀려나네.
仙凡縱有天壤隔 신선과 범부 사이 천양의 격차 있어
日後英齋倘記存 뒷날에 육영재 혹시 기록 남으려나.

借一清閒掃百忙 청한(淸閒)을 한번 빌려 온갖 조금 쓸어내니
落天晨色迥蒼茫 새벽이라 하늘빛은 무던히도 창망하네.
感時蟋客同生留 때를 아는 귀뚜라미 함께 살아 머무르고
掠夜蚊軍似有鎗 달려드는 밤 모기 칼날을 가진 듯해.
此世黃金非福祿 이 세상에 황금은 복록이 아니려니
何人甘露得強康 어느 누가 감로 받아 건강을 얻을거나.²⁾
池楊不學離亭折 못가 버들 이정(離亭)에서 꺾어짐³⁾을 배우잖아
欲挽明朝路面當 다음날 아침까지 길 위에 닿으려 하네.

1) 선곡 : 선성(宣城)으로 예안의 다른 이름이다.

2) 감로 받아 건강을 얻을거나 : 중국 한나라 무제(武帝)가 신선술에 미혹되어 승로반(承露盤)에 감로(甘露)를 받아 마셔 수명을 늘려 보려고 했던 고사에서 따왔다. 『한서』에 보인다.

3) 이정에서 꺾어짐 : 이정은 길가의 역정. 곧 이별의 장소이고, 꺾어짐은 이별의 증표로 버들을 꺾어 보내는 것을 말한다.

175 紅霞門入呼 홍하문으로 들어가며 짓다

遠謝家山又入時	멀리 고향 떠나와 또 다시 들어가니
百行無數是真奇	백번 와도 싫증 없어 참으로 기이하다.
欲遊水石治携屐	수석 사이 노닐려고 나막신을 챙기고
肯事田園守立錐	전원에서 일 즐기며 작은 땅을 지키리라.
自去自來雲寂滅	절로 갔다 절로 오며 구름은 적멸하고
相飛相喚鳥慈悲	서로 날고 소리 내며 새들은 구슬프다.
千秋幸見移文絕	천추에 이문(移文)이 뻐어남 행여 보고
誇說詩豪試一椎	시호(詩豪)라 자랑하며 일추(一椎)를 시험하네.

176 有懷 題萬歲樓壁上 감회가 있어 만세루 벽 위에 적다

世擾身苦兩愁端	세상 어지럽고 몸 괴로움 두 가지 근심이니
一立烟塵幾望看	연진(烟塵) 속에 한번 서서 몇 번이고 바라보네.
雨露時乎桃李發	때에 맞은 비와 이슬에 도리(桃李)는 피어나고
風霜天也桂松寒	하늘의 바람 서리에 계송(桂松)이 차갑구나.
未垂城下空携釣	낚시 들어 성 아래로 드리우지 아니하고
欲掛東門尙解冠	동문에 걸어두려 되레 모자 벗누나. ¹⁾
轉入深山三月客	깊은 산에 돌아드는 삼월의 나그네가

龜頭今思煉來丹 부뚜막서 단약 연조(煉造) 이제사 생각하네.

吾生何處可安歸 내 생애 어디 메로 편안히 돌아갈까
 造化車輪世界飛 조화의 수레바퀴 세계 위로 날아가네.
 項氏拔投應例力 항우가 뽑아 던짐 보통 힘에 해당하고
 嬴皇留喝似凡威 진시황제 꾸짖음은 보통 위엄 비슷했네.
 淸風明月無今古 맑은 바람 밝은 달은古今 차이 없으니
 流水青山豈是非 흐르는 물 푸른 산을 어떻게 시비하라.
 堪笑書中迂闊事 글 속의 우월한 일 비웃음을 감내하며
 尙論當日絕餘韋 그날에 끊어지고 남은 가족 되레 논하네.²⁾

1) 동문에~벗누나 : 중국 후한의 봉맹(逢萌)이 왕망(王莽)의 정사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관을 벗어서 동쪽 도성 문에다 걸어 놓고는[解冠掛于東都門] 곧장 시골로 돌아갔다는 고사에서 따온 구절이다. 『후한서(後漢書)』 「봉맹열전(逢萌列傳)」에 보인다.

2) 韋編三絶 - 공자가 주역을 애독하여 가족으로 맨 책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고사가 있음. 본문도 이에서 따온 것으로서, 책을 여러 번 읽어 가족 책끈이 끊어진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177 睡起 새벽에 일어나

倦書睡起倚虛關 읽다 지쳐 자다 깨어 빈 집에 기대니
 昇昇光陰覺轉環 흘러가는 세월이 돌아옴을 깨닫네.

190 清溪幽香

六月凉蟬秋咫尺	유월의 찬 매미에 가을은 다가왔고
一年黃鳥雨中間	일 년 내내 피꼬리는 빗속에 우는구나.
攬懷流水靜聽澗	객수(客愁)는 유수 같아 냇물 소리 가만 듣고
世事白雲閒對山	세상 일 백운인 양 산 마주해 한가롭다.
憐爾桐花留不得	가련타 오동꽃은 머물지 못하고서
隨風無數落庭斑	바람 따라 무수히 뜰 위로 떨어지네.

178 自適 자적

一樓風箔傲炎蒸	누각 가득 바람 주렴 찌는 더위 내모니
臥起平安任所能	기거도 평안하다 제멋대로 맡겨두네.
藥味泉清甘似蜜	약 맛은 샘이 맑아 달기가 꿀 같은데
羹香蔬潔淡於冰	국과 채소 정갈해서 얼음보다 담박하다.
心尙豪放吾非客	마음 여직 호방하여 나는 손님 아니고
語輒玄虛子必僧	현허(玄虛) ¹⁾ 를 말함 보니 그대 필시 승려이리.
時送青童松下路	술 아래 길에서 청의동자(青衣童子) ²⁾ 전송하고
緩囊斜佩採蓬菱	주머니에 패옥 늘어 쭉과 마름 캐리라.

1) 현묘한 모양 또는 그런 이치. 老莊의 허무의 學을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2) 신선의 시종을 든다는 푸른 옷을 입은 사내아이.

179 山行 산행

穿僻無媒草路冥	후미진 곳 혼자 가니 풀숲 길이 어두운데
偶然行到可堪銘	우연히 다다른 곳 맘에 새길 만하네.
筇頭鼠跡恍恍走	지팡이 끝 쥐의 자취 많이드 내달리고
履際虫聲寂寂停	걸음 사이 벌레 소리 고요히 머무누나.
迎客雲深山括目	객 맞느라 깊은 구름 산은 눈을 비비고
羞人苔沒石逃形	남 부끄러워 이끼 덮어 바위 형체 숨기네.
方方谷谷均成譜	방방곡곡 고르게 계보를 이루노니
生色當年價不零	생생한 빛 당년에 그 값이 그대로세.

180 聘翁之沒已八年矣 初葬于九灣村前山 而後祔栗院之先隴矣 今壬申秋九月 余路出於此 禮不敢掩過 遂問公墓所在 輒拜而起 悵感曷有已也

因拈所感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 지 이미 8년이 되었다. 처음에 구만촌 앞산에 장사지냈다가 이후 울원의 선영에 합사하였다. 을 임신년(1932년) 가을 9월에 내 발걸음이 이곳을 나서게 되었는데, 예의상 감히 그저 지나치지 못했다. 그래서 마침내 공의 묘소가 있는 곳을 묻고는 문득 절하고 일어나니, 슬픈 감회가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인하여 느낀 바를 적었다

西行落日問公墓 서쪽 길에 날 저물어 공의 묘소 물으니

192 清溪幽香

指道青山一路迷 가리키는 푸른 산에 길 하나가 흐릿하다.
賴信人言今獨拜 그 사람 말 믿고 가서 이제 홀로 절하노니
未知吾笑是耶非 모르겠네 내 웃음이 옳은지 그른지를.

違公如昨八年過 공을 보낸 8년 세월 마치 어제 같은데
感舊徘徊果奈何 지난날의 감회에 배회한들 어이하리.
淚及吾公公不識 공을 위해 흘린 눈물 공은 알지 못하리니
滿山秋草夕陽多 산 가득 가을 풀이 석양에 달렸구나.

草笠十三年尙童 열세 살 초립동이 나이 아직 어릴 적에
愛渠如子是吾公 자식처럼 아껴주니 바로 나의 공이셨네.
九灣古宅委禽日 구만촌 고택에서 백년가약 맺던 그 날
黑髮殊非耳順翁 검은 머리 여전하여 예순 노인 아니셨지.

公家住我隔隣村 공의 집은 나 살던 집 이웃에 있었거니
有此賢螟緒復存 어진 자손 여기 있어 유서(遺緒)가 남았구나.
在世無孫無足恨 살아서 자손 없음 한할 것이 못 되노니
無今孫是必來孫 지금 자손 없다 해도 자손 필히 생기리라.

螟胤委禽全氏家 명윤(螟胤)이 전 씨 집에 장가를 들었는데
新人賢淑德兼加 새 사람 현숙하고 덕까지 겸하였네.

曾聞百兩¹⁾于歸²⁾日 듣자니 신행을 때 수레 수레 왔다 하니
邇在秋冬早晚他 가을 겨울 가까워 조만간 그를 뵈리.

1) 수레 백량. 많은 수레.

2) 신부가 처음으로 시집에 들어가는 일. 新行이라고도 한다.

181 重陽日乍雨 중양절에 잠깐 비가 내렸다

秋懷秋興感西風	가을 생각 가을 흥취 서풍에 느끼노니
詩酒徘徊一念中	시 짓고 술 마시며 생각 속을 배회하네.
霜菊垂開籬欲笑	서리에 국화 피어 울타리는 미소 짓고
雨梧鳴落井如壑	비 맞은 오동 울어 우물은 귀머거리일세.
遊於山水筇携竹	산수 간에 노니느라 대지팡이 짚었고
安此田園屋掩蓬	이곳 전원 평안하여 쭉이 집을 가렸네.
是日重陽無好客	이 날은 중양절 좋은 객이 없는데
烟霞誰與話融融	안개 노을 뉘와 함께 소곤소곤 말을 하나.

182 秋日郊行 가을날 교외로 가다

晚秋風日淡還空 늦가을 바람 불어 엷은 듯 텅 비니
 遍踏郊原譜歲功 교외 들판 두루 다녀 한해 수확 적는다.
 天濶孤鴻多自北 넓은 하늘 외기러기 북에서 자꾸 오고
 禾成流水盡歸東 벼 익어 흐르는 물 동쪽으로 돌아가네.
 人於勤處農爲本 사람이 부지런히 농사로 근본 삼고
 物有收時理自公 사물 거둠 때 있으니 이치 절로 공평하다.
 回想來頭箕斂俗 다가올 기림(箕斂)¹⁾하는 습속을 떠올리니
 太平歌曲與誰同 태평가 노래 가락 그 뉘와 함께 하리.

1) 기림 : 키질을 하듯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기(史記)』
 「장의전(張儀傳)」에 보인다.

183 壬申除夕 임신년(1932년) 제야에

世與年忙瞥此人 세상이 분망하여 이 사람을 놀래키니
 夢中迎送慙然身 꿈속의 송구영신 이 한 몸이 무연하다.
 東君來日蘇群物 동군¹⁾이 오는 날에 모든 생물 소생하고
 黑帝歸程感舊臣 흑제²⁾가 돌아가니 옛 신하는 느껴웁다.
 風雪吹窓掀燭角 눈보라 창에 불어 촛불을 추켜세우고

第二卷 中夜秋思 195

星河垂地繞霜鱗 은하수 땅에 드리워 물고기를 휘감누나.
往非誤筭終難拾 지난 날 잘못 없어도 끝내 수습 어려우니
何似漁舟杳失津 아득히 나루 잃은 고깃배와 비슷하다.

1) 봄의 신(神)을 말한다.

2) 흑제 : 겨울을 맡은 북쪽의 신을 가리킨다.

184 癸酉元朝 계유년(1933년) 설날 아침

衣巾精飭坐晨遲 옷과 두건 바로하고 새벽녘에 앉았자니
凍裡春風吹上眉 얼음 속 봄바람이 눈썹 위로 불어온다.
天下光陰加一日 천하의 광음에 하루가 더해지고
人間福祿願多時 인간의 복록은 많은 때를 원한다네.
大堯庭草方生葉 대요(大堯)¹⁾의 뜰 풀은 바야흐로 잎이 돋고
處士盆梅欲放枝 처사의 분매(盆梅)는 가지를 펴려 하네.
父母高堂妻子屋 고당에는 부모 있고 집안에는 처자 있어
融融和氣也相隨 오순도순 화목 기운 서로 따라 이르노라.

1) 요(堯)임금을 높인 말.

185 正月八日 與南雪堂朝翊氏 夜賦 정월 8일 설당 남조의

씨와 함께 밤에 짓다

吹送玄冥春入家 현명¹⁾을 불러 보내 새봄이 집에 들어
一寒今夜始融和 한 추위 오늘 밤에 비로소 녹어지네.
情輸新曆樽傾栢 새 달력에 정을 실어 백주²⁾를 따르고
語括前時燭剪花 앞 시절을 얘기하며 촛불 심지 자르누나.
咿嘸雲鴻何處下 구름 속 우는 기러기 어디에 내려앉나
分明雪壑近來多 눈이 쌓인 환한 계곡 근래에 많아라.
以吾猥屈詩仙杖 나는야 외람되이 시선(詩仙) 지팡이 굽히어
敢冒雕虫弄墨華 감히 조충³⁾ 무릅쓰고 묵화(墨華)를 희롱하네.

1) 현명 : 겨울 귀신의 이름이다. 『예기』 「월령(月令)」에 “겨울철의 상제는 전옥(顓頊)이요, 그 귀신은 현명이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2) 백주 : 측백나무 잎을 담가서 빚은 술을 말한다. 옛날 풍속에 의하면, 춘절(春節)에 이 술을 마시면 사기(邪氣)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한다.

3) 조충 : 조충전각(雕蟲篆刻)의 준말로, 벌레 모양이나 전서(篆書)를 새기듯이 미사여구로 글을 꾸미는 작은 기예를 말한다.

186 觀權屏谷古今歷代沿革圖 권병곡의 <고금역대연혁도>¹⁾를
보다

華夷王霸界分成 화이(華夷)와 왕패(王霸)는 경계가 나뉘어져
半萬年間一鑑明 반만 년 사이에 거울처럼 밝았다네.
雨雨風風無日定 비 내리고 바람 부는 건 정해진 날이 없고
文文武武待時生 문과 무를 숭상함은 때에 맞춰 생겨났지.
迷前後學還多感 앞길 잃은 후학은 도리어 느낌 많고
啓後前賢若有情 후인 계도(啓導) 앞선 현자 마치 정이 있는 듯해.
得失玄黃難復易 얻고 잃은 현황(玄黃)²⁾은 바꾸기가 어려우니
過空啼鳥兩三聲 허공 스친 새의 울음 두어 소리 들리누나.

1) 권병곡의 <고금역대연혁도> : 병곡은 권구(權渠, 1672~1749)의 호로 본관은 안동, 자는 방숙(方叔)이다. 천문과 주수(籌數), 복서(卜筮)와 병가(兵家) 등에 통달하였다. <고금역대연혁도>는 <중국고금역대연혁지도(中國古今歷代沿革之圖)>를 말한다.

2) 검정빛과 누른 빛깔의 폐백, 곧 여러 가지 예물.

187 與高嶺雲丈安春洲權杏帷 龍州萬波樓 率會

고영운 어른과 안춘주, 권행유와 함께 용주 만파루¹⁾에서 모임을 가지다

一樓層樹繞成牆 누각에는 층층 나무 서로 얹혀 담 이루고

晚到龍州俯點芳	용주에 늦게 와서 점점 꽃을 곱어보네.
秧麥地平流水遠	평지에는 벼와 보리 멀리에는 물 흐르고
烟雲天盡亂山長	하늘 가득 안개 구름 산은 길게 펼쳐 있네.
前人書板今人感	앞 사람의 서판(書板) 보며 지금 사람 감회 젖고
不日詩壇此日香	불일시단 우리 모임 이 날에 향기롭다.
物我同歡無界限	물아가 함께 즐겨 경계가 없노라니
數聲幽鳥下樽傍	숲 속 새 몇몇 소리 술잔 곁에 떨어지네.

尺地東西喜不期	동서에 좁은 땅 기쁨 기약 아니 하니
抱槩山下起相思	거문고 안고 산 아래서 일어나 생각하네.
仙凡并世同酬酌	신선 범부 세상에서 함께 술을 따르고
工拙殊天各有詩	잘 짓든 못 짓든 각자 자기 시를 짓네.
桑畝蚕成村定日	뽕밭에서 누에 길러 시골 날은 정해졌고
水田牛立野忙時	무논에는 소가 서서 들판 일이 바쁠 때라.
人間偏少長圓席	인간세상 좋은 자리 자꾸만 줄어드니
餘約離程語故遲	남은 약속 이별 자리 말을 부러 더디하네.

1) 경북 예천군 풍양면의 회룡포 옆에 있는 누각. 인근의 무이서당, 황목근 등과 함께 용주8경 중의 하나로 꼽힌다.

188 願年豐 押豊 풍년을 기원하여 풍자 운을 쓰다

憂家憂世願年豐 세상 근심 집 근심에 풍년을 바라노니
魚夢年年肯異同 물고기 꿈¹⁾ 해마다 다르고도 같아라.
大有人間兼衆樂 크게 가져 사람 사이 온갖 즐길 아우르고
一勤天下見餘功 세상 일 부지런하면 남은 공을 보게 되리.
稻粱黍稷登後 벼와 기장 서숙 등이 이삭이 팬 뒤에
旱雹霜蝗災退中 가뭄 우박 서리 황충, 재해를 물리친다.
稱彼犀觥充廩日 저 무소 뿔잔으로 창고 채울 날 말하며
明窓經史拭青瞳 밝은 창서 경사(經史) 보며 푸른 눈을 닦는도다.

1) 물고기 꿈 : 『시경』 소아(小雅) 「무양(無羊)」의 “소치는 이 꿈을 꾸니, 수많은 물고기와 여러 가지 깃발이라. 점쟁이가 점을 치니, 수많은 물고기는 풍년 들 징조요, 여러 가지 깃발은 집안 창성 징조라네.”[牧人乃夢，衆維魚矣，旄維旟矣。大人占之，衆維魚矣，實維豐年，旄維旟矣，室家濙濙]라고 한 데서 따온 것이다. 풍년을 상징하는 말이다.

189 杜武花樹齋 有人來訪 두무의 화수재로 어떤 사람이 방문하여

齋成歲曆幾番還 화수재 완성되고 세력(歲曆) 몇 번 돌았는데
器世恒盤適此間 들렌 세상 배회하다 이 사이에 이르렀네.
仰祖佳城松陰厚 조상 무덤 우리보니 솔 그늘이 두텁고

200 清溪幽香

賀賓高屐草路艱	하객이 힘든 풀길 나막신 신고 오네.
秋風欲動行雲薄	가을바람 움직이려니 가는 구름 얇어지고
野稻初登逝水潺	들판 벼 처음 익으니 졸졸졸 물 흐른다.
杜武深山驚懶夢	두무의 깊은 산 게으른 꿈 놀래키고
烟霞心想轉如環	연하 ¹⁾ 를 향한 생각 고리처럼 도는구나.

園樹陰團砌石方	동산의 나무 그늘에 섬돌은 네모나고
山鷄啼罷野艇行	산닭이 울음 몇자 들 잠자리 날아간다.
菜根半臥驗經雨	나물 뿌리 반쯤 누워 비 지났음 알려주고
桑葉或黃疑帶霜	뽕 잎은 간혹 누레 서리 왔나 의심 드네.
舉世雖云探利窟	온 세상이 비록 이익 탐한다고 말을 해도
一時安可廢書床	한 때인들 책상을 폐할 수 있겠는가.
酒潮暗動詩囊重	술동이 찰랑찰랑 시 주머니 무거운데
清趣何人語欲詳	맑은 정취 누구에게 상세히 말을 할까.

1) 한가로운 자연의 풍경.

190 天淵亭旣望日 천연정에서 16일에

蘇仙旣望渴心端	소동파는 기망에 마음이 바짝 말라 ¹⁾
縱被靑雲可解官	청운을 가지고도 관직을 벗었다네.
此會胡違流水地	이 모임 어떻게 유수지를 어길거나
百逢無斃故人冠	백 번을 만나도 벗의 관(冠)은 싫지 않네.
蟬聲日落遲遲捲	매미 소리 해 지자 느릿느릿 감아 들고
山色詩來寂寂看	산 빛이 시에 들어 고요히 바라본다.
今古樂園多別物	고금의 낙원에는 다른 사물 많았으되
烟霞風月尙平安	연하와 풍월은 오히려 평안했지.

1) 마음이 바짝 말라 : 원문은 갈심단(渴心端). '마음이 바짝 말라 먼지가 일어난다'는 갈심생진(渴心生塵)에서 따온 것으로 벗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191 思考齋 偶得 사효재에서 우연히 짓다

門前流水何清澈	문 앞을 흐르는 물 어찌 그리 맑은지
山上浮雲自去來	산 위에 뜬 구름은 절로 왔다 절로 간다.
眞趣逢人難像語	참된 정취 사람 만나 그려내기 어려우니
隱中只見此心開	은연중에 이 마음이 활짝 열림 다만 보네.

202 淸溪幽香

- 192 潁江春遊 同安春洲權桐雲申藥山 영강에서 안춘주, 권
동운, 신약산과 함께 봄놀이를 하다

三月訪君門始開	삼월이라 그대 찾아 문이 처음 열리니
潁雲濃碧想頭催	질푸른 영강 구름 생각을 재촉한다.
借枝衣掛楊垂水	가지 빌려 옷을 거니 버들은 물에 뜨고
取路筇携石掃苔	길을 따라 지팡이 짚고 바위 이끼 쓸어내네.
永日殘花蜂獨抱	하루 종일 시든 꽃은 벌만 홀로 품었고
一江靑荻鷺雙回	갈대 푸른 강으로 한 쌍 백로 돌아오네.
懷人海外還多感	바다 밖의 사람 그려 도리어 느낌 많아
喚酒東風未舉杯	술 시키곤 봄바람에 아직 잔을 못 들었지.

- 193 上仙岩 상선암¹⁾

深山草樹密還纖	깊은 산 초목은 뻑뻑한 듯 여리니
路絕塵寰法界嚴	세상 통한 길이 끊겨 법계가 엄하도다.
遊世空虛餘杖竹	세상 노닐 공허하여 대지팡이 남았는데
離家淡泊供盤塩	집을 떠나 담박하게 반염(盤鹽)을 공양하네.
水如噴玉明於鏡	물빛은 옥 뿜는 듯 거울보다 환하고
石可張屏掩或簷	바위는 둘러쳐져 처마 간혹 가리었네.

三十年間踈蕩味 삼십 년 동안이나 소탈함을 즐기어
墨池隨處筆峰尖 묵지(墨池)가 따르는 곳 필봉(筆峰)이 뾰족하다.

1) 아래 詩題인 중선암, 하선암과 함께 단양8경 중의 하나이다.

194 中仙岩 중선암

前觀察使尹憲柱大書特刻以四郡江山三仙水石 예전 관찰사 윤헌주가 '사군강
산삼선수석'(四郡江山三仙水石)이란 큰 글씨를 쓰고 특별히 세졌다.

萬麓中間隱景明 첩첩 산 중간에 밝은 경치 감췄으니
何年造物此功成 어느 해에 조물주는 이 공을 이루었나.
別天日月仙安在 별천지의 해와 달에 신선은 편히 있고
舉世風塵我獨清 온 세상은 풍진이요 나만 홀로 맑다네.
臥立蹲岩皆異面 눕고 서고 웅크린 바위 모든 면이 제각각
西南北水會同聲 서남북의 물이 모여 같은 소리 내누나.
丹崖畫刻紛紜字 붉은 벼랑 글을 새겨 글자 어지러워도
今古名人歷歷生 고금의 명인이 뚜렷이 살아나네.

195 下仙岩 하선암

靈區兼借日輪遲	신령한 곳 함께 빌려 하루 해 더디 가고
羽化衣裳覺爽時	깃이 된 옷과 치마 시원함을 깨닫누나.
直柏千年扶大節	천 년 살이 곧은 측백 큰 절의 떠받치고
深花四月保芳姿	깊은 꽃 사월에도 고운 자태 지녔네.
地連四郡江山古	사군에 땅 이어져 강산은 예스럽고
景合三仙水石奇	삼선암들 경치 같아 수석이 기이하다.
遠證他年重到約	다른 해에 되올 기약 멀리서 다짐하니
歸家應有夢支離	집으로 돌아가면 응당 꿈은 지리하리.

196 渡萬壑江 만학강¹⁾을 건너며

石轉波平帆影寒	바위 돌아 물결 잔데 돛 그림자 차가웁고
回頭却羨白鷗閒	고개 돌려 한가로운 흰 갈매기 부러워라.
前年聞道此江水	지난해에 이 강물 말하는 걸 들었는데
一客踏來何處山	한 객이 밟아 와서 어느 산에 머물었나.
竿日人分磯上下	해가 뜨자 사람들은 물가 주변 나뉘었고
浦烟鶯沒柳中間	포구 안개 버들 사이 찌꼬리가 잠겼구나.
魚鹽輸向東南路	동남으로 향한 길로 고기 소금 나르니

李四張三幾往還 보통 사람 몇 번이나 갔다가 돌아왔다.

- 1) 남한강의 상류. 영월 동강과 서강이 합쳐져 만학강이라는 이름으로 단양을 거치고 충주호로 흘러 들어간다.

197 石門 석문¹⁾

片石能容宇宙間 조각돌 우주 사이 능히 포용하겠지만
非橋非柱亦非關 다리도 기둥도 관문도 아니라네.
如斯就妙天應老 이처럼 오묘하니 하늘 응당 노련하고
無與齊高爾獨鰥 높은 것 달리 없이 너만이 홀로 있네.
數十年來初勝地 수십 년 본 것 중 가장 경치 뛰어나니
三千里內一名山 삼천 리 강산 안에 이름난 산이로다.
未知何日麻姑降 모르겠네 어느 날에 마고 선녀 내려왔나
入斗田邊意自閒 두전 가로 들어가니 뜻이 절로 한가롭네.

- 1) 단양8경 중 第二景. 秋史도 「石門」과 다음 詩인 「隱舟岩」을 제목으로 詩를 지었다. 옛날 하늘나라에서 물을 길으러 내려왔다가 비녀를 잃어버린 마고할미가 이곳의 경치에 반해 눌러 살았다는 작은 동굴이 있고, 이 石門은 그 마고할미가 드나들던 門이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198 隱舟岩 은주암¹⁾

萬千奇怪像難全	천만 가지 기괴함을 다 말하기 어려우니
上覆中空勢倒懸	위는 덮고 속은 비어 거꾸로 매달린 듯.
樂欲無歸忘白日	즐거워 안 가려고 밝은 해를 잊었나니
危猶如固賴蒼天	위태로움 굳세게도 푸른 하늘 의지했네.
汪洋水國龍盤處	넘실대는 물나라에 용이 서려 있는 곳
縹緲雲山鳥去邊	아득한 구름 산에 새가 돌아가는 곁.
可惜藏舟藏不得	애석타 숨긴 배를 간수하지 못하여서
紛紛名向世間傳	어지러이 그 이름을 세간 향해 전하였네.

1) 단양8경 중 하나인 도담삼봉 부근에 있는 암자.

199 義林池 의림지

嘆湖亭上客徘徊	영호정 위에서 나그네 서성이니
水面天光一樣開	수면과 하늘빛이 한 가지로 열리누나.
蒲葉魚吹風浪沒	부들 잎 물고기 뽀꼼 풍랑에 잠겨들고
霽烟鷗破夕陽來	갈매기 안개 갈라 석양이 비쳐든다.
何年能唱大堤曲	어느 해에 대제곡 ¹⁾ 을 능히 불러 보리오

此地空餘于勒垠 이 땅엔 덩그러니 우륵대만 남았구나.
遠向江東無足羨 아득히 강동 향해 부러워할 것 없으니
季鷹那識後人盃 뒷사람의 술잔을 계응²⁾이 어찌 알까.

-
- 1) 대제곡 : 대제는 중국 양양(襄陽)의 지명인데, 남조(南朝) 양(梁) 나라의 간문제(簡文帝) 소강(蕭綱)이 대제의 기녀를 읊은 악부시가 바로 「대제곡」이다.
2) 계응 : 진(晉) 나라 장한(張翰)의 자(字)이다. 낙양에 들어와서 동조연(東曹掾)의 벼슬을 하다가 가을바람이 이는 것을 보고 고향인 오중(吳中)의 순채국과 농어 회가 생각나자 곧바로 돌아갔던 고사가 있다. 「진서(晉書)」에 보인다.

200 花樹齋 曾王考墓宮 而王考所構成也 距家只
隔一崗咫尺 甚閑靜 欲溫舊讀留數月 화수제는 증왕
고의 묘궁이니 왕고께서 엮어 완성한 것이다. 집과의 거리는 다만 한 언덕이
떨어진 지척이다. 매우 한가롭고 고요하면 이전에 읽었던 책을 읽으며 몇
달을 머물고 싶다

老大松陰翠滿山 늙고 큰 솔의 그늘 산 가득 푸른데
規模營得一茅關 규모 맞게 지어서 띠집 한 채 얻었다네.
殫誠王考垂來後 정성 다해 왕고께서 남기신 이후에는
追感先墳奠此間 선조들 추모하여 이곳에서 제를 올리네.
郊曠漸知胸次爽 교외 밝아 가슴이 시원해짐 알겠고
隣疎偏覺起居閑 이웃 적어 기거에 한가함을 깨닫구나.

208 清溪幽香

兼存花樹申勤意 꽃과 나무 함께 있어 은근한 뜻 펼치고
堪使迷孫仰扁顏 못난 자손 편액을 우리르게 하는구나.

201 次清心臺韻 청심대 시에 차운하다

有臺高出洛之陽 낙수의 북쪽에 대가 높이 솟았는데
當日遺風百世長 당시에 남긴 풍속 백세토록 이어졌네.
杖屨先生昇降地 지팡이 짚신 신고 선생께서 오가던 곳
衣冠後學敬尊鄉 의관 갖춘 후학이 공경하고 높인다네.
水如不息眞源濶 물은 잠시 쉬지 않아 참된 근원 트이었고
山欲無言道氣藏 산은 말이 없는 듯 도의 기운 감추었네.
扁額清心三大字 청심대란 큰 세 글자 편액에 새겼으니
分明留作未來光 분명히 오래되어 미래의 빛 일으키리.

202 次弄清圯重建韻 농청대¹⁾ 중건 시에 차운하다

此地輪焉復此臺 이 땅이 바뀌어 이 대 다시 세웠으니
風烟依舊完重開 바람 안개 의구한데 완전히 새로 열렸네.
江涵天影魚遊鏡 하늘 비친 강에서는 물고기가 노닐고

岩老松年鶴啄苔 노송 선 바위에선 학이 이끼 쪼누나.
 功訖倍光今日會 공 이루고 빛을 더해 오늘에 모이었고
 道明遙待後人來 도를 밝혀 아득히 뒷사람을 기다리네.
 賢雲殫孝聊相賀 어진 자손 효를 다해 서로에게 하례하고
 兼寓羹牆飲禮盃 갱장²⁾에 머무른 듯 예배(禮盃)를 마시누나.

-
- 1) 문경시 산양면에서 금천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물이 깊은 바위 위에 서 있는
 농청대를 만날 수 있다. 뒷산이 月方山이며 북쪽에 근암서원이 있다.
 2) 갱장 : 어진 사람을 사모함을 뜻하는 말이다. 『후한서(後漢書)』 「이고전(李固
 傳)」에 “순(舜)이 요(堯)를 사모하여, 앉아 있을 적에는 요 임금의 담에서 뵈는
 듯하고, 밥 먹을 적에는 요 임금을 국에서 뵈는 듯했다”[虞舜慕唐堯, 坐則見堯
 于牆, 食則見堯于羹]고 하였다.

203 戲題示黃上人水月 재미로 지어서 황수월 스님에게 보여주다

緩着袈裟獨坐愚 느릿느릿 가사 입고 우두커니 홀로 앉아
 鼓鐘盡日誦南無 북과 종에 나무아미타불 하루 종일 외우누나.
 南無不答靑山暮 부처님은 답이 없고 청산은 저무는데
 雲散樓空水自鳴 구름 흩고 누각 비어 물만 홀로 우는구나.

204 水月答 수월이 답하다

清淨無如學佛愚 청정함은 우직하게 부처 배움만 함 없어
無中還有有中無 무 가운데 유가 있고 유 가운데 무가 있네.
心牛散盡尋何處 사라진 심우(心牛)를 어디에서 찾을 건가¹⁾
朽索紛忙世自鳴 밧줄 썩고²⁾ 분망하니 세상이 절로 운다.

1) 禪家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찾아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마치 목동이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하였다. 이 과정을 모두 10단계로 나누어 그림으로 그린 것이 尋牛圖(또는 十牛圖)이다.

2) 밧줄 썩고 : 『서경(書經)』 「오자지가(五子之歌)」에 보이는 “나는 백성을 대함에 썩은 새끼줄로 여섯 마리 말을 모는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나니 남의 윗사람이 된 자가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子臨兆民, 凜乎若朽索之馭六馬, 爲人上者, 奈何不敬]라는 구문에서 따왔다.

205 辛酉春 陪愚溪從叔 讀長安寺 신유년(1931년) 봄에 우계
종숙을 모시고 장안사에서 독서하다

世外長安寺 세속을 벗어난 장안사러니
松林春亦寒 솔숲은 봄인데도 오싹하다네.
一家從叔侄 집안에선 종숙질의 관계이지만
三益舊芝蘭 삼익(三益)의 지란¹⁾ 같은 오랜 벗일세.
對卷鳥窺榻 책 펴자 새들이 책상 엿보고

第二卷 中夜秋思 211

開門雲出巒 문 여니 구름이 산 위에 뿔다.
東風吹白面 봄바람 흰 얼굴에 살랑 불어와
聊可正吾冠 애오라지 내 모자를 바로 하누나.

寒鐘非世上 차가운 종소리는 세상 아니고
流水隔人間 흐르는 물 인간 세상 멀리 떨어져.
樹大虛庭碧 나무 커서 빈 뜰이 온통 푸르고
苔深小徑斑 이끼 깊어 작은 길에 무늬가 졌네.
香龕佛自笑 향감(香龕)에 부처님은 웃으시는데
錫杖僧孤還 지팡이 짚은 스님 홀로 가누나.
淸淨無塵地 청정하여 티끌도 없는 땅이니
如何借此山 어이해야 이 산을 빌릴 수 있나.

1) 芝蘭, 芝蘭之交의 줄인 말. 지초와 난초의 교제라는 뜻으로, 벗 사이의 맑고도
고귀한 사귀음을 이르는 말. 삼익은 三益友를 줄인 말. 사귀어서 유익한 세 가지
유형의 벗, 곧 정직한 벗, 성실한 벗, 건문이 넓은 벗을 이른다.

206 壬戌春 陪愚溪從叔 讀柏谷思孝齋 임술년(1922년) 봄에

우계 종숙을 배종하고 백곡의 사효재에서 독서하다

柏谷別乾坤 백곡 땅은 특별한 건곤일지니

212 清溪幽香

一家成一村	일가가 한 마을을 이루었다네.
夜來雲共宿	밤이 오니 구름 함께 머무르고
日出鳥同喧	해가 나니 새가 함께 우노매라.
野色晴連岵	들 빛 개어 산으로 이어져 있고
溪聲爽入軒	계곡 소리 시원스레 추녀에 드네.
興飛還少事	흥은 날고 도리어 일이 적으니
詩語到黃昏	시어가 황혼에 가서 닿누나.

207 思孝齋九景 사효재의 아홉 경치¹⁾

鳳山春花 봉산의 봄꽃

一日春風無數花	하루의 봄바람에 무수한 꽃 피었으니
爲誰交綴爲誰斜	누굴 위해 엮이었고 누굴 위해 빗기었나.
殷勤如笑深山僻	깊은 산 후미진 곳 미소 짓듯 은근한데
播散驕紅点点加	무지개를 흩뿌린 듯 점점이 더해졌네.

永嶠高松 영등의 키 큰 소나무

赤甲蒼髯老大中	붉은 비늘 푸른 수염 늙고도 우뚝하니
亭亭獨秀嶺西東	고개 마루 양편에 홀로 정정하구나.
幾時斷續風濤響	몇 번이나 바람 파도 끊어졌다 이어졌다

打起寥寥萬壑聲 쓸쓸히 몰아쳐서 온 골짜기 귀덕었네.

陽田古竹 양전의 오래된 대나무

萬林霜雪獨春陽 눈서리가 숲 덮어도 저 홀로 봄빛이니
秀竹參差短復長 빼어난 대나무 들쭉날쭉 짧고 기네.
固節空心應易感 마디 굳고 속이 비어 응당 쉬 느끼니
風前餘響不尋常 바람 앞에 남은 소리 심상하지 앓구나.

月方樵歌 월방산의 나무꾼 노래

山層層壁仰難摩 산에는 층층 벼랑 올려보기 어려운데
芳草斜陽遠恨多 노을 물든 방초는 아득히 한이 많네.
但聽薪歌人不見 사람은 보이지 않고 초부가만 들리는데
錦城春色近如何 금성엔 봄빛이 어찌나 가깝든지.

獅峰歸雲 사자봉으로 돌아가는 구름

削立高高干上雲 깎은 듯이 높이 솟아 구름을 막아서니
濛濛如雨遠生嗔 축축이 비 맞은 듯 아득히 노을 드네.
許多百戰蜿蜒體 허다한 싸움 거쳐 몸체는 구불구불
羅作群峰眼界分 펼쳐 선 봉우리에 안계(眼界)가 나뉘누나.

214 清溪幽香

帽峰落照 모자봉의 낙조

上下周平圈勢環	위 아래로 두루 평평 형세가 동그란데
浮霞落照杳茫間	뜬 구름에 낙조 드니 그 사이가 아득하다.
化翁誇說神功造	신공의 조화라고 조화옹은 자랑하니
樣得帽形留此山	모자 꼴을 본떠서 이 산에 두었다네.

寒泉 찬샘

巖間冽冽小流清	바위 사이 차갑게 맑은 물이 흐르는데
一飲味甘消世情	한번 들면 맛이 달아 세상 정리 사라지네.
如使食泉能若此	만약에 탐천 ²⁾ 을 이와 같이 한다면
後人安有誤聰明	그릇된 총명을 뒷사람이 어찌 가질까.

小瀑 작은 폭포

怪石平鋪又倒懸	괴석 넓게 퍼진 곳에 거꾸로 달렸으니
練光分白古今年	명주 빛 흰 빛깔이 예나 지금 변함없다.
零珠萬斛無窮水	만 곡에 떨어진 구슬 무궁한 물이 되어
洗出深山別樣天	깊은 산 별세계를 씻고서 나서는구나.

窟谷 굴곡

化窟當年若有期	굴이 되던 그때에 만약 기약 있었다면
---------	----------------------

窮通千載問何爲 천 년간의 막혀 통함 어이 하여 물으리.
由來貯得風雲氣 여태껏 풍운 기운 간직해 두었으니
去作人間渴雨時 떠나가 인간 세상 목마른 비가 되라.

- 1) 사효제는 백곡에 있는 초계 변씨의 재실이름이다. 저자는 아버지인 회당 선생이 지은 백곡 팔경을 읽고 이에 맞추어 같은 경치를 두고 이 시를 지었다. 마지막 굴곡이 추가되어 팔경이 구경으로 바뀌었다(77년 참조).
- 2) 탐천 : 중국 광주 땅에 있는 샘으로 한번 마시면 돈만을 알게 된다고 한다. 이곳에 자사로 부임한 진(晉) 나라의 청백리 오은지(吳隱之)가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다지면서 '아무리 탐천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끝은 마음이야 어떻게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뜻으로 「탐천(貪泉)」이란 시를 짓기도 했다. 「진서(晉書)」에 보인다.

208 庚炎日 與諸益濯清于雲菴寺 삼복더위에 여러 벗들과 함께 운암사¹⁾에서 탁청하다

松蘿暎碧掩孤庵 솔과 덩굴 푸른빛이 외론 암자 가리고
下界迷茫俯可探 인간 세상 아득하여 굽어보며 찾노라.
桶木臥山通遠水 통목(桶木)²⁾은 산에 누워 먼 데 물과 통하고
茶烟行地曳清嵐 차 연기 땅에 내려 맑은 남기³⁾ 이끄누나.
持身汨董今吾獨 몸가짐을 바로 하여 지금 나는 혼자요
觀世剎那金佛三 찰나로 세상 보아 금부처는 셋이어라.
膽裡秋生炎告退 간담이 서늘하여 더위 퇴각 고하니

216 清溪幽香

諸君椎韻勝玄談 벗들의 순박한 시 현담(玄談)보다 나을시고.

-
- 1) 경북 문경시 불정동에 있는 사찰.
 - 2) 통나무를 파내어 만든水路.
 - 3) 이내. 해질 무렵에 멀리 보이는 푸르스름하고 흐릿한 기운.

209 石佛 석불

古有鳳棲菴 今廢 예전에 봉서암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하여졌다

古寺何年廢	옛 사찰 어느 해에 폐하여졌다
佛宮但一城	불궁(佛宮) 다만 하나의 성이로구나.
蓮頭黃葉沒	연밥 머리 황엽 속에 가라앉았고
金口綠苔橫	금구 ¹⁾ 엔 푸른 이끼 가로 나 있네.
磬斷秋山碧	경쇠 소리 끊어진 가을 산 푸르고
塔踈夕日明	불탑이 성근 곳에 석양 빛나네.
玄玄心尙保	현현(玄玄)을 마음속에 보전하고서
屈指見三生	손가락을 꼽으며 삼생 ²⁾ 보노라.

1) 금구 : 부처의 입을 높여 이르는 말로, 부처의 말은 금구옥설(金口玉說)이라 한다.

2) 불교에서 말하는 前生, 現生, 來生을 통틀어 이르는 말.

210 讀閨筆菴 윤필암¹⁾에서 독서하다

黃卷歸何處	황권 ²⁾ 은 어디 메로 돌아갔는가
雲林七月秋	구름 낀 숲 칠월의 가을이라네.
六間香佛室	여섯 칸 불실 안에 향을 사르고
數丈咏風樓	몇 길 높이 풍루에서 읊조리누나.
種彩分場面	각종 채색 장면을 나누어주고
引清落鼎頭	끌어온 맑은 물이 솥 머리에 떨어지네.
借居因點檢	거처 빌려 인하여 돌아쳐보니
除我別般愁	별다른 나의 근심 사라지누나.

1) 문경시 산북면 사불산에 있는 고찰 대승사의 암자.

2) 황권 : 책을 가리킨다. 옛날에는 책에 종이 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황벽(黃蘗) 나무의 즙을 짜서 서책에 발랐는데, 황권은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211 王臺 왕대

昔恭愍王築此 故因名王台 예전 공민왕이 이것을 쌓았기 때문에 인하여 왕대라고 부른다.

龍飛一去後	용이 날아 한번 떠난 그 뒤로부터
陰雨幾時連	곳은 비 몇 날 동안 이어졌다네.

218 清溪幽香

欲問前朝事	앞선 조정의 일을 물으려 하니
西風已夕蟬	서풍 불고 저녁 매미 어느새 운다.

212 留大成菴 대성암¹⁾에 머무르다

聽水復聽水	물소리 듣고서 다시 들으며
看山又看山	산을 보고 또 다시 산을 보노라.
此意無人識	이 뜻을 남이 알기 어려웁나니
獨吟宇宙間	우주의 사이에서 홀로 읊누나.

1) 문경시 산북면의 운달산에 있는 사찰로, 김룡사의 부속암자이다.

213 四佛岩 사불암¹⁾

燃香還近俗	향 살라도 도리어 속에 가깝고
幻骨亦非精	환골해도 정체(精體)는 또한 아닐세.
化作天然體	변하여 천연의 몸 지어 놓으니
留雲畫一屏	그림 같은 병풍에 구름 멈추네.

1) 위 대승사에 있다. 四面에 佛像이 새겨져 있는 바위.

214 老丈擊鼓岩 노장격고암

望則顯而去 看則晦 故其下村名 以去無稱之云 멀리서 바라보면 드러났다가
사라지고 엿보면 어두워지는 까닭에 그 아래 마을 이름이 '거무'라 불린다고 한다

登惑形容滅	올라보면 모습은 사라져 없고
望奇動作明	바라보면 동작이 분명하구나.
恐聽人世上	인간 세상 소문날까 걱정하여서
擊鼓尙無聲	북을 쳐도 오히려 소리가 없네.

215 幽懷 깊은 소회

客心流水潺湲	나그네 마음은 유수처럼 흘러가고
世事浮雲散合	세상일은 부운처럼 흩어졌다 합쳐지네.
坐讀殘書數篇	앉아서 남은 글 몇 편을 읽노라니
清風細雨蕭颯	바람 맑고 비 가늘어 소삼하기 ¹⁾ 그지없네.

1) 차고 쓸쓸하다.

220 清溪幽香

216 妙寂菴 묘적암¹⁾

懶翁一去後	나옹 화상 한번 떠나고 난 뒤
遠客再登初	먼 나그네 다시금 처음 올랐네.
妙寂三間屋	묘적암 세 칸 들이 집 안에는
法華數卷書	법화경 몇 권의 책 놓여 있다네.
雲歸僧夢罷	구름이 돌아가자 스님 꿈 파하고
磬落佛心虛	경쇠 소리 떨어지자 불심 비누나.
笑問蓮花世	웃으며 연화세계 물어보면서
玄談半日餘	한 나절 이상이나 현담 나누네.

1) 문경시 산북면 사불산에 있는 대승사의 사내 암자이다. 고려 시대의 고승 나옹 화상이 이곳에서 출가하였다.

217 訪大乘寺 대승사를 방문하여

石逕艱危步不輕	돌길이 위태로워 걸음이 무거운데
尋眞無處聽鍾聲	진인은 못 찾고서 종소리만 듣누나.
枝頭老鼠驚人沒	가지 끝 다람쥐는 사람 놀라 사라지고
日下寒蟬帶雨鳴	태양 아래 찬 매미 비를 띄고 우는구나.
流水臨門三界爽	흐르는 물 문에 임해 삼계 ¹⁾ 가 상쾌하고

第二卷 中夜秋思 221

紫霞留砌十方明 자색 구름 섬돌 비취 시방이 환하다네.
空樓擊鐸天當午 빈 누각서 목탁 치니 하늘 때는 정오라
滿鉢香蔬最有情 바리 가득 향채에 마음 가장 쏠리네.

1) 삼계 : 일체의 중생이 생사 윤회하는 세 가지 세계, 즉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를 말한다.

218 自憫 스스로 번민하다

尤悔無端去去深 뉘우침 뜬금없이 갈수록 깊어지니
此生何以免牛襟 이 생에 어찌해야 우금¹⁾을 면할 건가.
詩書吾有違時約 시서를 가졌으되 때로 약속 어기었고
絃誦誰論敗國音 현송(絃誦)을 뉘 논하리 망한 나라 소린 것을.
好利如仁非世態 인(仁) 따르듯 이익 좇는 세태를 비난하고
教人爲獸肯天心 짐승 되라 가르치며 천심을 긍정하네.
出門一醉仍長嘯 문을 나서 한번 취해 이에 길게 읊조리니
征鴈南飛月在林 기러기는 남쪽 날고 숲에는 달이 떴다.

1) 우금 : 마우금거(馬牛襟裾)의 준말로 말과 소에 사람 옷을 입혀 만든 가짜 사람을 일컫는다.

222 清溪幽香

219 練光亭 연광정¹⁾

大同門望練亭顏	대동문서 연광정 모습을 바라보니
畫棟珠欄挹翠環	그림 기둥 구슬 난간 비취 환옥 당겨놓은 듯.
日夜灝明恒此水	주야로 넓고 밝으니 이 물 늘상 있어서요
東南虛閣更群山	동남쪽엔 트였다가 다시 산이 솟아 있네.
腥塵歲去龍蛇後	임진년 지난 뒤로 비린 티끌 해가 가니
匹馬人來宇宙間	우주의 사이에서 필마로 사람 오네.
無數歌船楊柳岸	무수한 배의 노래 언덕엔 버들 있고
佳娥才子却忘還	아름다운 재사들 돌아가길 잊었다네.

1) 이하 「봉황루」까지의 여러 편의 詩들은 모두 평양 인근의 유적지들을 보고 읊은 것이다.

220 清流亭 청류정

欲落還懸百丈頭	백 길의 꼭대기에 떨어지다 걸린 듯이
清流亭子壓清流	청류정자 맑은 물을 누르고 있다네.
蟬聲斜日天邊雨	매미 소리 지는 햇살 하늘가에 비 내리고
鰲背蒼波柳外舟	자라 등의 푸른 물결 버들밖엔 배로다.
勝地黃金無足惜	빼어난 땅은 황금으로도 아깝지가 않으니

遠人高躅可堪遊 먼데 사람 높은 자취 노닐기에 좋아라.
老炎不到衣巾冷 늦더위 이르잖아 옷과 두건 서늘하고
七月此山先有秋 칠월의 이 산에 먼저 가을 드누나.

221 最勝垞 최승대

古稱五勝垞 과거에는 오승대라 불렀다.

第一江山第一垞 제일의 강산에 제일의 대 있으니
牧丹一朵際天開 한 떨기 목련화가 하늘 사이 피었구나.
不容屈曲嶙峋立 굴곡을 용납 않고 깊숙한 데 섰으니
只自嬋妍綽約來 다만 절로 고와서 아름답게 왔다네.
萬里清風迷大陸 만 리의 맑은 바람 대륙을 헤메이고
百年空臆醉三杯 백 년의 텅 빈 가슴 석 잔 술에 취하누나
無邊楊柳依依裏 끝없는 버드나무 마음까지 은은한데
麟馬神宮安在哉 기린마¹⁾와 신궁은 어디에 있는가.

1) 고려말의 文臣 李穡(牧隱)은 부벽루에 올라 자연을 감상하면서 이미 멸망한 고려 왕조에 대한 회환을 시로 읊었는데, 그 詩에 「기린마」가 나온다. 고구려 동명성왕이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상상의 말인 「기린마」를 통해서 고구려와 고려의 유서 깊은 역사를 되돌아보고 「돌아오지 않음」을 한탄하였다.(麒麟馬去不返)

224 清溪幽香

222 浮碧樓 부벽루

浮碧樓前浮碧濃	부벽루 앞에는 푸른빛이 짙은데
仰捫星斗俯魚龍	우러러 별을 보고 어룡을 굽어보네.
乾坤古今溶溶水	건곤과 고금에 넘실넘실 물 흐르고
南北東西遠遠峰	동서와 남북에 산봉우리 아득하다.
車馬獨來還獨去	거마 타고 홀로 와서 다시금 홀로 가니
風烟難畫又難容	바람 안개 그리기도 형용기도 어렵구나.
翛然大夢吾先覺	초연히 큰 꿈에서 나 먼저 깨어났으니
一物何曾載在胸	일물(一物)인들 일찍이 흉금에 담았겠는가.

223 得月樓 득월루

叢林苔石雜青斑	수풀 속 이끼 바위 푸른 무늬 섞였는데
丹碧樓台又此間	단청한 누대가 이 사이에 또 있다네.
江上雙鳧浮二島	강 위의 한 쌍 오리 두 섬 사이 떠 있고
天涯萬馬走群山	하늘가 만 마리 말 못 산으로 내달리네.
境如稍僻還嫌鬧	경계 조금 후미져도 시끄러움 싫어하고
身欲無忙却未閑	몸은 바쁘지 않으려 해도 한가롭지 않다네.
清淨伽藍知不遠	청정한 가람이 멀지 않음 알겠으니

肯隨流水出塵寰 흐르는 물을 따라 티끌세상 나선다네.

224 永明寺 영명사

清秋落日梵王宮 맑은 가을 범왕의 궁전¹⁾에 해가 지는데
 水面山光翠欲籠 수면 위의 산 빛은 비취를 잡은 듯해.
 風雨寺藏松櫟外 비바람에 산시는 송역(松櫟)²⁾ 너머 감춰 있고
 烟霞人在畫圖中 연하(烟霞) 덕에 사람은 그림 속에 있다네.
 此生不識前身幻 이 생애는 모르겠네 전신의 환골을
 三界同歸一色空 삼계(三界)를 함께 가니 한 색으로 비었다오.
 天畔鍾鳴僧入定 하늘 가 종이 울어 스님은 선정 들고
 閑雲數點過浮東 한가로운 몇 점 구름 멀리 동에서 떠오누나.

1) 범왕의 궁전 : 원문은 범왕궁(梵王宮). 절과 불당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범각(梵閣), 범궁(梵宮)이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영명사를 가리킨다.

2) 소나무와 상수리 나무.

225 箕子陵 기자릉

聖人出處本非輕 성인 출처 본디부터 가볍지 않았으나

226 清溪幽香

宗社當年竟莽荊	당시의 종묘사직 끝내 가시 우거졌네.
天欲喪邦無可奈	하늘이 나라 잃게 하였으니 어쩔 수 없었고
身將罔僕果何征	몸은 망복 ¹⁾ 되었으니 과연 어찌 정벌할까.
東方文化三千歲	동방의 문화는 삼천 년을 이어져서
此地江山第一名	이곳의 강산이 으뜸으로 이름났네.
種柳畫田今寂寞	버들 심은 그림 밭 지금은 적막하고
古陵黿碣老松鳴	옛 능의 비갈에는 늙은 솔이 우노매라.

-
- 1) 망복(罔僕) : 망국의 신하로서 의리를 지켜 새 왕조의 신복이 되지 않으려는 절조를 말한다. 은나라가 망하려 할 때 기자가 “은나라가 망하더라도 나는 남의 신복이 되지 않으리라”[商其淪喪, 我罔爲臣僕]라고 말한 데서 유래되었다. 『서경』 「미자(微子)」에 보인다.

226 清流壁 청류벽

高尖巖削摠天真	높고도 깎아질러 모두가 천진한데
可與樓台或後先	누대와 더불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壁上古人丹碧字	벽 위에는 옛 사람의 붉고 푸른 글씨 있고
日中遊客去來輪	햇살 속에 노는 객은 수레 타고 오고 가네.
枕山鳥遶蒼林夢	침산(枕山)에 깊이 든 새 푸른 숲을 꿈꾸고
倒水魚翻細雨鱗	도수(倒水)의 물고기는 가는 비에 이어지네.

縱欲攀崖銘一句 더위잡고 벼랑 올라 한 구절을 새기려는데
移文還怕巨靈噴 글자 되레 거령¹⁾ 심기 거스를까 염려되네.

1) 거령 : 하신(河神) 또는 대신(大神)을 말한다.

227 瑞氣山 祥光山 서기산 상광산

月轉星疎夜色涼 달이 돌고 별이 성근 서늘한 저녁에
登臨瑞氣望祥光 서기산에 올라서 상광산을 바라보네.
草留人跡依依沒 풀에는 인적 남아 뚜렷이 가라앉고
樹賴天年鬱鬱長 나무는 천수 누려 울창하게 자랐구나.
一府居然分左右 한 마을은 조용히 좌우로 나뉘었는데
此山何以出中央 이 산은 어찌하여 가운데서 솟아났나.
五更清露峨冠重 오경의 맑은 이슬 높은 관은 무거웁고
彷彿聞香不是香 향기 맡음 비슷하나 이 향은 아니라네.

228 綾羅島 능라도

人言江泛島 강에 섬이 떴다고 남들 말하나
我謂島分江 섬이 강을 갈랐다 나는 말하네.

228 清溪幽香

江島何須辨	강과 섬을 어떻게 분별할거나
笑傾酒一缸	웃으며 술 항아리 기울어누나.

229 綾羅島貯水池 능라도 저수지

島中誰貯水	섬 안에 어느 누가 물을 모았나
激躍上山來	부딪히며 산위에서 내려왔다네.
日夜流無跡	밤낮으로 흘러도 자취 없으니
千門萬戶開	천만 개의 문호가 열리어서네.

230 飛行機場 비행장

叱雷能破電	우레 소리 능히 번개 깨뜨리는 듯
萬里輕如毛	만 리를 깃털처럼 가벼이 나네.
俯地地何小	굽어보면 땅이 어찌 그리 작던지
仰天天不高	우리러 봐도 하늘은 높지가 않네.

231 麒麟窟 기린굴

高麗東明王乘麒麟馬 從此窟而出 故名之 고구려 동명왕이 기린마를 타고 이
굴로부터 나왔기에 이름을 붙였다

麗代東明王	고구려 때 동명왕께서
鑿此麒麟窟	이곳에 기린굴을 뚫으셨다네.
麟歸王不留	기린 가고 왕께서도 떠나가시니
千秋空片月	천추에 조각달만 외로이 떴네.

232 轉錦門 금문에서

錦門荒落日	황폐해진 금문에 해 떨어지니
形勝減三分	아름다운 풍광도 사라져가네.
舉酒還多感	술을 드니 도리어 느낌이 많아
悠悠望白雲	쓸쓸히 흰 구름을 바라보노라.

233 玄武門 현무문

龍蛇年此門	임진 계사 당시에 이 문 앞에는
賊尸山如積	죽은 시체 산 같이 쌓여 있었지.

230 清溪幽香

今日此門前	오늘에는 이 문의 앞머리에서
胡兒狻弄笛	중국 아이 피리를 불고 있구나.

234 七星門 칠성문

建此知何世	이 문을 세운 시대 알고 있지만
星霜不可詳	햇수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네.
無人來閣闢	오는 사람 없어도 쪽문 열렸고
雲木獨蒼蒼	구름 나무 저 홀로 창창하구나.

235 平壤城 평양성

高麗成宗時 始築平壤城 周一萬四千五百三十九尺 我朝 仁祖二年 以城大難守 縮其西南幅改築 周三千五百四十三尺 今廢而僅存
 고려 성종 때 처음 평양성을 쌓았는데 둘레는 14,539척이었다. 우리나라 인조 2년에 성이 커서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서남쪽의 폭을 줄여 개축하였는데 둘레는 3,543척이다. 지금은 폐하여 겨우 남아 있다

長城何日廢	장성은 어느 해에 폐하여졌나
歷歷史空傳	유구한 역사 속에 전하지 않네.
千里青駟客	푸른 나귀 타고 온 천 리의 객은

回頭七百年 칠백 년 이전으로 고개 돌리네.

236 大同門 대동문

一名挹瀨樓 일명 읍호루다

登樓人悟悵	누각에 오른 사람 슬퍼하노니
雙淚欲無言	두 줄기 눈물에 말을 잊었네.
舊國昇平世	옛 고구려 태평을 이루었으니
此應東大門	이곳이 동쪽 큰 문 해당한다네.

237 義妓花月廟 의기 화월의 사당

烈哉花月名	화월의 이름이여 열렬하도다
一廟碑三尺	사당 하나 묘비가 삼 척이라네.
落日酌忠魂	석양에 충혼 위해 제를 올리니
大同江水碧	대동강의 물빛이 질푸르구나.

232 清溪幽香

238 普通門 보통문

有樓當九道	누각 있어 아홉 길 당하였으니
此是普通門	이것이 다름 아닌 보통문이네.
不許遊人跡	사람의 노는 자취 허락지 않아
崑然獨自存	우뚝이 성대하게 홀로 있다네.

239 大同橋 대동교

溶溶水一岸	넘실넘실 물 흐르는 한 쪽 언덕에
百尺鐵橋連	백 척 길이 철교가 이어져 있네.
瞿瞿猶能渡	얕은뱅이 소경조차 건너다니니
無功江上船	강 위에 떠 있는 배 쓸데가 없네.

240 鳳凰樓 봉황루

古樓蕭瑟幾經焚	소슬한 옛 누각은 몇 번 화재 겪었으나
尙有風光八九分	오히려 풍광만은 팔구 분 남아 있네.
飛髮島邊鯨蹴浪	섬 가에서 터럭 날리니 고래는 물결 차고

聯珠峰上鶴栖雲 연주봉 위에는 구름 속에 학 깃들었네.
行無友伴詩空慰 짝 없이 가는 길에 괜히 시는 올적하고
懷切家鄉夢亦勤 고향 생각 절실하여 꿈 또한 부지런타.
誰把長繩能係日 어느 누가 긴 줄 잡아 능히 해를 이어서
使吾試此中書君 나로 하여 중서군¹⁾을 시험하게 하는가.

1) 중서군 : 붓의 별칭이다. 한유의 「모영전」에 “모영의 벼슬이 중서령(中書令)에 올라 황제와 더욱 허물없이 지내게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황제가 중서군이라고 불러오던 터였다”라는 말이 나온다.

241 松京 개성

松岳山前滿月虛 송악산 앞쪽에 만월이 흰하노니
玉宮金殿盡無餘 남김없이 모두가 옥궁이요 금전일세.
此人感慨同來日 이 사람 감개함은 내일도 같을지니
舊國興亡默立初 옛 나라의 흥망에 조용히 처음 서노라.
太半荒塹秋草沒 태반이 황폐한 계단 가을 풀에 잠겼고
三分古木夕陽疎 삼분된 고목에는 석양빛이 성글구나.
西風啼鳥寒蟬裡 쓰르라미 울음 속에 서풍 불고 새가 우니
五百年都一夢如 오백 년 도읍이 한 바탕 꿈일래라.

242 善竹橋 선죽교

此生未及先生世 이내 생은 선생 세상 미치지 못하노니
宇宙居然逢落照 천지에 조용히 낙조가 물드누나.
今日秋風五百年 오늘의 가을바람 오백 년이 되었거니
阮狂何事哭還笑 완광(阮狂)¹⁾은 무슨 일로 울다가 웃었던가.

生宜直道死扶綱 살아 도리 바루고 죽어 강상(綱常) 떠받쳤으니
身後何論國有亡 죽은 뒤의 나라 망함 어떻게 논할 것인가.
吾祖首陽當日曲 나의 선조 정암 공이 지으신 수양당일곡
耽羅依舊橘林堂 탐라의 굴림당에 그대로 남았어라.

十七代祖, 諱南龍號靜菴, 恭愍朝翰林, 至門下侍郎. 太祖微時, 受學師事之. 及登極初, 屢徵以漢城判尹, 不起者五. 謫濟州, 朝廷多讒之, 以舉島欲叛, 太祖親作祭文致祭, 使之自死. 公作首陽謫, 遂自刎. 門人夫高氏等, 立祠于所居橘林堂, 春秋俎豆之. 17대조 휘 남용, 호 정암 공은 공민왕 때 한림으로 문하시랑에 이르렀다.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를 사사하여 배웠다. 등극한 초기에 누차 한성판윤으로 불렸으나 나아가지 않은 것이 다섯 번이었다. 제주에 유배되어 조정에서 그를 참소하자 온 섬이 배반하려 하니, 태조가 친히 제문을 짓고 치제하고는 자결하도록 하였다. 공은 「수양적(首陽謫)」을 짓고는 마침내 자결하였다. 문인 중 부 씨와 고 씨 등이 거처하던 굴림당에 사당을 세우고 봄가을로 제를 올렸다.

1) 완광 : 죽림칠현 중 한 사람인 완적을 가리킨다. 그의 성품이 광방(狂放)하여 완광이라 불렸다. 완생광(阮生狂)이라고도 한다. 그는 울분을 달래려고 혼자 수레를 타고 나갔다가 길이 막히면 문득 동곡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진서』 「완적열전(阮籍列傳)」에 보인다.

243 謁圃隱鄭先生廟 포은 정 선생¹⁾의 사당을 참배하다

神廟蕭然守舊京	신묘(神廟)가 쓸쓸히 옛 수도를 지키노니
行人垂淚幾時驚	행인은 눈물짓고 한참을 놀랐었지.
蒼蒼門對孤松老	창창한 문 마주해 고송이 늙어가고
寂寂庭留白日明	적적한 뜰에는 햇살만이 밝게 남았네.
夫子有綱兼有紀	선생께선 기율과 법강을 모두 갖추어
此生多縱亦多橫	이 생에도 종횡으로 회자되고 있다네.
天長地久高風遠	천지는 장구하고 높은 바람 아득한데
萬古夷齊作弟兄	만고의 백이숙제와 형제가 되었다네.

1) 포은 정 선생 : 정몽주(鄭夢周, 1337~1392)를 말한다. 그는 고려 말기의 문신 겸 학자로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圃隱),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선죽교와 단심가는 그의 충절을 알리는 상징으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사후 개성의 송양서원(崧陽書院) 등 11개 서원에 제향되었다.

244 杜門洞 두문동

昔聞杜門名	예전에 두문동의 명성 듣고서
今望杜門洞	오늘에 두문동을 바라보노라.
世去只餘門	세월 흘러 문만이 남아 있는데
山溪冷欲凍	차가운 산과 계곡 얼려 하누나.

245 南石澗章穆學山章憲一齋章燮三兄料外連訪
是夜乍時雷雨 因挑燭話舊 時乙亥八月日也

남석간, 목학산, 헌일재, 섭삼형이 뜻밖에도 연이어 방문하였다. 이날 밤 갑자기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려, 촛불 심지 돋우고 옛 일을 이야기 하였다. 때는 을해년(1935년) 8월이었다

夜話支離曉夢時	밤중 얘기 길어지다 새벽꿈을 꿀 적에
啼禽起我出門遲	우는 새 나를 깨워 늦게야 문 나서네.
牆匏浴體露初轉	담장 박은 몸을 씻어 이슬 처음 구르고
山木生形雲獨移	산의 나무 산 모습에 구름 홀로 옮겨 가네.
無一營爲猶走世	영위함이 없이도 오히려 분주하니
有何言志每淫詩	매번 시음(詩淫) ¹⁾ 뜻 두었다 어찌 말을 하리오
九秋擬作嘯陽路	구추(九秋)라 「희양로」를 모방하여 짓노니
霜菊丁寧載後期	서리 국화 정녕코 뒷기약을 싣누나.

1) 시음 : 시 짓기에 지나치게 골몰하여 생활에 무관심한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246 翌日與三兄 午憩于至樂軒 다음날 세 형과 함께 지락헌에서
낮에 쉬었다

微誠難效夙營長 얇은 정성 옛 경영을 본받기 어려워도

第二卷 中夜秋思 237

幾愛山容感水光	산 자태 몇 번 아껴 물빛에 느껴왔나.
重起祖先遺棟宇	선조께서 남기신 동우(棟宇)를 다시 세워
思來三百有炎涼	다가올 삼백 년 염량(炎涼)을 생각하네.
依依不改烟霞景	안개 노을 경치는 고치잖아 그대로고
淡淡如聞草樹香	초목의 향기는 들던 대로 답답하다.
幸荷故人青佩日	요행이 청패(靑佩) ¹⁾ 두른 벗이 찾아 왔으니
相忘魚鳥整餘觴	새와 고기 잊고서 남은 술잔 정돈하리.

1) 청패 : 패옥으로 공부하는 선비를 주로 가리킨다. 『시경』 정풍(鄭風) 「자금(子衿)」에 “푸르고 푸른 그대의 패옥, 아득한 나의 그리움이라네.”[靑靑子佩, 悠悠我思]라고 한 데서 따온 말이다.

247 先祖至樂軒重建韻 선조의 지락헌 중건시

并八景 모두 8경이다

不偶山箕水潁名	기산 영수 ¹⁾ 명성과 짝하지는 못하나
當時吾祖素心成	당시의 나의 선조 마음으로 이루었지.
田園早決歸來志	전원으로 돌아올 뜻 일찍이 품었으니
几席長留絃誦聲	현송(絃誦) 소리 궤석에 오래도록 남았었지.
何日登臨悲感慕	어느 날에 올라가서 비감으로 그릴거나
至今堦礎尙分明	이태도록 섬돌 초석 오히려 분명하다.

238 清溪幽香

縱云肯搆難稱美 잘 지어도 아름답다 말하기 어려운데
復見禽魚悅性情 다시 보니 새와 고기 즐거이 노니누나.

思義登臨每顧名 의리 품고 올라 앉아 매번 이름 돌아보고
室星增色此重成 실성(室星)이 빛을 더해 이곳 다시 이루었지.
考槃澗想當年蹟 고반의 냇가 생각²⁾ 그 때의 자취요
爽籟林聽盡日聲 숲속의 맑은 바람 온 종일의 소리로다.
寤寐微誠經始脫 오매불망 정성 다해 축조를 마치노니
廢興一理古今明 흥망의 한 이치가 고금에 환하도다.
英靈陟降洋洋在 영령의 오르내림 양양하게 남았으니
回首悠雲感舊情 고개 돌려 먼 구름에 옛 정을 느끼누나.

兵塵何代廢軒名 어느 대의 병란으로 현(軒)의 이름 없어졌다
突兀今朝始告成 갑자기 오늘 아침 비로소 완성 알리네.
每過遺增墟我感 남은 터 지날 때면 내 마음이 느껴웠는데
畧摸前制愧家聲 앞의 제도 따랐지만 집안 명성에 부끄럽네.
喧囂塵隔群峰屹 시끄러운 세상 너머 못 봉우리 우뚝 솟아
淡泊心交一水明 담박하게 맘 맺으니 한 물이 맑구나.
百世相傳修葺責 백세토록 지붕 이을 책임을 전하노니
來孫忱惕不勝情 후손들 두려워서 정 이기지 못하겠네.

- 1) 기산 영수 : 기산(箕山)과 영수(潁水)는 요 임금 때의 은자인 소부와 허유가 은거하였던 곳인데, 문경에 있는 실제 산과 물의 이름이기도 하다.
- 2) 고반의 넷가 생각 : 원문은 고반간상(考槃澗想). 고반은 『시경』의 편명으로 산림에 은거하는 현자의 즐거움을 노래하였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시냇가에 고반이 있나니, 현인의 마음이 넉넉하도다.”[考槃在澗, 碩人之寬] 이 고반을 두고 주자는 ‘은거할 집을 이루었다’고 했고, 진씨(陳氏)는 ‘악기를 치며 즐기는 것이다’고 했는데, 대개 은거하여 스스로 그 뜻을 이룬 것을 말한다.

248 玉樑洞 옥양동¹⁾

千秋磅礴獨離群	천추에 드높아 제 홀로 떨어져서
玉化深山是像分	옥이 변한 깊은 산 형상이 나뉘었네.
廣可爲筵留我輩	자리 매우 넓어서 우리들이 머무르고
淸能容水養魚軍	맑은 물을 능히 담아 물고기를 기르누나.
長身鎮谷頑非石	큰 키로 골짜기 보니 완고하기 돌 같잖고
白面無塵淡比雲	흰 면엔 티끌 없어 담박하기 구름 같네.
世乏良工多所恨	좋은 장인 세상 적어 한함이 많으니
行人謾把中書君	행인은 부질없이 붓을 잡고 놀리누나.

- 1) 경북 문경시와 충북 괴산군 사이에 솟아있는 청화산(높이 984m)에 있는 명승지. 아래 詩 화양동도 같다.

240 清溪幽香

249 華陽洞 화양동

一名洛陽 낙양이라고도 한다.

每擬年年賞洛陽	생각자니 해마다 낙양에 놀았는데
六洲風雨此清涼	육주의 비와 바람 예서 맑고 서늘했지.
沙金石鏡緣何白	사금과 석경(石鏡)은 무슨 일로 그리 희며
流水高山似許長	높은 산 흐르는 물 어찌 그리 길던지.
那知今日留萍跡	오늘에 부평 자취 남길 줄 어찌 알았으랴
未見前賢聞草香	앞선 현자 못 보고 풀내음을 말누나.
畫刻龍蛇丹碧動	그려 새긴 용사(龍蛇)에선 단청이 움직이고
右軍精筆幾人觴	왕희지의 정필(精筆)에선 몇 사람 술을 치네.

250 煥章寺 환장사¹⁾

古有八音石 今無 옛날에 팔음석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鬱攸何代滅清真	울유 ²⁾ 가 어느 대에 청진을 덜어냈나
劫後伽藍曠感新	난리 겪고 가람은 환한 느낌 새롭구나.
門掩喬松涼白日	문을 가린 높은 솔은 한낮에도 서늘하고
庭稀瑤草薄三春	뜰에는 드문 요초 삼춘 ³⁾ 이 저물도다.

此人方得逍遙地 이 사람 바야흐로 소요할 곳 얻었으니
釋氏難全解脫身 석씨는 해탈한 몸 보전하기 어렵겠네.
怪石八音今寂寞 괴이한 팔음석은 지금은 볼 수 없어
強將盃酒滌心塵 억지로 술잔 들어 마음 티끌 씻어내네.

-
- 1) 충북 괴산군 화양동계곡에 있는 절. 1655년에 창건되었으나, 조선 말 일제침략기에 의병들의 집결지로 이용되었다 하여 일제에 의하여 대웅전을 제외한 모든 전각들이 불태워졌다.
- 2) 율유 : 율유는 화기(火氣) 즉 화마(火魔)를 뜻한다.
- 3) 봄의 석달, 맹춘(孟春), 중춘(仲春), 계춘(季春)을 이른다.

251 次巖棲齋韻 암서재¹⁾ 시에 차운하다

巖高數仞上 몇 길이나 높다란 바위 위쪽에
齋起三兩間 두세 칸 암서재가 세워져 있네.
山水清新味 산과 물 청신한 맛 자아내노니
一躋可一攀 한 번에 더위잡고 오를 만하다.

-
- 1) 화양구곡 중에서도 손꼽히는 금사당물가의 높은 암반 위에 있는 재실. 조선후기 문신인 우암 송시열이 지어서 별장과 서재로 이용하였다. 이 시는 우암의 시에 차운한 것이다.

242 清溪幽香

252 彩雲庵 채운암¹⁾

擬說當時制毒龍	당시에 독룡(毒龍) ²⁾ 을 제어했다 말들 하니
香烟絲曳繞虛櫺	실날같은 향연이 빈 창을 둘러 있네.
春晚寒花惟日發	봄은 늦어 한화(寒花)는 나날이 꽃 피우고
年深高樹尙陰濃	나이 많은 높은 나무 그늘 되레 짙구나.
全球等夢客聽水	온 세상 꿈결 같아 물소리 객이 듣고
五戒生心僧打鍾	오계(五戒)가 맘에 생겨 스님 종을 치누나.
自來空寂誰能識	절로 이른 공적(空寂)을 누가 능히 알리오
獨有金人對碧峰	금부처만 제 홀로 푸른 봉을 마주하네.

-
- 1) 화양구곡에 있는 절. 고려 1277년 창건되었으나 이 시가 쓰여진 이후인 1954년 홍수로 사찰이 매몰되었다. 현재의 채운암은 환장사의 대웅전 옆에 채운암의 남은 목재로 새로 지은 전각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 2) 독이 있는 용. 망령된 마음을 말한다. 毒龍五白-괴승이 요술로 독 있는 용 500마리를 부렸다는 데서 쓰인 말. <五代史 唐祖家人傳>에 나온다.

253 仙遊洞九曲 선유동¹⁾ 구곡

望仙臺 망선대

仙人遠上白雲去	신선은 멀리 올라 구름 속에 떠나가니
此地空餘五色烟	이곳엔 쓸쓸하게 오색 연기 남았구나.

第二卷 中夜秋思 243

善俊何心携一犬 선인은 무슨 맘에 개 한 마리 데려갔나²⁾
望仙還是作仙年 망선대서 도리어 신선 나이 지으리라.

擎天壁 경천벽

人間有此擎天壁 인간 세상 이곳에 경천벽이 있으니
願得秦鞭欲致家 진시황의 채찍³⁾ 얻어 집에 가져가고 싶네.
自是瑤京攀可上 이로부터 더위잡고 요경⁴⁾까지 올라가서
摘來仙子碧桃花 신선의 벽도화를 따가지고 올거나.

鶴巢垠 학소대

何事未歸華表下 무슨 일로 화표(華表)⁵⁾ 아래 돌아오지 아니하고
爲誰聲落九臯虛 누굴 위해 빈 언덕⁶⁾에 소리를 떨구었나.
若無垠上芝田穴 만약에 대 위에 지전혈(芝田穴)이 없었다면
洞裏遊人也俗裾 골짜기 안에 노는 이들 속인이 되었으리.

鍊丹爐 연단로

道家謾說長生法 도가에서 부질없이 장생법을 말하여서
誤此聰明幾丈夫 총명한 몇몇 장부 그릇되게 만들었지.
不識心田丹自在 마음 밭에 단전이 있는지는 몰라도
紛紛空事鍊虛爐 어지러이 헛된 일로 빈 화로를 만들었나.

244 清溪幽香

臥龍瀑 와룡폭

一瀑臥流龍獨臥	한 폭포 흘러 내려 한 마리 용 누웠으니
天翁造化妙難思	조물주의 묘한 조화 생각하기 어렵구나.
世人莫謂潛無用	잠기어 무용하다 세상 사람 말하잖고
第待他年利見時	훗날에 이익 볼 때 그때만을 기다리네.

爛柯垠 난가대

王質爲人多俗陋	왕질(王質)의 사람됨은 속됨이 많은지라
爛柯猶不爛塵心	도끼자루 썩었어도 티끌 마음 그대를세.
如何善學樵山術	어이해야 나무꾼의 방법을 잘 배워서
爛盡乾坤風雨深	비바람 깊은 속에 건곤이 다 썩을까.

碁局巖 기국암

誰採巴園兩大橘	그 누가 파원(巴園)에서 굴 두 그루 캐어 와서
丁寧移植此山中	정녕코 이 산 속에 옮겨 심어 놓았던가.
行人莫近手談上	행인은 수담(手談) ⁸⁾ 하는 곁에 가지 못하니
二叟乘龍登太空	두 늙은이 용을 타고 허공 속을 올랐다네.

龜巖 구암

盡收十五縱橫數	종횡으로 열다섯 수 모두 다 거두어서
---------	----------------------

獨臥深山秘洛書 깊은 산에 홀로 누워 낙서를 숨기었네.
 慎勿逢人稱寶鑑 사람 만나 보감(寶鑑)이라 일컬지를 말지니
 風塵含默是靈虛 풍진 속에 함묵해야 영허함이 있으리라.

隱仙巖 은선대

多愧姓名傳世上 세상에 이름 전함 많지도 부끄러워
 深深我入此巖來 나는야 깊이깊이 이 바위에 들어왔네.
 縱今今日逢仙子 오늘에 신선을 만나게 된 뒤로부터
 不許乘風共醉杯 바람 타고 함께 취함 허락하지 않는다네.

- 1) 문경시 가은읍에 있는 대야산의 계곡이다. 경치가 빼어나 신선들이 노닐었다는 곳으로, 이 계곡의 물이 시인의 고향인 영강으로 흘러내려간다.
- 2) 선인은 ~ 데려갔나 : 옛 신선 왕자안(王子安)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때 기르던 개를 함께 데려가 구름 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는 고사.
- 3) 진시황의 채찍 : 진시황이 돌다리를 놓고 바다를 건너가 해가 뜰 곳을 보려 하니, 마침 신인이 내려와 돌을 놓아서 바다에 내려갈 수 있었다. 이때 돌 가는 것이 빠르지 않으면 신인이 그때마다 채찍질을 하여 얻어맞은 돌에서는 피가 흘렀다고 한다. 경천벽에서 하늘에 오르코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 4) 요경 : 옥황상제가 있다는 신선의 세계인 백옥경을 말한다.
- 5) 궁전이나 묘우(廟宇) 혹은 능묘 전방에 세운 한 쌍의 석주를 말함.
- 6) 언덕 : 『시경(詩經)』 소아(小雅) 학명(鶴鳴)에 보이는 “구고에서 학이 우니, 하늘 까지 소리 들리네.”[鶴鳴于九臯, 聲聞于天]라는 구문에서 따왔다.
- 7) 왕질 : 난가일몽 고사의 주인공인 진나라의 나무꾼. 그는 신안의 석실산(石室山)에서 바둑 두는 두 동자를 만났는데 이것을 보고 있는 동안에 도끼자루가 썩어 버렸고(爛柯), 마을에 돌아가 보니 이는 사람은 모두 죽었다고 한다. 『술이기(述異記)』에 보인다.
- 8) 수담 : 손으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뜻으로 바둑을 두는 것을 말한다.

254 鳳巖寺 봉암사¹⁾

曦陽山氣鳳章斜 회양산 산 기운에 봉장(鳳章)이 빛기어서
 倍勝前人訪若耶 앞사람이 방문한 약야²⁾보다 배나 낫네.
 松塔鶴鳴清似磬 송탑(松塔)³⁾에서 학이 울어 해맑기 경쇠 같고
 石池魚產細於沙 석지(石池)에서 나는 고기 모래보다 작다네.
 多年書劒成何事 여러 해 글과 칼⁴⁾로 무슨 일을 이루었나
 一夜雲林見自家 한 밤에 운림(雲林)에서 제 모습 보노매라.
 逆旅幸逢星下伴 나그네로 다행히 성하 벗을 만나서
 玄玄談罷倚長歌 현담(玄談)을 마치고서 긴 노래를 부르노라.

星下申釋人號也 성하는 신석인의 호이다

- 1) 문경시 가은읍의 회양산 자락에 있는 고찰. 신라 헌강왕5년 지증국사가 창건하였으며 구산선문의 일맥인 회양산문으로서 그 사적이 매우 당당하다. 현재도 조계종의 특별수도원으로 지정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 2) 약야 : 중국 절강(浙江) 회계현(會稽縣) 동남쪽에 있는 시내 이름인데, 춘추시대 월나라의 미녀 서시가 그곳에서 빨래를 하여 유명하다.
- 3) 송탑 : 송구(松球)라고도 하는데, 솔방울을 가리킨다. 그러나 여기서는 탑 같이 생긴 소나무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4) 글과 칼 : 글을 읽어 관리가 되고 칼을 잡고 종군하는 것으로 문관이나 무관이 되는 것을 말한다. 맹호연의 시 「자락지월(自洛之越)」에 “삼십 년을 허둥지둥, 글과 칼 다 못 이뤘네.”[遑遑三十年 書劍兩無成]라고 하였다.

255 白雲臺 백운대

鋪以爲盤突以臺	펼쳐져 반석 되고 우뚝 솟아 대가 되니
堅危殊勢化功開	우뚝하고 굳센 기세 조화 신공(神功) 열렸구나.
泉難穿石平平去	샘은 바위 못 뚫고서 평평하게 흐르고
雲似撐崖落落來	구름은 벼랑 막혀 떨어지듯 내려오네.
自笑謝安勞遠屐	사안(謝安)의 수고로운 먼 유람 ¹⁾ 을 비웃나니
何年李白醉深杯	어느 해에 이백(李白)은 깊은 잔에 취했던가.
蒼巖畫佛曾留像	푸른 바위 그림 부처 형상 아직 남았는데
圓覺千秋夢幾回	원각은 천추에 몇 번의 꿈일런가.

1) 사안의 수고로운 먼 유람 : 사안은 중국 동진 중기에 명제상으로 칭송이 높았고 손꼽히는 문인이었다. 그의 별장이 동산(東山)에 있었는데, 항상 나막신을 신고 여기에 올라 노닐었다고 한다. 본문은 이 고사에서 따왔다.

256 傳燈寺 次牧隱先生板上韻 전등사에서 현판에 새겨진 묵은 선생의 시¹⁾에 차운하다

一塵無處卽三清	티끌 하나 없는 이곳 바로 삼청 ²⁾ 일지니
物外飄飄得此行	물외 ³⁾ 에서 표표히 이번 행차 얻었다네.
路細方知登別界	길 가늘어 별세계에 오르는 줄 알겠고

248 淸溪幽香

泉甘忽似悟前生 샘이 달아 갑자기 전생을 깨달은 듯.
長風吹遠雲連海 긴 바람 멀리 불고 구름 바다 이어지며
好鳥聲深樹繞城 좋은 새 소리 깊고 나무 성을 둘러쌌다네.
留爾閑僧聞古蹟 이곳 머문 승려에게 옛 자취를 들으니
玄天鍾磬摠關情 검은 하늘 쇠종 소리 시정(詩情)을 일으키네.

-
- 1) 목은 선생의 판상 시 : 목은 이색이 마니산을 기행하고 적은 詩인 「마니산기행 (摩尼山紀行)」 중 아홉 번째 시인 「전등사(傳燈寺)」를 말한다. 『목은집』에 실려 있다.
- 2) 삼청 : 도가에서 말하는, 신선이 사는 곳인 옥청(玉淸)과 상청(上淸)과 태청(太淸)의 삼부(三府)를 말한다.
- 3) 物外, 구체적인 현실 세계의 바깥세상.

257 九月二十六日 大人晬辰也 歸鄉設酌 鄉隣咸集

9월 26일은 대인의 생신이라 고향으로 돌아가 술자리를 베풀니 고향의 이웃들이 모두 모였다

遙拜南星獻壽春 아득히 남극성에 헌수하는 절 올리니
良辰稀慶得天新 좋은 날 드문 경사 새 날을 얻었도다.
高堂旭日無窮愛 고당에 빛난 해는 은애가 무궁하고
舊國黃花不改眞 구국(舊國)의 국화꽃은 참 모습 바꾸지 않네.
賢聖泉甘康歲酒 성현의 샘물 달아 세주(歲酒)로 강녕하고

鄉隣雲集賀章人 고향 이웃 모여 들어 글 쓰는 이 축하한다.
璠桃自是吾家物 번도(복숭아)는 이로부터 우리 집안 물건이니
願向年年摘取頻 원컨대 해마다 자주자주 따오리라.

258 宿慶州邑 경주읍에 묵으며

山河壯淑萃陽陰 산하는 장히 맑아 음양이 모여 있고
盡向東都王氣深 모두 동도(東都) 향해 있어 왕기(王氣) 깊었었지.
如是乃亡無地理 이처럼 망한 것은 지리가 다함이니
然而不伐豈天心 그런데도 치지 않음 어이 하늘 마음이라.
當年城堞如殘土 당시에 쌓은 성은 잔토(殘土)가 되어 있고
三姓樓臺已散林 박昔金의 삼성 누대 이미 숲에 흩어졌네.
客子風流今視昔 나그네 풍류로 이제 옛날 살펴보다
寒燈停酒一高吟 찬 등불에 잔 멈추고 높이 한 곡 읊노라.

259 月城懷古 월성에서 옛날을 그리며

異代繁華百感生 옛적의 변화함에 온갖 느낌 일어나니
西來匹馬倚空城 필마로 찾아 와서 빈 성에 기대노라.

250 清溪幽香

一千年色山河古	일천 년의 빛깔에 산하는 예로운데
十二月寒風雪橫 ¹	2월의 찬 바람에 눈보라가 몰아친다.
終古興亡同此理	홍망의 이치는 예로부터 한가지라
行人歌哭亦何情	행인의 노래와 곡(哭) 또한 무슨 정일런가.
隔林忽聽新羅國	숲 저편 홀연히 신라국 봉덕사의
鳳德鍾餘不盡聲	못 다한 종소리의 남은 소리 들려온다.

260 佛國寺 불국사

路入深山古寺前	깊은 산 옛 절 앞에 길이 접어드는데
新羅創說記茫然	신라의 창건 설화 기억도 아득하다.
誰敎佛運長於國	그 누가 부처 운수 나라보다 길게 했나
久擬吾行積有年	내 걸음에 견줘 보기 여러 해가 되었구나.
樹老塔容同冷落	늙은 나무 탑 모양은 쓸렁하기 한가지요
天空鍾響欲盤旋	빈 하늘엔 종소리만 땡그렁 맴도는 듯.
緣何歲暮還忘返	어이해 세모에도 돌아감을 잊고서
得句名區每聳肩	좋은 곳서 시구 얻어 매번 어깨 들썩이나.

261 石窟庵 석굴암

望是青山到即宮	우리르면 청산이요 다가서면 집일러니
空心石佛化神工	동굴 속의 석불은 조화의 숨씨로다.
還疑寂滅來何上	도리어 적멸이 어디서 왔나 의심하니
始信清虛有此中	청허가 여기 있음 비로소 믿게 되네.
陸外茫茫潮影白	아득한 육지밖엔 조수 그림자 희끗하고
天涯冉冉夕陽紅	자욱한 하늘가엔 석양빛이 붉도다.
到來休說人間事	여기서는 인간의 일 말하지를 말지니
樹籟泉聲震作風	나무소리 샘물소리 진동하여 바람 인다.

262 客館除夜 객관에서 제야에

光陰如水歲行兆	세월이 물과 같아 한해 지날 조짐이니
千里狐丘望裏蒼	천리의 호구산(狐丘山) ¹⁾ 은 바라봐도 아득하다.
頭上年添人逆旅	머리 위에 나이 먹고 사람은 나그넨데
夢中家近夜他鄉	꿈속엔 가깝던 집 밤에는 타향일세.
遙懷萬古心還細	멀리 옛일 생각커니 마음 외려 하릴없고
默悔平生算復長	평생 가만 돌아보니 가늠이 끝이 없다.
數鴈南飛鷄晚唱	기러기 남으로 날고 닭이 늦게 울음 우니

252 清溪幽香

迎春栢酒曉傾觴 해맞이 백주(栢酒)²⁾를 새벽에 기울이네.

-
- 1) 호구산 : 호사수구(狐死首丘), 즉 '여우가 죽을 때는 자기가 살던 굴이 있는 언덕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죽는다'는 말에서 따온 것으로 고향 정도로 이해가 가능하다.
- 2) 백주 : 설날에 세배를 드리며 사기(邪氣)를 쫓기 위해 마시던 술로 백엽주(栢葉酒)라고도 한다. 잣나무의 잎을 담가 우려낸 술이다.

263 晋州邑 진주읍

朗朗風光入望間 명랑한 풍광이 저 멀리로 바라 보니
從來勝地似天慳 이제껏 승지는 천간(天慳)¹⁾과 비슷하다.
琉璃鏡瀉南江水 유리 같은 수면 위로 남강 물결 쏟아지고
錦繡屏張北嶽山 금수 같은 병풍이 북악산에 펼쳐구나.
何處笙歌人送恨 어디선가 생가(笙歌) 소리 사람 한을 전송하고
萬家星燭夜生顏 만가의 성촉(星燭)에 밤중 얼굴 생기난다.
橋頭步月奚囊重 다리에서 달 빛 걷다 시(詩)주머니 무겁더니
到此繁華得此閒 번화한 곳에 와서 이 한가함 얻는도다.

-
- 1) 천간 : '하늘이 아낀다'는 뜻으로, 전하여 평범한 인간의 눈으로는 찾을 수 없는 명승지 등을 가리킨다.

264 蠡石樓 축석루

晉陽城外一江流	진양성 밖으로 한 강물이 흘러가니
樓上人愁我不愁	누상(樓上) 사람 근심해도 나는야 근심 않네.
壯士佳娥當死死	장사와 예쁜 아씨 죽을 곳서 죽었나니
淸風明月自悠悠	맑은 바람 밝은 달은 절로 유유하도다.
魚知水暖閑眠日	물 따듯함 고기 알아 한가로이 자는 날에
竹帶天高綠滿洲	대 두르고 하늘 높아 물가 가득 초록일세.
亂代長吟非怪事	난세에 긴 노래는 괴이한 일 아닐러니
羈中誰與泛同舟	나그네 뉘 더불어 함께 배를 띄울 건가.

265 海雲台 해운대

台面有孤雲大筆 해운대 벽면에 고운 최치원의 큰 글씨가 있다

蓬瀛遙望上高台	높은 누대 올라보니 봉래 영주 ¹⁾ 멀리 뵈고
蜃浪鯨風咫尺來	놀란 파도 고래 바람 지척에서 밀려온다.
天海如分如有合	바다 하늘 나누인 듯 다시금 합쳐지고
雲烟欲霽欲無開	구름 안개 걷힐 듯이 걷히질 않는구나.
卽今名利紛紜世	지금에 명리(名利)로 세상이 어지러워
此個男兒快濶盃	여기서 남아는 쾌활하게 잔 나누네.

254 清溪幽香

勝地揮毫先讓古 승지에서 글씨 씌운 고인에게 양보하니
崔夫子後一徘徊 최치원 선생 뒤로 혼자 배회하는도다.

1) 봉래, 영주는 放山과 함께 전설적인 三神山으로 일컬어진다.

266 己卯十二月十九日 生慈晬辰 志喜 기묘년(1939년) 12월
19일 생자(生慈)의 생신에 기쁨을 적다

晨着班衣拜北堂 새벽에 때때옷 입고 북당에 절 올리니
爛然極宿倍生光 찬란한 남극성은 빛이 배로 빛난다.
三春寸草誠難報 삼춘(三春) 촌초(寸草)로는 실로 보답 어렵거니¹⁾
千歲龜蓮尙未長 천세의 귀련(龜蓮)은 여태 아니 자란 것을.
敢謂盃觴酬絳甲 한잔 술로 생신 술잔 감히 말을 해보지만
非徒扇被愧黃香 한갓 부채 황향²⁾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네.
也知慈海無量願 큰 자애 무량하신 소원을 알았으니
各把吾家作壽鄉 저마다 우리 집안 수향(壽鄉) 되게 함일러라.

1) 삼춘의~ 어렵거니 : 원문의 삼춘촌초(三春寸草)는 부모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음
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다. 맹교(孟郊)의 유자음(遊子吟)에 보이는 “어느 누가
말을 하라 촌심초가 삼춘 햇빛 공적을 갚을 수 있다고”[誰言寸心草, 報得三春
暉]라는 구절에서 따왔다.

2) 황향 : 후한 때의 사람으로 자가 문강(文强)이다. 아홉 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第二卷 中夜秋思 255

지극한 효성으로 아버지를 섬겼다. 여름에는 베갯머리에서 부채를 부쳤고, 겨울에는 몸으로써 이불을 따뜻하게 하였다 한다. 본문은 이 고사에서 따왔는데, 『후한서(後漢書)』 「문원열전(文苑列傳)」에 보인다.

267 生庭大人晬日 생부의 생신에

雙親孤宴設高堂	양친의 생일잔치 고당에서 베푸니
嘉氣南山翠有光	좋은 기운 남산에 푸르른 빛이 있네.
在職自慚誠孝乏	직분 있어 효성 부족 절로 부끄러우니
揆情方覺喜懼長	정 살피며 기쁨 두려움 긴 것을 깨닫누나.
時艱巾服從難美	시절 험해 건복(巾服)을 잘 갖추기 어렵고
歲儉盃樽恐未香	흉년이라 술잔이 좋지 못함 걱정일세.
幸荷群仙追賀誼	다행이 못 신선이 축하하러 오시어서
寒天杖屨會隣鄉	찬 날씨에 지팡이 짚고 이웃 고을 모이셨네.

268 癸未二月 孔春圃丈知還齋 계미년(1943년) 2월 공춘포 이르
신의 지환재에서

松岳山中數仍堂	송악산 가운데 몇 채의 집 있으니
風塵能保此風光	풍진 세월 이 풍광을 능히 보전하시었네.

256 清溪幽香

遠違芝宇年三換	지우(芝宇) ¹⁾ 를 멀리하여 세 번 약속 바꾸다가
重入桃源興更長	무릉도원 다시 드니 흥이 더욱 거나해라.
庭自天成看石骨	정원은 절로 된 듯 솟은 바위 구경타가
窓先春色玩梅香	창은 봄빛 먼저 받아 매화 향기 감상하네.
從知大度無憎物	큰 도량 미워하는 마음 없음 알겠거니
留我歸程作醉鄉	내 가는 길 붙드시어 취향(醉鄉)으로 만드셨네.

1) 존안. 남의 모습에 대한 존칭어.

269 謹次知還齋韻 삼가 지환재의 시에 차운하다

天上神仙不必攀	하늘 위 신선이야 모셔올 것 없나니
地仙今日關仙關	지선(地仙)께서 오늘에 선경을 여시었네.
人間功洽西江水	인간 세상 공업은 서강(西江) 물보다 많고
物外緣深四皓山	물외의 인연은 사호산(四皓山)보다 깊네.
歷歷巖泉皆有號	역력타 바위와 샘 모두 이름 있거니
叢叢桂松更生韻	덤불 이룬 계수와 솔 더욱 운치 난다네.
何心倦鳥題扁額	무슨 맘에 지친 새 ¹⁾ 로 편액을 내걸었나
夢覺前年證此還	지난해의 꿈을 깨어 이번 걸음 증명하리.

1) 지친 새 :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새도 날다 지치면 돌아갈 줄 아는구나.”[鳥倦飛而知還]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집 이름을 따와 지환재(知還齋)로 지었으므로

지친 세에다 전준 것이다.

270 邀金鶴田丈沈玉蘇丈衡鎮李小剛令, 遊漢江

김학전 어른과 옥소 심형진 어른, 이소강령을 청해 한강을 유람하다

一日能偷半日遊	하루에도 반나절의 노닐을 훔쳐오니
巖崖盡處得汀洲	바위 벼랑 끝난 곳서 물가를 얻었노라.
任他車馬爭填路	제멋대로 수레와 말 길을 다뒀 메우고
無限風烟滿載舟	가없는 바람 안개 배에 가득 실었네.
野望偏長芳草際	들판 보니 방초 길이 자옥하게 뻗어 있고
鄉懷倍切片雲頭	조각구름 언저리서 고향 생각 간절쿠나.
斜陽肯恨黃昏近	지는 별에 황혼이 가까워 음 안타깝다
更續餘緣有好樓	남은 인연 다시 이을 좋은 누각 있구나.

271 與小剛令赴廣壯津雅會 金鶴田丈趙石庵丈炳烈

鄭松汀伯僑源李又齋丈丙默成茗軒丈樂淳李愚

軒種起氏在座 소강령과 함께 광나루 아회에 가다. 김학전, 석암 조병
열, 송정백 정교원, 우재 이병목, 명헌 성락순, 우헌 이종기 씨 등이 참석했다

群山拱北水流西 못 산들 북쪽 솟고 강물은 서로 흘러

258 清溪幽香

芳草連郊柳拂堤	방초 이은 교외에 방죽 벼들 날리운다.
去馬來牛相遠近	오가는 마소는 서로 멀고 가까웁고
沙鷗林鳥各飛啼	갈매기와 숲 속 새는 각자 날며 우짖누나.
詩因遽就情還澁	너무 급히 시를 지어 정이 외려 곱스럽고
酒到艱求價不低	어렵사리 술 구하니 그 값이 싸지 않네.
屬會江干知有意	강가에서 모임 가짐 뜻 있음을 아노니
銷愁兼得此心題	근심을 녹일 겸해 이 마음을 적어보네.

272 小剛令書樓 陪晚松查丈兼歡 李霞汀兄炳根在

座 소강령의 서루에서 만송 사장 어른을 모시니 하정 이병근 형이 함께
자리에 있었다

書樓清趣似江城	서루의 맑은 운치 강성(江城)과 비슷한데
消暑偏宜繞砌行	더위 씻음 섬돌 따라 거닐기에 마침 맞다.
牆樹扇風簾自爽	담장 나무 부채 바람 주렴 절로 상쾌하고
棚藤篩日日全晴	등나무 시렁 체를 치니 별이 온통 해맑다.
使君吟咏能蘇病	사군계선 시를 읊어 능히 병을 낫게 하고

小剛令時有微病而因詩破寂故云 소강령이 이때 병이 조금 있었는데, 시로 인
해 파적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했다.

舊友音容似隔生 옛적 벗의 모습은 전생의 일만 같네.
幸得追從居比屋 다행히 이웃 살며 좇음을 얻게 되니
源源晨夕不勝情 새벽 저녁 그 언제나 정 가누지 못하겠네.

李炳根兄相別十載適時敘歡中聯及之 이병근 형이 십 년이나 헤어졌다가 이
때 마침 만나 기쁨을 나누었으므로 중련에서 이를 말했다.

273 謹奉次宋恭山丈浚弼遠谷精舍韻 삼가 공산 송준필 어
르신의 원곡정사 시에 차운하다

碩人邁軸在林邱 큰 어른의 남긴 자취 숲 언덕에 있나니
遙賀金陵起此樓 금릉 땅에 누각 지음 멀리서 하례하네.
繞戶翠看雲木秀 집 둘레엔 구름 나무 빼어나게 푸르고
循階清聽石溪幽 섬돌 따라 바위 시내 그윽한 소리 들려.
狂瀾滿目誰回倒 미친 물결 눈에 가득 그 누가 돌리리오
至道凝心自勉修 지극한 도 맘에 엉겨 홀로 힘써 닦는도다.
長夜茫茫猶不曙 긴 밤은 아득하다 새벽이 오지 않아
曙光都付燭前收 새벽빛 온통 모두 등불 앞에 부치누나.

第三卷 愚井 卞濬 先生 漢詩選

愚井落穂

卞濬 1926-

號 愚井, 字 瑞光

聞慶市 山陽面 辰井里 118

著書: 韻詩400餘首, 愚井落穂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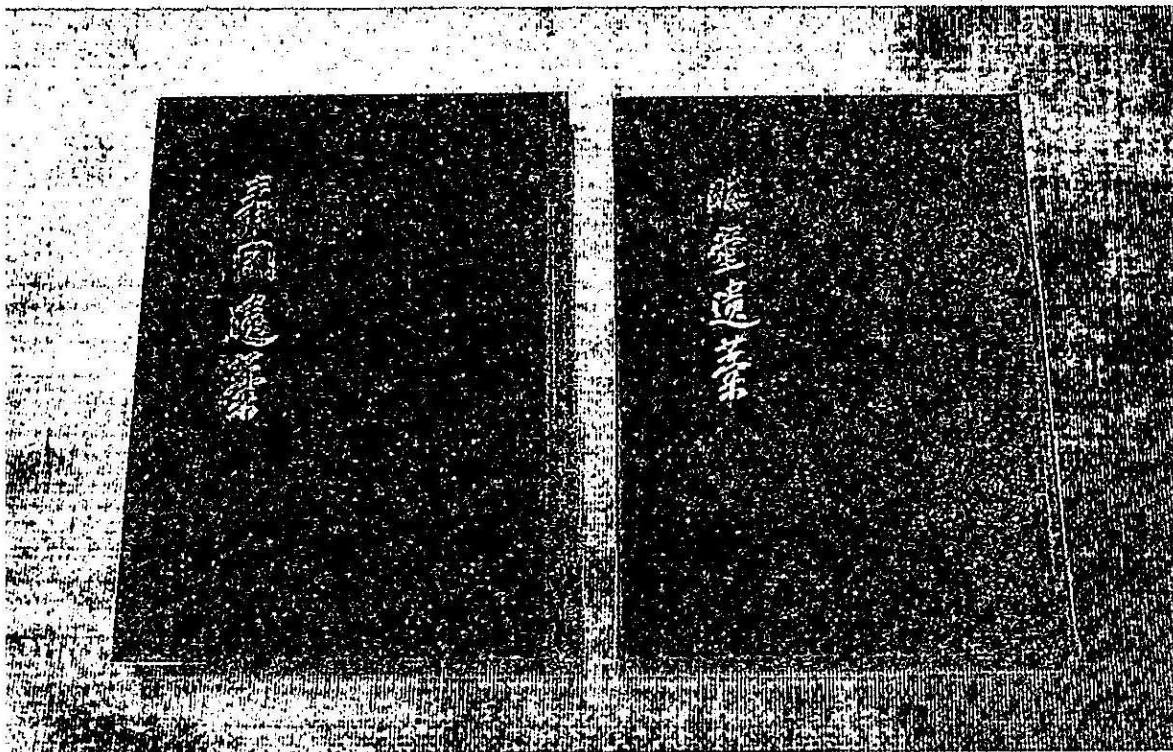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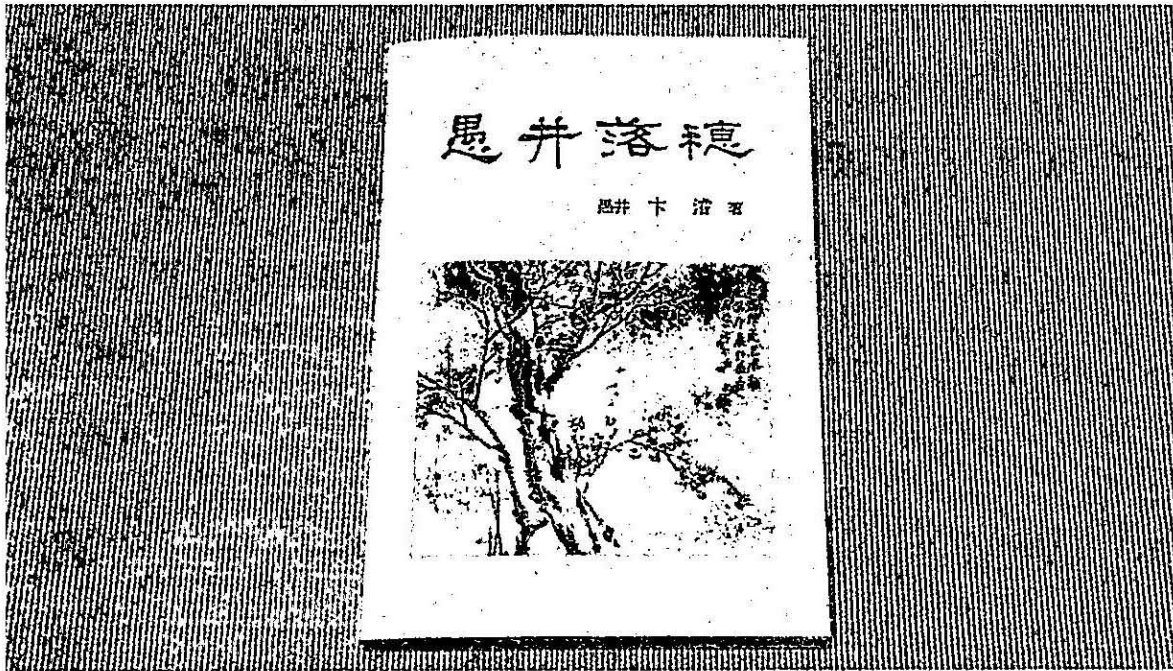
晦堂遺稿, 春崗遺稿 刊

歷任: 烏嶺漢詩會 會長, 近岳書院 院長,

聞慶儒林団体協議會 會長



愚井 先生 近影



愚井 先生の 著書

제1편 淸遊

274 鳥嶺有感 조령유감

鳥嶺登臨眼界晴	鳥嶺에 오르니 눈앞이 확 트이고
許多景勝摠名聲	많고 많은 景勝 모두가 아름답네.
哀歡科路兔遷峙	애환 속의 科擧길은 兔遷 고개 서리었고
喜愠戰雲姑母城	즐겁고 쓰린 전운은 고모성에 쌓였네.
昔在榮華尤爛爛	옛날의 영화 더욱 빛나고
現存福祿愈盈盈	지금 있는 福祿은 쌓여만 가네.
有情綠水靑山外	有情한 綠水는 청산 밖으로 흐르고
雅士飛觴弄月迎	선비들 술 잔 들어 달을 보고 즐기네.

275 至樂軒 지락헌¹⁾

山擁巍華榭	산은 높이 화려한 정자를 에워싸고
水深映碧天	물은 깊게 푸른 하늘에 비치네.
翠陰芳草茂	녹음 속에 향기로운 풀 무성하고

266 清溪幽香

勝景野華緣	아름다운 경치는 들꽃과 연을 맺었네.
歲月流無盡	세월은 끝없이 흘러만 가는데
文華久有傳	화려한 문물을 오래도록 전했네.
裔孫仍百代	후손들 대대로 이어
雅跡守留連	아름다운 이 자취 지켜 이어지리라.

- 1) 지락헌 : 문경시 호계면 봉서리 영강변에 세워진 초계 변씨의 종중 누각이다.
1482년 건립될 때에는 가운데 지락헌이 자리하였고 남쪽에 정파루(澄波樓), 북쪽에 광원대(曠遠臺)를 함께 건립하였는데, 그 뒤 멸실되었다가 1935년 현재의 모습으로 중건되었다. 현판의 글씨는 春崗 先生의 필적이다.

276 交龜亭復元 교귀정¹⁾복원

交龜亭畔幾回秋	교귀정에는 가을이 몇 번이나 돌아왔는지
澗水淙潺與歲流	산골 물 줄줄 흘러 세월과 더불었구나.
華榭翼然玄鶴舞	화려한 정자 아름다워 현학들이 춤추는 듯
飛甍輪奐鳳凰遊	용마루는 나는 듯 미려하니 봉황이 깃드네.
龍湫鳥嶺神仙府	용추와 조령은 신선이 사는 곳이요
主屹嶠南第一州	주홀산은 영남에서 제일 좋은 고을이라.
不語青山猶寂寂	말없는 청산은 아직도 적적한데
愼侯雅蹟也悠悠	신공 ²⁾ 의 아름다운 자취 여윌기만 하네.

- 1) 교귀정 :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주흘산의 1관 주흘관과 2관 조곡관의 중간지점에 있는 정자. 조선시대 신구 경상감사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던 교인처로 1470년 경 건립되었다. 1986년 화재로 소실된 후 1996년 복원하였다.
- 2) 신평 : 교귀정을 건립한 당시의 현감 신승명(愼承命)을 愼公이라고 하였다.

277 聞喜慶瑞 문희경서

萬里蒼穹慶瑞流	아득한 푸른 하늘 경사와 상서 가득하고
嶠南鳥嶺紫霞浮	영남 땅 새재에는 붉은 노을 엉기었네.
潁江白浪潺潺逝	영강수 흰 물결 잔잔하게 흐르고
主屹淸嵐脈脈留	주흘산 푸른 남기 끝없이 머물렀네.
皤叟書卷爭論席	백발 노인 책 보며 잘잘못 가리고
詞人詩眼競搔頭	시 짓기 골몰하여 머리 긁으며 고심하네.
冠山 ¹⁾ 文物華榮耀	문경의 문화와 사물은 화려하게 빛나니
宜是家家德業收	참으로 집집마다 덕행과 사업이 번창하네.

1) 冠山 : 聞慶의 옛 이름

268 清溪幽香

278 慶泉湖 경천호¹⁾

山山紅葉眼前開	이산저산 단풍은 눈앞에 아롱지고
水水蒼波蹴浪來	넓은 물에는 푸른 파도 넘실거리네.
岵色紫雲仙境峙	山色과 붉은 구름 神仙境이고
秋光碧落綺羅臺	가을빛 푸른 하늘 비단 같은 정자로세.
耕翁勉勵流汗澍	농은이 힘써 일하니 땀에 흠뻑 젖어 있고
騷客瓊談樂笑回	시인들의 瓊談 ²⁾ 에 웃음꽃 피어나네.
淼淼烟霞詩興起	멀고 아득한 안개 속에 詩興이 절로 일고
頻頻勸酒倒金杯	자주자주 권하는 술 이 몸도 취했네.

1) 경천호 : 문경 산북면에 있는 호수

2) 瓊談(경담) : 옥과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

279 烏山清遊 금오산을 둘러보다

疑是武陵溪	금오산은 곧 무릉도원이 아닌지
鳳仙也共棲	봉황과 신선이 함께 사는 곳.
噪虫芳草隱	벌레 소리 방초에 스며들고
飛燕綺雲迷	제비는 비단 구름 속을 헤매네.
天本龍遊處	하늘은 원래 용들이 노는 곳

山中鶴舞低 산중에는 학이 훨훨 날고 있네.
吟風詠月裡 맑은 바람 밝은 달 시를 읊으며
耆宿欲東西 덕망 있는 늙은이 동서로 흩어지네.

280 追慕吉冶隱先生 추모길야은선생¹⁾

性理煥然禮道生 유학이 찬란히 빛나니 예도가 생기고
金烏聖地吉星明 금오산 성지에는 길야은 선생 별이 빛나네.
忠誠孝悌輝煌燦 충성과 효도 찬란히 빛내고
節義倫常卓絕聲 절개와 의리 인륜 도리 훌륭한 명성 들었네.
大穴齋頭濡瑞氣 대혈재는 서기에 젖어 있고
採薇亭畔咲榮名 채미정²⁾ 가에는 영명이 비치었네.
現今綱紀紛縈裡 현세의 사회 도덕 땅에 떨어졌으니
冶隱遺風敬慕情 야은 선생 유풍이 그립고 경모함은 한이 없네.

1) 야은 선생 : 고려 말 조선 초의 성리학자. 목은이색 · 포은 정몽주와 함께 고려 말의 三隱으로 불렸다. 고려 말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경북 선산으로 내려가 금오산 기슭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2) 채미정 : 야은 선생의 학문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조선 영조 44년(1768년)에 건립한 정자.

281 訪玉山書院 방옥산서원¹⁾

廟宇翼然紫玉頭 서원 건물은 자옥산 머리에 서 있고
洗心臺水古今流 세심대 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흐르네.
無邊樓畔祥風搖 무변루²⁾ 주변은 상서로운 바람에 물들고
獨樂堂中景仰幽 독락당³⁾ 중에는 덕업 그리는 마음 그윽하네.
忠恕四端傳授席 충서⁴⁾ 사단⁵⁾을 전수하던 곳
七情五欲養眞收 칠정⁶⁾ 오욕⁷⁾의 참됨을 기르셨네.
遺芳玉振千秋爛 남기신 유훈 찬란히 천추에 빛나고
恬雅賢良此地留 마음 화평하고 아담한 선비들 이 곳에 머무르네.

1) 옥산서원 :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서원이다. 1573년 문원공 이언적(文元公 李彦迪)을 모시기 위해 지어졌고, 1574년 사액을 받았다. 양동마을, 동강서원, 독락당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2) 무변루 : 유생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된 누각.

3) 독락당 : 서원에서 700미터쯤 떨어져 있으며 이언적이 퇴거하여 수도하던 곳인데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4) 충서 : 유교의 도덕규범 중 하나. 수양에 힘써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인격을 쌓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인(仁)을 행하는 자세를 가리킨다.

5) 사단 : 맹자 성선설의 근거가 되는 4단은 측은지심(惻隱之心) · 수오지심(羞惡之心) · 사양지심(辭讓之心) · 시비지심(是非之心)을 말하는데, 각각 仁·義·禮·智의 실마리가 된다.

6) 칠정 : 화(喜) · 노(怒) · 애(哀) · 구(懼) · 애(愛) · 오(惡) · 욕(慾) 등 사람이 가진 7가지 감정을 말한다.

7) 오욕 : 색(色) · 성(聲) · 향(香) · 미(味) · 촉(觸)의 五境에 대한 욕구를 말한다.

282 登冠岳 등관악

濃霧橫斜冠岳頭	질은 안개 관악산을 뒤덮고
蟬啼騷噪夕陽收	매미는 시끄럽게 울어 석양을 재촉하네.
涼風習習生和氣	서늘한 바람 술술 불어 화평함에 젖어들고
澗水淙淙與暑流	산골 물 졸졸 흘러 더위와 함께 흐르네.
壯士奔忙須自得	젊은이들 일에 바빠 스스로 성취하는데
老翁潦倒更何求	늙은이 쓸모없어 다시 무엇을 구하랴.
無情歲月無言去	무정한 세월은 말없이 흘러가누나
悠忽蒼穹白鶴遊	아득히 저 먼 하늘에 백학이 높이 날아가네.

283 丹陽 단양

島潭秀麗獨登來	도담 삼봉 아름다워 홀로 찾아오니
五色丹楓悅眼開	오색 단풍에 즐거움 한이 없네.
水水茫茫山未動	물과 물은 아득한데 산은 움직이지 않고
山山曲曲水流廻	산과 산은 구불구불하여 물이 흘러 돌아가네.
秋天晚景靑嵐澍	가을 하늘 늦경치 푸른 이내 자욱하고
斜日湖光紫氣回	지는 해 호수에는 붉은 노을 가득하네.
白鷺悠然何處去	백로는 느긋하게 어디로 날아가며
騷人想斷又傾杯	시인은 무슨 생각 또 한 잔 술인가.

272 清溪幽香

284 醉香亭 취향정¹⁾

醉香亭畔綠荷芳	취향정가 연꽃 향기 그윽하고
處處墨痕掛雅章	누상 곳곳에 아름다운 글 현판에 즐비하네.
耆老吟風金谷酒	늙은이들 시 읊으며 금곡주 마시고
黃冠詠月玉壺觴	도사들도 시 읊으며 옥 술잔을 기울이네.
德津碧水蓮花賞	덕진호 푸른 물결 연꽃이 아름답고
寥廓素雲皓月陽	하늘에는 흰 구름 밝은 달이 비치네.
草露浮生忘世路	풀 이슬 같은 인생 세상살이 잊고
邯鄲夢裡共琴堂	금당 ²⁾ 에서 함께 즐거운 꿈꾸네.

1) 취향정 : 전주시 덕진호 안에 세워진 정각의 이름.

2) 금당(琴堂) : 縣의 장관의 집무실. 孔子의 弟子인 宓子賤(복자천)이 縣宰가 되어 거문고를 타며 현을 잘 다스렸다 함.

285 登快哉亭 등쾌재정¹⁾

花爛逢春柳色青	꽃이 만발하는 봄날에 버들잎도 푸르고
翼然華榭耀蒼冥	나를 듯한 화려한 정자 푸른 하늘에 빛나네.
憑風鶴首垂虹席	바람에 의지한 학머리에 무지개 일고
繞水蛭頭映曉汀	굽이도는 잠두 ²⁾ 는 새벽 물기슭에 비치네.

學德金章無比重 높으신 학덕과 아름다운 글 더없이 소중하고
遺芳玉瓊不凋零 남기신 유훈 옥과 같이 시들지 않네.
快哉亭上儒鄉士 쾌재정에 모인 儒鄉의 선비들
琴酒吟詩醉臥屏 풍악 속 시 읊으며 병풍 앞에 취해 쓰러졌네.

- 1) 쾌재정 : 경북 상주시 이안면에 있는 정자. 난재 채수(懶齋蔡壽) 선생이 중종반정 후 용퇴하여 1509년경 이곳에 정자를 세우고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
2) 잠두 : 누에 머리같이 생긴 봉우리.

286 訪貞陵 방정릉

不忍溽暑訪貞陵 찌는 더위 참을 수 없어 정릉을 찾았는데
澗水淙淙自爽涼 산골 물 줄줄 흘러 절로 상쾌하고 시원하네.
耆宿盃觴情語溢 덕망 있는 늙은이 술잔 속에 정담이 넘치고
壯齡歌舞俗塵香 장사들의 노래와 춤에 세상 티끌이 향기롭네.
往年騷客吟風處 그 옛날에는 시인들 음풍영월하던 곳
現歲凡庸未覺長 요즈음 범부들은 풍류도 모르고 자랐네.
鬱密蒼松如故舊 울창한 푸른 소나무는 예나 같은데
幾人心洗幾人傷 몇 사람이나 마음을 씻고 몇 사람이나 마음 상했을까.

274 清溪幽香

287 雪嶽山 설악산

松韻爽氣世和融	솔바람 소리 상쾌한 기운 세상을 평화롭게 녹 이고
水不穿岩曲曲通	물은 바위를 뚫지 못해 구불구불 흘러가네.
群岳撐天天未下	산들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어 하늘은 내려오지 못하고
金楓掩地地無窮	붉게 핀 단풍 땅을 덮으니 땅은 끝이 없네.
瑞靈久隱神仙府	상서로운 영기 오래 머문 신선이 살던 고을이고
妙寂眞如解脫宮	오묘하고 깊은 불변 진리 번뇌를 벗어난 곳.
草露浮生咸醉舞	풀 이슬 같은 인생살이 모두 취해 춤추는데
茫然佇想白頭翁	저 늙은이 망연히 서서 무엇을 생각하나.

288 智異山 지리산

荒波野景擣年豐	황금 들녘은 풍년에 물들고
綠水錦楓映壁穹	푸른 물 오색 단풍 푸른 하늘에 비치네.
九折羊腸迷霧路	구불구불 도는 길 안개 속을 헤매는데
老姑瑞氣世和融	노고단 서기(瑞氣)는 세상을 평화롭게 하네.

289 德津湖醉香亭 덕진호 취향정

醉香亭上荷香醉	취향정 위에서 연꽃향에 취하고
騷客墨痕詩興醉	시인들이 남긴 자취 詩興에 취했네.
豪飲一杯復一杯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고
涼風又到尤長醉	시원한 바람 불어 더욱 깊이 취했네.

290 三光寺 삼광사¹⁾

寶塔巍巍綺麗雄	돌탑 높고 높아 아름답고 웅장한데
佛天和氣滿蒼穹	부처님의 화기 하늘에 가득하네.
人人眷眷三尊佛	사람마다 뜻 모아 삼존불 ²⁾ 에 의지하고
靄靄明明解脫鍾	몽게몽게 피어오르는 구름 걷히니 번뇌를 벗어 나는 종소리.
四德淨清皆所願	사덕 ³⁾ 맑고 깨끗함은 모두의 소원이고
七情斷絶一心中	칠정 ⁴⁾ 멀리함을 마음으로 빌어 보네.
浮生如夢化無盡	인생은 뜬구름 꿈만 같이 변화무쌍한 것
世事恬虛萬事容	세상일 편안히 마음 비우니 만사 너그럽네.

1) 삼광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대한불교천태종의 제2의 사찰이

276 清溪幽香

다(1986년 창간).

2) 三光寺의 삼존불은 석가여래,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이다.

3) 사덕 : 仁義禮智.

4) 칠정 : 喜怒哀懼愛惡慾.

291 臨津紀行 임진기행

秋色華明玉露清 추색 화려하게 밝은데 옥이슬 맑고
博文約禮會遊成 박약회¹⁾ 모임 놀이 이루었네.
彪村祠廟神靈逗 방촌²⁾ 선생 묘소에는 신령이 머물고
仰止臺樓淑德盈 양지대루³⁾에는 맑은 덕이 가득하네.
栗谷塋墳濡瑞兆 율곡 선생 묘소는 서조⁴⁾에 젖어 있고
紫雲書院澍幽情 자운서원⁵⁾은 그윽한 정에 물들었네.
燕朋共轉怡優席 허물없는 벗들 서로 곱러가며 즐겁고 넉넉한
 자리
落日西山惜別聲 지는 해 서산에 걸리고 석별이 아쉽네.

1) 박약회 : 퇴계 이황 선생의 사상과 이념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에 지회가 결성되어 유교문화의 창달과 인성 교육 활성화에 성력을 다하고 있다. 1987년 발기 결사하였으며 도산서원 동재(東齋)인 박약재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2) 방촌 : 조선 초기 황희 정승의 호 청백리의 전형으로서 조선 왕조에서 가장 뛰어난 재상으로 꼽힌다.

- 3) 양지대루 : 황희정승의 유덕을 우리르는 마음에서 1915년 임진강변 반구정 옆에 세운 육각정의 이름이다.
- 4) 서조 : 서상(瑞相). 상서로운 조짐.
- 5) 자운서원 : 율곡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1615년 세운 서원이다. 현재의 건물은 6·25 전쟁 후 새로 지은 것이다.

292 義林池 의림지¹⁾

凉風湖畔獨徘徊	서늘한 바람 부는 호숫가 홀로 거닐고
波靜泛舟錦舞開	고요한 물결에 배 띄워 아낙네들 춤추네.
白首有情秋日暮	백발은 흘날리고 가을 해 저무는데
靑山無語夕陽來	청산은 말 없고 석양이 왔네.
如今紅葉映鏡水	붉은 단풍잎 맑은 물 속에 비치고
千古老松寓鶴垓	천고 노송에는 학들이 깃들었네.
騷客許多風月頌	시인들의 허다한 음풍영월 현판에 있는데
誰知不似我傾盃	못난 이 몸 술잔 기울임을 누가 알리.

1) 충북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저수지. 원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278 清溪幽香

293 清巖亭 청암정

華樹翼然鶴舞楹	화려한 정자 아름다워 학들이 춤추고
金鳥靈氣翠嵐成	금오산 영기로 푸른 남기 가득하네.
鳳山皓月蒼龍影	봉산에 밝은 달 소나무 그림자 우아하고
洛水滄波宿雁聲	낙동강 푸른 물결 기러기 우는 소리.
欣喜春花當世志	아름다운 봄꽃 즐기며 그 당시를 생각하고
優饒秋實故人情	풍성한 가을 열매 옛사람의 정이런가.
幽芳勝景旻天耀	그윽한 향기 좋은 경치 가을 하늘에 빛나니
知有賢孫感至誠	거룩한 후손들의 지성에 감동하네.

294 雲崗李康年先生追慕 윤강 이강년¹⁾ 선생 추모

國運衰微國力微	국운이 쇠미하니 국력 또한 기울었는데
孤軍奮鬪透天微	외롭게 분투하였으니 하늘가에 빛났네.
丹忠義血爲邦播	나라 위한 일편단심 의혈을 뿌리고
討敵誠心利劍揮	적을 무찌르려 성심 모아 이검을 휘둘렀네.
衆敵未當牢鐵柵	많은 적을 감당 못해 철창 신세 되었고
單騎不敢壞城扉	필마 단기로 감당 못해 성은 허물어졌네.
堅強烈操絡殉死	굳고 강한 지조 이어 순사하고

聖節輝煌萬古稀 성스러운 절개 휘황찬란하니 만고에 드물구나.

1) 이강년 : 1858년 문경시 가은읍에서 태어나 조선 말 무과에 급제한 뒤 선전관(宣傳官)이 되었으나, 일제의 민비 시해 후 1896.1.11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전국도창의대장(全國都倡義大將)이 되어 계속된 항일무장투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올렸으나 끝내 체포되어 1908.10.13 교수대에서 순국하셨다.

295 花溪亭落成韻 화계정¹⁾낙성운

飛軒華閣竟今成 나는 듯한 처마, 화려하게 드디어 이루니
累代裔孫至極誠 대대로 이은 후손들의 정성일세.
文筆峰中盤瑞慶 문필봉 가운데는 상서롭고 경사함이 서리고
錦溪九曲澍華榮 금계구곡은 영화에 물들었네.
花庄福地開亭榭 화장 마을 복된 땅에 정자를 세우고
賓主瓊筵照鳳楹 손님과 주인의 빛나는 자리, 봉황의 기둥에 비치네.
百世相傳須繕葺 백세에 이르기까지 모름지기 잘 수리하여
幽然此址久安盟 그윽한 이 자리에 오래 평안하기 맹세하네.

1) 화계정 :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화장마을)에 2005년 반남 박씨 숙천공파 종중에서 건립한 정자.

280 清溪幽香

296 松廣寺 송광사

海東偉刹名松廣	한국의 가장 큰 절 그 이름은 송광사
解脫惺惺月滿庭	번뇌 벗어 깨달으니 밝은 달 뜰에 가득하네.
綠水無絃千古瑟	푸른 물소리는 천고의 거문고 소리 같고
靑山不墨萬年屏	푸른 산은 그림이 아닌 만고의 병풍일세.
人間四諦唯崇佛	인간의 사제 ¹⁾ 는 오직 부처님을 숭상하고
妙法蓮華頓悟經	심오한 법을 깨달음은 연화경에 의지하네.
正是眞如何處在	오로지 불변의 진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
乾坤未恙夢微醒	천지는 영겁한데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네.

1) 四諦, 또는 四聖諦. 佛教의 기본 가르침 중 하나이다. 諦는 진리 또는 깨우침을 뜻하며, 四諦는 苦諦, 集諦, 滅諦, 道諦를 말한다. 흔히 이를 苦集滅道라고 부른다.

297 海雲臺 해운대

扶桑遙望月迎臺	동쪽이 멀리 보이는 달맞이 대에 오르니
皺浪涼風咫尺來	주름진 파도 시원한 바람 지척간에 오네.
天海如分如有合	하늘과 바다는 갈라진 듯 하나로 합친 듯
雲烟欲霽欲無開	구름과 안개는 개일 듯 안 개일 듯.

先賢往事濡思慕 옛 성현의 지난 일 생각하며 경모하고
苦叟行塵漫想回 괴로운 늙은이 지나온 자취 부질없는 생각뿐.
眼界茫茫尤快濶 눈앞이 멀고 멀어 더욱 쾌활하니
咏吟興醉倒瓊杯 詩興에 취해 술잔에 넘어졌네.

298 南道紀行 남도기행

爽風淥水碧山看 상쾌한 바람 맑은 물 푸른 산 바라보고
牆裡紅薇襟韻殘 울타리 속 붉은 장미 이 마음 설레이네.
般若誦經濡佛海 般若心經 읊는 소리 부처님 품에 안기고
蛾眉詠歎響金盤 미인들 노랫가락 금쟁반에 울리는 듯.
南冥崇德騷懷動 남명¹⁾ 선생 덕을 숭상하여 詩心이 動하고
性徹高聲劫外觀 성철²⁾ 스님 큰 한 소리에 劫外를 보는 듯하네.
老嫗慈仁尤裕福 늙은 할머니 어진 마음 더욱 복이 넉넉하고
淸游雅士鶴夢安 청유하는 선비들도 신선꿈이 평안하리.

1) 남명 :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이고 영남학파의 거두인 南植의 아호

2) 성철 : 우리나라 선불교전통을 대표하는 수행승으로서 조계종 종정을 역임하였다. (1993년 입적)

282 清溪幽香

299 烏山清遊 오산청유

綠水淙淙碧玉溪	푸른 물 줄줄 흘러 옥같이 깨끗한 개울
金鳥疑是鳳凰樓	금오산은 원래 아름다워 봉황이 살던 곳이런가.
翠光芳草虫聲急	푸른 빛 향기로운 풀, 벌레 소리 아련하고
溽暑曇天蝶意迷	찌는 더위 흐린 하늘 나비 날아 이리저리.
臥佛山頭幽景染	와불산 머리는 그윽한 경치에 물들고
採薇亭畔綺雲低	채미정 가에는 상서로운 구름이 자욱하네.
老來歡樂風月裡	늙어서 즐거움은 음풍영월하는 것
佇想徜徉日欲西	이리저리 거닐며 생각하니 해는 서산에 지려 하네.

300 逍遙山秋懷 소요산 가을

碧松鬱密爽涼風	푸른 소나무 우거지고 서늘한 가을바람
華麗紅裳五色濃	화사한 붉은 단풍 오색에 물들었네.
自在庵邊郁郁佛	자재암 가는 마음 불심에 젖어 있고
疊峰逍遙暮雲中	소요산은 첩첩이 저녁 구름 가득하네.

301 鳳笙亭雅會 봉생정¹⁾아회

白雲來去菊秋佳 흰 구름 오고가고 국화 피는 가을 아름다워
 綠水森羅碧水涯 푸른 하늘 우거진 푸른 물가의 정자.
 主屹山頭凝瑞氣 주홀산머리에는 서기가 엉키고
 兔遷岸壁擣情懷 토천²⁾의 안벽에는 옛 길손 정이 서려 있네.
 瓊章風詠儒鄉客 옥 같은 문장으로 음풍영월하는 시인들
 華樹翼然聖鳥齋 화려한 정자 아름다워 봉황 노는 집이로다.
 老叟蒼天遐眺裡 늙은이는 푸른 하늘 멀리 바라보며
 先賢回想愼身齊 옛 성현을 경모하고 몸을 삼가 재계하네.

-
- 1) 봉생정 : 문경시 마성면에 있으며, 17세기 서애 유성룡이 세운 정자이다. 봉생 마을의 산꼭대기에 위치하여 영강의 굽이치는 경관을 한눈에 내려볼 수 있는 곳이다.
 2) 토천 : 토끼비리라고도 한다. 문경시 마성면에 있는 옛길. 강가의 급사면 돌벼랑을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도록 파서 만든 길인데,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다.

302 浦項雅會 포항아회

日午虎尾烟霧間 한낮인데도 호미꽃은 안개 속에 잠겨 있고
 相近相親白鷺閑 백로는 서로 서로 한가로이 노니네.

284 淸溪幽香

碧海皺波詩興搖	푸른 바다 주름진 파도 詩興에 물들게 하고
玄穹半月酒香新	저 하늘 반달은 술 향기 새롭게 하네.
多多才學風流侶	많고 많은 제주와 학식과 풍류에 젖은 벗들
濟濟瓊談笑滿隣	아름답고 옥 같은 담론 웃음꽃 피우네.
六叟欣然遊浦項	여섯 늙은이 ¹⁾ 즐겁게 포항에서 노는데
羽觴頻勸待紅晨	술잔 자주 오가니 밝은 아침일세.

1) 이때 함께 하였던 사람들은 윤강(耘岡) · 목란(木蘭) · 송천(松泉) · 수운(水云) · 진석(眞石) · 우정(愚井)이다.

303 至樂軒雅會 지락헌아회

顯祖開臺五百年	선조께서 이 땅에 터 잡은 지 오백 년
翼然華榭映蒼天	나는 듯한 화려한 정자 푸른 하늘에 비치네.
白雲碧草琴書悅	白雲과 碧草 속에 아름다운 책을 읽고
綠水青山玉韻緣	綠水와 靑山 속에 시를 즐기네.
世路縈紆朝夕變	세상살이 얽히고설키고 조석으로 변해도
斯文久有子孫傳	유학만은 오래도록 자손에게 전하리.
陶陶野叟羽觴舞	화락한 늙은이들 술잔 속에 춤추고
詠月吟風代代連	영월음풍하며 대대로 이어지네.

304 暮春雅會 모춘아회

花葉紛紜掩地成	꽃잎들 어지럽게 땅 위에 날리고
柳絲嬋舞夕陽明	버들가지 아름다운 춤 석양에 빛나네.
青山寂寂雲來去	靑山은 寂寂한데 구름은 오고가고
綠水淙淙鳥語聲	綠水는 졸졸 흐르고 새들도 지저귀네.
雨裡蜀魂啼血夜	빗속의 소쩍새 피나게 우는 밤
風中落魄斷腸情	바람 속에 녀이 빠져 斷腸의 아픔일세.
群賢麗藻尤彬雅	선비들 시 구절은 빛나고 아름다워
弄月吟詩自向榮	달을 보며 읊조리니 저절로 상쾌하네.

305 詠風雅會 영풍아회

九人達士詠風逢	아홉 사람 선비들 詠風會에서 만났어라
麗藻相長彫琢功	여조 ¹⁾ 가 상장함은 조탁 ²⁾ 의 공이로다.
詩賦能吟謙遜裏	詩賦를 能吟해도 일상에 겸손하고
文章可述至誠通	문장도 잘 지으니 지성으로 통하네.
紛紛玉屑連天白	紛紛한 玉屑 ³⁾ 은 하늘에 이어지고
點點寒梅向日紅	점점이 피어난 寒梅는 햇빛 속에 아름답네.
高說轉清敦友誼	고상한 담론 맑아 우의가 돈독하고

芝蘭雅會樂無窮 지란⁴⁾ 같은 雅會에 즐거움 한이 없네.

1) 여조 : 아름다운 詩文.

2) 조탁 : 원뜻은 보석 따위를 세기고 쫓다는 것인데, 詩文 따위의 字句를 아름답게 다듬는다는 의미로 쓰인다.

3) 옥설 : 옥의 부스러기란 뜻으로, 詩文에서 특히 잘 지은 글귀를 기리어 이르는 말.

4) 지란 : 芝蘭之友의 줄임말. 벗 사이의 맑고도 높은 사귀음을 이르는 말이다.

306 五老雅會 오로아회

五老恬虛涉世貞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사는 다섯 벗님
瓊章玉樹卓才盈 탁월한 문재에 아름다운 문장들.
冠山秀麗夷齊志 관산은 빼어나서 백이숙제¹⁾ 닮아 있고
潁水清晶許巢情 영강 맑은 흐름 허소²⁾의 정이로세.
管鮑敦和天裡爛 관포³⁾의 돈화함은 천지에 빛이 나고
芝蘭交誼鏡中明 선비의 교분은 거울같이 밝다네.
皤翁雅會弄風月 백발로 시회 열어 풍월을 읊어보고
世事何由掛醜名 세상사 무관하다. 내 이름 더럽힐라.

1) 백이숙제 : 伯夷와 叔齊. 중국 상나라 말기의 형제로 끝까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충절을 지킨 의인들.

- 2) 허소 : 중국 고대 전설 속에 나오는 허유(許由)와 소부(巢父)를 함께 일컫는 것이다. 중국의 요임금이 허유에게 천하를 주겠다고 하자 허유는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하여 영수(이 詩의 배경이 된 강과 그 이름이 같다.) 강물에 귀를 씻었으며, 소부는 허유가 귀를 씻은 더러운 물을 소에게 먹일 수 없다고 소를 끌고 갔다고 한다.
- 3) 관포 : 관중(管仲)과 포숙(鮑叔). 중국 제나라 시대의 정치인들이다. 두 사람의 돈독한 우정을 빗대어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고사성어가 만들어졌다.

307 春日雅會 춘일아회

絲絲楊柳嫩芽青	실실이 늘어진 버들가지 어린 싹은 푸르고
靄靄朝霞地上銘	몽게몽게 아침노을 땅 위에 아로새기네.
耕稼繁忙盈北野	농부들 바쁜 일에 북녘 들 가득하고
儉閑休息望南庭	쉬는 틈 타서 남쪽 마당 바라보네.
今宵微恙非安靜	오늘밤 몸이 불편하니 안정감이 없고
終夜無眠不可寧	이 밤 내내 잠 못 이루어 편안하지 못하네.
祥瑞華筵怡悅裡	상서롭고 화려한 자리 기쁘고 즐거움 속에
吟詩老叟樂忘形	시를 읊는 늙은이는 망형 ¹⁾ 을 즐기네.

1) 망형 : 忘形之友의 뜻으로 쓰였는데, 이는 신분의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 친한 친구라는 말이다.

288 清溪幽香

308 清風雅會 청풍야회

清風嘉友會金堂	清風會 아름다운 벗들 金堂에 모여
耆宿忘形襟度長	덕망 있는 늙은이들 無我境의 襟度도 높다.
主屹峨峨巢父志	높고 높은 主屹山엔 巢父의 志操 깃들고
潁江淨淨許由香	맑고 맑은 潁江물엔 許由의 향기 흐르네.
蝸牛角上爭何事	달팽이 뿔 위에서 무엇을 다툴 것인가
石火光中取豈榮	번개처럼 빠른 세월 어찌 영화를 얻겠는가.
無欲無塵無咎路	욕심 없이 티 없이 허물없이 사는 인생길
如風如水送餘生	바람처럼 물처럼 여생을 보내리라.

309 晨園幽居 신원유거

黛眉山麓玉堂居	대미산 기슭 아래 玉堂에 살고 있어
投老怡愉自適舒	늙을수록 기쁘고 즐겁게 스스로 만족하네.
皓月晶晶留世外	밝은 달은 맑고 밝아 세상 밖에 머물고
清風習習掩庭餘	清風은 솔솔 불어 집안에 가득하네.
河翁和悅石峯筆	신원 ¹⁾ 은 화평하게 石奉의 글씨를 즐기고
騷客閑吟太白書	시인들은 한가롭게 이백의 詩를 읊네.
世路無常朝夕變	세상살이 무상하게 朝夕으로 변해도

如如連理鳳凰廬 그렇고 그렇게 변함없는 부부사랑 봉황의 집이
로세.

1) 신원 : 신원(戔園)은 友人인 河在浩의 號.

310 贈李友眞石 증이우진석

愚井疎蒙尺寸才 愚井은 성글고 어리석어 작은 재주뿐인데
眞如玉石玉人材 眞石은 참말로 玉人의 材木이로다.
瓊章蓋世儒鄉耿 아름다운 문장 세상 덮어 유향을 빛내고
詞賦出倫獨步開 詩와 律은 출중하여 홀로 길을 열었네.
綠水源源江海溢 푸른 물은 끝없이 강과 바다에 넘치고
靑山峻峻月波回 청산은 높고 높아 저 달빛 돌아가네.
悠然萬事休提說 세상만사 그웁하니 여러 말 말고
已老須臾選日杯 이미 늙은 몸 잠시 날 가려 술이나 한잔하세.

311 謝贈方圓書刻 사증방원서각¹⁾

方圓書刻赤誠呈 방원이 서각을 해서 지극한 정성을 주니
愚井魂驚敬慕情 우정은 혼이 놀라서 경모하는 정 한이 없네.

290 清溪幽香

心不關心視不見	마음속에 관심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思無物事聽無聲	생각이 사물에 없으면 들어도 소리가 없네.
紅薇秀雅蒼天耀	붉은 장미는 아름답게 푸른 하늘에 비치고
老叟瓊談碧海盈	방원의 옥 같은 담론 푸른 바다에 가득하네.
管鮑交分如有此	관중과 포숙의 교분이 이보다 더할 손가
孤翁靜夜曉星迎	외로운 늙은이 고요한 밤 새벽 별 맞이하네.

1) 作家가 方圓 李鍾兪에게 서각(視不見, 聽無聲)을 선물로 받은 뒤 이에 감사하며 쓴 시이다.

312 挽李友昌燮 만이우창섭

少時相隔老大通	젊을 때는 서로 멀었는데 늙어서 다시 만나
交義敦深意不窮	의리로 교분 맺어 서로 믿고 뜻이 같았네.
儒佛道書成九達	유교 불교 도교에 사통오달하였고
詩仙酒聖致千風	시선과 주성으로 천 가지 바람을 일으켰네.
耘岡孤咏廣寒在	운강 ¹⁾ 은 홀로 시를 읊으며 월궁전에 살며
五柳共吟夜臺中	오류 선생 ²⁾ 과 함께 저승에서 시를 읊고 있네.
世有多朋誰許與	세상에 벗이 많아도 허여한 사람 몇이나 될까
題詞沾淚望蒼穹	만시를 짓고 나니 눈물겨워 푸른 하늘 바라보네.

- 1) 운강 : 友人 李昌燮의 雅號.
2) 오류 선생 : 도연명.

313 老心 늙음

青春秀逸奈吾尋 청춘시절의 秀逸¹⁾을 내 어찌 찾으려나
耄耋從今物外心 八十 늙은이 이제는 세상살이 욕심 없네.
積累杞憂思戚戚 쌓이고 쌓인 헛된 근심에 마음이 울적하고
踽涼孤枕夢沈沈 외로운 베갯머리 꿈도 어지럽네.
虛勞涉世風吹路 헛된 세상살이 바람 부는 길과 같고
長嘯欠伸月在林 휘파람 불며 기지개 켜니 저 달은 숲속에 밝네.
七皓詞翁頻雅會 일곱 시인들 자주 모여서
老逾娛樂白頭吟 늙음을 즐기며 노래 부르네.

- 1) 秀逸 : 뛰어나게 우수함, 또는 그런 사람.

314 寒蟬秋望 가을 매미

寒蟬抱木俟涼秋 가을 매미 나무 안고 서늘한 가을 기다리고
吞淚無痕玉露求 울어도 눈물 흔적 없이 맑은 이슬 마신다.

292 清溪幽香

碧水淙淙雲掩嶂 푸른 물 졸졸 흐르고 구름은 산봉우리를 가리
는데

庚風騷屑月盈樓 가을바람 선선하게 불고 달빛 樓에 가득하네.

清晨野老豐稔悅 맑은 아침 늙은 農夫 豐年을 기뻐하고

靜夜詞翁詠物浮 고요한 밤 시인은 글짓기 골몰하네.

雅會羽觴濡興醉 아름다운 모임 술잔 속에 흥겨워하며

金蘭士友共唱酬 훌륭한 士友들 詩를 서로 주고받네.

제2편 慕

315 嗚呼終天葬 오호종천장

悲哀步步棹歌多	슬프고 슬픈 걸음걸음 상여 소리도 높으니
惆悵痛哉百事蹉	이 마음 쓰리고 아파 모든 일 허사로다.
呼母懷傷聞也否	어머니 부르며 애통하는 소리 들리는지
鰥夫號哭見如何	홀로 된 이 몸 호곡하는 모습 보이는지.
終天永訣歸依土	이승을 하직하고 한줌 흙으로 돌아가고
恨淚化成溢大河	한스러운 눈물은 큰 강에 넘치네.
空手來而空手去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니
英魂昇陟佛陀和	영혼은 저승에서 부처님 세계인가.

316 看花 꽃을 보며

昨歲聞香喜悅新	작년에는 꽃 냄새 기쁘고도 즐거웠는데
今年花到總傷神	올해는 꽃 피어도 이 마음 아프기 그지없네.
人生正似春來去	인생은 마치 봄이 왔다 봄이 가는 것

294 清溪幽香

鰥處世途百事辛 홀아비 세상살이 백사가 쓰리구나.

317 蘭(1) 난(1)

與君共嗅去歲香 지난해 당신과 함께 난초 향을 즐겼는데
不以無人也不長 당신이 없어도 역시 난은 잘 자라는구려.
正是如今花愈爛 바야흐로 지금 난꽃은 더욱 화려한데
虛房誰有聞蘭香 빈방에 누와 함께 이 향을 맡을까.

318 慕(1) 그리움(1)

晝宵未語爲喑啞 밤낮으로 말할 곳 없으니 병어리 되고
萬事無聊兀坐惆 만사가 귀찮아서 꼼짝 않고 앉아 실심일세.
去歲旣望逾喜樂 작년에는 달 보면 더욱 기쁘고 즐거웠는데
今年盈月却潛愁 금년에는 보름달에도 오히려 시름에 잠기네.
假眠倦夜虛荒裡 밤새도록 잠들지 않아 허황한 가운데
失偶半枕幻影浮 짝 없는 반 베갯머리 환영이 어른거리네.
世路非情悲歎路 세상살이 정 없어 슬피 한탄하는데
可憐孤客夢中遊 불쌍한 외로운 사람 꿈속에서 헤매네.

319 生日有懷 생일유회

昨歲古稀共賀欣	작년 칠십 고희에는 당신과 함께 축하받고 기뻐 는데
今年此日踽涼身	올해 생일에는 나 홀로 외로운 몸 되었네.
薔薇爛漫猶無悅	장미꽃 붉게 피었으나 오히려 기쁨이 없고
蘭草芳香總擾神	난초의 그윽한 향기 정신이 혼란하네.
皓月潛悲思昔我	밝은 달 보며 슬픔에 잠겨 옛날을 생각하고
清風孺憤斷腸人	맑은 바람 불어도 괴로움에 젖어 단장의 아픔이 라네.
佳君忽去今安在	당신은 갑자기 떠나 지금 어디에 있는지
佇想徜徉眺碧旻	이리저리 거닐며 푸른 하늘 바라보네.

320 蘭香 난향

薄暮歸家孤寂裡	해질 무렵 집에 돌아와 외롭고 쓸쓸한데
清芬滿室莫堪當	맑은 향기 집안에 가득 이 마음 설레네.
千愁冷枕相思月	큰 시름 찬 베갯머리 저 달 보고 임 생각
誰有於今共嗅香	지금 누가 있어 저 향을 즐길까.

321 慕(2) 그리움(2)

與汝同夢半百秋	당신과 더불어 오십 년 함께 살아
許多酸苦喜悲流	하고많은 희노애락에 젖었네.
古稀棄我黃泉渡	이 몸 칠십에 날 버리고 저승길 갔으니
往事如雲碧落浮	지난 일들 구름같이 푸른 하늘에 떠있네.

322 待 기다림

歲歲薔薇紅欲爛	해마다 장미꽃은 붉게 피어 난만한데
幽蘭又到滿堂芬	그윽한 난은 올해도 피어 온 집안 향기롭소.
佳君一去今安在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佇想徜徉眺薄雲	그리운 생각 속에 서성거리며 저 하늘 흰 구름 을 바라보네.

323 佳城(1) 무덤(1)

疊天溽暑掩墳塋	흐린 하늘 찌는 더위 무덤을 뒤덮고
白鷺淒涼戀慕鳴	백로도 처량하게 짝 그리워 울며 나네.
我到佳君知也否	당신은 내가 여기 온 것 아는지 모르는지

何時更與惜餘情 언제 다시 만나 못다 한 정을 풀까.

324 慕(3) 그리움(3)

牆裏薔薇憶故人 울타리에 붉은 장미 옛 님은 그리웁고
如何一去不歸津 어찌 한 번 가서 다시 오지 않는가.
中天皓月爲誰照 중천의 밝은 달은 누굴 위해 바치나
花落花開總擾神 꽃이 지고 꽃이 피어도 마음만 어지럽네.

325 佳城(2) 무덤(2)

佳君棄我終天路 당신은 날 버리고 홀로 저승길 갔는데
青塚蒸炎尤切慕 푸른 무덤가 덥고 찌니 더욱 그리워라.
奄覺迂愚踽寂身 문득 깨달으니 어리석고 한없이 쓸쓸한 이 몸
何由急急黃泉渡 무엇이 그리 급하여 황천을 건넜소.

326 佳城(3) 무덤(3)

嗚呼痛歎痛矣哉 아! 가슴 쓰리고 한없는 아픔이여

298 清溪幽香

數句悲辭酒一杯	몇 자 슬픈 말과 더불어 술 한 잔을 올렸소.
只待逝時生幾歲	다만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몇 해나 살런지
此行無念此身哀	세상살이 생각 없으니 이 몸은 슬픔뿐인가.

327 蘭(2) 난(2)

灌蘭憶古人	난에 물 주며 옛 님을 생각하네
馥郁總擾神	그윽한 그 향기 정신이 어쩔어쩔.
君去今安在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如何共嗅芬	어찌 하면 이 향기를 함께 즐길 수 있을까.

328 佳城(4) 무덤(4)

唯在聞松韻	오직 들리는 것은 솔바람 소리뿐인데
我來見也非	내가 와 있음을 보았소 못 보았소.
如何胡不語	어이 하여 반기는 말 한 마디 없소
奄忽却潛悲	문득 부질없이 슬픔에 잠기었네.
孤鶴哀鳴去	외로운 학은 슬피 울며 날아가고
雙燕喜和飛	제비는 쌍쌍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네.
曇天微雨裡	흐린 하늘 부슬비는 오는데

惆惆未知離 실망과 슬픔으로 떠나갈 줄 모르네.

329 戀慕(1) 연모(1)

何爲夫婦契	어이 하여 부부의 연을 맺어
偕老未能持	둘이 함께 오래 살지도 못했네.
嫩葉尤添綠	새로 나온 어린잎은 더욱 푸르름을 더 하고
芳花却染悲	꽃향기 속에서도 문득 슬픔에 물들었네.
一觴愁未解	한 잔 술에 시름은 풀리지 않고
重酌醉吟時	거듭 마시며 취해서 시를 읊고 있네.
日夕花間月	해는 저서 저 달은 꽃 속에서 노는데
誰言皎皎熙	그 누가 달 밝다고 말하나.

330 戀慕(2) 연모(2)

五夜未能眠	오경 새벽까지 잠 못 이루고
月明憶故人	밝은 달 쳐다보며 옛 님을 그리네.
窮愁悽斷裡	궁한 시름 처량 단장 속에
熒獨夢中身	홀로 살며 꿈속을 헤매인다.

300 清溪幽香

流別今安在	그대는 어디 가고 보이지 않는가
虛腔豈堪填	비어 있는 이내 가슴 무엇으로 채울 수 있나.
心隨妄想搖	마음은 부질없이 망상에 젖어들고
戀慕鼻頭辛	당신 그리움에 콧등이 쓰리네.

331 慕(4) 그리움(4)

盡日彷徨戀慕心	하루 종일 그리는 마음에 이리저리 헤매고
看花逢喜却呻吟	꽃을 보고 기쁜 일에도 오히려 신음하네.
虛荒厭世恩恩去	허황된 세상이 싫어 그리 급히 저승 갔소
積累餘情益益深	쌓이고 쌓인 그리는 정 더욱 더 깊어 가네.
朦月寒宵唯索漠	흐린 달 추운 밤 그저 삭막하기만 하고
朔風掃地愈愁音	북풍이 땅을 쓸고 가니 시름만 더욱 더하네.
時時不想無一日	때때로 생각하지 않는 날 하루도 없으니
誰與踽涼解惆襟	누구와 더불어 외로운 이 몸 쓸쓸함을 풀까.

332 慕(5) 그리움(5)

人人勿念不歸人	사람마다 다시 오지 못할 사람 잊으라지만
---------	------------------------

日日逾加戀慕新	날마다 더욱 그리는 마음 깊어만 가네.
夜夜寒衾蕭索夢	밤마다 외로운 이불 속 쓸쓸한 꿈속이고
廖廖孤枕踽涼身	외로운 베갯머리 홀로 사는 이 몸.
秋霜冬雪頭眉雪	무심한 세월 속에 백발은 더하고
皓月中天月色昏	밝은 달 중천에 있으나 달빛은 흐리네.
沾盡羅巾無盡淚	수건이 다 젖어도 무한한 눈물이고
與君同穴欲灰塵	당신과 함께 한 무덤의 재가 되고 싶소.

333 慕(6) 그리움(6)

鰥孤世路夢中縈	홀로 사는 세상살이 꿈결같이 얽히고
覓影何爲鏡裡聲	당신 찾아 헤메는데 어이해 거울 속 소리 들리나.
失偶虛房無可忍	짝이 없는 빈방 참을 길 없고
思君兀坐每三更	당신 생각에 홀로 앉아 매일 밤 삼경일세.
浮雲碧落東西去	뜬구름은 저 하늘을 동서로 오가고
夜月疎窓熟照明	저 달은 성근 창가에서 누구 위해 밝은가.
戀慕悲悼垂作淚	그리움과 슬픔에 젖어 눈물 흘리며
餘情未伸待來生	못다 한 남은 정 저승에서 풀까.

제3편 春夏秋冬

334 春來 봄이 왔네

東風習習嫩芽香	봄바람 솔솔 불어 어린 새싹 향기롭고
皓月皤皤倒影長	밝은 달이 교교하니 그림자 길어지네.
人世一生非百歲	인간 세상 백 살도 못살지만
乾坤無恙定時芳	우주만물은 때가 되면 향기롭네.

335 早春(1) 이른 봄(1)

雪裡潁江津	눈보라 훑날리는 영강 나루
寒梅已着春	매화에 봄이 먼저 찾아왔네.
青山鳴好鳥	청산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綠水去無言	녹수는 말없이 흐르는구나.
聞見先天事	지나간 옛 일 듣고 보니
榮名辱世塵	영화로운 이름은 이 세상을 욕되게 하였네.
如今尤膝冷	이제는 늙어 무릎이 차고 시린데

琴書穩送年 거문고와 책 속에서 평온하게 세월 보내리.

336 早春(2) 이른 봄(2)

梅花半笑江山舞	매화꽃 살짝 피니 강산도 춤을 추고
好鳥一聲錦地新	참새도 지저귀니 세상 더욱 아름답다.
雲雀高翔啼碧落	종달새 높이 날아 하늘을 울어대고
烟霞召我賦吟親	아지랑이 나를 불러 詩를 읊게 만드네.

337 早春(3) 이른 봄(3)

氣轉迎元節	천기는 회전하여 봄철 맞이하니
時來萬物新	때가 되어 만물이 새로워지네.
光陰無老少	광음에는 노소가 없건마는
歲月使衰身	세월은 나를 늙게 하네.

338 早春(4) 이른 봄(4)

紛紛微雪潁江津	어지럽게 흩날리는 눈 속의 영강나루
梅子梢頭已着春	매화가지 끝에 봄이 먼저 찾아 들었네.
綠水淙淙風浪寂	푸른 물결 줄줄이며 풍랑도 고요하고
靑山處處鳥聲新	푸른 산 곳곳에는 새소리도 새롭네.
野翁隱逸吟詩賦	산골에 숨은 늙은이 시를 읊으며 즐기고
五友恬虛舉酒親	五友들 마음 비우고 술을 즐기네.
日煖和順尤喜悅	날씨 온화하고 순조로우니 더욱 즐거운데
從今老愈養天真	이제 많이 늙었으니 天真 속에 살리라.

339 早春(5) 이른 봄(5)

老健春寒不可期	늙은이 건강과 봄 추위 오래 계속 되지 않고
飄飄皓雪透麻衣	흩날리는 눈보라 옷 속에 스며드네.
梅花半笑江山少	매화꽃 살짝 피니 온 천지가 기쁘고
好鳥清聲萬象肥	좋은 새 맑은 소리 삼라만상이 살찌네.
東風瑟瑟弱弱雨	봄바람 슬슬 불고 부슬비 오는데
花葉紛紛步步飛	꽃잎은 어지럽게 걸음걸음 흩날리네.
未百人間唯醉舞	인간은 백년도 못 살면서 그저 취해 춤추고

少壯何時奈老依 젊음은 언제인가 늙음을 어이할꼬.

340 春雪 춘설

立春來到午猶寒	입춘이 지났어도 낮에는 아직 춥고
倏忽天華步步難	갑자기 눈 내리니 걸음걸음 조심되네.
犬走梅花韶影盡	개들이 뛰노니 발자국 매화 같고
鷄行竹葉妙痕看	닭들이 지나가니 대나무 잎 그려지네.
耕耘弄月惟豐願	밭갈이에 밝은 달 즐기니 풍년들기 바라고
釣水吟風也裕寬	낚시하며 시를 읊으니 이 내 마음 너그럽네.
昨夜蕭條獨醉	어젯밤 쓸쓸하여 홀로 술에 취했는데
今朝瑞日客心安	오늘 아침 밝은 햇살 이 마음 평안하다.

341 春庭 춘정

楊柳絲絲嫩綠枝	버드나무 실실이 새싹이 파릇하고
庭梅点点咲紅時	뜰앞의 매화는 점점이 붉어있네.
騷翁弄月臥仙榻	시인은 글을 읊으며 신선의 의자 ¹⁾ 에 누웠고
野叟嘉宴傾酒卮	농부들 잔치 벌여 술잔을 기울이네.

306 清溪幽香

木鐸天連成解脫 스님의 목탁소리 해탈에 이르렀고
金聲玉振迓靈智 종소리 조화로워 영묘한 지혜²⁾를 맞이하네.
東風造作花爛漫 봄바람 불어와서 꽃들은 난만해도
潦倒衰微漸益耆 늙은 몸 쇠미하니 더욱 처량하여라.

1) 신선의 의자 : 仙榻. 참선을 할 때 앉는 의자.

2) 영묘한 지혜 : 靈智.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지혜.

342 春梅 봄 매화

昨夜東風爽朗吹 어젯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더니
今晨和雨玉條移 오늘 새벽 보슬비 가지마다 옥구슬 옮겼네.
氷肌半笑江山笑 매화꽃 살짝 피니 강산도 환하게 웃고
好鳥一聲天地肥 예쁜 새 울음 소리에 천지가 살이 찌네.
疎影橫斜微月色 성근 그림자 비스듬히 달빛도 희미한데
暗香浮動澗花枝 그윽한 향기 감돌아 꽃가지 적시네.
詞翁興致依傾酒 늙은 詩客 興이 나서 술잔 기울이며
翫賞春梅詠賦詩 봄 매화 감상하며 시 한 수 읊어보네.

343 悅梅 매화는 즐거워

野梅半笑江山笑	들녘에 홀로 핀 매화 강산도 함께 즐겁고
不以無人也不芳	사람들이 없다 해도 스스로 향기롭네.
好鳥一聲天地少	새들이 지저귀니 천지도 기뻐하고
與君共嗅俗塵忘	그대와 함께 맡은 향기 티끌 세상 잊었네.

344 春耕 봄갈이

山河陰散濕雲深	산하는 음침하고 습한 구름 자욱한데
倏忽曇天日脚侵	흐린 하늘 갑자기 햇살이 비치네.
僵僂野翁忙拭汗	등굽은 농부는 흐르는 땀 닦기 바쁘고
嫩苗投地插如針	어린 모 심은 논은 바늘을 꽂은 듯하네.

345 春情 춘정

習習東風悅	술술 부는 봄바람 즐겁고
明明皓月窓	밝고 밝은 저 달은 사창을 비치네.
絲絲楊柳舞	실실이 늘어진 버들가지 춤추고
点点杜鵑紅	곳곳에 피어난 진달래 강산이 붉구나.

308 清溪幽香

346 春景 춘경

楊柳嫩芽腰膝舞	버들가지 어린 새싹은 덩실덩실 춤추고
連翹爛漫映蒼天	개나리 활짝 피어 푸른 하늘에 비치네.
野翁稼穡濡沾汗	늙은이 농사일에 바빠 땀에 젖어 있고
世路無常歲月連	세상살이 무상하게 세월은 흘러가네.

347 春雨 봄비

嫩葉枝頭暮雨霏	어린 잎 피어난 나뭇가지에 저녁 비 내리니
覺來淺綠綠衣肥	볼수록 푸르름 더하네.
森羅萬象蘇生裡	삼라만상은 되살아나는데
將可奈何耄老依	이 늙은이는 어디에 의지할꼬.

348 春心 춘심

煙景山河皓月隣	아지랑이 가득한 산하에 밝은 달 비치고
東風吹作百花新	봄바람 살랑살랑 꽃들이 새롭네.
踽涼寂寞安堪解	홀로 시는 이 몸 쓸쓸함은 풀 길 없고
奄覺春來不似春	문득 봄은 왔어도 봄 같지 않구나.

349 春風 봄바람

倏忽梅花半笑時	갑자기 매화가 조금 피기 시작할 무렵
東風吹作有誰知	봄바람이 불었음을 누가 알리오.
山禽喧噪濡情戀	산새들 지저귀며 그리는 정에 젖어들고
野叟吟弄把酒卮	늙은이는 시를 감상하며 술잔을 기울이네.
世路無常如水漾	세상살이 무상하여 출렁이는 물과 같고
人心虛負若雲移	인심은 부질없어 구름 가는 것과 같네.
花香爛漫乾坤搖	꽃향기 무르녹아 천지 만물이 물드는데
耆老逢春亦好期	팔십 늙은이도 봄은 역시 아름답구나.

350 春興(1) 춘흥(1)

白髮如絲日日新	백발은 실같이 나날이 더해가는데
紛然幻想到花津	어지러운 환상 속에 꽃핀 나루에 이르렀네.
東風爽朗留天地	봄바람은 상쾌하게 천지에 머물고
皓月幽情守四隣	밝은 달은 그윽하게 사방을 지키네.
愚叟詞章尤暗暗	愚井의 글은 갈수록 흐릿한데
群翁麗藻愈彬彬	여러 선비들 아름다운 글은 더욱 빛이 나네.
楊枝嫩綠嬋妍舞	버들가지 어린새싹 곱게 곱게 춤추고

310 清溪幽香

春興陶陶酒意眞 春興이 도도하니 술 생각 간절하네.

351 春興(2) 춘흥(2)

嫩芽處處聽春音	새싹 나니 곳곳에서 봄 소리 들리고
烟霧濛濛緩步尋	안개 피어올라 느린 걸음 봄 소식 찾네.
點點桃花流水岸	복사꽃 점점이 물기슭 따라 흐르고
絲絲楊柳綠雲林	버드나무 실실이 푸른 구름 숲일세.
山禽喧囂濡情戀	산새들 지저귀며 그리운 정 나누고
野叟吟哦賞酒深	늙은이는 시 읊으며 술맛을 즐기네.
華爛薰風芳草裡	꽃은 피고 남풍 불고 향기로운 풀 속에서
無聊涉世樂天心	무료한 세상살이에도 천심을 즐기네.

352 和春 화창한 봄

飛軒華榭會同庚	화려한 정자마루 벗님네 자리하고
騷友瓊筵喜悅明	시 읊고 글씨 잔치 그 기쁨 그지없다.
楊柳絲絲妍妙舞	수양버들 율율이 바람 받아 고운 춤
連翹點點麗韶程	개나리 모닥모닥 밝은 얼굴 더 곱다.

陶然賞酒涼風起	마시는 한 잔 술에 시원한 바람일고
興醉吟詩皓月迎	흥에 겨워 읊는 시 밝은 달 맞이하네.
僅見花開花又落	피는 꽃 보았는가 낙화도 보았으니
人生正似也春情	덧없는 인생살이 한마당 춘정일세.

353 愁雨 시름겨운 비

春雨霏微侵	봄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窮愁愈益深	답답한 시름 더욱 깊구나.
須無相對話	서로 말하는 이도 없으니
盡日獨爲瘡	하루 종일 병어리 되었네.

354 春日閒居 한가한 봄날

寒梅郁郁惠風和	매화 향기 드높아 화창한 바람 불고
楊柳絲絲軟綠波	버드나무 실실이 연록의 물결일세.
花信滿堂撩酒興	꽃 소식 집안 가득하니 주흥을 부추기고
禽聲到耳澍詩魔	새소리 귀에 들리니 시마에 젖었네.
佇思屈指知音少	조용히 손꼽아 보니 벗님들 적어지고

312 清溪幽香

潦倒隨身老病多	쇠미한 몸 따라 노환은 많아졌네.
月白輝煌今夕可	달은 밝아 휘황하니 오늘 밤 아름다운데
世間往事與雲過	세상의 지난 일들 구름 따라 흘러가네.

355 晚春郊行 늦봄 나들이

日暖和風春色妍	따뜻하고 바람 화창하니 춘색이 아름답고
韶光嫩碧映簷天	아름다운 어린 새싹 하늘에 비치네.
斜陽返景遲遲暮	석양의 햇별은 더디게 저물고
黃鳥相飛戀戀親	피꼬리 서로 날며 사랑을 주고받네.
一枕黑恬休萬感	베개 베고 낮잠 자니 만감이 없어지고
三杯軟飽解千塵	석잔 술 마시니 세상 티끌 멀어지네.
無情歲月虛荒路	무정한 세월은 허황한 길인데
老愈斂容襟帶端	늙을수록 단정하고 의대에 마음쓰네.

356 春江 봄 강

蕭瑟寒村夕照明	쓸쓸한 마을에 석양 빛 아름답고.
潺湲江畔碧波生	잔잔한 강기슭에는 푸른 파도 일렁이네

無端昨夜東風起	어젯밤 부질없이 봄바람 불어
奄忽今晨玉骨英	오늘 아침 문득 매화 꽃 피었네.
耆老田夫濡稼穡	늙은 농부들은 농사일에 바쁘고
靑衿儒士澍詩情	젊은 선비들은 시정에 젖었네.
白魚潑刺杯中物	온갖 고기 팔팔 뛰고 술 생각 간절한데
楊柳新芽嫩着聲	버드나무 어린 싹에도 봄 소식이 왔구나.

357 楊柳清江 버들 늘어진 맑은 강

雨歇長堤草色濃	비 개인 긴 제방엔 풀색도 짙은데
絲絲楊柳嫩芽逢	실버들 가지마다 어린 새싹 보이네.
靑山屹屹盈明月	청산에 높고 높게 보름달은 밝은데
綠水潺潺映碧峰	綠水는 잔잔하여 산봉우리 비치네.
野叟迎春忙稼穡	농부는 봄을 맞아 농사일 바쁘고
詞翁嗜酒笑顏容	詩客은 술을 즐겨 웃음꽃 피었네.
白魚潑刺沙汀岸	온갖 고기 발랄하게 강 기슭에서 뛰놀고
夕照金波迓暮鍾	석양의 금물결 저녁 종 맞이하네.

358 送殘春 봄을 보내며

春光復吐綠陰新	봄별은 綠陰을 다시 吐해 새롭고
楊柳絲絲嫩碧親	버들은 실가지마다 새싹이 푸르렀네.
雲去雲來風靜渚	구름은 가고 오고 물가엔 바람 고요한데
花開花落月盈津	꽃은 피고 지고 나룻가엔 달빛 가득하네.
野翁稼穡濡流汗	농부는 농사일 바빠 땀에 젖어 흐르고
騷客吟詩嘆世塵	詩客은 詩 읊어 세상살이 탄식하네.
青帝無情無語渡	봄의 神은 無情하게 말없이 지나가고
何須節侯往頻頻	계절은 어찌하여 자주 자주 바뀌나.

359 清明 청명

滿面薰風爽氣充	봄바람 슬슬 얼굴에 스치니 상쾌한 기분
綠陰江嶂杜鵑紅	녹음 짙은 산하에는 진달래 붉게 피고.
採春妍姿銷虛想	나물 캐는 아낙네는 세상 시름 녹이네
歡喜清明瑞世融	기쁜 계절 청명에 상스러운 세상이 밝네.

360 五月禮讚 오월에찬

松籟涼涼拂面來	솔바람 선선히 얼굴을 스치고
白雲点点眼前回	흰 구름 점점이 눈앞에 어리네.
靑山影裡岩間水	청산 속에 푸른 물결 흐르고
黃鳥聲中金谷杯	피꼬리 울음 속에 금곡의 술잔 기울이네.
風調雨順登稔兆	바람과 비 순조로우니 풍년 들 조짐이고
花開花落歲華催	꽃이 피고 꽃이 지니 세월을 재촉하네.
綠陰芳草映蒼昊	녹음 방초는 푸른 하늘에 비치고
季節女生豪快哉	계절의 여왕 오월은 호쾌하여라.

361 新綠(1) 신록(1)

花爛春風眺碧峰	꽃 좋다 봄바람에 푸른 산 바라보며
芬芳嫩綠綺羅容	나뭇잎 싱그럽다 그 모습 아름답다.
江河旦暮靑嵐濕	강물엔 아침저녁 푸른 남기 축축하고
山野夕陽紫靄濃	해질녘 산과 들엔 보랏빛 노을 짙다.
賞月陶然夢裡送	우두커니 달 보니 지난 세월 꿈이런가
吟詩興醉酒中逢	시흥은 도도하여 취중에 일어나네.
老軀猶健尋故友	늙은 몸 건재하니 옛 친구 찾아보고

316 清溪幽香

翠陰佇想一竹筵 그늘에 발 멈추고 지팡이 세워보네.

362 新綠(2) 신록(2)

和暖東風嫩綠英	따뜻한 봄바람에 어린 새싹 아름답고
野翁汗背勉春耕	농부는 땀에 젖어 봄갈이로 바쁘네.
杜鵑点点紅粧搖	철쭉꽃 점점이 붉게 단장 곱게 하고
楊柳絲絲軟舞迎	버드나무 실실이 부드럽게 춤추네.
媼媼恰然愉福興	할미는 기쁘게 행복에 겨웠고
老儒浩氣澍詩情	늙은 선비 호기롭게 시정에 젖었네.
催歸碧嶂啼天暮	소쩍새는 푸른 산속 해 진다고 지저귀고
喚起窓邊曉日明	때까치는 창가에서 날 샌다고 울어대네.

363 吟萬化方暢 만화방창

風和日暖鳥聲喧	바람 좋고 따뜻하니 새 소리 시끄럽고
萬物生長四海安	만물이 생장하니 세상이 평안하네.
垂柳枝枝炫嫩碧	수양버들 가지마다 어린 새싹 돌아나고
白雲点点映青山	흰 구름 점점이 푸른 산에 비치네.

吟詩韻士顏施樂 시 읊는 선비는 미소 지어 즐겁고
歌舞佳人酒熟歡 가무하는 여인은 술 익는 것이 반갑네.
花落花開春草綠 꽃 지고 꽃 피는 봄풀은 푸르르고
清宵皓月夢中看 맑은 밤 밝은 달은 꿈속에서 바라보네.

364 新綠閑居 새봄에 한가하여

楊柳絲絲嫩葉陽 버드나무 실실이 어린 싹이 빛나고
金桃点点映紅粧 복숭아꽃 점점이 붉게 피었네.
花開結實春奚管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봄이 어찌 막으며
雲去雲來岫不防 구름 가고 오는 것은 산도 막지 못하네.
賢女敬夫興世道. 어진 여자 남편 공경 세상도리 일으키고
癡人畏婦廢綱常 어리석은 자 아내 두려워 三綱五倫 허물었네.
東風瑟瑟幽情澍 봄바람 솔솔 불어 그윽한 정에 젖어들고
世事恬安與綠香 세상살이 편안하여 푸른 향기 즐기네.

365 伏熱 복더위

熱氣充天復上樓 열기가 하늘에 가득 차서 한층 더 오르고

318 清溪幽香

山河蒸溽轉悠悠	산과 강 찌고 더위도 마음 오히려 한가롭네.
炎風掩地蟬啼裡	뜨거운 바람 땅을 덮고 매미들 우는 소리
暑濕曇天雁語浮	덥고 습한 흐린 하늘 기러기 울며 날아가네.
少壯幾時渾似夢	젊은 시절 언제였던가 모두가 꿈결같고
老翁自古自多愁	늙은이는 예부터 스스로 시름이 많다네.
森羅萬象無平靜	삼라만상은 평안하고 고요함이 없으니
小小人間豈可收	작고 작은 인간들이 어찌 더위를 거둘 소냐.

366 庚炎 삼복더위

泛舟戀慕皺波生	배 띄우고 사랑 속삭이니 물결이 주름지고
蒸熱湖邊綠陰明	찌는 더위 호숫가에 녹음이 아름답다.
蝴蝶双双愉悅舞	나비는 쌍쌍이 즐겁게 춤추고
槿花灼灼也清榮	무궁화 꽃 활짝 피어 맑게 빛나네.
少童喜樂遊狂噪	아이들 즐거움에 떠들며 뛰어놀고
野叟偷閑坐隱聲	늙은이 한가로이 바둑에 골몰하네.
溽暑厭憎傾白酒	찌는 더위 싫고 미워 막걸리 술잔 기울이니
陶然詩興澍扇情	도연 ¹⁾ 한 시흥 속에 부채 바람 즐기네.

1) 도연 : 술이 거나하게 취한 모습이나 상태.

367 避暑 피서

喧噪群蟬愈暑炎	시끄럽게 우는 매미 찌는 더위 더욱 짜증스럽고
茫然午睡是和謙	멍하다 낮잠 자니 더위 잊고 평안하네.
爽風披拂窺書室	서늘한 바람 솔솔 불어 서실에 스며들고
朦月寂寥掛暮簷	흐린 달은 고요히 처마 끝에 걸렸네.
半裸衣裳範節亂	옷 벗고 지내면 범절은 문란해지니
不隨古老禮儀嚴	이를 따르지 않는 늙은이는 예의를 지키기 위함 일세.
高吟恬靜安分裡	높은 소리 시 읊으며 고요하고 즐겁게 분수대로 살아
唯有扇涼我有占	오직 난 홀로 부채 바람이 제일일세.

368 盛夏卽事 성하즉사

江巒蒸溽日光斜	강산에 찌는 더위, 해는 서산에 저도
拭汗紛忙盛夏華	땀을 닦기 바쁘니 무더위 더욱 성해라.
熱氣充天夢寐苦	뜨거운 기운 하늘 가득 꿈자리 괴롭고
炎風掩地納涼遐	타는 바람, 땅을 덮어 납량은 아직 멀었네.
野翁暑濕留山寺	늙은이는 덥고 더위 시원한 산사에 머물고

320 清溪幽香

詞客咏吟訪酒家	시인은 시를 읊으며 술집을 찾아드네.
恬靜幽居忘世事	마음 평안히 숨어살면 세상사를 잊을 것
殘年自愛願餐加	남은 세월 자중자에 건강하기 바라네.

369 天中佳節 단오

堤北堤南盡綠楊	긴 뚝의 남북으로 푸른 버드나무 우거지고
百花爛漫眼前望	백화는 난만하여 눈앞에 가득하네.
佳人秀雅鞦韆席	가인들의 아름다운 자태 그네를 즐기고
壯士豪放脚戲場	장사들의 호방한 기상 씨름판 벌였네.
碧水清流迎石翠	푸른 물결 맑게 흘러 들에는 이끼 푸르르고
青山綺麗澍菖香	비단 같은 청산은 창포향기에 젖었네.
詞翁守月盈庭裡	시인은 뜰 가득한 밝은 달을 玩賞하다가
倏忽詩魔樂賦章	갑자기 詩魔에 홀려 글짓기에 골몰하네.

370 海 바다

夏海渺茫皺日陽	여름 바다 아득히 석양빛에 주름지고
蒼龍雅影映滄洋	소나무 그림자는 푸른 바다 위에 비치네.

遐觀詞客濡詩興 시인은 멀리 바라보고 시흥에 젖었는데
相近相親白鳥翔 이리저리 멀리 가깝게 백조가 날아 도네.

371 黎明 새벽

眉月掛東穹 초승달은 동녘 하늘에 솟고
少焉曙景紅 조금 있으니 새벽하늘 붉구나.
矯頭而遠眺 머리 들어 멀리 바라보니
冠岳日昇明 밝은 해가 관악산을 비치네.

372 旅窓 여창

斜陽返景綺雲鮮 지는 햇살 되비치어 비단 구름 아름답고
主屹連峰樹石彬 주흘산 연봉은 수석이 아름답네.
綠水淙潺芳草茂 푸른 물결 잔잔하고 방초도 무성한데
落霞紅紫雅松新 저녁 노을 붉게 물들고 소나무 더욱 푸르네.
蕭寂愁人望北斗 쓸쓸히 시름에 잠긴 사람 북두칠성 바라보고
蒙然弦月釣西山 한 조각 흐린 달은 서산머리 걸렸네.
幾時還邑迎耆宿 어느 때 고향에 와서 덕망 있게 살런지

322 清溪幽香

明滅間燈又一村 명멸하는 등불 속에 또 한 마을 지나가네.

373 新涼 신량

暑濕蟬啼夕照微 습기찬 더위에 매미 울고 석양도 희미한데
夜蚊寧死有聲飛 저녁 모기 잡힐 줄 모르고 소리내며 날아든다.
風霜繞亂人非願 바람과 서리 요란함은 사람이 원하지 않고
雨露和順世所希 비와 이슬 고르기를 세상이 바라네.
日午炎天梁稻稔 한낮 뜨거운 햇볕 오곡이 무르익고
清宵爽節松栢肥 맑은 밤 서늘한 계절 소나무 잣나무 살찌네.
秋扇不肯將迂遠 가을 부채는 머지않아 멀어질 것이고
皓月雁陳世與歸 밝은 달밤 기러기 떼 세월과 함께 돌아가네.

374 新涼入郊 신량입교

翠音芳草鳥聲和 녹음 방초 속에 새소리 아름답고
溽暑蟬啼夕照多 찌는 더위 매미 우는데 석양이 찾아 왔네.
簫瑟清風蛩喧擾 쓸쓸히 부는 바람 귀뚜라리 소리 요란하고
渺茫曠野雁鳴過 아득히 먼 들판에 기러기 울며 지나가네.

樵童見日歸山墅	나무하던 아이는 해 저물어 돌아가고
騷客望霄待素娥	시인은 하늘 보며 달 뜨기를 기다리네.
皓月白雲晴也好	밝은 달 흰 구름 맑게 개일수록 좋고
幽人緩步夜如何	그리운 임 느릿느릿 달 보고 거니는 밤이여.

375 清涼 청량

白露涼風雁北還	이슬 내리고 서늘한 바람에 기러기는 북으로 돌아가고
儒翁最愛見青山	선비는 푸른 산 보기를 가장 즐겨워하네.
紫霞掩地鎮南峙	진남 언덕에는 붉은 노을 몽게몽게
爽氣充天鳥嶺關	조령 관문 하늘에는 상쾌한 기운 가득하네.
日暮蒼穹詩興起	해는 저서 푸른 하늘 바라보니 시흥이 일고
夜深皓月詠吟間	밤은 깊어 밝은 달 앞에 시를 짓네.
黃花爛漫芳香裡	국화 만발하여 향기로운 속에
野叟年豐喜悅顏	농부는 풍년을 홀로 즐기네.

324 清溪幽香

376 秋聲(1) 추성(1)

天地有常景色濃	천지는 변함없이 가을 경치 짙은데
蠡穹烟霧嶂河濛	흐린 하늘 안개 속에 강산도 흐리네.
紛縈涉世鄉關暮	엷히고설킨 세상살이 고향 길도 저무는데
主屹連峰露葉紅	주홀산 연봉에는 서리 맞은 단풍잎이 붉네.

377 秋聲(2) 추성(2)

蒼空綠水白雲清	푸른 하늘 푸른 물 흰 구름 맑고
皓月庚風瑞氣盈	밝은 달 가을바람에 좋은 기운 가득하네.
蟋蟀籬根晨夕囀	울타리 밑 귀뚜라미 아침저녁 울어대고
催歸碧嶂日西鳴	두견새 푸른 산에서 해진다고 지저귀네.
青衿雅士汪洋志	젊은 선비 넓고 큰 뜻을 지녔는데
白髮詞翁潦倒縈	백발 늙은 시인은 시들어 엷히었네.
天道幽然何事悶	천리는 그윽한데 무슨 일을 번민하며
梧桐一葉有無情	오동 한 잎 떨어지니 정이야 있고 없고.

378 秋聲(3) 추성(3)

十八公風拂面來	솔바람 얼굴을 스치고
黃絹幼婦自雲開	절묘한 흰 구름 보이네.
杜鵑碧嶂催歸啼	두견새 푸른 산에서 어서 가라 지저귀고
促織東籬淒切啼	귀뚜라미 동쪽 울타리에서 처절하게 우네.
野老怡愉豐稔酒	농부는 기쁘고 즐겁게 풍년 술 들고
詞翁佇想弄吟杯	시인은 거닐면서 시를 읊어 술잔 기울이네.
晴宵爽爽銀河動	맑은 밤 선선한데 은하수 움직이고
皓月煌煌雁陣回	밝은 달 황황한데 기러기떼 돌아가네.

379 潁江秋色 영강의 가을빛

靜夜庚風騷屑吹	고요한 밤 가을바람은 신선하게 불고
澄波皺月釣魚時	맑은 물결에 주름진 달빛 물고기 낚을 때.
登樓嘉稻黃金色	다락에 올라 바라보니 벼 이삭 황금빛이요
碧嶂錦楓玉露枝	높은 산 단풍은 옥구슬 가지일세.
天道無常無我見	天道の 무상함을 나는 보지 못하고
人生眞僞有誰知	인생의 옳고 그름을 누가 알 것인가.
河邊野菊年年艷	강가의 들국화는 해마다 향기로운데

326 清溪幽香

綠水汪洋太古詩 푸른 물결 출렁출렁 詩와 더불어 흘러가네.

380 聞喜秋景(1) 문경의 가을경치(1)

旻天萬里開	가을 하늘 멀리멀리 맑게 개이고
楓葉綺羅臺	단풍잎은 비단같이 아롱지네.
雁鴻天外去	기러기 떼 하늘 밖으로 날아가고
稔歲眼前來	풍년 정경 눈앞에 가득하네.
風爽梨花酒	상쾌한 바람 속에 이화주를 즐기고
月明菊水杯	달 밝은 밤에 국화술을 벗하네.
松老樓玄鶴	늙은 소나무에 현학이 깃드니
冠山也快哉	문경 땅은 정말로 좋구나.

381 聞喜秋景(2) 문경의 가을경치(2)

鳥嶺爽風碧落開	조령에 상쾌한 바람 불어 푸른 하늘 드높고
霜楓秋色綺羅臺	서리 맞은 단풍 경치 비단같이 아름답네.
月明醉興梨花酒	달은 밝아 흥에 취해 이화주를 즐기고
夜暗瓊談菊水杯	어두운 밤 맑은 담론 국수를 마시네.

征雁向南天外去	기러기는 저 멀리 하늘 밖으로 날아가고
黃波稔歲眼前來	오곡은 풍년 들어 이 마음 흡족하네.
蒼松秀雅棲玄鶴	수려하고 아름다운 소나무에는 현학이 살고
祥瑞冠山也快哉	상서로운 문경 땅은 참말로 상쾌하도다.

382 石村湖 석촌호

蒼極霜楓映石村	푸른 하늘과 서리 맞은 단풍 석촌호에 비치고
秋風蕭寂浪波翻	소소한 가을바람 물결이 일렁이네.
心懷惆悵佳君慕	이 내 마음 님 그리워 쓸쓸한데
佇想徜徉日欲昏	고요히 호숫가 거닐면서 석양을 맞이하네.

383 秋月(1) 가을 달(1)

秋宵月色青	가을밤 월색은 푸르른데
緩步影隨形	느린 걸음걸음 그림자 따라오네.
樓外亂蛩噪	집밖에는 귀뚜라미 소리 어지럽고
地邊野菊馨	뜰에는 들국화 향기롭네.
淵明金谷醉	도연명은 금곡주에 취했고

328 清溪幽香

太白杜康醒	이태백은 두강주를 먹고도 깨어 있네.
稔歲怡愉裡	풍년들어 기쁘고 즐거운데
金波滿雁汀	금빛물결은 안정 ¹⁾ 에 가득하네.

1) 안정 : 雁汀. 기러기 노는 물가.

384 秋月 (2) 가을 달(2)

綠水清江月影眞	푸른 물결 맑은 강에 달그림자 어른거리고
高秋爽氣自涼新	서늘한 가을 상쾌한 기분 스스로 새롭네.
幽然碧落抱諸象	그윽한 저 하늘은 삼라만상을 끌어안고
皎潔氷輪守四隣	밝고 맑은 저 달은 사방천지 비추네.
未幾雁陣羽向北	머지않아 기러기 떼 북으로 날아가고
當今詞客首如銀	이 늙은 시인의 머리 또한 백발 되었네.
黃金野景豐饒裡	황금 물결 들판에 풍년이 들고
吟咏長嘯我欠伸	음풍영월 휘파람 불며 두 팔 들고 기지개 펴네.

385 秋月(3) 가을 달(3)

潁水韶光萬古青	영강의 고운 풍광 만고에 푸르르니
冠山勝景見眞形	문경의 승경이 참모습을 보이네.
氷輪皎潔孤松秀	저 달은 밝고 맑으니 반송 더욱 아름답고
玉露輝煌衆草馨	옥 같은 이슬 반짝이니 풀들이 향기롭네.
騷客登樓詩興賦	시인들 樓에 올라 詩興이 도도한데
涼風掃地酒談醒	시원한 바람 땅을 쓸어 술자리 흥겨웁다.
晴旻旅雁長鳴去	가을 하늘 저 기러기 길게 울며 날아가고
霜菊幽香澍月汀	서리 맞은 국화향기 달 비친 물가에 젖었네.

386 洛江秋色(1) 낙강추색(1)

滿天爽氣雁聲長	상쾌한 기운 하늘에 가득한데 기러기 우는 소리 처량하고
洛水溶溶皴日光	낙강 물 넘실넘실 주름진 햇살이 빛나네.
暑退夏衣臨曉薄	철 지난 여름옷은 새벽녘에는 싸늘하고
淸華黃菊入簷香	맑고 화사한 국화 향기 처마 끝에 스며드네.
漁翁靜釣孤舟月	고기잡이하는 외로운 늙은이 조각배에서 달을 낚시질하고

330 清溪幽香

野叟吟詩兩鬢霜 시를 읊는 저 늙은이 구레나룻 서리 같구나.
紅葉西風蕭瑟裡 단풍잎에 가을바람 불어 쓸쓸한데
茫然愁客顧家鄉 망연히 시름 젖은 길손 고향을 뒤돌아보네.

387 洛江秋色(2) 낙강추색(2)

恬靜披書好古文 평안히 고요하게 책을 펴서 옛글을 사랑하고
旻天爽氣染鮮雲 가을하늘 상쾌한 기운 맑은 구름 물들이네.
靑山寂寂歸鴻語 청산은 적적한데 기러기 울며 날아가고
碧水悠悠宿鷺群 푸른 물은 유유히 흘러 백로 무리 잠자네.
曙裡錦楓朝露澍 새벽녘 오색 단풍은 아침 이슬에 젖고
黃昏顰月夜香聞 황혼의 저 달은 주름진 물결에 비치니 밤 향기
 그윽하네.
時來野菊華奢發 때가 되면 들국화 화사하게 피는데
不以無人也自芬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그 홀로 향기롭네.

388 賞菊 국화를 보면서

騷屑庚風雁陣長 서늘한 가을바람에 기러기떼 높이 날고

白雲來去錦楓陽	흰 구름 오락가락 단풍이 빛나네.
子規碧嶂哀音喚	두견새 산속에서 구슬프게 울어대고
蟋蟀籬根喜悅鳴	울타리 밑 귀뚜라미喜悅의 소리 높네.
皓月紗窓誰向照	紗窓에 밝은 달은 누구 향해 비추는가
金葩霜露自誇芳	국화꽃은 서리 이슬 속에 아름다움 뽐내네.
暗香震動濡潤鼻	그윽한 향기 넘쳐나서 콧등에 적셔들고
興醉吟詩舉羽觴	興에 취해 詩를 읊고 술잔 들어 마시네.

389 霜菊(1) 서리 맞은 국화(1)

霜路愈凌寒	국화는 서리와 이슬 속에 더욱 아름답고
晴宵月影安	맑게 개인 밤 달그림자 아롱지네.
藥形如玉珮	꽃술 모양 옥패와 같고
華貌是金冠	꽃모양은 금관과 같네.
野叟年豐樂	농부들은 풍년을 즐기고
騷翁藻雅歡	시인은 아름다운 글을 즐기네.
葉枯兮綠盡	잎은 말라서 푸르름은 없는데
花凋也香殘	꽃은 시들어도 향은 그대로일세.

390 霜菊(2) 서리 맞은 국화(2)

霜菊東籬帶露寒	울타리 가 가을국화 서리 머금고 차가운데
錦楓碧嶂月輪安	푸른 산 오색단풍 저 달은 밝아라.
藥香郁郁金枝珮	꽃술 향기 물씬물씬 금지의 패물이고
華爛如如玉葉冠	활짝 핀 꽃은 금잎의 갓과 같네.
媼嫗看花愉喜舞	할미들 꽃을 보고 기쁘게 춤추고
騷朋對酒詠吟歡	글 짓는 벗들 술 한 잔에 노래하며 기뻐하네.
何爲散落明秋待	국화는 떨어져서 내년 가을 기다리게 하고
愛惜餘情客夢殘	애석한 정은 나그네 꿈결일세.

391 霜葉踏徑 서리 맞은 단풍 밟으며

霜葉紅於二月花	서리속의 단풍잎 이월 꽃보다 아름답고
狂風蕭瑟夕陽斜	쓸쓸한 狂風은 석양에 부는구나.
金葩含露向人笑	이슬 맞은 국화 나를 보고 웃고
楓錦濡香超世嘉	비단 단풍 향기 젖어 아름답네.
綠水有情明月住	綠水는 정이 있어 밝은 달 머물게 하고
靑山無語白雲過	靑山은 말이 없어 흰 구름도 지나가네.
徜徉蹊路前途遠	거니는 오솔길은 앞길이 멀어도

佇想恬虛雅韻多 명상 속에 서성거리며 마음 비우니 멋있는 글
도 많다네.

392 秋夜 가을밤

草衣蕭瑟飛	쓸쓸한 바람 옷깃을 훑날리고
眉月掛楓枝	초승달은 단풍나무에 걸렸네.
明滅寒燈裡	멀리서 깜박거리는 등불 속에
虛腔酒所衣	이내 빈 가슴 술에만 젖고 있네.

393 秋夜偶吟 추야우음

秋雨濛濛掩夕陽	가을비 자욱하게 석양을 가리우고
庚風瑟瑟故情長	가을바람 쓸쓸하니 옛정이 그리웁다.
騷翁不寢思詩句	시인은 잠 못 이루며 詩句를 생각하고
孤客寒衿澍玉觴	외로운 늙은이 술잔을 즐기네.
勞困田夫生白髮	농부는 고단한 몸에 백발이 생기는데
娥姿老媼帶紅粧	아름다운 늙은 할미 紅粧이 가득하네.
綱常紊亂頽淪路	三綱五常 문란하고 윤리가 허물어졌는데

334 清溪幽香

蠶叟貪書豈所望 八十 늙은이 책을 탐한들 무슨 소망 있으랴.

394 秋月情懷 가을달 바라보며

梧桐一葉感秋盛 오동 한 잎 떨어지니 가을임을 알고
綠水青山相競爭 綠水와 靑山은 서로 맑다고 다투네.
黃菊鮮妍與錦楓 黃菊은 산뜻하여 단풍과 더불어 어여쁘고
碧霄皎潔於水鏡 푸른 하늘 맑고 맑아 거울보다 깨끗하네.
窮途隱士苦空囊 궁핍한 숨은 선비 빈 주머니 괴로운데
稔泰田翁愉福慶 풍년맞이 시골 농부 행복한 마음일세.
蟾魄煌明照四隣 달은 밝고 밝아 온 사방 비추니
幽然賞味怡虛詠 유연하게 감상하며 즐겁게 시를 읊네.

395 中秋有感 한가위

豐稔嘉俳喜悅新 풍요로운 한가위 기쁘고 즐거운데
思量判作踟涼身 문득 생각하니 외로운 몸일세.
非無世事堪娛老 세상살이 즐거운 일 없는 것은 아니나
不見當年結髮人 그 옛날 그리던 님은 보이지 않네.

396 豊登 풍년들어

露從今夜白	이슬은 이밤 따라 하얗게 내리고
月是故鄉明	달은 고향에 밝아라.
珍果向天稔	진미한 과실은 하늘 향해 여물고
嘉稻盈地榮	좋은 벼는 땅 가득히 피어났네.
碧嶂紅雲浪	푸른 산에는 홍운의 물결이고
秋邊杜宇聲	가을의 마지막에 뻐꾸기 운다.
詞翁吟詠舞	시인은 시를 읊어 춤추고
慈媼弄歌情	너그러운 할머니는 노래 불러 정겹네.

397 頌丹楓 단풍을 기리며

紅於絕勝音	붉은 빛 단풍든 소식 오면
男女共相尋	남녀 모두 단풍놀이 나선다네.
綠水烟霞野	푸른 물은 들에 깔려 노을이요
青山錦繡林	푸른 산은 비단의 숲이라네.
吟詩濡弄月	시 읊어 달을 희롱하고
賞美澍雲心	고운 경치 구름을 적시네.
涉世鎖憂慘	세상살이 근심 사라지고

336 清溪幽香

霜楓佇想深 서리 단풍에 내 생각 멎어 있네.

398 落葉(1) 낙엽(1)

木落蕭蕭枕上聽	낙엽 지는 쓸쓸한 소리 베갯머리에 듣고
黃波稔歲遠山青	황금 벌판 풍년 들고 먼 산은 푸르르네.
嚴霜犬吠廻垠岸	찬 서리 내리니 개들은 언덕에서 짖어대고
皓月蛩吟遶戶庭	달 밝은 밤 귀뚜라미 소리 뜰 안에 가득하네.
苦叟愁襟把酒卮	괴로운 늙은이 시름 젖어 술잔에 의지하고
白雲疏影映江汀	흰 구름 성근 그림자 강가에 비치네.
錦楓積地背腴裡	붉은 단풍잎 땅에 쌓여 거름이 되고
枯木蘇生自古銘	고목이 다시 소생함은 자고의 이치일세.

399 落葉(2) 낙엽(2)

深院梧葉報涼秋	고요한 집 오동잎 떨어지는 소리 서늘한 가을을 알리고
皓月丹楓共勝遊	밝은 달 속에 단풍 보며 좋은 경치 즐기네.
疎雨瘦枝鴉啄柿	빗속 앙상한 가지에서 까마귀는 감을 쪼고

曇天漏日雁飛洲	흐린 하늘 햇살 속에 기러기 날아가네.
滿頭霜雪誰能掃	서리와 눈 같은 머리 그 누가 쓸어 없앨 손가
過眼雲烟未可收	눈앞의 구름과 연기는 거둘 수도 없다네.
枯木回春猶復活	마른 나무도 봄이 오면 다시 살아나는데
浮生如夢我悠悠	덧없는 인생 꿈과 같으니 내 마음 너그럽네.

400 車窓 차창

主屹山頭五色濃	주홀산머리 오색 단풍 무르익고
夕陽返景秀蒼松	석양에 되비친 푸른 소나무 더욱 아름답네.
客愁悄愴望鄉路	나그네 시름 쓸쓸히 찾아가는 고향 길
皓月中天孰向從	밝은 달은 중천에서 누구를 따라 오는가.

401 寒梅(1) 한매(1)

作夜東風起	어젯밤 봄바람 불어와
今朝玉骨怡	오늘 아침 매화가 기뻐하네.
暗香烟霧澍	그윽한 향기는 안개가 적시고
疎影水波嬉	성근 그림자에 물결이 즐거워하네.

338 清溪幽香

竹直風無力	대나무 곧으니 바람이 무력하고
松高鶴自依	소나무 높으니 학이 스스로 깃드네.
寒梅濡皓月	한매는 밝은 달을 적시고
雪裡獨芳菲	눈 속에 홀로 향기롭네.

402 寒梅(2) 한매(2)

無端昨夜東風吹	무단히 어젯밤 상서로운 바람 불어
黃鳥一聲四境嬉	피꼬리 한 울음소리 사경이 즐거워라.
碧松秀聳留玄鶴	푸른 소나무 우뚝 솟아 두루미 깃들이고
皓月爽明弄白梅	밝은 달 시원하고 맑아 흰 매화 희롱하네.

403 寒梅(3) 한매(3)

無端夜半瑞風先	어젯밤 무단히 상서로운 바람 불어
一樹寒梅白玉鮮	한 떨기 매화, 백옥같이 아름답네.
向日枝頭幽鳥笑	햇빛 받은 나뭇가지에 그윽한 새 지저귀고
蠶天露地暗香傳	흐린 하늘 이슬 내려 숨은 향기 전하네.
月明綠竹尤優美	달 밝은 밤 푸른 대나무 더욱 아름답고

雪裡蒼松又逸妍	눈 속의 푸른 소나무 또한 일품일세.
華麗氷肌今爛漫	화려한 매화꽃 지금 활짝 피었는데
紛縈歲暮送流年	엮히고설킨 세상살이 저문 해가 흘러가네.

404 臘雪(1) 납설(1)

沛然玉雪掩紅塵	흰 눈이 흠뻑 내려 홍진을 다 덮었네
送厄迎禧瑞兆眞	송액영희하니 참으로 서기롭다.
皓月輝煌疎竹舞	휘황한 달빛 받아 대나무 춤을 추고
銀花爛發碧松新	눈꽃이 만발한데 소나무 드푸르다.
蕭蕭苦枕吟詩客	괴로운 베갯머리 시 읊어 견뎌보고
瑟瑟寒窓寂寞身	쓸쓸한 客窓에 이내몸 외로워라.
辛巳紛縈愁散盡	어지러운 신사년 갖은 시름 다 보내고
壬午喜慶世和伸	임오년(2002년) 평화롭고 경사만 있어주소.

405 臘雪(2) 납설(2)

歲暮銀花瑞兆登	세모에 눈이 내리니 상서로운 징조요
霏霏雪裡到佳朋	부슬부슬 오는 눈 속에 반가운 벗이 왔네.

340 清溪幽香

祥風瑟瑟乍疏雨	상서로운 바람 솔솔 불더니 갑자기 비가 오고
玉屑紛紛忽結氷	흰 눈이紛紛하더니 홀연히 얼음이 얼었네.
辛巳憂愁咸散盡	신사년의 근심걱정 모두 날려 버리니
壬午慶福愈加增	임오년의 경사와 행복 더더욱 커지네.
老軀涉世尤難境	늙은 이 몸 세상살이 더욱 어려운 지경이나
只願康寧也茂弘	다만 원하는 건 강녕하고성한 것일세.

406 雪景(1) 설경(1)

疎窓玉屑聲	외로운 창에 눈 오는 소리
皤叟夢魂驚	늙은이 꿈결에 놀라 깨었네.
犬走梅花落	개가 뛰 놀면 매화꽃 무늬
鷄行竹葉生	닭이 밟으면 댓잎이라네.
淸江鷗鷺羽	맑은 강에 갈매기와 백로 깃들고
凍嶺碧松榮	추운 뫼부리 소나무 푸르렀다.
豫報豐年兆	들으니 풍년의 조짐이라
雪中步月情	눈 밟으며 달 구경하는 정이여.

407 雪景(2) 설경(2)

白雪紛紛獨酌時	흰 눈 흩날리니 마음 산란해 홀로 술잔 들었네
雲霄朦月兩相宜	구름 낀 하늘과 흐린 달, 이 모두가 좋기도 하네.
碧松雅樂氷霜路	푸른 소나무 얼음·서리 내린 겨울 더 아름답고
玄鶴閒眠玉屑枝	현학은 눈 내린 가지에서 한가로이 잠들었네.
犬走梅花生跡妙	개들은 눈이 좋아 이리저리 매화 흔적 만들고
鷄行竹葉見痕奇	닭이 지나가니 댓잎 떨어진 듯 기이한 자취로다.
人人徒醉黃梁夢	사람마다 부질없이 즐거운 꿈속에 취했는데
我是恬澹靜賦思	이 몸 홀로 평안하고 담담하게 조용히 詩를 생각하네.

408 雪中偶吟 설중우음

懷恟心懷獨酌詩	슬프고 쓸쓸한 마음 이 몸 홀로 술잔 기울이는데
六花紛繞駭然知	흰 눈 어지럽게 휘날리니 놀라움에 젖네.
碧松雅樂氷霜路	푸른 소나무는 얼음과 서리 속에서 더욱 즐겁고
玄鶴閒眠玉屑枝	현학은 눈 내린 가지에서 한가로이 잠자네.
忽起詩魔迨月賞	갑자기 시에 홀려 달을 보며 감상하는데
未成詞賦到家遲	시 지을 생각뿐 이루지 못하니 집에 가기 늦어라.

342 清溪幽香

餘生不遠何貪放 여생이 멀지 않았으니 무엇을 탐내고 방종하라
未盡世務奈可期 세상살이 못다 한 일 어이 모두 기약할꼬.

409 冬至有感(1) 동지유감(1)

乾坤歲暮催	천지가 歲暮를 재촉하니
冬至眼前回	동지는 눈앞에 와있네.
淒冷風飛鳥	淒冷한 바람은 새를 날게 하고
嚴寒雪壓梅	혹독한 추위 속에 눈은 매화가지에 쌓였네.
佳人沽酒去	佳人은 술을 사러가고
騷客帶詩來	騷客은 글을 지어 왔네.
世路兮縈繞	세상살이 얽히고설키고
無聊倒玉杯	무료해서 술잔을 기울이네.

410 冬至有感(2) 동지유감(2)

至日生陽曙色寒	동지에 일양 시생한다지만 새벽은 차다
天時人事得時難	하늘의 때와 사람일은 때를 만나기 어려워라.
乾坤造化無常變	천지만물의 조화는 변화무쌍하고

晝夜相通代謝看	낮과 밤은 서로 이어지니 신진대사가 있네.
歲暮庚辰唯寂寂	경진년(2000년) 세모는 오직 적적하였는데
新禧辛巳也完完	신사년(2001년) 새해에는 완전하길 바라네.
靑山瑞氣眞如滿	청산에는 서기와 만고불변 진리 가득하고
心泰身寧夢亦安	마음 편하고 몸 편하니 꿈 또한 편하네.

411 冬至有感(3) 동지유감(3)

又逢冬至夕陽催	또 만나는 동짓날 석양이 재촉하니
歲月無情去不回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 다시 돌아오지 않네.
昨夜嚴風留碧嶂	어젯밤 모진 바람 푸른 산에 머물고
今朝瑞雨澍寒梅	오늘아침 좋은 비는 매화를 적시네.
烹茶野叟吟魂悅	차를 다리는 늙은이 詩를 읊어 즐기고
舉酒騷朋得意來	술병을 들고 오는 詩朋들 더없이 만족하네.
老境世途縈繞路	늘그막 세상살이 얽히고설켜 사는데
恬虛物外樂瓊杯	마음 비우고 욕심 없으니 술잔이 즐겁네.

344 清溪幽香

412 大寒(1) 대한(1)

玉屑乾坤雪適冬	흰 눈 천지에 가득하니 눈은 겨울이 제격이고
壬午歲暮大寒逢	임오년 세모에 큰 추위 왔네.
白雲靄散淹荒野	흰구름 자욱이 황야에 머물고
皓月蕭條照碧峰	밝은 달도 쓸쓸히 푸른 산에 비추네.
舜日和平何有廢	순임금의 화평은 어이하여 버리고
堯年聖代豈無封	요임금의 성대는 어이하여 오지 않나.
世途晦濁縈繚裡	세상살이 흐리고 탁하여 얽히고설키는데
惟在青山太古容	청산만은 오직 태고의 모습일세.

413 大寒(2) 대한(2)

苛政欺民梁上天	가혹한 정치 백성을 속이니 도둑의 천지고
如何好利欲望先	어이하여 私利와 욕심만을 채우나.
愚蒙不淑忘機會	우몽하여 재능 없으니 좋은 기회를 잊고
濁惡無分恣逸前	더럽고 악함 분별 못해 방자하며 교만하네.
未到盛時留繞亂	성시는 아직 멀고 요란한 세상에
幾來聖代遇英賢	어느 때 성대가 와서 영현을 만날까.
日加潦倒昏懷裡	나날이 쇠약하고 혼몽함 속에

只願和平銷暗煙 다만 평화롭고 암연 걷히기 원하네.

414 無題(1) 무제(1)

春花秋實有時紅 봄꽃과 가을열매 때가 되면 붉고
冬雪夏炎理氣融 겨울눈과 여름 더위 理氣가 서로 녹은 것.
碧落浮雲來又去 저 하늘의 뜬 구름은 오고 또 가는구나
靑山綠水好無窮 청산과 녹수 끝없이 아름답네.

제4편 述懷

415 何爲病苦 이 병을 어이하나

呻吟長痛我如何	홀로 누워 길이길이 아파 나는 어이할꼬
藥不治痊客恟何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 내 마음 어이할꼬.
頌佛丹心安在佛	하루종일 빌어 봐도 부처님은 어디에
此爲被竹無爲何	이대로도 저대로도 할 수 없으니 어이할꼬.

416 老衰 노쇠

喘咳蹲坐步危惴	헐떡이는 기침에 쪼그리고 앉아 걸음걸음 넘 어질까 두려워
左手念珠右竹節	왼손에 염주 들고 오른손에 대지팡이.
小壯幾時渾似夢	젊었을 때 언제였나 모두가 꿈결인데
如何負歲俟從容	세상을 등에 지고 어떻게 조용히 기다리나.

第三卷 愚井落穂 347

417 老矣 늙었네

喘嗽步危悔	헐떡이는 기침에 넘어질까 두렵고
躡翁一竹筇	비틀거리는 늙은이 지팡이에 의지하네.
浮雲來又去	뜬구름은 오고 가는데
負歲俟從容	저 늙은이 세월을 등지고 조용히 기다리네.

418 凡夫與愚夫 범부와 우부

凡者愚人紙一面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종이 한 장 차이
愚夫雖懦四時春	못난 사람 겁쟁이지만 항상 봄날 같아라.
凡人世路昂然醉	잘난 사람 세상살이 잘한다고 으스대지만
愚井疎愚節義眞	우정은 어리석어도 절개와 의리에 산다오.

419 思君禮佛 사군예불

巍巍寶殿屹蒼穹	높고 높은 불당은 푸른 하늘에 높이 솟고
萬想恬虛解脫鍾	만 가지 시름 조용히 비우니 해탈의 종소리.
極樂往生何處是	극락왕생한 곳 어디매런가

348 清溪幽香

朦然忽奄幻朦朧 몽롱한 가운데 갑자기 님의 환영 보이네.

420 虛妄 허망

虛送星霜七十餘 허송세월 덧없이 칠십을 넘기고
昏憊耄老僅披書 정신마저 흐린 늙은이 이제야 책을 보았네.
殘年未久尋何事 남은 여생 얼마인가 그 무엇을 찾으려나
碧落悠然鶴翼舒 하늘에는 한가히 학 날갯짓 느릿느릿.

421 病狀 병상

月色朦朧窺病席 달빛은 흐리게 병상을 비치는데
日加瘦瘠慕情深 날이 갈수록 수척하니 그리는 정 깊어지네.
呻吟斷續何須解 신음이 이어지니 풀 길이 없고
快癒方途不可尋 쾌유할 방도 찾을 길 없네.
禮佛祈求惆悵夢 부처님께 빌어 봐도 괴롭고 쓰린 꿈결이고
低頭跪拜淚盈襟 머리 숙여 무릎 꿇으니 눈물은 가슴 적시네.
曙來旭日東天絳 새벽 해 솟으니 동천은 붉은데
炊飯未知奈我心 밥 지을 줄 모르는 이 내 마음 쓰리네.

422 拔齒有感 발치유감

老來醜面愈衰容	늙어 추하고 더욱 보기 흉한 얼굴
脣齒輔車陷沒衝	입술과 이, 광대뼈와 잇몸 서로 부딪치네.
生死輪回人事事	생사 윤회는 인간세상의 일
虛心隨命欲何從	마음 비우고 명을 따르지 무엇을 바라나.

423 老心 늙음

眞如奈我尋	이 세상 참된 진리를 내 어찌 찾을거나
料得靜虛心	고요히 마음 비움에 있음을 알았노라.
世事隨思定	세상일은 각자 생각하기에 따라 정하고
幻生夢裡沈	덧없는 인생살이 꿈결에 잠기었네.
涼風吹故路	서늘한 바람은 옛길 찾아 불어오고
皓月守空林	밝은 달은 고요한 숲에 비치네.
苦叟非無悅	괴로운 늙은이도 즐거움은 있으니
恬愉漫浪吟	평안히 너그럽게 낭만을 노래하네.

350 清溪幽香

424 野叟 늙은이

喧騷不寐翁	잠 없는 늙은이들 밤새 떠들고
爲作曉天紅	새벽하늘 붉게 만들었네.
布穀青山裡	빼꾸기 청산에서 우니
世間萬事容	세상만사를 거두어 가네.

425 愚井殘影 나의 그림자

少時未學未完翁	젊을 때 배우지 못 한 온전치 못한 늙은이
八十生平夢寐中	팔십 평생 꿈결 속에 시들었네.
守拙如何違世路	졸렬한 세상살이 어찌 어긋나지 않겠는가
愚痴莫及迂家風	어리석은 바보는 가풍도 이루지 못하였네.
從來宦海無爲化	살아온 공직생활 허망하게 끝나고
所望眞儒不幸功	바라던 선비길도 성공하지 못했다네.
潦倒衰微虛送歲	늙고 영락하여 허송세월하는데
恬安只有詠詩窮	평안하고 조용해도 시 짓는 데는 모자라네.

426 愚井幽居 우정유거

愚井虛堂煢獨寢	우정은 허허롭게 홀로 누워 있는데
假眠夜夜酣觴飲	밤마다 잠 못 들어 애달픈 술잔 드네.
交遊喜悅也無間	벗님과 의 즐거움 더더욱 돈독하고
世路險難唯不審	험난한 세상살이 내 알 바 아니로다.
歲事何貪富貴珍	부귀와 갖은 재화 내 어찌 탐하리오
生平未有青氈品	내 평생 가전보화 가져보지 못했네.
恬安疎食樂和融	소식에 편안하고 융화를 즐기니
詠月吟風非織錦	나의 음풍영월은 비단 짜지 못했네.

427 老愈襟帶清 늙을수록 옷은 맑아야

杖朝白髮縈	八十 들어 백발은 얹히고
皺面瘦衰迎	주름진 얼굴 마르고 시들었네.
長壽皆祈影	장수는 모두가 바라는 그림자요
富榮所願聲	富貴 榮華도 원하는 소리로다.
康寧今日就	康寧은 날로 나아가고
積德也天成	積德은 자연히 이루어지네.
最是考終命	가장 옳은 것은 考終命이고

352 清溪幽香

老愈襟帶清 늙을수록 더욱 옷은 맑아야 하네.

428 世路無常九九八八 세로무상구구팔팔

金風吹不盡	가을바람은 그침 없이 불어와
未寐曙雲清	잠 못 이루는데 새벽 구름 맑아라.
喚起窓明哢	때까치는 밝았다고 일어나라 지저귀고
催歸日暮鳴	두견새 해 저문다 돌아가기 재촉하네.
米年兮潑刺	팔팔 미수 팔팔하게 살라 해도
白壽也萎縈	구십구의 백수 되면 누구나 시든다네.
涉世多岐路	세상살이 허다한 갈림길에
何煩夢外程	어찌 이루지 못할 일을 번민하겠는가.

429 詠懷 수심

老鰥常危坐	늙어서 홀로 사는 몸은 앓은 자리 불안하고
自歎遇寒蠅	추운 겨울의 파리와 같은 신세 한탄하네.
長宵無寐苦	기나긴 밤에 잠 못 자는 괴로움 속에
皓月却潛傷	밝은 달 쳐다보며 문득 시름에 잠기네.

倏忽詩魔起	갑자기 시마에 홀렸으니
徒爲賦韻憑	부질없이 글짓기에 의지해 보네.
恬虛閒臥枕	마음 비우고 조용한 베갯머리
心事件孤燈	마음은 외로운 등불과 벗하네.

430 泥醉 술에 몹시 취함

潦倒復傾觴	노쇠한 이 몸 거둬 술잔 기울이니
窮愁不可當	부질없는 근심 걱정 견딜 수 없네.
誰論身後事	어느 누가 저승살이 알 수 있나
涉世愈荒涼	세상살이 더욱 거칠고 쓸쓸하네.
酩酊惛憊裡	곤드레만드레 취해 흐리멍텅한데
惘然醉月蒼	슬픈 저 달도 술에 취해 푸르른가.
煩憂猶益甚	번거롭고 괴로움 더욱 더 깊어만 가고
夢寐曙清陽	꿈결 속에 새벽 해가 밝아오네.

431 迷夢 허황한 꿈

歲歲愈衰眉	해마다 더욱 늙어만 가는데
-------	----------------

354 清溪幽香

東風越草衣	봄바람 살랑살랑 옷 속에 스며드네.
金絲須妙舞	버드나무 가지가지 기이한 춤추고
花爛却潛悲	꽃은 난만해도 오히려 슬픔에 잠겼네.
身病奚能治	몸의 병을 어찌 능히 고칠 것이며
心愁奈可期	마음속의 근심도 풀기 어렵구나.
浮生如夢盡	부평 같은 인생은 꿈속에 스러지는 것을
玩月慙書依	저 달을 보며 책 속에 묻혀 있네.

432 車中偶吟 차중우음

炎夏江巒草木深	지는 더위 강과 산에는 초목이 울창하고
田家悠靜太平音	농가는 그윽하고 고요하니 태평성대로다.
達川河畔濃烟澍	달천강가에는 짙은 안개 자욱하고
主屹山頭綠雨沈	주홀산 머리에는 장맛비가 주룩주룩.
涉世前途千里隔	세상살이 앞날은 천리길같이 머나먼데
望鄉行路百愁侵	고향 가는 이 길은 갖은 걱정 근심 한이 없네.
怡愉耄老親朋侶	늙어서 가장 즐거운 것은 벗들과 사귀인데
餘慶幾何悔惱心	남은 여생 얼마런가 후회하며 슬퍼지네.

433 孤(1) 외로워(1)

四隣寂寞愈無聊	사방은 쓸쓸하고 더욱 적막한데
百事倦厭觀九霄	모든 일에 귀찮아 먼 하늘 바라보고.
盡日爲憂終是啞	온종일 귀머거리 되고 끝내는 병어리
厥身唯有夜蕭蕭	이 몸에게 남은 것은 이 밤의 쓸쓸함인가.

434 孤(2) 외로워(2)

溽暑厭嫌日暮遲	찌는 무더위 지겨운데 봄날 햇살 더디 지고
紛縈人世路多岐	엮히고설킨 인생살이 몇 갈래런가.
窮愁未解爭添酒	궁핍한 시름 풀기 어려워 술의 힘 빌리고
白首無朋醉詠時	백발 벗들은 어디 가고 시 속에 취해 있네.

435 自憫(1) 가엾어라(1)

膚學儒柔恨滿襟	배움도 적었고 나약하니 한 많은 이 가슴
疎愚識淺悔尤深	어리석고 무식하니 후회함이 더욱 깊네.
青氈家業咸消散	집안의 귀중한 문물 모두 없애버리고

356 清溪幽香

涉世處身不足音 세상살이 처신에 부족함뿐이로다.
先考天傷疼忿事 아버님 일찍 돌아가심에 원통함 한이 없고
雁行萬里獨煢沈 형제들 멀리 가고 이 내 몸은 홀로 살아.
微微宦海何爲命 미관말직 공직생활 이 어인 운명인가
去去煩憂月在林 갈수록 시름 깊은데 저 달은 숲 속에 밝아라.

436 自憫(2) 가엾어라(2)

懔懔不學若愚痴 흐리멍텅하고 배우지 않아 어리석은데
況且詞華曷與知 하물며 너 어찌 시를 알려 하느냐.
只是成章猶喜悅 문장모양 되었다고 기뻐 즐기나
泗洙深遠莫成詩 儒學은 깊고 먼 것 詩는 짓지 말라.

437 自遣(1) 스스로 마음 달랠(1)

生而愚陋自優遊 나면서부터 어리석고 고루하며 스스로 놀기만
 좋아했고
壯以休修夢裡留 성장해도 배움 잇고 꿈결속에 허송했네.
中也宦途終未備 중년의 공직생활 끝내 유종의 미 못 이루고

358 清溪幽香

尙德忠誠豈未望	도덕을 숭상하고 충성함 어찌 바라지 않으리오.
好利漫延盈地掩	사리사욕이 널리 퍼져 땅을 채워 뒤덮고
欺瞞謗怨滿天荒	기만하고 謗怨함이 하늘가득 채워졌네.
愚翁日夜濡愁歎	어리석은 늙은이 밤낮 시름과 탄식에 젖어도
歲月空流耀太陽	세월은 덧없이 흐르고 태양만이 빛나네.

440 四君子 사군자

寒梅半笑江山少	매화꽃 살짝 피어 이 강산은 젊어지고
直竹柔而不屈長	곧은 대나무 부드러우나 굽지 않고 자라네.
霜菊清香東堵下	서리 맞은 국화 맑은 향기 울타리에 서리고
幽蘭石背四隣芳	그윽한 난초 향기 돌 뒤에 가득하네.

441 世途 세상 길

不慍人痴格心仁	어리석다고 탓하지 않으면 그 마음 너그럽고
愚蒙涉世致身安	바보 같은 세상살이 이 몸은 평안하네.
如風如水棲遲裏	바람 불고 물결치는 대로 고요히 숨어살고
老未求名是養眞	늙은이 명리를 버렸으니 천진한 마음일세.

442 虛想 헛된 생각

死兮處處塚墳營	죽어서는 청산 곳곳 무덤이 가득한데
生者家家繆繚聲	집집마다 얹히고설킨 시끄러운 소리.
石火光中論大小	잠시 잠깐 머무는 세상에서 대소를 싸우고
蝸牛角上辯滯清	좁은 틈새에서 탁하고 맑음을 말하네.
靑山寂寞唯無語	청산은 적막하고 말도 없는데
孤鶴悠然豈有鳴	외로운 저 학은 그윽이 날며 왜 슬피 우는가.
好利如仁隨世態	사리사욕에만 흘러가는 세상
空將自失客愁情	부질없이 망연히 수심에 잠기네.

443 沛然下雨 갑작스런 소낙비

弄書三昧草廬中	초려에서 글 읽기에 여념이 없는데
倏忽暗雲驟雨通	갑자기 검은 구름 소낙비 퍼 부었네.
激水滂沱浸麥席	거친 물 마구 흘러 보리 멍석 침범해도
騷翁興趣頌吟風	늙은이 흥에 겨워 詩朗誦에 골몰하네.
兒孫急急呼噪聒	아들 손자 급히 와서 시끄럽게 불려도
父祖如如眺遠穹	아버지와 할아버지 부질없이 먼 하늘 바라보네.
人世多岐無不有	인간세상 이런 일들 없는 것도 아닐 것이라

360 清溪幽香

乍晴霽月自幽朦 잠간동안 비 개인 저 달도 스스로 흐릿하네.

444 人生似幻城 인생살이 허깨비 같아

乍雨乍晴又欲清	잠간 비오고 잠간 개이니 또 맑기를 바라고
趨譽趨利且求名	명예와 영리에 마음 쓰면서 명성도 구하네.
浮萍涉世多岐路	부평초 같은 세상살이 갈림 길도 많고
草露人生似幻城	초로 같은 인생살이 덧없는 허깨비 같네.
富貴充天誇尙志	부귀가 하늘에 가득해도 자랑에 골몰하고
榮華滿地喜娛情	영화가 땅에 찼다고 기뻐 즐거워하네.
無心歲月無言去	무심한 세월은 말없이 흘러가는데
潁畔嘉於奢麗京	영강의 언덕은 화려한 서울보다 좋구나.

445 天災 천재

天也何由誅罰成	하늘은 어이하여 죽음의 벌을 주고
地兮豈是百殃生	넓은 땅 어찌하여 온갖 재앙 일어나나.
昊蒼正義恒眞與	하늘의 정의는 항상 참되고
人性妖奸自咎迎	인성은 요사하여 재앙을 부른다네.

風整溫和歌擊壤	좋은 바람 따스 날씨 격양가 들려오고
雨順稔泰舞豪情	고른 시우 풍년 불러 춤사위 정겨웁다.
森羅萬象化無盡	삼라만상은 변화도 무진하고
恬靜怡愉世路平	평안하고 즐거우니 세상살이 평안하네.

446 死也生兮 죽음과 삶

國泰安民福利眞	나라 태평 백성 평안 잘 사는 게 옳은 일인데
豈爲自害惹紛紜	어찌 자해하여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가.
蓋棺定命聞何語	관 덮을 때 정명함인데 무슨 말 들을 것이며
謝世昇天剩奈惓	세상 버리고 승천해서 어찌 근심을 남기나.
富貴榮華咸草露	부귀와 영화도 초로와 같고
賤貧殃禍似紅塵	천빈과 양화도 홍진과 같네.
如風若水棲而去	바람같이 물같이 살다가 가지
死也生兮一片雲	죽음과 삶은 한 조각 구름인가.

447 虛堂 빈집

月到紗窓幽照枕	밝은 달 창가에서 그윽이 베갯머리 비치니
---------	------------------------

362 清溪幽香

聽虛苦叟世愁沈	고요함 속 힘든 늙은이 세상 시름에 잠기네.
掛鍾丙夜無心響	벽시계는 삼경을 무심히 울리고
寂靜空房夢不深	적적하고 쓸쓸한 방에 잠 이루지 못함이어.

448 詩心 시심

詩魔忽起欲吟詩	詩魔가 홀연 일어 시를 읊고 싶네
詩也眞如旨在詩	詩는 진솔하고 변함없는 뜻이 있어야 하고.
詩者靑山秀雅詩	시는 靑山 속에서 秀雅한 시가 되고
詩兮綠水浩然詩	시는 綠水 속에서 浩然의 시가 되네.
詩迎皓月炯明詩	시는 皓月 아래 밝고 빛나는 시가 되고
詩逐東風爽朗詩	시는 동풍을 맞으면 爽朗한 시가 되네.
詩格卑汚淺短詩	시격이 卑汚하면 천단한 시가 되고
詩心不解不成詩	시심을 풀지 못하면 시를 이루지 못하지.

449 靜夜思 고요한 밤에

洞天幽暗獨螢長	동천 ¹⁾ 은 그윽한데 홀로 외로움 더하고
半月朦然弄枕牀	조각달은 흐릿하게 沈床을 비치네.

綠水淸風唯秀雅 綠水와 淸風은 오직 빼어나고 우아하니
 閑雲野鶴共徜徉 한가한 구름과 野鶴은 서로 함께 徘徊하네.
 蝸牛角上眞假論 달팽이 뿔 위에서 眞假를 논한들 무엇하며
 石火光中可否爭 石火 光中에서 가부를 논한들 무엇하랴.
 窮達盛衰分已定 빈부와 흥망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浮生繆繆自空忙 덧없는 인생 얹히고설키어 제 스스로 바쁘네.

1) 동천 : 洞天. 산과 내가 둘러 있어 경치가 좋은 곳.

450 顧影 지나온 길 돌아보니

相識雖多隣 서로 아는 사람 비록 옆에 많지만
 知音有幾人 정말 나를 알아주는 사람 얼마나 될까.
 世途徒守拙 세상살이 부질없이 웅졸하게 살았고
 家道留淸貧 집안 살림살이 청빈함에 머물렀네.
 見利猶無取 명리를 보고도 오히려 가까이 하지 않고
 思仁自養眞 인의를 앞세워 스스로 천진 속에 살았네.
 青山何巍巍 청산은 어이 하여 높고 높으며
 綠水也源源 녹수는 어이 하여 쉬지 않고 흐르나.

451 閒居 한거

靑山元不動	청산은 원래 움직이지 않고
綠水自清涼	푸른 물은 스스로 맑고 시원하게 흐르네.
秉燭思恬靜	촛불 밝혀 평안하게 고요히 생각에 잠기고
披書聞古香	책을 보며 옛 성현의 말씀을 듣네.
海爲龍世界	바다는 원래 용들이 사는 곳
天是鶴家鄉	하늘은 원래 학들의 고향인가.
富貴如浮泡	부귀라 함은 떠 있는 거품과 같은 것인데
人間住幻堂	인간들은 허깨비 집에 살고 있는가.

452 無題(2) 무제(2)

山縈水複濃香霧	산 첩첩 물 굽이쳐 향기로운 안개 자욱하고
夕照紅霞濡玉樹	석양의 붉은 노을 玉樹를 적시었네.
白雲紛然掩北村	白雲은 분분하게 북쪽 마을 뒤덮고
朔風飄散妨前路	모진 바람 몰아쳐서 앞길을 가로막네.
昭明皓月向誰癡	밝고 밝은 저 달은 누구 향해 비추는가
蕭瑟洞房佳偶慕	쓸쓸한 잠자리 옛 님이 그리웁네.
老醜何由也失眠	늙은 이 몸 어찌하여 잠 못 이루고

出門咏嘯鴻南渡 문밖에 나오니 기리기 때 남으로 울어 예네.
貧寒凋落豈長留 貧寒하고 零落해도 어찌 오래 머물 것이며
富貴榮華如草露 富貴榮華는 풀잎의 이슬 같다네.
事不三思終有憂 생각 없는 세상살이 마침내 근심이 있고
人能百忍當無苦 잘 참고 지나면 괴로움 스스로 없어지네.
林泉未禁托清虛 林泉¹⁾은 清虛²⁾를 의탁해도 금하는 이 없고
英達相爭難永住 英達에는 다툼이 있어 오래 머물기 어렵네.
喚起疏窓曄曙來 때까치들 창가에 와서 새벽이 왔다 깨우고
催歸碧嶂啼昏暮 푸른 산 두견새는 돌아가자 재촉하네.

- 1) 林泉 : 숲과 샘, 세상을 버리고 은둔하기 알맞은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清虛 : 마음 비우고 맑게 사는 것.

453 無題(3) 무제(3)

老醜虛荒日欲斜 늙은이 마음 허전한데 날은 저물고
無端無始迓生涯 밑도 끝도 없이 한 평생 지냈네.
少知恰似書中蠹 아는 게 없는 책속의 좀벌레 같아
自塊清狂井底蛙 스스로 부끄러워 우물 속 개구리일세.

366 清溪幽香

454 無題(4) 무제(4)

相識雖多隣	서로 아는 사람 비록 많아도
知音有幾人	정말 나를 알아주는 이 몇이나 될까.
世情須好利	세상 인정은 모름지기 사리사욕에만 눈멀었는데
恬靜守天真	평안하고 조용히 꾸밈없이 자연대로 살리라.

455 無題(5) 무제(5)

皓月紗窓照不眠	밝은 달 창가에 비치니 잠들지 못하고
慙蹤往事斷還連	홀려간 옛일 이리저리 생각하네.
孰爲可也誰無可	그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단 말인가
愁客徒爲望曙天	시름겨워 부질없이 새벽하늘 바라보네.

456 迎新千年 영신천년

送舊迎新日日新	송구영신하니 나날이 새롭게 빛나고
人間須有養天真	인간은 모름지기 천진함에 살아야 한다.
元旦曙景輝煌路	설날 새벽 경치 휘황찬란하게 비치고

歲拜歡然拂拭塵	아이들 세배 받으니 껌은 티끌 없어지네.
汚染邦家銷腐敗	오염에 물든 이 나라 부패를 없애면
淸良槿域耀常倫	맑고 아름다워 언제나 사람도리 빛나리.
千年大吉留天地	새 천년 큰 즐거움 천지에 머물고
萬事亨通擊壤民	만사형통하니 태평성대 여기로다.

457 臘雪年豐兆⁽¹⁾ 납설년풍조⁽¹⁾

白屑沛然染海東	흰 눈은 자욱히 온 나라를 물들이니
年豐瑞兆喜欣同	상서로운 풍년 소식 모두 함께 즐겁네.
嶂河日夜浮嵐氣	산과 강에는 밤낮으로 남기 ¹⁾ 가득하고
瓊樹蒼天皓月風	아름다운 나무에 푸른 하늘 밝은 달 비치네.
靜机詞翁彫琢裏	고요한 책상머리 시인은 글짓기 골몰하고
螢窓苦叟玉觴中	밝은 창가에서 괴로운 늙은이 술에 취했네.
覺來老愈添霜鬢	늙을수록 백발은 더해만 가는데
辛巳迎新曉色紅	신사년 새해를 맞으니 새벽빛이 붉구나.

1) -이내. 멀리 보이는 흐릿하고 푸르스름한 기운. 嵐 남기 람. 산에 서리는 기운을 뜻함.

458 臘雪年豐兆(2) 납설년풍조(2)

六花染海東	백설이 세상천지를 물들이니
瑞兆喜欣同	상서로운 조짐에 기쁘고 즐거움 가득하네.
瓊樹清嵐氣	옥 같은 나무에는 맑은 남기 빛나고
嶂巒皓月風	높은 산에는 밝은 달이 비치네.
詞翁彫琢下	글 짓는 늙은이 글 생각에 젖어들고
苦叟玉觴中	괴로운 늙은이는 술에 취해 흥겹네.
老愈添霜鬢	늙을수록 백발이 성성한데
迎新曉色紅	새해를 맞이하니 새벽빛 찬란해라.

459 送舊迎新(1) 송구영신(1)

癸未年來世路荒	계미년(2003년) 들어와서 세상살이 거칠고
綱常悖亂自心傷	삼강오륜이 어지러우니 이 내 마음 상하였네.
與人不競愉安靜	더불어 다투지 않으면 안정을 즐기고
爲政無私得所望	政事에 私心이 없으면 소망을 이루리라.
文士彫章依筆硯	선비는 글 지으며 붓과 벼루에 의지하고
愚翁莞爾迓霞觴	어리석은 늙은이는 빙그레 웃으며 신선의 술잔 맞이하네.

新禧慶賀和平歲 새로운 복 慶賀하며 화평한 세월 이루고
惟願甲申萬事香 오직 갑신년에는 만사가 향기롭기 원하네.

460 乙酉新禧 2005년 새해

乙酉瑞氣向誰開 을유년 새해 瑞氣는 누굴 향해 비추나
喜悅家家得意來 기쁘고 즐거운 집집마다 뜻대로 온다네.
去歲三災愁裏送 지난 해는 삼재 들어 근심 속에 보냈지
今年五福夢中回 올해는 五福 누리기 꿈속에서 바라네.
少時好酒娛遊澍 젊어서는 술이 좋아 놀기만 하였으나
老境吟詩愛養培 늘그막에 시 읊으니 이제야 철들었다.
皓月蒼天西岫掛 푸른 하늘 밝은 달은 서산으로 갈길 바쁘데
恬虛物外亦悠哉 마음 비우고 욕심 없으니 또한 여유롭구나.

461 送舊迎新(2) 송구영신(2)

無常歲月夢中回 무상한 세월은 꿈속같이 흐르고
天道遷瑞移日開 천도는 변하여 상서로운 해 뜨네.
黑鼠驅除千厄去 검은 쥐 몰아내니 모든 액운 사라지고

370 清溪幽香

黃牛滿載萬祥來	누렁 소 온갖 상서 가득히 싣고 오네. ¹⁾
碧松屹立留玄鶴	우뚝한 푸른 솔에 두루미 머무르고
皓月爽明弄寒梅	시원하고 밝은 달빛 매화를 농락하네.
國泰民安皆所願	국태민안은 모두의 소원이고
溫和微笑與顏施	온화한 미소는 사람을 즐겁게 하네.

1) 쥐띠 해인 2008년(戊子年)이 지나고 소띠 해인 2009년(己丑年)이 된 것을 뜻함.

462 至日卽事 동짓날

潦倒衰微不勝寒	늙고 시들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淒風雪裡步行難	거센 바람 눈 보라에 걸음걸이 어렵네.
虛荒冷枕人愁動	허전하고 차가운 베갯머리 시름에 젖고
蕭瑟高樓月影殘	쓸쓸한 높은 다락엔 달빛이 찾아드네.
老父何知新器物	늙은 아비 어찌 새 器物을 알겠으며
幼童未識古衣冠	어린 아이 옛 의관을 아직 알지 못하네.
催歸至日西山暮	두견새는 해 저문다고 갈길을 재촉하고
超脫忘機世事歡	속세 떠나 모든 일 잊으니 세상사 반갑기만 하네.

463 臘日 한해를 보내며

風雪吹窓愈苦寒	눈보라 창가에 우니 더욱 외롭고 쓸쓸해
今宵除夕倍思親	오늘밤 설날그믐 부모님 생각 간절하네.
佳君安在何時遇	그리운 임은 어디에 어느 때 다시 볼까
倦夜雙眸淚未乾	고달픈 밤 두 눈에 눈물은 흘러 흘러.

464 除夜 설날 그믐날

冷枕寒燈獨不眠	싸늘한 베개 차가운 등불 홀로 잠 못 이루고
客心蕭瑟轉淒然	내 마음 쓸쓸하니 저절로 서글퍼지네.
今年今夕災殃盡	금년의 이 저녁엔 모든 재앙 사라지고
明歲明朝慶福連	내년의 새 아침엔 경사와 福祿 이어지라.
野叟吟風愁怨席	늙은이 흥얼대는 시름과 원망의 자리이고
耆儒詠月喜娛筵	늙은 선비 달을 노래하는 기쁨의 자리일세.
已過丙戌多難事	지난 병술년(2006년)은 어려운 일 많았는데
瑞兆丁年大吉傳	좋은 조짐 오는 정해년엔 大吉을 전해주소.

465 臘月卽事 선달 그림

衰眉氣弱力難支	흰 눈썹에 기질은 약해지고 힘 또한 없어져
涂月更逢暮影籬	다시온 선달은 저문 그림자 울타리 비치네.
暗鬱戊寅煩躁去	암울했던 무인년(2010년)은 번거롭고 시끄럽게 지나가고
新禧己卯雅風吹	희망찬 기묘년(2011년)의 새로운 바람이 오네.
安貧樂易從吾道	분수를 알고 즐기며 바른 길 가고
無惑不憂辨路岐	흔들림 없이 근심 없이 나갈 길 분별한다.
老境餘生須未覺	늙은 몸 얼마나 살런지 오직 알지 못하나
虛懷隱逸欲多施	마음 비우고 조용히 숨어 베풀며 살고 싶네.

466 歲暮有感(1) 세모유감(1)

簫條歲暮夕陽天	쓸쓸한 세모에 저녁해는 기울고
徒老虛荒又一年	덧없이 늙어 헛되이 또 한해를 보내네.
忽憶生平迷罔就	문득 생각하니 한 평생을 미망 속에 살았고
如夢世路斷還連	꿈결같은 세상살이 끊겼다 이어졌다 했네.
誇多野叟浮文士	자랑 많이 하는 늙은이는 浮薄한 선비이고
醉倒騷翁弄月仙	술 취해 쓰러진 시인은 달 속의 신선일세.

愁裡傾觴俎癸未 시름 속에 술 한 잔으로 재미년을 보내며
甲申只願迓芳鮮 갑신년(2004년) 향기롭고 아름다운 한 해되기 바
라네.

467 歲暮有感(2) 세모유감(2)

亂騷晚暮甲申年 소란했던 갑신년은 저물고
獨臥蕭條嘆淚天 홀로된 이 몸 쓸쓸하여 눈물 흘렸네.
踏雪窺星耆酒頌 눈 속을 거닐며 별을 보고 술도 즐기고
耕雲釣月詠詩緣 구름 보고 달 보고 詩도 읊었네.
何貪好利兮顛落 어찌해서 私利만을 탐해 퇴락할 것인가
豈謀崇仁也保全 어떻게 하면 仁을 숭상하여 보전할 것인가.
潦倒耄軀經幾歲 쇠잔한 늙은 이 몸 몇 해나 살런지
恬虛物外自悠然 마음 비우고 욕심 없으니 스스로 여윌롭네.

468 歲暮有感(3) 세모유감(3)

心身耄老眼何明 마음과 몸이 늙었는데 눈인들 밝을 손가
歲暮當今又一驚 세모를 당하고 보니 또 한번 놀랐네.

374 清溪幽香

守月騷翁空想夢	저 달 보는 시인은 헛된 생각 꿈꾸고
傾觴野叟愈含情	술잔 기울이는 늙은이는 옛 정에 젖었네.
撫踪萬象如泡影	지나온 발자취 모든 것은 거품 그림자 같고
往事生平似幻城	한평생 지나온 일 허깨비 성과 같구나.
涉世非無唯喜樂	세상살이에는 기쁘고 즐거움도 있으니
新禧辛巳也元亨	신사년 새해에는 만사형통하리라.

469 歲暮有感(4) 세모유감(4)

歲暮寒窓雪裡明	세모의 쓸쓸한 창은 눈 속에 밝고
心身老愈眼昏驚	몸과 마음 늙을수록 눈도 흐려 놀랍네.
無那解悵蕭條志	이 내 마음 쓸쓸한 근심 풀 길도 없고
何與覓尋結髮情	그리운 옛 님의 정은 어디 가서 찾을꼬.
禽獸須爲棲碧嶂	새와 짐승도 푸른 산에서 사는데
人間奚若住沙城	사람은 어찌 하여 모래성 위에서 사는가.
西山落日徒空夢	서산에 해는 지는데 헛된 꿈만 꾸나
只願乾坤世嘉亨	오로지 천지만물과 이 세상 형통하기 원하네.

470 歲暮有感(5) 세모유감(5)

雪裡曉窓明	눈 속에 새벽 창이 밝았는데
孤翁眼忽驚	외로운 늙은이 깜짝 놀라 일어났네.
靑雲榮富夢	청운은 입신양명과 영화부귀의 꿈이요
皓月錦衣情	밝은 달은 금의환향의 정이로다.
世路如泡影	세상살이는 거품의 그림자와 같고
人生似幻城	인생은 허깨비 성 속에서 사는 것과 같네.
迎新唯福壽	새해를 맞이하여 오직 행복하고 장수하며
送舊也元亨	묵은해 보내니 仁義禮智 이어지리.

471 歲暮有感(6) 세모유감(6)

亂騷迓暮年	소란했던 이 해도 저물어 가는데
世事鬱紆天	세상살이 얹히고설킨 우울한 한 해였지.
分裂荒藤夢	분열은 갈등 속의 꿈이요
相生作伴緣	相生은 同伴의 인연인가.
今宵猶未寐	오늘 밤도 더욱 잠 못 이루니
明日豈俱全	날이 밝은들 어찌 온전할 것인가.
萬象無常變	삼라만상은 무상하게 변하는데

376 清溪幽香

如風棲自然 바람처럼 자연 속에서 살리라.

472 涉世多岐路(1) 세상살이 갈림길(1)

謙和夢亦閑	겸양하고 화합하면 꿈자리 한가롭고
朋友愈相親	벗님네 상종하여 더더욱 가깝다네.
不作皺眉事	얼굴에 주름질 일 만들지 않으면
應無切齒人	나를 보고 그 누가 원망하리오.
毀謗招怨望	남을 훼방하면 원망을 부르는 것
留意養天真	맑은 천성을 뜻 깊이 길러가세.
玄鶴千年壽	두루미 천년의 수를 누리고
蒼松萬古春	푸른 솔 영원한 봄이라네.

473 涉世多岐路(2) 세상살이 갈림길(2)

水不爭先人各忙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데 사람들 모두 바빠
何須詔詐惹愁殃	어찌 모함사기 일 삼아 근심재앙 일으킬꼬.
求利求名似朝露	리와 명예 구함은 아침이슬 같은 것
或苦或榮如夕陽	고생과 영화로움 모두 지는 해 같다네.

玉兔昇沈催老像	달 뜨고 달이 저서 늙음을 재촉하고
金鳥出沒促年光	해 뜨고 해가 저서 세월을 재촉한다.
無情歲月無言去	무정한 세월 말없이 지나가니
長嘯徜徉月在岡	긴 휘파람 산책길에 피부리 달이 뜨네.

474 涉世多岐路(3) 세상살이 갈림길(3)

秋至滿山皆秀陽	가을 되면 온 산에 햇볕 들어 아름답고
春來無處不花香	봄이 오면 꽃향기 안 나는 곳 전혀 없네.
各人自掃門前雪	사람마다 문 앞의 눈을 쓸어 내고
休管他家瓦積霜	남의 집 기왓장의 서리는 상관 말게.
爽口食多終作病	입에 맞다 과식하면 끝내는 병이 되고
快心事過必生殃	즐거움이 지나치면 반드시 재앙 되네.
隱居路上無榮辱	숨어사는 나날에 영욕 또한 없으니
道義林中泯暑涼	도의로운 생활 속엔 춥고 더움 모두 없네.

475 涉世多岐路(4) 세상살이 갈림길(4)

誹謗詔詐毀譽盛	비방과 함정으로 남을 해치기 성한데
---------	---------------------

378 清溪幽香

老不求官夢亦平	늙어 벼슬 안 구하니 꿈은 평안 하여라.
賢女敬夫家道耀	어진 아내 착한 남편 가도의 빛이 되고
痴男畏婦五常傾	어리석은 남자들 오상 ¹⁾ 을 허무네.
少時未覺貧窮苦	어릴 적엔 빈곤과 고생을 몰랐고
晚境方知富貴輕	늦그막에 깨달은 건 부귀의 하찮음.
好利如仁非世態	이로움만 좇는 것을 옳은 일로 아니 세태가 잘
	못 되었고
用心正義泰和迎	정의로운 마음씀이 큰 화목 맞이하리.

1) 오상 : 유교에서 말하는 仁, 義, 禮, 智, 信의 다섯 덕목을 뜻한다.

476 追懷端陽佳節 추회단양가절

野叟迓端陽	외로운 늙은이 단오를 맞이하니
景光麗發揚	봄별은 아름답게 비치네.
心安書滿宅	마음이 평안하니 글 공부 즐기고
身穩錦還鄉	몸이 건강하니 금의환향일세.
嬌女菖蒲色	교태 여인은 창포에 머리를 감고
豪男脚戲香	壯士는 씨름에 멋을 내네.
傾觴逢故友	벗을 불러 술잔을 기울이니

瑞日喜愉長 좋은 날 기쁘고 즐거워라.

477 與長孫峻變 장손 준섭에서

朔風號怒雪飄揚	북풍은 몰아치고 눈보라 훑날리는데
念願康寧涉世長	그저 건강하고 세상살이 잘하길 바란다.
貪必敗身須戒愼	탐욕함은 몸을 망치나니 모름지기 삼가고
言能害己更商量	말은 몸을 해칠 때도 있으니 다시 한 번 생각하라.
狂荒交友終無益	거칠고 어지러운 교우는 끝내 이로울 것이 없고
驕慢輕人反有傷	교만하고 사람 업신여기면 도리어 상처입는 법.
萬事不求忠孝外	만사 중에 충성과 효제 외에는 구하지 말라
爲公未愧夢逾芳	공사에 부끄러움 없으면 꿈 또한 더욱 향기롭다.

478 勸諸兒 권제아

庸懦天性惟疎拙	어리석고 게으른 천성에 거칠고 응졸했고
虛送生平自守株	한평생 허송하며 스스로 요행만 기다렸네.
家業青氈咸盡散	집안에 있던 귀중한 보물 모두 없애고
徒爲黃耆夕陽愁	덧없이 늙었으니 지는 해의 시름일세.

380 清溪幽香

謹謙百事亨	삼가고 겸손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涉世與人情	세상살이에는 반드시 인정을 베풀라.
恬靜榮羹美	즐겁고 조용하면 나물국도 맛있고
心安茅屋香	마음이 평안하면 몇집에 살아도 향기롭다.
富榮無傲慢	부귀영화 누리더라도 오만하지 말고
貧賤勿謗聲	가난하고 천한 사람 헐뜯지 말라.
朋友須相信	벗을 사귄데는 오직 믿음이 있어야 하고
恒時念健康	항시 건강에 유념하라.
世途愼勿論長短	세상 모든 일에 삼가고 장단을 논하지 말고
爲父從來愈愛慈	아버지로서는 반드시 더욱 아들을 사랑하라.
顧影自慚無可教	돌이켜 보면 부끄러워 가르칠 것도 없으나
只要勤勉勸諸兒	오로지 근면이 제일이니 너희에게 권하노라.

479 古稀 高희

今年此日古稀辰	올해 오늘은 칠십 고희 생일날
怙恃慕情愈益新	부모님 그리운 정 더욱더욱 새롭네.
如水如風棲靜養	물 흐르듯이 바람 부는 대로 조용히 살며 천진 을 기르고
浮生若夢莫訴嗔	인생살이 꿈과 같으니 욕하고 꾸짖지 말자.

兒孫咸集祈長壽	아이들 다 모여 무병장수 빌어주네
汝輩具慶福祿人	너희들 모두 경사스럽고 복된 인간 되어라.
涉世泊然恬雅正	마음 비우고 담담히 편하게 바르게 살고
無憂偕老是眞珍	근심 없이 부부 해로함 이것이 참된 보배일세.

480 爲民善政 위민선정

爲民上善省民虞	백성 위한 가장 훌륭한 길은 백성의 근심을 덜어 주는 것
曲盡和融也共扶	지극히 서로 화융하고 서로 돕는 것이라네.
不以義務私欲擣	이 세상 의무는 지키지 않고 사욕에 물들고
如何權術衆生蘇	어떻게 권모술수로 중생을 구할 것인가.
太平聖代吟詞客	태평성대를 시인은 노래하고
擊壤歌聲舞野夫	격양가 부르며 농부는 춤추네.
國泰公安皆所願	국태공안은 모두가 원하는데
儒翁虛負夢仙區	선비는 헛되이 신선이 사는 곳 꿈꾸네.

382 清溪幽香

481 明洞街 명동거리

人人各樣慌忙中 사람마다 이 모양 저 모양 바빠서 허겁지겁
成市雜多往路窮 저갓거리 이리저리 갈 길이 막히네.
基督天堂騷絕叫 예수는 천당 가라고 소리 외치고
佛陀極樂鐸鈴通 부처는 극락 간다고 목탁 울리네.

482 憶舍弟 동생 그리며

金風蕭颯客心愁 가을바람 솔솔 부니 이 마음 시름겹고
今夜何如獨坐惆 오늘밤 어이 하여 홀로 앓은 슬픔인가.
皓月望雲孤雁去 밝은 달 바라보고 동생 그리는데 외로운 기러기
 울며 가네
霜風紅葉年年秋 서리 맞은 붉은 단풍 해마다 가을인가.

483 省墓 성묘

紛紛玉屑顛顛路 눈보라 속에 넘어질 듯 근심스러운 길
烈烈朔風步步憂 휘몰아치는 북풍에 걸음걸음 시름일세.

不似孤哀涕淚 불초한 이 자식 콧물 눈물 흘리며
瑩前跪拜幻相浮 묘 앞에 무릎 꿇으니 아버님 그림자 떠 있네.

484 砂漠 사막

行行重行砂漠間 가도 가도 또 가도 사막 사이이고
看看又看砂漠看 보고 보고 또 보아도 사막이 보이네.
灼灼花灼砂漠爛 꽃은 찬란하게 피어 사막은 빛나고
炎炎砂炎砂漠曛 뜨겁고 뜨거운 사막에도 해는 저무네.

485 夜暗 어두운 밤

月明星稀夜三更 밝은 달 흐린 별빛 밤은 깊어 삼경인데
四隣寂寞縈愁載 사방은 적적하여 얽힌 시름에 물든다.
基督天堂十字呼 예수 천당은 십자 불 밝혀 부르는데
佛陀極樂今安在 부처님 극락은 지금 어디에 있나.

486 嘆時局 시국을 한탄하며

何故遮途蠻觸爭	무슨 까닭에 길을 막고 하찮은 일로 다투며
人生善惡有誰營	인생의 선악은 누가 다스리는가.
間間分裂撩嫌怨	틈틈이 나누고 미워하며 원망을 부추기나
事事紛紜惹葛藤	일마다 시끄럽게 갈등을 야기하네.
好利欲貪尤蔓茂	사리를 취하고 탐욕함은 더욱 무성하고
毀譽詔詐愈紆縈	비방하고 칭찬하고 아첨하고 속이니 더욱 얽히고설키었네.
順良黔首酸朝夕	순양한 백성들 날마다 괴로운데
幾許安康擊壤鄉	어느 때 평안한 태평성대 올 것인가.

487 儒道進興 유도진흥

儒道禮規興海東	유도의 예법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흥했으며
千秋傳教造成功	천년 세월 전교하여 성공을 이루었네.
倫常燦爛盈堯日	오륜이 빛나니 요임금 태평성대 가득하고
綱紀輝煌到舜風	나라 기강 빛나니 순임금의 태평성대로다.
好利追求紛世事	사리사욕만 추구하면 온 세상이 어지럽고
德行墜落索邦中	도덕이 땅에 떨어지면 온 나라가 문란하네.

後生啓導天真裡 후생을 잘 계도하여 천진난만하면
洙泗煥然映碧空 유학은 찬란히 빛나서 푸른 하늘에 비치네.

488 思家鄉 고향 생각

布穀聲中曙色紅 뻬곡새 우는 소리에 새벽빛이 밝은데
燕飛狗吼是仙宮 제비 날고 개들 짖는 소리 여기가 선경일세.
琪花瑤草槐庭裡 아름다운 꽃 향기로운 풀 회나무 그늘 속에
肯構肯堂偕老夢 초가삼간 다시 짓고 부부 함께 살아야지.
半世離鄉功不遇 오십 년 타향살이 이룬 것 하나 없어
於今來到恨無窮 이제야 돌아오니 한도 많고 마음도 아파라.
恬虛隱逸修恩德 마음 비우고 조용히 숨어 덕을 닦으리
瑞日未違掛碧穹 상서로운 저 해는 오늘도 푸른 하늘에 떴네.

489 傳統文化 전통문화

儒家禮法海東宗 선비 집안 예법은 한국의 근본이고
今昔無休雅鼓鍾 예나 지금이나 바른 길로 인도하네.
城塞三關濡古色 문경새재 관문은 옛날 운치에 젖었고

386 清溪幽香

招提數處振華容	곳곳의 절들은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네.
晝耕孝悌營農野	낮에 밭갈이 농사일로 효도하고
夜讀忠勤護國峯	밤에 책 읽어 충성으로 나라 사랑하네.
傳統繼承文化裏	전통문화를 길이길이 계승한다면
後孫萬代美風逢	후손만대에 아름다운 풍속 이어지리라.

譯者 後記

세상을 살면서 글로 맺은 인연만큼 좋은 인연이 또 있을까? 폐부 깊숙이 전해지는 필묵의 향기가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마력으로 서로의 마음을 묶어주기 때문이다. 역자가 부족한 역량으로 회당(晦堂) 변용규(卞龍圭) 선생과 춘강(春崗) 변종헌(卞鍾憲) 선생의 한시를 번역할 수 있었던 것도 좋은 인연이 아닐 수 없다.

회당 선생의 시편은 평소 보고 듣고 느꼈던 감정을 담백하게 그려 내어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고 평온하게 만든다. 회당의 청전(靑甃)을 이은 춘강 선생의 시에서도 이런 특징들이 분명하게 보인다. 일상에서 취한 진솔한 감정이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다. 수많은 작품 중에서 주옥만을 가려 번역하면서 옛 사람과의 대화가 주는 기쁨에 오롯이 심취할 수 있었다.

두 분의 시집은 지난 1994년과 1995년에 이가원(李家源) 선생과 이창섭(李昌燮) 선생의 서문을 얹어 영인본 문집으로 간행되었다. 금년에 다시 한글 번역본을 선집 형태로 출간하면서 여기에 더하여 변준(卞濬) 선생의 시집까지 한 집안 삼대(三代)의 문집을 한 권의 책으로 묶으니,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기능을 상실한 한시를 지금에

되살린 것이 첫 번째 의미요, 대대로 이어온 집안의 문맥(文脈)을 이
은 것이 두 번째 의미며, 효성스런 자손들이 선대의 뜻을 이은 것이
세 번째 의미다.

역자가 부족한데도 두 분의 시집을 번역하게 된 것은 이 보기 드문
삼대 문집이 갖는 의미에 고무된 까닭이다. 직계손이신 변동걸(卞東
杰) 선생의 선대를 위하는 뜨거운 정성과 은사이신 박노준 선생님의
주선이 있었음을 특기해둔다. 부족한 부분은 스승이신 정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역자의
몫이다. 좋은 인연을 맺게 해준 여러 선생님들께 고개 숙여 깊이 감
사드린다. 오역(誤譯)으로 인해 두 분 선생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
며, 변문(卞門)의 문운(文運)이 더욱 창대해지기를 기원한다.

2011년 06월

역자 이홍식 삼가 적다

譯註 李弘湜

경남 함천 출생. 한양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조선후기 문장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홍길주의 꿈, 상상, 그리고 문학』이 있고, 옮긴 책으로 『상상의 정원』과 『호걸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공역) 등이 있다.

監修 鄭珉

충북 영동 출생. 한문학자. 문화가. 현재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시 미학 산책』,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로 한시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렸다. 한문학의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살아 있는 유용한 정보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 왔으며, 사회 문화사 전반으로 글쓰기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고전문장론과 연암 박지원』, 『미쳐야 미친다』, 『책 읽는 소리』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題字 陳永根

호는 空齋, 察地人. 대한민국 서예대전 우수상 등을 수상한 뒤 서예대전 심사위원, 한국서예협회이사, 한국전각학회 감사 등을 역임하였다. 詩, 書, 畫, 刻을 멋스럽고 호방하게 구사하는 작가이며, 수많은 전시회를 가졌다.

清溪幽香

2011년 7월 13일 초판 1쇄 펴냄

저 자 卞龍圭·卞鍾憲·卞溶

역 자 卞溶·李弘湜

감 수 鄭珉

발행인 卞東杰

제작 도서출판 보고사

등록 1990년 12월 13일 제6-0429호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7가 11번지 2층

전화 922-5120~1(편집), 922-2246(영업)

메일 kanapub3@chol.com

ISBN 978-89-8433-922-4 93810

〈비매품〉

